

「한반도비전포럼 2011」

“통일을 꿈꾸다”

비전大강연 소감문

이 책자의 내용은 통일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제 1 장 수 상 작

(가나다 순)

1. 그 어느 멋진 날 고우리	3
2. 한반도비전포럼 '비전대강연' 듣고 고병선	6
3. 한반도비전포럼 2011 - 비전대강연 청강 후기 김경준	9
4. 미리 본 미래, 독일 김유연	13
5. '비전대강연' 에 다녀와서 이돈희	16
6.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이은정	19
7. '비전대강연' 을 듣고 전은진	22

제 2 장 응 모 작

(가나다 순)

1. 비전대강연 참가 소감 강민지	27
2. '굿바이 레닌' 과 '태극기 휘날리며' 강수지	29
3. 한반도비전포럼 : 한반도 통일의 미리보기 강효연	33
4. 한반도 비전대강연 참가 소감문 경덕현	36
5. 한반도비전포럼 2011 비전대강연을 듣고 공혜림	39
6. 독일 통일 과정을 통해 바라본 한반도의 통일문제와 이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권소담	42
7. 이 시대의 여대생으로서 준비하는 통일 김가현	45
8.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통일된 독일> 연구의 필요성 김나래	48
9. 무궁무진한 미래를 향한 첫 도약 김다혜	51
10. 한반도비전포럼 2011 '비전대강연' 을 보고 와서... 김미리	54
11. 비전대강연 : 남북통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출발점 김마리나	57
12. 비전대강연 참가 소감문 김민주	60
13. 한반도비전포럼 2011 비전대강연 소감문 김민지	63
14. 북한학도로서 느끼는 통일에 대한 고찰 한반도비전포럼 2011을 다녀와서 김범	66
15. 한반도 주민을 위한 한반도 통일 김보현	69
16. 독일 통일을 통해 바라보는 남·북한 통일 김서영	72
17. 통일의 영향에 대한 새로운 시각 김수연	75
18. 한반도의 통일미래 비전(Visions for a unified Korea) 강연을 듣고... 준비와 용기, 그리고 하나의 마음 김영은	78

19. 두 시간 반 동안의 흥미로운 이야기, '비전大강연' 김예다.....	81
20.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Vision 대한민국 청년의 역할을 촉구하다 김주현	85
21. 함께 웃을 한반도의 그날을 기약하며... 김혜영	88
22. 다가올 통일한국의 미래, 그 꿈을 만지다 김효연	91
23. 통일에 대한 희망 - '한반도의 통일미래 비전' 강연을 듣고 노경민 ...	94
24. 통일의 여명을 기다리며 류다솔	97
25. 슈피겔 : 통일 대한민국을 위하여 류영현	101
26. 걱정은 숫자에 불과하다 박라경	104
27. 통일, 이제는 나의 문제 박보연	107
28. 한반도비전포럼 2011 '비전大강연' 을 다녀와서 박소영	110
29. 비전大강연 참가 소감문 박수빈	113
30. 한반도비전포럼 2011 소감문 박은실	116
31.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박의신	119
32. 한반도의 통일미래 비전에 대한 강연을 듣고서... 박주현	121
33. 독일의 통일을 통해 한국의 미래를 보다 박지혜	124
34. 비전大강연 참가 소감 변정연	127
35. 비전大강연 참가소감문 서승희	130
36. 통일은 갑자기 반드시 온다 손지윤.....	133
37. 한반도비전포럼 2011 비전大강연 참가후기 송다솜	135
38. 한반도비전포럼 2011 '비전大강연' 소감문 신희영	138
39. 남쪽의 바람이 북쪽에 꽃을 피워 심현규	141
40. 건강한 통일한국이 되기 위한 준비 양수연	144
41. 비전大강연을 듣고 난후 소감 엄재정	147
42. Unified Korea for All Nations 오은찬	150
43. 과거 독일 통일의 주역과 미래 한국통일 주역의 만남 오정현	153
44. 베를린 장벽 앞에서 고하는 통일의 소망 유수연	156
45. 한반도비전포럼 '비전大강연' - 단상 위에 앉아 얻은 생각들 윤소진.....	160
46. 한반도 통일을 고민하는 대학생에게 고함 이가람	163
47. 이루어질, 통일 이가영	166
48. 독일 통일에서 한반도의 통일로 이경민.....	168
49. 1990년 10월 3일, 역사의 그 날을 기다리며 이규리.....	171
50.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통일비전 이미한	175
51. 한반도의 통일미래 비전 그리고 여성의 역할 이민영.....	178
52. 높은 만족에서 행해짐 이세린	181
53. 우리는 통일 세대? 가 아닌 통일 세대!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수진.....	184

54. 한반도비전포럼 2011 강연 소감문 이시연	187
55. 비전대강연 참가 소감문 이예원	190
56.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통일에 대해 항상 준비된 자세로 현명하게 마주하기 이지민	192
57. Impossible = I'm possible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 이향진	194
58. 국민의 관심으로 이뤄낸 독일 통일 이현아	197
59.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한 경제학도의 참가 보고서 이해영	200
60. 한반도비전포럼 2011 강연 소감문 임고은	203
61. 비전대강연 참가 소감문 임흥식	205
62. 한반도비전포럼 참가소감 장선희	208
63. 말하면 통하게 되고, 통하면 소망하게 되고, 소망하면 하나가 된다 장양선	211
64. 통일을 위한 용기 전지영	214
65. 동족상잔(同族相戩)의 축배, 기울일 날을 염원하는 청춘의 고백(Go Back) 전해민	217
66. 비전대강연을 듣고 정송희	220
67. 독일의 통일을 통해 본 한반도 통일의 여건과 과제 정재업	223
68. 비전대강연 참가 소감 정정현	226
69. 독일 통일 경험으로부터 배운 우리가 갖춰야 할 통일의 기반 그리고 통일세대로 이어지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희망 정정혜	228
70. 비전대강연 참가 소감 정진현	231
71. Vision for a Unified Korea, a Unified World 정해영	234
72. To be Reunified or Not to be, That is NOT the Question 조문주	237
73. 한반도비전포럼 강연 감상문 조아혜	241
74. 비전대강연 참가 소감문 조은정	245
75. 이제는 우리가 '공존' 해야 할 시간 조은혜	248
76. 독일 통일 후 20여년, 2011의 한국 조주영	251
77. 소감문 조해니	253
78. '비전대강연' Dialogue with the World's Leaders 주세진	255
79.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은 비단 촛불만이 아니다! 지혜연	258
80. 한반도비전포럼 감상문 차현정	261
81. 한반도의 적기(適期)와 적시(適視) 채재원	264
82. 독일 통일의 행보를 통해 이끌어낸 한반도 통일 교훈 채재희	268
83. 발칙한 북한학도 최수지의 발칙한 상상 북한학도, 통일 디자이너를 꿈꾸다 최수지	270
84. 한반도의 통일미래 비전 강연 참가 소감 최지나	273

85. 한반도비전포럼 2011 '비전大강연' 소감문 | 한건희 276
 86. 비전大강연 참가 소감문 | 한아름 279

제 3 장 독일 통일현장 후기 (가나다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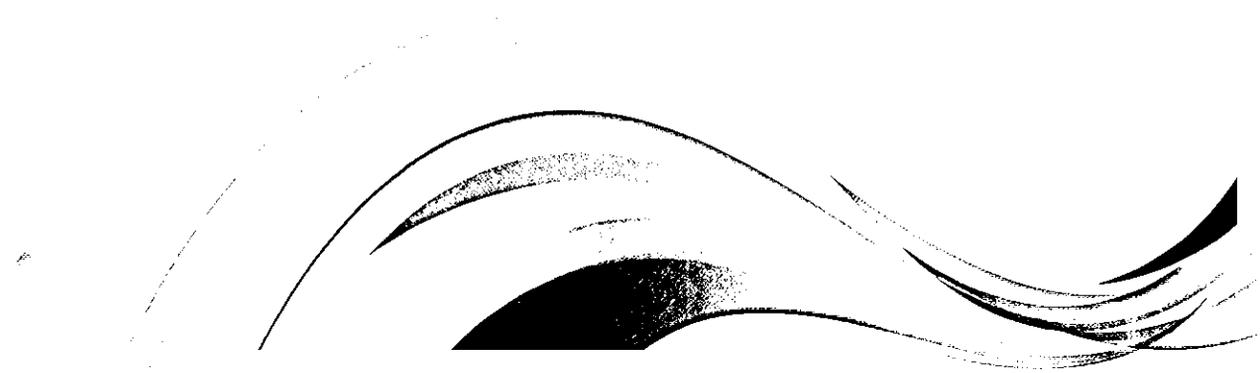
1. 독일 통일 연수 프로그램 소감문 | 고병선 285
 2. 통일,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 | 고우리 290
 3. 독일 통일 교육 연수를 다녀와서... | 김경준 294
 4. 통일 독일의 맥주향기가 한반도로 전파될 그 날을 기다리며 | 김유연... 304
 5. 2011년 12월 12일~18일 통일부 독일 연수 소감문 | 이돈희..... 310
 6. 통일된 한반도를 꿈꾸며.... | 이은정..... 320
 7. 독일 통일 연수 개인 보고서 | 전은진 327



•
비전大강연 소감문
•

①

수상작



그 어느 멋진 날

고우리

통일은 나에게 먼 이야기였다. 초등학교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인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교육을 받았지만 이는 '통일은 꼭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가르침만을 남긴 채 시간이 지나면서 통일에 대한 나의 관심은 멀어져만 갔다. 이 때문에 점차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한 나라가 아니라 두 개의 다른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리곤 진리와 같던 사실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통일을 꼭 해야만 하는가?

모든 사람이 말한다. 북한과 남한은 한 가족이기에 다시 만나야만 한다. 하지만 문제는 분단을 겪지 못한, 북한과 개인적으로 어떠한 관련도 없는 나에게 솔직히 북한이 가족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남한과 북한은 한 민족이기에 통일해야만 한다는 생각도 그렇다. 단일민족국가라는 자긍심은 다른 민족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며 다문화 사회, 글로벌 시대가 오자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되기 시작되었다. 현재 우리는 민족보다는 지구촌이라는 개념 아래 모든 지구인을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하여 비록 우리와 다른 민족일 지라도 나와 함께 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이처럼 현재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흐려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통일 해야만 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는 민족주의적 생각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마 세월이 지나 분단으로 인해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점차 줄어가면 통일을 해야 하는 이러한 민족주의적 이유에 대한 당위성 또한 점차 줄어들 것이다. 이처럼 나는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더 이상 확신하지 못하였고 이 의문을 해결할 어떠한 확고한 답안도 생각나지 않았기에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게 되었다. 사실 이 강연을 참가 하고 난 지금도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다'고 단언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 강연을 통해 나는 더 이상 이를 고민하지 않게 되었다. '통일은 해야 한다'에서 '통일은 될 것이다'로 나의 통일에 대한 기본 전제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즉, 나에게 통일이 이유가 필요 없는 당연한 사실이 된 것이다.

강연을 들으면서 놀란 점 하나가 나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바로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와 쉐봄 전 국방부 차관 모두 강연에서 통일이 왜 되어야 하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은 모두 독일 통일 그 이후의 상황만을 설명하였다. 즉, '독일이 통일을 하니 이런 것이 좋으니 남한과 북한도 통일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라는 식의 언급은 전혀 없었고(독일 통일 후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을 말하긴 하였으나 그것은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일 뿐이었다.) '통일을 이렇게 해나갔다' 는 통일 이후 그리고 통일에 대한 과정만을 설명하였다. 이들에게 통일은 당연한 것이었기에 오로지 '언제 통일이 될 것인가?' 라는 시기에 대한 논의만이 존재하였을 뿐 그 이유는 굳이 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다. 이를 드메지에르 총리의 '한국 사람들은 통일의 비용에 대해 너무 민감해 하는 것 같다.' 며 '북한의 경제력 때문에 통일에는 많은 비용이 드니 분단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는 일부 남한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독일인들의 모습은 통일 이후의 과정보다 통일의 당위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통일을 생각하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어쩌면 이들은 독일의 분단을 직접 겪고 통일되는 과정의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에 통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최소한 우리처럼 통일을 돈이나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이리 저리 재며 통일 후의 이익에만 관심 갖지 않았다는 점이 통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되었던 것 같다. 독일 통일에서 큰 역할을 하였던 동독 시민들은 서독과 통일 하였을 때 얻을 이익 때문에 통일을 이뤄내려 노력하지 않았다. 이들은 자유를 열망하였고 서독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남한과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북한은 독일 통일 당시의 동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면에서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문화적으로는 정부가 주민들이 외부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탄압하고, 경제적으로는 몇 년 째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여 식량난이 극에 달해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김정일에 의한 그의 아들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이 진행 중이다. 뭐 하나 성한 곳이 없는 만신창이인 북한이 그러나 최근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공산주의 체제를 표방하는 북한에서 자본주의체제의 산물인 시장이 들어서기 시작해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한의 화장품이나 옷이 시장에서 거래되기도 하며 음악이나 드라마와 같은 문화상품 또한 상류층을 중심으로 퍼져가고 있다. 탈북민이 증가하고 중국을 왕래하는 북한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그들 자신의 심각성을 점차 깨달아 가고 있다. 또한 3대에 걸쳐 세습되는 권력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권의 당위성을 부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태롭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주민을 억압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억압

을 받을수록 더욱 자유를 갈망하게 될 것이다. 동독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이 통일 독일에 시발점이 되었던 것처럼 한반도 역시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이 하나 된 한국을 만들어 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이때 남한이 이러한 북한 주민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않고 협력한다면 한반도도 통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로타 드메지에르 전 총리가 강연 중 독일 통일 당시를 회상하며 했던 말이다. 우리는 항상 통일이 언제 될 지에만 관심 갖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은 사실 이미 정해져 있다. 정답은 드메지에르 총리의 말처럼 그것은 언제일지 모른다는 것이다. 일제의 식민치하에서 벗어날 때가 언제일지는 몰랐지만 우리가 필연적으로 광복을 맞은 것처럼 통일은 필연적으로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통일의 역사적 필연성을 인정하고 다가올 그 어느 멋진 날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날이 와서 이 몸의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어 들쳐 매고 사람들의 행렬에 앞장서 만세 소리를 듣기만 한다면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도 여한이 없다’는 선인들의 광복에 대한 열망만큼 우리도 다가올 그 어느 멋진 날을 열망해야 하지 않을까.

한반도비전포럼 ‘비전대강연’ 듣고

고병선

초청강사로 오신 이흥구 전 총리는 과거 통일부의 전신인 국토통일원 재직 시절 ‘민족 공동체통일방안’을 주도적으로 제작하신 통일 분야의 전문가로서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와 요르크 쉐봄 전 베를린 내무장관은 독일 통일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들의 과감한 결단력이 지금의 독일 통일을 이끌었습니다. 21세기 마지막 분단국인 한국에서 세 분의 강의는 통일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들어야 될 강연이었습니다. 처음 통일부에서 상생기자단 자격으로 단상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연락에 꼭 가야된다는 생각과 함께 세 분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 설렘이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통일에 대한 의견이 충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우리 사회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서 열띤 논쟁을 했습니다. 저는 통일이 당연한 것이고 꼭 해야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경영학과, 법학과를 지원하지 않고 북한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한반도가 분단된 상황에서 통일이 당연히 이뤄질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통일에 이바지 하고 싶은 생각에 북한학과를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좋지 않았습니다. 통일세에 관해서 통일에 대한 회의감을 갖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로서는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올해로 분단된지 66년, 지금 우리사회는 북한에 대해 따뜻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 한민족으로써 지원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땅 어딘가에서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에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불평등한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세워진 국가이지만 스탈린의 개인우상화로 인해 변질되었습니다. 북한은 스탈린주의를 앞세워 국민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1700년대 후반 프랑스 대혁명, 1980년대 우리의 민주화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는 언제나 자유를 꿈꿨고, 자유를 얻기 위한 희생을 했습니다. 드메지에르 전 총리는 강의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심어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북한이탈 주민과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의 민주화 상황은 40℃ 정도"라고 인터뷰 내용을 설명해주셨습니다. 0℃에서 40℃를 만들기보다 40℃에서 100℃를 만드는 것이 시간이 덜 소요 됩니다. 100℃가 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자유'라는 것을 보편화시키기 위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더욱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자유와 보편화와 함께 우리는 내부에서 통일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비전은 '통일'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발전을 위해 제일 먼저 실행해야 되는 것을 꼽으라면 '통일'을 꼽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반도에서 '통일'을 빼놓고 발전을 논할 수 없습니다. 4천8백만 인구와 휴전선으로 막힌 한반도가 아닌 7천만 인구와 통일된 한반도에서 동아시아의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중심국가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강연에서도 말했듯이 독일은 급속하게 통합을 했지만 이전부터 조용하게 통일은 준비했습니다. 이홍구 전 총리님께서 하늘은 준비한 자한테 도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두고 보면 안타까운 현실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예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를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북한학과는 대학교에서 비전 없는 과로 인식되어 없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얼마 전 제1호 북한학과인 동국대 북한학과는 학교 측에서 일방적인 통보로 폐과되는 수순에 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가 폐과가 되면 2013년에 고려대만이 유일하게 학부과정에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젊은 사람들에 1992년도에 남북이 합의해 만든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 물어본다면 안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통일교육은 아직 토대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분단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해줘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현 상태에 당연함을 느끼고 통일을 염원하지 않는다면 이제 한반도는 영원히 통일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늦었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통일에 대한 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저도 처음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인프라가 전무한 북한지역에 도시를 다시 건설한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용과 정책적 지원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한 간 신뢰가 쌓인다면 당장의 손해가 아깝지 않습니다. 쉐본 전 베를린 내무장관은 동서독 군대 통합 때 동독군인들이 주장한 것에 대해 귀 기울이고 설사 잘못된 약속이라도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 잘못된 약

속을 들어줬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약속의 이행을 통해 동서독 믿음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로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는 마음을 굳건한 신뢰 속에서 통일로 지향해 가야 됩니다.

우리는 독일 통일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독일이 통일할 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비교 국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독일이라는 국가가 했던 방식을 따라 문제점을 보완하여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한다면 문제점을 최소화 한 상태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뛰어 넘어서 우리 전체가 북한 주민들을 감싸줘야 됩니다. 북한이 탈주민 23,000명 시대에 아직도 우리 사회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자유와 꿈을 앓고 한국에 들어왔지만 한국 사람들의 차가운 마음에 많은 실망을 합니다. 정치적, 법적, 경제적 통일이 이뤄져도 우리가 정신적으로 북한 주민을 하나의 민족이라고 생각 안하면 통일 후 문제점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서로 간에 이해와 존중을 통한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강의 시작 전에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될 시간이라고 드메지에르 총리께서 말씀하셨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머릿속에서 정리했습니다. 제 결론은 “통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결단력 있게 행동해야 된다.”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통일에 한 발짝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더욱 통일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통일에 대한 결단력이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통일을 외치면 통일을 한 발짝 더 다가올 것입니다.

한반도비전포럼 2011 - 비전대강연 청강 후기

김경준

통일. 누군가에는 막연하게만 들리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 단어 한 마디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를 것이다. 나는 역사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늘 통일을 갈망해왔지만 한편으론 통일이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었다.

지난 2011년 11월 18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된 ‘한반도비전포럼 2011 - 비전대강연’은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내게 큰 자극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품어왔던 의문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통일에 대해 막연하게만 생각해왔던 학생들에게도 이 강연은 통일에 대한 의지를 북돋아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내가 이번 강연을 기대했던 것은 우리처럼 분단국가에서 살면서 결국 통일을 이루어낸 독일의 원로들이 직접 참석하여 좌담회 형식으로 자신들의 통일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들려주고, 한반도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자신들의 경험에 빗대어 제시해준다는 것 때문이었다.

강연이 시작되고, 이화여대 김선욱 총장의 주도로 패널들의 발언이 이어졌는데 통일 전 동독의 마지막 총리를 지냈던 로타 드메지에르 전 총리의 강연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그는 “한반도 통일은 독일의 통일처럼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것보다는 통일을 어떻게 맞이해야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독일 통일 과정에서 드러난 아쉬움을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대로 나타냈다. 그러면서 독일이 어떻게 통일을 맞이하였으며, 통일 후 혼란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단계적 조치를 통해 독일이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 단계적 조치란 곧 지방 자치단체의 개혁, 새로운 주 구성, 사회통합과 같은 내적 혁신 외에도 ‘2+4조약(세계대전 연합국과 동서독이 맺은 조약)과 같은 외부 국가들과의 국제적 협의도 포함된 것이

었다. 드메지에르 전 총리는 앞서 독일 통일이 준비 없이 맞이하였다며 아쉬워하였지만 그가 강연 내내 역설하였던 통일 과정의 단계적 조치들과 같은 일련의 노력들은 분명 독일 역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한 과정을 거쳤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독일이 이런 준비 끝에 통일을 맞이하였음에도 그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통일을 맞았다고 아쉬워한 것은 그만큼 통일이란 문제가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독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진전된 논의를 통해 보다 완벽하고 철저하게 맞이해야 하는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요르크 쉐봄 전 내무장관의 강연이 이어졌다. 그는 퇴역 육군 중장 출신이자 국방부 차관 출신으로 무엇보다 자신이 겪은 통일 전후 군대의 개혁문제를 심도 있게 역설하였다. 통일 과정에서 동독 군인들은 통일이 되면 자신들의 직장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의(大義) 아래 한마음 한뜻이 되어 통일을 갈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역시 이러한 점을 준거 사례로 삼아야 할 것임을 역설하였다.

나는 쉐봄 전 장관의 통일 전후 군 문제를 가장 인상 깊게 새겨들었다. 사실 통일 과정에서 가장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가 바로 군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역사를 살펴봐도 군대라는 조직은 우리의 안보를 책임지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이지만,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 가장 위험할 수도 있는 집단이다. 군대의 이러한 문제점이 통일 과정에서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처리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특히 북한의 군대는 공산주의 체제, 김일성-김정일 독재체제에 세뇌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기에 통일 과정에서 가장 먼저 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쉐봄 전 장관의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군 문제 해결 경험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의 군대 처리 문제에 있어 훌륭한 준거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홍구 전 국무총리의 강연이 이어졌는데, 그는 한국의 지리적, 문화적 특수성을 강조하며 “우리는 패전국도 아니었는데 세계 열강의 다툼 속에 남과 북으로 억울하게 갈렸다. 통일의 문제는 민족적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다.”며 통일을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패널들의 강연이 끝나고 청강한 학생들과 패널들 간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학생들은 통일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통일비용 문제나 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개입이 있을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르메지에르 전 총리는 “통일비용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독일인들도 20년 전엔 무척 걱정했지만 지금은 모두 통일이 된 것에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홍구 전 총리 역시 “남, 북 군대가 서로

대치하며 군비를 확장하는 등의 분단 비용이 오히려 통일비용보다 더 만만찮게 들 수도 있다. 그리고 헤어진 가족 만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안 만날 수 있느냐?”며 날카로운 지적으로 통일비용 문제에 대한 논의를 매듭지었고 중국 개입설에 대해서도 “남북한이 모두 UN에 가입하여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고 한민족의 민족주의적 성향에 비춰볼 때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며 일축하였다.

강연을 모두 듣고 나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동독 시민들의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었는데, 동독 시민들이 서독의 미디어 매체를 공유하면서 동독의 불합리한 체제를 규탄하고 자유를 갈망했기에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 현재 북한은 김정일 정권에 의해 모든 것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폐쇄되어 북한 주민들의 집단적인 혁명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드메지에르 전 총리의 “자유를 갈망하는 것은 배고픔을 갈망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말처럼 북한 내부에서도 서서히 자유를 갈망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북한 정권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심해져, 집단적인 탈북이 이루어지는 한편 남한 미디어 매체를 비밀스럽게 공유하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듣고 있다.

이제 우리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정세 변동으로 ‘예기치 못한 통일’을 맞이할 수도 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맞는 통일은 어쩌면 더욱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독일 통일을 준거 사례로 삼아서 우리는 더욱 철저한 준비를 통해 통일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100년 전,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론」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이 힘을 합쳐 공동 군대, 공동 화폐를 창설하여 동양을 수호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한 안 의사의 ‘삼국동맹론’을 오늘날 남한과 북한에 대입하여 남과 북이 ‘연방 체제’를 결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자주적이고 완전한 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실제 EU(유럽연합)과 같은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사례로, 실현 불가능한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도 ‘고려연방공화국’과 같은 연방 체제에 대한 남과 북의 논의가 있었지만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무산된 것으로 기억한다. 이제야말로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남과 북 그리고 국제 사회의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강연이 모두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나의 어깨는 무겁기만 했다. “독일 통일 조약 당시 서명했던 만년필을 가져오는 감동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는 드메지에르 전 총리의 말이 떠올라 부럽기도 하면서 언제쯤 통일이 될 수 있을지 한탄스러웠다.

또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세대는 바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기에 과연 어떻게 통일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 지하는 고민과 책임감때문에 어깨가 무거워졌던 것이다.

우리 젊은이들은 앞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새로운 주역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훌륭한 강연에 많은 젊은이들이 참석하여 한반도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슴 속에 품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았으면 한다. 그리하여 반드시 우리 대에 한반도의 완전하고도 자주적인 통일을 이룩하여 더 이상 전쟁의 공포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5천년 역사를 이끌어온 선조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는 길이며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상들로 기억될 수 있는 길인 것이다.

미리 본 미래, 독일

김유연

흔히들 탈북자를 ‘먼저 온 미래’라고 부른다. 통일 후 겪게 될 남북 주민간의 사회통합 문제를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정착과정을 통해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한반도비전포럼 2011 비전大강연>에 참가한 뒤 나는 독일 통일 사례는 우리에게 ‘미리 본 미래’라는 생각이 들었다. 분단국의 통일사례는 베트남과 예멘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평화통일의 사례는 유일하게 독일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 21년 간 독일이 겪어 온 난제와 대처법들을 시금석으로 삼아 미래의 통일을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행운이다. 실제로 북한학계와 통일부 등 통일을 준비하는 연구기관 및 정부 부처에서 독일 통일 사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번 강연이 여타 독일 통일 관련 강연과 차별성을 가진 점은 동독의 마지막 총리 로타 드메지에르를 강사로 초청하여 독일 통일에 대한 동독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독일 통일 사례를 다룬 연구는 서독의 입장에서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우리나라는 서독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이고, 서독 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졌으며, 서독 지식인들의 연구 활동이 동독 지식인들의 것보다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헬무트 콜 총리의 리더십과 서독의 경제력에만 주목해왔지, 동독 주민들의 개혁 요구를 받아들인 한스 모드로 총리와 통일과정에서 동독의 주권을 포기해야 했던 드메지에르 총리의 용감한 역사적 결단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강연에서 드메지에르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서독이 아닌 동독 주민들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독일 통일은 서독에 의한 일방적인 ‘흡수통일’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을 의식해서 하는 말 같았다. 또한 그는 3.18 자유총선으로 기민당이 집권한 뒤 부여받은 독특한 임무, 즉 “가능한 한 너희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라.”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결코 심리적으로 간단하지 않았음을 증언했다. 그러나 그가 질의응답 시간에 말했듯이, ‘잘못된

정책을 다시 잘못된 정책으로 막지' 않기 위해 동독의 지도자들은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요르크 쉐븐 전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 내무장관의 강연 또한 우리가 남북통일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를 상기할 수 있게 해주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서독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통일을 주도했던 것처럼, 남북통일 과정에서도 결국 남한이 이니셔티브를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결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북한 주민과 지도층도 통일을 원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최근 통일세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통일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통일을 우리의 우월한 체제 속으로 북한 주민들을 편입시켜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느끼는 편견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북한 주민을 역사의 낙오자, 2등 국민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북한 주민은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요르크 쉐븐은 국가인민군 인수과정에서 “지금 당신들의 상사들로서 또한 당신들의 부하들로서 당신들에게 온 우리는 결코 승자로서 혹은 정복자로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독일인으로서 독일인에게 왔습니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다고 한다. 국가인민군에게 연방방위군이 그들이 교육받은 대로 “자본주의적 용병”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독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비로소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그의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우리 또한 승자나 정복자가 아닌,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에게 다가가는 자세로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의 실업 대책을 준비하고, 기업 및 토지 사유화 계획을 세우고, 과거청산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유일한 한국인 강사로 독일 통일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 언급한 이흥구 전 총리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것은 확실하지만, 차이점 역시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짚어주었다. 동독과 북한의 민주주의 경험, 경제발전 정도, 외부정보 접근성 등의 차이점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환경의 차이일 것이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분단의 명분이 있었으나, 한국은 역사적 명분 없이 강대국들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분단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통일과정에도 그대로 이어져 독일은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고, 주변 열강들을 안심시킴으로써 '2+4조약'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었지만, 한국은 여전히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통일 여부가 좌지우지 되고 있다. 특히 이흥구 전 총리는 동북아 국제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은 작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고, 미국은 '21세기는 태평양의 시대'라며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오고 있다. 러시아와 일본 역시 동북아 안보환경의 안정을 희망하며 남북통일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동독 국민들이 동쪽의 소련이 아닌 서쪽의 서독으로 가고자 했으며, 서독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 서독이 '10개항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이니셔티브를 쥐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시간에 드메지에르는 '2+4조약'과 6자회담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며, 유사한 과정의 일환일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이 통일문제에 있어서 양 독일의 자결권을 우선시하는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통일) 인지, 아닌지(Ob)"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Wie)"의 문제만을 주변국에게 결정하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충분히 북한 주민들과 통일할 능력이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동북아의 평화에 이바지할 것임을 끊임없이 어필하며 자결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북한 주민들을 역지사지의 자세에서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1989년 1월에만 해도 동독 정부가 '앞으로도 100년간 유지될 것이다'라며 자신만만했던 베를린 장벽이 불과 10개월 뒤인 11월 9일 권토 사보브스키의 '역사의 아름다운 선물'에 의해 붕괴되었던 것처럼 남북통일도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갑자기 주어질 수 있다. 흔히 얘기하는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이 그러한 경우가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급진적 통일이든, 점진적 통일이든 언젠가는 독일과 같이 북한 주민의 표로 북한체제 존속여부를 평가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 과연 북한 주민들은 '남조선'과의 통일을 원할 것인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왜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았느냐고, 차라리 중국에 병합되어 버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혹자가 말하듯 북한의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그 어느 분야에서도 한국이 북한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북한을 시한폭탄처럼 떠안고 찢찢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서독과 같이 '우리는 통일을 예상하고 대비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핑계 댈 수 없다. 우리에게도 능력도 있고, 모범 사례도 있다.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여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 우선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통일을 예상하고, 대비하여 독일 통일보다 좀 더 준비된 남북통일을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비전大강연’에 다녀와서

이돈희

페이스북을 하면서 통일부의 페이지에 ‘좋아요’를 클릭해 놓았던 나는 오랜만에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금요일에 있는 두 개의 수업은 그곳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다. 수업 때문에 못 간다는 댓글을 올려놓고선 체념하고 있었는데, 통일부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자분이 ‘이런 행사는 교수님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말과 함께 ‘수업 하루정도 빠질 만큼 좋은 행사’라는 말을 듣고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다. 한 수업은 야외수업으로 영화시청이 있고, 한 수업은 공강이었다. 아무리 보아도 이건 가라는 하늘의 명령(?)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어서 바로 신청했다.

강연에 참여하기까지 이러저런 일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통일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강했다. 죽어가는 북한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왔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친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다리에 박힌 총탄을 부끄러워하셨다. 그리고 항상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탄알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빠져 네가 가지고 있어라. 같은 민족이 총질하면서 싸운 부끄러운 흔적이니, 네가 언젠가는 그들이 너의 먼 친척이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구나.” 아쉽게도 총탄은 할아버지께서 가지고 가셨지만, 그 마음은 언제나 남아있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 비전大강연은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 독일의 마지막 총리를 역임하셨던 드메지에르 전 총리님과 통일 독일의 첫 국방부장관이었던 쉐븐 장관님께서 한국에 방문하셨다. 그 뿐 아니라 이홍구 전 국무총리님께서 함께 참석해 주시면서 강연에 대한 기대감은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었다. 이미 기립박수를 치지 말라고 하더라도 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강연은 한시도 눈을 땔 수 없도록 만들었다. 독일 통일 당시 최고의 자리에서 모든 전개과정을 알고 있는 드메지에르 전 총리께서는 독일 통일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말씀해주

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다. 이미 동독에서 당시 동독의 사회주의의 문제점이 터져 나오고 그로인해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었다는 것은 북한의 현재 상황을 북한 주민 자신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렇게 시작되었던 국민투표는 통일을 지향하는 당을 향했고, 그로 인해서 통일에 대한 염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통일의 염원에 힘입어 통일의 다섯 단계가 실시되었다. 다섯 단계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단계는 2+4조약이었다. 물론 이홍구 전 국무총리님께서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주체성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일의 여부는 우리가 결정하고, 통일의 방식을 타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 그것이 현재 한국에 가장 필요한 점이 아닐까 생각하게 만들었다.

웬봄 전 장관님도 역시나 많은 말씀을 해주셨다. 통일에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군사적 문제이다. 특별히 군사적 문제는 한 민족의 두 국가 간의 전쟁이 크게 있었던 한반도에서는 더더욱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군대에서는 오래전 북한을 주적이라는 생각으로 교육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웬봄 전 장관님은 그런 심각한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해주셨다. 물론 독일의 경우만을 말씀해주셨지만, 그것만으로 한국통일 이후 군대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서독군인들의 동독군인들에 대한 불신과 강제적 편입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셨다. 그것이 비록 전투복일지라도, 조금 불편함을 느낄지라도 하나의 군복으로 통일하였다. 그리고 하노버와 뮌헨의 사관학교 해체하는 결과도 얻을 수 있었다. 특별히 영어시험과 관련된 일화는 너무나 의미가 깊었다. 진실과 공정을 통해서, 즉 재정적 문제점이 생기더라도 신뢰를 우선시하는 웬봄 전 장관님의 태도는 통일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또한 마지막에 한국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한국 통일에도 군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들었다면 이홍구 전 국무총리님께서서는 독일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해주셨다. 전패국이었던 독일과 다르게 한국은 해방이 되었는데도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즉 역사의 희생자라고 말씀해주셨다. 또한 강력한 독일의 힘과 다르게, 한국은 주변 3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작은 나라라고 말씀하셨다. 독일의 통일이 갑작스럽게 온 것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역사의 우연성 속에서 찾아오는 통일을 잡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함을 말씀해주셨다. 우리에게도 88년도에 통일의 열기가 뜨거워 졌던 일이 있었고, 그 당시 통일 공청회를 통해서 89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준비했음을 말씀해주셨다. 이것은 합의적 통일 준비에

대한 큰 발걸음이라고 강조하시기도 하셨다. 우리가 이러한 통일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큰소리를 내기보다는 작게 작게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과 통일에 있어서는 국내 문제, 주변 4국과 문제, 세계적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삼중 복합 구조 그물망’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의 말씀은 우리나라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어졌지만, 나에게 크게 다가왔던 것은 하나였다. 통일에 드는 ‘돈’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였다. 통일에 대한 투자는 통일 이후에 건설될 사회 인프라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았다. 특별히 통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가장 좋은 통일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연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 개인적으로 재미있었던 것은 쉐봄 전 장관님이 통일이 되어서 괴테의 고향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한다는 것이, 김소월 시인의 고향에서 그의 자취를 느끼고 싶은 나와 마음이 같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너무나도 좋은 강연이었다. 독일 통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강연 이후 친구들에게 독일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현재 한반도 통일의 위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나온 결론은 지금의 한반도와 당시 독일의 상황은 너무나도 다르지만,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년들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움직여서 함께 통일에 대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어르신들의 고향을 잃고 가족을 잃은 아픔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가장 합리적인 통일의 방안을, 모두가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통일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88년도의 그날처럼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

독일에 간다면 하나 인터뷰자료를 만들고 싶다. “통일이 되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으세요?”라는 질문을 각각 계층마다 한번 씩 물어보는 인터뷰자료를 만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통일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함께 감사다

이은정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이 뭐냐?”

얼마 전 누군가가 내게 한 질문인데, 이 때 나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망설임 없이 대답했었다. “돌고래랑 수영하기, 학교를 설립해서 ‘사람’ 키우기, 그리고 통... 일을 목격하는 것” 그런데 ‘통일’을 말하는 순간 내 목이 매는 바람에 나는 적잖게 당황했다. 예전에 비해 감정이 무더져서 웬만한 슬픈 영화에도 눈물 한 번 흘리지 않는 내가 ‘통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눈시울부터 붉어지는 것을 도대체 무어라 설명할 수 있을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너무나 간절한 소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내가 학교에서 개최되었던 한반도비전포럼에 참석하게 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를 비롯해 요르크 쉰봄 내무 장관,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 큰 인물들이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에 내가 참석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할 따름이다. 독일에서 오신 두 분은 독일 통일의 모든 과정을 현장에서 목격했을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터라 그 누구보다도 독일의 통일 과정을 생생하게 전해 줄 수 있는 인물들이었다. 또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한국과 독일의 역사적 흐름, 국제 정세에 대한 비교를 명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알려주었고, 또 우리나라가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해줌으로써 참석자들에게 통일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고자 하셨다.

먼저 로타 드메지에르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독일 통일이 동독 시민들의 자유를 향한 갈망과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으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통일이 양국의 지도층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민중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나에게 큰 도전을 주었던 것이다. 또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 취

했던 일련의 조치들(지방 자치단체의 개혁, 새로운 주의 구성, 경제·화폐·사회 통합, 통일된 각종 조약의 규정, 4개 연합국들과 동서독의 2+4조약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어서 마치 통일의 전 과정을 현장에서 보는 것 같았다.

강연을 통해 통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는데, 나는 정부의 구성과 법체제의 정비 등 외형적 통합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내부 사회 통합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강연을 통해서 알게 된 다소 놀라운 점은 경제적으로 훨씬 우월했던 서독이 오히려 그렇지 못한 동독인들의 자긍심을 세워주고 그들의 우수한 인적 능력을 인정해주려고 했다는 점이었다. 그렇다면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는 한 민족임이 분명하지만 분단 이후 60여년의 세월동안 너무나 다른 경제, 사회, 문화, 정치체제에 길들여져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남한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북한 탈북 주민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여러 차별이 지금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실제로 나도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만난 경험이 여러 번 있는데, 편견이 없다고 생각했던 나조차 그들의 태도와 모습에서 뜻하지 않은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을 떨칠 수 없었다. 반대로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탈북해서 한국의 어느 대학에 다니는 한 청년이, 소위 우리나라의 명문 대학 학생들의 지적인 수준과 지식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형편없어서 놀랐다고 말한 것을 들은 적도 있다. 그러하기에 나는 이 통합의 문제 즉, 어떻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고용의 문제와 교육의 문제로도 연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갑게도 나는 요르크 쉐봄 전 내무 장관의 강연 내용 중에서 통합과 관련된 좋은 사례를 알게 되었다. 통합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군대의 통합인데 이 '하나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 동독, 서독의 두 나라의 군인들로 하여금 일제히 같은 연방방위군 군복을 입도록 한 점이다. 이것은 통합을 위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기본 이념을 만들어서 군인들에게 주지시키고 상호 협력을 이끌어 낸 점도 매우 적절한 시도였다고 본다. 요르크 쉐봄님은 군 통합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진실하고 공정함을 통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었다고 이야기 했는데, 사회 통합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이 최우선 원칙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도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할 텐데 독일의 통일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일종의 통일 실전 교과서를 갖게 된 셈이니 그 얼마나 다행인가! 게다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을 맞이했던 독일도 2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잘 해나가고 있는데 더 충실하고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는 독일보다 더욱 성공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

다고 확신한다.

나는 독일 통일 사례를 참고하는 것에 더하여 조심스럽게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다. 즉, 통일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 등지에 흩어져 있는 수 백 만의 동포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여름 ‘동북아 평화 발걸음’을 통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갖게 된 소망인데 그 때 함께 여행을 했던 우리 일행은 도쿄의 한 조선 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조선 학교는 해방 전에 강제 징용이나 여러 이유들로 인해 일본에 온 조선 사람들이 해방 후에 조국으로 가지 않고 일본에 살면서 그 후세들의 교육을 위해 세운 학교이다. 해방 직후,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들을 외면한 한국 정부와는 달리 북한은 민족교육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이들에게 물질적 원조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조선학교들은 북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교육을 통해서 민족의 얼을 지켜왔다. 그러나 최근 몇십년 동안 급속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된 북한으로부터 지원이 끊어졌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렵게 된 조선 학교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따라서 많은 조선적 아이들이 일본 학교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부의 한인 동포들은 민족의 얼을 이어가기 위해 비싼 수업료를 부담하고서라도 그들의 자녀들을 조선 학교에 보내 교육 시키고 있다.

학교를 방문했을 때,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도 없는 열악한 교실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보여 준 맑고 순수한 미소와, 그들이 연주하고 보여준 음악과 무용을 통해 나는 간접적으로 북한을, 아니 하나의 나라였던 분단 이전의 조선을 가슴 아프게 느낄 수 있었다. 이 아이들이야 말로 북한과 남한이 원래 하나였음을 보여주는 숨겨진 보물과도 같은 존재들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정부가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투자 및 교류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으면 한다. 우리의 지원으로 이들이 교육을 받고 각 분야의 지도층으로 성장하면 외교적으로도 통일의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을 대비하는 한반도의 내부에도 정서적, 문화적 통합을 이끌어 내는데 훌륭한 몫을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전 포럼을 통해 너무 생동감 있게 독일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일까? 강연회 내내 나는 우리나라의 통일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스쳐가는 사람들 (엄마에게 재잘거리는 아이들, 스마트폰에 몰두한 대학생, 머리 희끗한 할아버지, 중년의 아주머니들)을 하나하나 애정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며 나는 뜨거운 마음으로 나직이 외쳤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가요!”

‘비전大강연’ 을 듣고

전은진

로타 드메지에르 전 총리님께서 ‘라인강’ 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 행복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요르크 쉐봄 전 내무장관님께서 ‘바이마르’ 를 보면서 같은 감정을 느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마음이 찡했다. 2시간이란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질 정도로 강의는 매우 흥미로웠다. 사실 독일이 분단된 국가였다가 ‘통일’ 되었다는 것은 예전부터 배워왔고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실제로 마음에 와닿거나 진지하게 그 과정에 대해 고민해본 적은 별로 없었는데 독일 통일을 직접 이뤄내신 분들을 직접 뵙고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벅차올랐다. 그리고 우리의 통일도 이뤄졌으면 좋겠지만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강했었는데 정말 우리도 통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과 자신감이 들었고, 이 과정을 좀 더 탄탄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를 느낄 수 있었다.

강의에서 매우 인상 깊었던 몇 가지를 꼽아보면 첫째는 ‘시민’ 이 만들어낸 통일이라는 점이였다. 로타 드메지에르 전 총리님께서 독일의 통일이 평화적 혁명으로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스스로 변화한 동독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매우 놀라웠다. 그러면서 ‘자유’ 를 향한 갈망은 배고픔에 대한 갈망보다 더 우위에 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자유에 너무 익숙한 나에게는 새롭게 느껴졌다. 그렇다면 북한도 과연 북한 시민들에 의한 자발적인 혁명을 통한 민주화가 가능할까? 동독 시민들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듯이 북한 시민들이 38선을 무너뜨리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하지만 북한에서 저런 일들이 가능하려면 일단 독일의 상황에서처럼 주변적 상황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당시 독일에서는 구소련 국가들의 민주화 바람을 타고 독일 시민들 또한 자유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되고 이것이 시민들 사이에 사회적으로 암묵적인 합의를 만들고 이에 따라 민주화가 된 측면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 또한 자유에 대한 갈망이 시민들 사이에서 공유되어야 자발적인 민주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남한에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이고 좋은 가치인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서 이를 얻고자 투쟁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도와줘야할 것이다. 하지만 내 생각엔 현재 북한에서 내려오는 탈북민들 대다수의 동기가 경제적 빈곤인 것으로 볼 때, 지금 현 북한 상태에서는 '자유'를 향한 갈망보다는 '생존 그 자체'에 대한 갈망이 더 큰 것 같다. 그렇기에 당장 시민들에 의한 자발적 민주화 혁명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만약 혁명의 가능성이 있다면 경제적 이유로 인한 폭동이 더 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시민들 사이에 '자유와 민주'에 대한 가치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고 인도적 사업들을 함께 해나가면서 '민주 국가'인 남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호의적 감정을 높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인상 깊었던 것 중에서 두 번째는 로타 드메지에르 총리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신 '공동 책임감'이다. 사실 내가 우리의 통일에 대해 생각해보았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공동 책임감'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더욱 집중해서 듣게 되었다. 오늘날 '통일'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부분은 '돈'과 관련된 부분이다. 즉 '통일=돈'이라는 수식 관계가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통일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람들의 의견이 움직이고 있다.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분단 이전의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였던 시절을 기억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부터도 북한과 남한이 하나의 나라였던 사실이 잘 상상되지 않고, '하나의 나라'였던 사실은 배웠지만 현실에서는 서로의 이질적인 모습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당연히 생각하고 이에 대해 '공동책임감'을 갖기 보다는 세계에서 북한이 나쁜 국가로 보여지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이들에게 아까운 돈만 들어간다는 인식이 한국 국민,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통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 시민들 사이에서의 '공동책임감' 또한 중요하지만 남한의 국민들 사이에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로타 드메지에르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연대감의 교량'을 놓아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북한과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었고 우리는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한다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일비용'에 대해서 매우 큰 걱정을 하는데, 통일비용이 우리의 걱정만큼 크지 않을 것임을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인식시

켜줌으로써 이에 대한 걱정을 감소시켜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경제적 비용'이 단기적으로는 많이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이익이 있음을 잘 홍보해서 '통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셋째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님께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말씀하셨던 '통일 정책의 연속성' 문제이다. 우리나라 정치의 큰 문제 중 하나는 대통령이 바뀌면서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전 행정부 수장이 대부분 다 교체되면서 정책의 연속성을 잃고 오히려 전 정부와는 다른 입장의 정책으로 순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다른 부분에서도 이 문제는 큰 영향을 주지만, 통일 정책에서는 '정책의 연속성' 문제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통일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거시적인 시각에서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님께서 그래도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는 동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통일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갖고 다른 정치적 사안과는 별개를 지속적으로 정책을 진행시켜야 '통일'에 다가가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언제, 어떻게, 어떤 이유로 통일이 한반도에 오게 될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통일'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이 물론 단계적인 절차를 따라서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독일의 예에서 보듯이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올 가능성도 매우 크다. 과거 동독과 서독은 어느 정도 왕래도 가능하였고 지금의 남한과 북한보다는 이질성이 적었지만 예고 없던 통일에 독일도 당시 큰 위기를 맞았었고, 요르크 쉐봄 전 장관님께서도 당시 좀 더 통일에 대한 사향을 낙관적으로 보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말씀하셨다. 이를 보면 만약 우리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통일이 되었다면 어떤 상황이 올까? 확실한 건 독일보다는 훨씬 큰 혼돈에 휩싸일 것이고, 너무나도 다른 현재의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는데도 매우 긴 진통을 겪어야 할 것이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 '예고 없는' 통일보다는 '마음의 준비를 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우선 남한과 북한 국민들 사이에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문화적인 접촉부터 시작해 합의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주위 여러 나라와도 협의하되 그 주도권은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준비를 바탕으로 조만간 평양의 창광거리를 걸을 날이 오길 바란다.



○
비전大강연 소감문
○

②

응 모 작



비전大강연 참가 소감

강민지

분단의 아픔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세대에 태어나 통일의 간절함이나 염원에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한 경각심을 한 번 일깨울 수 있는 강연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충분히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 가를 생각해 볼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1년간,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일컬어지는 여러 상황을 직, 간접적으로 보고 나서야 비로소 북한과 남한으로 분단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독일이 통일을 위해서 준비한 여러 과정들을 연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바로는, 아주 체계적이고 하나의 통일이라는 것을 위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해온 것 같아 참으로 놀랐습니다. 반드시 통일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던 분명한 어떤 것이 보였기에, 부럽기도 하면서 우리의 통일은 왜 쉽지 않은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가 원하는 하나의 목표가 과연 "통일"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기억 속에 통일은 바라지만, 하나의 공통된 목표가 아니라면 시간은 참으로 오래 걸릴 것이고, 그 기간을 합한 비용들도 갈수록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50년이 더 지난다면, 전쟁의 아픔을 갖고 있던 세대들도 많이 없어지고 나면, 더욱 더 힘이 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저로서는, 앞으로 학생들에게 '통일'에 관하여 어떤 마음가짐이나 어떤 태도로써 대하도록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독일의 학생들은 분단된 역사를 잘 이해하고, 통일된 지금을 참 감사히 느낀다는 것에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 학생들의 이전의 세대가 잘 설명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 점에서도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올바른 이해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

니다. 아픔을 가진 우리의 역사가 통일이라는 하나의 염원이 모두의 당연한 목표로서 인식되어, 분단의 아픔이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건강해야 그 위에 살아가는堂堂한 국민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흥구 전 국무총리님의 마지막 말씀에서, 하나하나의 개개인이 통일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통일의 가장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단된 우리의 역사의 한 부분이 통일로 인해서 아픔의 치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굿바이 레닌’ 과 ‘태극기 휘날리며’

강수지

북한과 통일에 대한 나의 관심은 전두환 대통령 때 이후 몇 십 년 만에 이루어졌던 김대중 대통령 때의 이산가족상봉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내가 초등학교 때 까지만 해도 불온선전물 수거함이 학교에 비치되어 있었고 항상 통일안보포스터를 그리며 북한 사람들은 빨간색의 화난 얼굴을 하고 있던 사람들로 그리던 기억이 난다. 북한의 굶어 죽는 사람들과 북한의 지도부(화난 얼굴로 묘사되던)는 어린 나로서는 도저히 같은 나라 사람으로 동일시되질 않았다. 첫 이산가족상봉이 TV로 생중계될 때 TV속 반세기만에 만난 가족들도 중계를 하는 아나운서도 모두들 울었고, 그 장면을 함께 지켜보던 우리가족도(심지어 북한에 가족도 없으면서) 함께 울었던 기억이 난다. 아프리카의 인종도 문화도 언어도 전혀 다른 나라들도 돕는 우리가 같은 언어와 문화와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을 너무 모른 채하며, 적대적으로 대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사실 일반 주민들은 아무런 힘도 없는데 말이다. 그렇게 이산가족상봉이 몇 차례 반복되고 처음의 그 감동도 조금은 시들 무렵인 고등학교 1학년 때 금강산 관광을 가게 되었다. 그 때 한참 흥행하던 ‘태극기 휘날리며’와 ‘실미도’ 영화를 보았고 버스로 금강산까지 가며 우리는 사전에 북한에 가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군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차례 교육을 받았다. 금강산의 아름다운 절경 곳곳에 붉은 글씨로 쓰여 있던 선전문구와 처음 듣는 북한 사람의 말투, 딱딱한 군인들의 표정, 달리로 물건을 사고파는 모습, 호칭 없이 ‘김정일’이라고 말했던 친구가 30분 동안 북한인 가이드에게 꾸중을 들었던 것들. 북한 주민들이 다니는 길과 숙소와 관광기념품판매소까지를 이어주는 길이 교차하는 지점에는 4명의 군인과 과거 아주 옛날 사진으로만 보던 한국의 시골 농촌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지나가고 있었다. 그 이후 도라산역 완공, 개성공단 등 활발한 교류를 보이던 남북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로 급격한 하강의 길에 들어서고 심지어 군사적 충돌마저

일어나며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다소 변덕스럽고 급격한 태도 변화에는 내부 불안정의 역설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이 죽으면 통일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던 반응은 김정은이라는 후계자의 등장으로 다시 의견이 갈리고 있다. 그런데,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그렇게 남의 나라 얘기 하듯이 하는 전문가들을 보며 나는 통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작년 강화도 판문점 전학을 갔다. 북한군과 남한 군이 유일하게 얼굴을 맞대고 있는 그 곳에서, 또 다시 분단을 실감했다. 그곳에서 과거 북한의 정부에서 일했던 탈북자 분의 강연을 듣고, 새삼 모두 똑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이번 독일 통일의 산 증인 두 분이 한국에서 독일 통일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음속에서 표현할 수 없는 벽찬 감정이 느껴졌다. 어쩌면 독일처럼 한국의 통일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지도 모른다. 물론 어떠한 형태로 방법으로 찾아올 지조차 예상만 할 뿐 확신할 수 없다. 사람들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지,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실제로 드메지에르 전 동독총리와 쉰봄 전 베를린 내무장관이 말했던 것처럼 독일 통일의 과정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시킬 순 없겠지만 통일된 한국을 대비하고 예상하는 청사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포럼은 독일의 통일과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준 강연이었다. 독일의 이런 통일 과정을 바탕으로 한국의 통일과 관련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려고 하였다. 독일과 한국은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분단이라는 아픈 경험을 하게 된 나라들이다. 패전국인 독일은 어쩌면 마땅히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은 패전국의 식민지였다는 이유로 또 다시 연합국의 수중에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게 되었다. 어쩌면 민족 간 이데올로기 격차가 극단적으로 양분되어 이미 한민족 간의 분열이 이러한 분단을 더욱 부추겼을 수도 있다. 그렇게 미국과 소련 두 축의 냉전체제 위에 한국의 분단은 고착화되어 갔고, 미국과 소련만의 냉전(冷戰)이었지 그 냉전의 형태는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열전(熱戰)으로 나타났다. 독일 분단 후 동독은 사회주의에 못사는 나라였지만, 분단 후 북한은 사회주의에 남한보다 잘사는 나라였다. 구동독의 사람들은 굶주림 해소와 자유를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분단 직후 북한은 남한보다 풍부한 자원과 산업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아직 사회주의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다. 오히려 남한이 열악한 사회자본과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았었다. 그리고 남북한 모두 그 혼란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독재가 나타났다. 드메지에르 전 총리는 굶주림보다 강한 자유를 향한 열망이 중요하다고 하며 북한 주민들이 용기를 낼 시기라고 말했지만, 종교의 자유도 시장경제도 허락되지 않는 북한에서 구심점이 될 만한 것을 찾기는 어려웠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66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분단 이전의 한

국을 기억하는 사람은 10%밖에 없다. 심지어 통일의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통일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꼭 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분단 이전의 한국을 기억하는 10% 사람들마저 사라지면 더 어려워 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근세를 지나 근대, 현대로 갈수록 답답함에 힘들어진다. 항상 침략을 당하기만 하고 우리나라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역사에 슬픔을 느낀다. 우리나라와 독일은 처한 상황이 아주 현저하게 다르다. 패전국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또 다시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되고,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역사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하고 있다. 중국도 북한을 옆에 끼고 동북공정이라는 역사왜곡뿐만 아니라, 백두산의 영유권 주장까지 말이다. 여전히 한국의 역사는 주변국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 또한 통일 자체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는 강압적인 북한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아직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향한 움직임을 보이기 어렵고, 북한 정부가 남한 정부에 적대적일 뿐만 아니라 정권 유지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또한 적대적으로 생각하며 중국만을 북한의 우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의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이 의사소통을 하는 것조차 어렵다.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중국, 그리고 중국과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 사이의 또 다른 세력 경쟁으로 결국 남한과 북한은 또 다시 다른 나라들의 세력 싸움에 휘말리게 된 꼴이다. 과거 분단 당시의 상황이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것이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때문에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딛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로 후퇴하기도 한다.

한국 통일을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당사국 간의 소통이다. 특히 당사국 간의 같은 목표와 의지와 소통은 그 어느 제 3자의 나라들보다 중요하다. 독일의 완전한 주권 회복을 위한 회담에서 4+2가 아닌 2+4를 관철시킨 것은 독일의 문제에 관해서는 양 독일이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6자회담은 북한 하나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그 밖의(한국 포함)나라들이 참여하는 형태처럼 보인다. 물론 북한 정부가 한국에 적대적이라는 점이 남한의 의지와 상관없이 통일을 위한 대화에 큰 장애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를 극복하고 두 나라가 대화 해서 통일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노력과 더불어 단계적으로 교류를 넓혀나가야 한다. 지금까지(후퇴는 있었지만)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건설, 도라산역 완공 등 의미 있는 성과들이 많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에 맞서 함께 역사연구를 한다거나, 다른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

다. 사람들 중에는 통일이 되면 대통령은 누가 하느냐고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통일이 된다고 해서 바로 단일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통일되기 이전에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여행하는 것처럼 북한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수준으로 하는 것도 좋고 연방정부의 형태로 상당기간 자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꼭 통일이 단 하나의 무언가로 합쳐지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각각의 가능성에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부담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구동독 대 구 서독의 인구비율이 1:4임에도 불구하고 세금부담으로 인한 갈등이 컸었는데, 한국의 경우는 약 1:2의 비율로 개인의 세금부담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인도적, 민족적 차원에서 통일에 찬성했다 하더라도 막상 현실로 닥쳐왔을 때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하지만 국방비에 국가 재정의 약 9%(2011년 전체예산의 9.8%)를 쓰는 남한의 분단비용과 통일을 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적절한 시기를 택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통일부 정책기획과에 따르면 독일이 들인 통일비용은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약 2조 유로가 들었다고 한다. 한국은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드메지에르 전 총리는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럼 지금 한국의 기회는 언제 어떤 경우 일까? 기회는 언제 어떤 형태로 찾아올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포럼에 참석해 독일의 통일과정을 듣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한국의 통일은 멀게만 느껴졌지만 말이다. 김정일이 죽은 후 일 수도 있지만, 김정은이 물러난 후 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기회의 순간은 또 다시 위기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 그 때 우리나라가 한국의 통일을 위한 주도적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여러 시나리오에 바탕을 둔 대응책이 필요하다. 시기를 놓친 대응은 또 다른 고통의 세월을 낳을 것이다. 통일은 그렇게 멀지도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 어느 시기에 갑자기 우리를 찾아올지도 모른다. 많은 경제적 비용과 아직 남아있는 동독과 서독 간의 차이들은 통일된 독일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하고 있는 과제이지만, 그 결과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 1988년 까지 독일에서 유학 할 때만 해도 전혀 통일의 기운을 느끼지 못했다는 김선욱 총장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다. 분명히 독일의 통일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통일을 이루어 낸 독일 사람들의 생각과 역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그들의 생활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다면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는 정치외교학도로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한반도비전포럼 : 한반도 통일의 미리보기

강호연

평소에 통일에 관심이 많아 여러 강연과 세미나를 다녔다. 그러나 이번 한반도비전포럼만큼 특별한 세미나는 없었다. 특히 통일 과정을 직접 경험한 동독 측 인사(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와 서독 측 인사(요르크 쉐봄 전 내무장관)를 함께 초청한 강연진 구성은 이번 강연이 방대한 스케일과 균형 잡힌 구성을 갖추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통일의 최전선에서 일했던 내국인 인사(이흥구 전 총리)를 함께 초청하여 '독일의 통일'이 아닌 '우리의 통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적용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더욱 유의한 시간이었다. 또한 단순하게 일방적인 강연이 아닌 '대화'라는 쌍방향 소통을 통해 강연의 내용이 더욱 가깝고 친근하게 와 닿았다. 이 포럼을 통해 통일에 관해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느낄 수 있었다.

첫째, 통일 과정에서 시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기쁨과 감격으로 동독의 통일과정을 이야기하던 로타 드메지에르 전 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스탈린 독재주의에 맞서서 자유를 향한 시민들의 갈망이 결국 독일의 통일을 일구어 냈다. 그리고 그러한 통일 과정에서 시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고 '사회적 연대감'이 그 밑바탕이 되었다." 또한 요르크 쉐봄 전 내무 장관은 서독에서도 언론과 문화교류와 같은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결국 통일이라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고 언급했다. 사실 독일 통일은 시작부터 끝까지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참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모든 내용은 통일같이 커다란 담론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던 안일한 시민 의식에 커다란 충격을 줬다.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참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 또한 동독의 통일과정에서 시민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처럼 현재 독재 체제 아래에 있는 북한의 변화도 결국 시민들이 변화의 주체가 될 것임을 미리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민간 차원에서 언론과 문화교류 등 통일을

위한 더욱 활발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민주의를 함양하고 시민들의 참여 정신을 고취시켜 통일을 위한 노력이 저변에서 더욱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 과정에는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과정의 준비가 필요하다. 요르크 쉘봄 전 내무 장관은 통일 독일의 군사 개편과 통합 과정에 관하여 자세하게 말해 주었다. 서로 대치하고 있던 군인을 통합하고 해체시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평화' 라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군비 축소' 라는 실제적인 계획을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갔다. 또한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도 동독의 민주화와 정치 통합 과정을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도 '민주화' 라는 방향과 '자유선거' 라는 실제적인 프로세스와 체계적인 5단계별 준비가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칭했다. 이처럼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이 결국 '군 통합' 과 '정치 통합' 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도 통일 과정에 대해서 가능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고 그 방향과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현재에도 '정치, 경제, 문화' 영역에서 통일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군비축소, 지방자치' 와 같은 보다 구체적인 방향에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통일 과정에 있어서 어느 한쪽도 불공정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태가 없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 어느 쪽이라도 '기득권' 을 포기하고 공동의 이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 의식과 '민족의식' 이 갖춰져야 함을 느낄 수 있었다.

셋째, 외교 관계에서 자주 통일의 의지가 나타나야 한다. 드메지에르 전 총리는 외교 정책에 관해서 4+2의 원칙을 통일 과정에서 2+4가 되도록 투쟁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독일 통일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4개의 국가보다 통일의 당사자인 양 독일 국가의 양 국민들의 자결권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독일은 4개 승전국들을 전후 질서 당시의 조약상황에서 필연적이라고 입증되는 정도에서만 협의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외교 정책을 이끌어 갔다. 이러한 과정은 물론 쉽지 않았다. 게다가 독일은 전쟁 주범으로서 다른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패전국이라는 점에서 더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독일은 결국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외교 관계에서 자결권을 회복하고 자주적인 통일을 이뤄냈다.

한편, 우리는 독일보다 더 나은 상황 가운데 있다. 이홍구 전 총리는 독일은 패전국의 입장이지만 우리는 사실상 승전국의 입장에서 있다고 언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국가들도 독일처럼 우리나라의 주권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

다고 하였다. 물론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나라의 외교 관계가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측면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통일을 교훈으로 삼아 남과 북 양측이 보다 자주 통일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러한 자주 통일의 의지와 정신이 지속적으로 외교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이번 ‘한반도비전포럼 2011’을 통하여 통일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분단된 조국의 현실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세대의 국가의식에 관하여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통일문제에 관해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국가의 방향과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세대보다 높다. 문제는 ‘취업’이라는 현실 속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이러한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반도비전포럼 2011’은 성공적으로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대학이라는 마당에서 양질의 포럼을 통하여 나와 같은 젊은 세대에게 다시 한 번 성숙한 ‘공동체 의식’과 ‘민족의식’을 일깨워 줬다.

마지막으로 드메지에르 전 총리님께 질문을 던졌다. “셴봄 장관님은 통일이 돼서 가장 좋은 점이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통일이 돼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는 통일된 조국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단순한 대답에 웬지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 졌다. 통일된 조국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어떤 기분과 감정일까? 다 알 수 없겠지만 이번 포럼을 통해 조금이나마 그 모습을 미리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너무나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강연자 분들과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반도 비전大강연 참가 소감문

경덕현

먼저 한반도비전포럼에 참석하게 되었고, 지금 이 시간 글을 써보는 것 자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님, 이흥구 전 국무총리,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 요르크 쉐봄 전 베를린 내무장관님의 만남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독일어 원문과, 번역문, 그리고 소리 한자 한자에 귀를 기울이며 강연을 듣고, 또 수많은 청년들로부터 나온 질문을 굉장히 자세히 답변해주며 화기애애했던 지난 금요일의 시간들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잊을 수 없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반도비전포럼에 참여하게 된 사연을 이 글을 쓰는 제 자신의 경험을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05~2008년까지 노원구에 있는 한국성서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사회복지학과의 교수님 그리고 총장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행복하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세상에 나가 빛을 비추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학교의 모토인 '밀알정신'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는 사회복지인력이 될 수 있도록 교수님과 총장님은 저희들을 위해 힘써 가르쳐주셨으며, 저를 비롯한 여러 학우들은 열심히 다양한 경험을 쌓고, 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학부시절 저는 진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또 상담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를 선택한 것은 너무나도 잘한 선택이었으며, 후회는 전혀 하지 않았지만 정작 졸업을 하고 어떤 것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시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사회복지인력이 현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보건, 행정, 청소년, 장애인, 아동, 여성, 장애인등과 관련된 정책 등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연구자, 그리고 또 학자(교수)가 되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 발전을 도모하는데 힘쓰는 연구자, 교육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특성상 대다수의 학우들이 졸업을 하면 사회복지현장으로 가는 것과는 달리 저는 사회복지정책을 연구하

고, 그러한 인력들을 힘써 키워낼 수 있는 연구자, 학자의 길을 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부시절 저의 교수님이 공부하셨던 독일 베를린에서의 학문생활을 꿈꾸며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갔습니다. 강연자이셨던 요르크 쉐븐 전 베를린·브란덴부르크주 내무장관님께서 통일 후 가장 감격스러웠던 경험의 장소라고 말씀해주셨던 바이마르라는 도시, 괴테와 쉴러의 도시 바이마르에서 같이 공부하는 여러 외국인들, 어학원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계획대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은 저의 인생에도 여지없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전혀 뜻하지 않았던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독일 대학에서의 학문생활을 포기해야만 했던 경험은 저를 굉장히 가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마음을 다시 붙잡고, 내가 가기로 결정한길 끝까지 가보자라는 굳은 결심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독일에서 공부하신 교수님의 지도 아래, 내가 진짜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연구하고 싶은 것인지, 그리고 저만의 학문을 이곳 한국에서 정립시킨 후에 다시 독일에 가도 늦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 찾아왔던 좌절감이라는 단어는 이내 다시 희망과 비전을 향한 두근거림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였으며 너무나 감사하게도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그리고 독일출신의 교수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여름 길고긴 장마와 무더운 여름이 지나갈 무렵 저는 이제 새로운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석사 논문의 주제를 잡고 첫 연구 작업의 테이프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 그리고 독일의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북통일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에 관하여 생각해보았습니다. 예전부터 남북관계, 그리고 월드비전이라는 단체를 통하여 북한의 실태 및 국내외 NGO 활동실태등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정권 따라 남북 간의 관계양상, 그리고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 등의 내용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그 주제에 대한 호감도, '내가 이 주제에 대하여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전 북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것이 가장 확실하게 기억난다고 할까요.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 인민공화국이다' 라고 말이죠. 남한에서 세우고 있는 통일정책, 북한에서 세워진 통일정책들에 대해서도 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또 감사하게도 지도교수님을 통하여 독일에 관심을 가지고 독일에서 공부할 마음이 있으면 혹시 통일정책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에서의 접근에 대해서 공부 해보는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겁이 나서 한마디도 못했었는데 지도교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작업에 대해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는 너무나도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또한 가장 기뻐던 이유는 남북한의 통일, 그리고 사회복지제도의 준비 작업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너무나도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도 하였으며, 현재 부족한 사회복지연구인력에 의한 통일정책관련 연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 자신이 정말로 열심히 연구 활동에 힘을 쏟을 수 있다는, 더 나아가 남북 통일의 조그마한 보탬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과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제 개인적인 기대감과 더불어 독일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서냉전을 통하여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운동을 통하여 이루어진 동서독의 통일 그자체로도 연구대상인것과 동시에 현재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의 발전에 있어서 어찌 보면 정신적 지주로서 유일하게 공감하여 줄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반도비전포럼에서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 요르크 쉐봄 전 베를린 브란덴부르크주 내무장관을 통하여도 저는 그러한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독일은 제 3자의 나라로서 가장 냉정하게 남북통일정책을 바라봐줄 수 있는 입장을 가지는 나라임과 동시에 양국 간의 이해득실을 떠나 가장 관심을 가지고, 남북한의 정책과 의견들에 대하여 가장 자세하게 검토해줄 수 있고,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 및 조언을 해주고, 협력해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저의 석사논문, 그리고 앞으로의 박사학위를 위한, 그리고 더 나아가 남북통일을 위한 가장 최적의 연구 장소는 독일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한 지인을 통하여 우연히 '한반도비전포럼 2011' 소식을 듣게 되었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연시간 내내 그리고 강연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리고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한반도비전포럼'은 저에게 꼭 필요했던 시간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반도비전포럼 2011'은 협력자, 동역자들이 제 주위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었기 때문이고, 논문을 준비하는 제 자신에게도 더욱 열심을 갖고 준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만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독일 바이마르에서 열심히 독일어를 공부하고 있었던 제 자신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머물렀었지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던 위대한 역사의 현장 베를린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그 순간이 그리워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반도의 통일미래 비전, 그리고 앞으로 가지게 될 한반도의 선택, 그 자리 어딘가에 서 있고 또 쓰임 받게 될 제 자신을 기대합니다.

한반도비전포럼 2011 비전대강연을 듣고

공혜림

초등학교 때 단골 글짓기 소개중 하나는 '통일' 이었다. 사실 어린 나에게는 남한과 북한이 다른 나라처럼 느껴질 정도로 '통일' 이 와 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의 노래가사를 떠올리며 통일의 당위성을 끼적였던 기억이 있다. TV에서 보던 북한사람들의 생활모습을 보며 신기하지만 우리와는 다른 이질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산가족상봉이 봄을 이루던 시대에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TV로 눈물의 상봉장면을 지켜보며 한민족, 한 핏줄 이라는 생각을 상기시키고는 했다. 그래서 이따금 '먼나라 이웃나라' 등의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분단되고 통일정책이 남북이 어떻게 다른지, 갈등은 무엇 인지와 독일의 통일사례 등을 배웠던 기억이 있다. 분단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통일을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들도 예전처럼 많지 않고, 분단 이전의 한반도를 기억하는 사람도 매우 적어져서 한반도는 역사상의 한 페이지에만 머무는 것 같았다. 물론 나도 커가면서 초등학교 때처럼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고 순수하게 외치기 보다는 통일비용이 얼마인지, 문화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언어의 이질감은 어떤지 등의 잣대로 통일을 저울질 하고는 했다. 또 많은 대학생들이 그렇듯 탈북자는 이방인 같고, 통일은 되기는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당장 다가오지는 않았으면 하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이 포럼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하던 나는 한 배너창에 눈길이 멈춰졌다. 독일 통일의 주역들과 함께 이야기 하는 남북의 통일문제를 주제로 한다는 '한반도비전포럼' 에 대한 안내였다. 쉽게 만날 수 없는 독일의 총리, 내무장관 등이 함께하고 남북통일을 위해 일하시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님이 한자리에 모여서 통일을 이야기 한다는 소식에 가슴이 설레었다. 마침 수업이 없는 날이기도 했고, 우리학교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기쁜 마음으로 신청을 했다. 독일 통일

은 우리의 남북통일문제와는 여러모로 차이점이 있어서 이를 동일선상에 두고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먼저 통일을 한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학창시절에도 자주 배워왔다. 특히 영상자료를 통해 접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모습은 가슴이 뭉클할 정도였다. 그 장면을 보면서 언젠가 우리도 저렇게 철창이 모두 무너지는 날을 상상했다.

포럼 당일, 많은 사람들이 행사장을 북적이고 있었다. 고등학생들부터 대학생, 대학원생까지 가득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여전히 통일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 가슴이 뭉클했다. 독일에서 온 연사가 두 분이나 있어서 걱정했는데, 동시통역을 통해서 이야기 하시는 것을 즉각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또한 포럼 시작 전에 준비된 연설문을 먼저 읽어보았더니, 비교적 어려웠던 연설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전 동독총리님은 독일의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 해주셨다. 서로 다른 국가처럼 지내왔기 때문에 통합해야 할 것들도 많았고 그에 따르는 어려움도 많았다. 통일이 단순히 베를린 장벽을 허무는 것처럼 물리적인 것이 다는 아니라는 생각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동독 총리는 독일의 통일사례를 통해서 한국과 독일의 통일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의 사례를 통해 한국이 미리 준비 해야한다는 것을 역설하셨다. 나는 이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독일의 경우는 우리보다 통일에 유리한 점(교류가 있었다는 점, 경제차이가 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통일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독일 통일사례를 통해 다시한번 우리가 통일에 대처하는 자세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요르크 쉐봄 전 내무장관의 연설에서는 독일군의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소 전문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다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군통합 문제는 통일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고,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통일이 되었을 때 군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독일군의 통일 사례를 통해서 미리 생각해 본다면 훗날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동독이 고향이라는 내무장관이 통일 후 다시 고향을 찾았다는 이야기는 참 뭉클한 이야기였다. 그 분께서 한국에서도 이러한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님은 올해가 분단이 66년째라서 이제는 분단 이전의 한국을 기억하는 사람이 국민의 10%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점이 참 인상적이었다. 고향이 이북이신 할아버지는 북한 이야기를 자주하셨는데, 몇 해 전 돌아가시면서 더 이상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없었다. 이런 점 때문에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특히 대학생들이 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통일이 여러 나라와 여러 문제가 얽혀있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지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고 '통일의

날'을 언젠가는 본다는 의지로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과제라고 역설하시던 총리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다.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 수준 있는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재미있었다. 한반도 통일에서 북한 주민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독일 전 총리가 과거 독일 통일에서도 체제가 바뀔 수 있다는 동독시민들의 용기와 희망이 통일의 원천이었다며,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힘'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답이 기억에 남는다. 북한 주민들의 이런 강력한 에너지가 통일의 원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하게 되었다.

포럼에 참석하기 전까지 나도 통일하면 천문학적인 통일비용 등을 이야기 하며 난색을 표했던 일반 우매한 학생 중 하나였다. 돈이 많이 든다고 가족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비유처럼,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고 통일로 얻는 이익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근시안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통일비용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멋진 통일 한반도를 꿈꾸게 되었다. 포럼을 통해 통일에 대한 이해도 넓히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불신과 우매함 대신 북한을 거쳐서 가는 열차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행복한 미래를 가슴속에 가득 품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독일 통일 과정을 통해 바라본 한반도의 통일문제와 이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권소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있어 통일은 아주 먼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런 생각에 큰 변화를 준 계기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6.25 전쟁 당시 북한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종중조부에 대한 소식이었다.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그분을 만나고 오신 집안 어른들께선 가슴 아픈 가족사를 들려주시곤 한참을 우셨다. 그때서야 나는 분단의 아픔이 바로 그 누구도 아닌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더욱 북한과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번 한반도비전포럼에 참가한 것도 바로 그러한 슬픈 가족사가 밑바탕에 깔려있었기 때문이다.

독일과 한국은 근본적으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의 부작용으로 인해 분단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물론 차이점도 존재한다. 가장 특징적이며 중요한 점은 독일에서는 분단 후에 전쟁이 없었지만 한국은 6.25 전쟁이라는 큰 내전을 겪었다는 사실이다. 유교 문화 아래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과 가족 중심의 전통을 중시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을 죽인 자들에 대해 엄청난 증오를 느꼈으며 남과 북의 독재자들을 이런 증오심을 자신들의 정권 유지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간극과 서로에 대한 복수심은 커져만 갔다.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빨간색과 좌파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연유는 우리가 겪었던 끔찍한 동족상잔의 비극과 반공 사상 때문이다.

과거 서독과 동독에서는 서로의 방송을 시청하거나 제한적으로나마 편지 교환과 전화 통화가 허용된 반면 남한과 북한은 서로에 대한 접촉이 철저히 단절되어 있다. 비교적 북한에 유화적이었던 진보 정권 10년 동안 남북한 관계는 좋아지는 듯 했으나 강경한 대북 정책을 주장하는 우파 정권이 들어선 현재의 한반도는 다시금 긴장 상태에 놓여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절망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와 요르크 쉐른 전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주 내무장관 모두 독일 통일은 너무 갑작스레 왔다고 말했다. 자신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렇게 통일은 순식간에 올지도 모

른다. 우리는 독일의 선례를 보며 차근차근 통일을 준비해나가야 한다. 지휘자 정명훈 씨는 지난 추석에 평양을 방문해 음악 교육과 오케스트라 교환 공연 등에 대해 논의하고 돌아왔다. 얼마나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일인가? 이처럼 문화 교류와 같은 덜 민감한 분야부터 시작하여 사회, 경제 분야 등 차례로 그 범위를 넓혀나간다면 언젠가 통일이 목전에 와있을지도 모른다.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께서 소개해주신 5단계의 조치를 통해 통일 독일을 향한 노력들을 엿볼 수 있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지방자치단체의 개혁과 새로운 주 구성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물론 독일은 중세 시대의 봉건 영주 체제와 연방제, 그리고 공화국을 경험했으므로 이런 접근 방식이 우리의 경우보다는 쉬웠을 것이다. 동독의 지도자들은 지방 행정 체제를 개편하고 직접 선거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자주 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이양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 통일 국가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려 했다.

세 번째 단계인 경제, 화폐, 사회 통합 그리고 네 번째 단계인 통일 조약에서 독일은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의 경우와 다르게 서독과 동독 모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 체제 내에서 비교적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독일 통일은 서로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결정한 '통일' 이 아니라 서독이 동독을 '합방' 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조약에 의거해 갑작스레 서독의 시장 경제가 유입되었고 동독은 인민 공유 재산을 박탈당했으며 환율과 조세, 노동력 문제 등 많은 부분을 제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혹자들이 독일 통일을 '서독에 의한 동독의 식민지화' 라고 폄하하는 것이다. 물론 독일 통일이 완전한 약육강식의 시장의 논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통일 이후 많은 동독 주민들이 그 이전 보다 더 나은 수준의 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그러한 주장들이 완전히 옳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우리의 경우에 적용해보니 걱정을 떨칠 수가 없었다. 비교적 안정된 체제와 생활수준을 누렸던 동독 주민들도 이렇게 큰 혼란을 겪었는데 하물며 북한은 어떠하겠는가? 남한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북한은 최빈국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자급자족 경제 체제의 국가이다. 이렇게 독일이 보여준 합방식의 통일은 경제적 불균형이 심각한 한반도의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경우 자칫하다가는 남한이 심각한 경제적 곤란에 처할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더 알맞은 방식을 찾아 통일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의 '2+4조약' 또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이는 양 독일과 4개국

의 세계 대전 연합국 사이의 조약을 의미하는데, 독일은 이 조약이 4+2가 아닌 2+4가 되도록 노력했다. 통일 과정에서의 주체는 4개국인 아닌 바로 서독과 동독 자신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으며 독일 국민들이 자결권을 가지고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독일은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냉전 시대 두 세력이 대치하고 있는 중간 지대이다. 또한 독일은 제 2차 세계대전의 패배가 분단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승전국들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었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통일에 대한 자결권을 찾아왔다. 지금 한반도의 상황도 이와 유사하다. 우리 주변에는 최근 들어 급성장하고 있는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 우리를 식민 지배 했던 일본, 그리고 바다 건너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초강대국 미국이 버티고 있다. 중국은 동북 공정과 간도 문제, 러시아는 부동항 확보와 국경선의 안정, 일본은 유사한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의 시장 경쟁력 신장 저지 등의 이유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보듯 우리는 문제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다른 강대국들의 눈치만 보았다. 이런 태도가 미래의 통일 논의 과정에서 나타나면 안 된다. 우리도 통일 국면이 다가온다면 독일의 경우처럼 주변국들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인 자세로 통일을 논의해야 한다.

셴뵐 전 내무 장관은 동독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독일 통일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했다. 거의 모든 외부 정보와 차단되어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과거 동독처럼 들고 일어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니 우리 남한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북한의 상황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역학 관계 등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점차 역사가 남기고 간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는 학생들이 앞장서야 한다. 통일된 이 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은 바로 우리 젊은이들이기 때문이다. 고난과 역경을 거쳐 마침내 통일 독일의 이룩을 자신들이 겪은 생생한 경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시던 그분들이 너무나도 부러웠다. 통일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문제란 것을 이번 포럼 참가를 통해 다시 한 번 느꼈다. 지금 나의 이 자그만 관심이, 이 한 걸음이 미약하게나마 통일된 조국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시대의 여대생으로서 준비하는 통일

김가현

독일 통일 당시 독일의 지도자들의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여러 번 올 수 없는 소중한 기회이기에 이번 포럼은 굉장히 뜻 깊은 자리였다. 소위 말하는 통일 세대인 지라 어려서부터 통일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아왔다. 그래서 막연하게 '통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왔지만 정작 진지하게 통일이라든가 한반도의 미래를 고민해 볼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 같다.

독일인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통일은 예측하지 못했을 때 뜻하지 않게 찾아왔고, 독일은 주저하지 않고 그 기회를 잡았다고. 물론 한반도의 상황은 독일과는 다른 점이 매우 많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통일은 뜻하지 않을 때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 그 때가 오면 우리도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그 기회를 맞을 수 있도록 통일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한반도의 여대생인 내가 나의 처지에서 통일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고 어떻게 통일을 바라봐야하는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 대학생(젊은 청년)으로서 통일에 대한 자세 |

독일의 통일과 우리의 통일이 다른 점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분단의 지속시기와 과정이다. 독일은 분단된 지 40여년 만에 통일을 이뤘다. 40여년의 시간은 대략 한 세대 정도의 시간이다. 당시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분단 전 독일을 경험하고 기억했다. 드 메지에르 총리는 발언을 통해 당시 독일은 통일에 대한 희망을 포기했고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 지금 한국에 비하면 훨씬 나은 상황이었다. 우리의 경우 분단 후 벌써 6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분단 전 한반도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인구의 10%도 안 된다고 한다. 인구의 대부분이 분단 이후에 태어났고, 분단된 한반도를 당

연히 여긴다. 무엇보다도 독일의 경우와 구분되는 점은 우리는 전쟁을 겪었다는 것이다. 전쟁은 남북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었고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은 통일에 대한 실질적인 감각을 가질 수가 없었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태어나 분단된 한반도를 살아온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에게는 분단이 너무나 당연하고 통일된 하나의 한반도를 상상하는 것이 오히려 어렵다. 또한 젊은 남성들은 군생활을 하면서 통일과는 더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종전이 아닌 정전의 상황에서 현재 우리의 주적은 북한일 수밖에 없고, 특히 최근에 있었던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들은 우리 젊은 청년들로 하여금 북한을 바라볼 때 통일보다는 안보에 더 초점을 맞추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통일은 언제든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젊은이들은 앞으로의 한반도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에는 당연히 통일에 대한 준비도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가 고려야할 미래는 분단된 한반도의 미래가 아니라 통일 한반도의 미래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젊은이들은 앞으로 이끌어갈 사회를 분단 한반도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 경제를 그럴 때에도 분단 한반도뿐 아니라 통일 한반도의 상황도 가정해서 공부하고 대비해야 한다.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다.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 공부하는 분야에서의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

사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우리는 한 핏줄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일해야한다'는 식의 당위적인 얘기는 크게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당위적인 이유 외에도 통일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이 많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통일된 한반도는 국제 사회에서 더 주체적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다.

| 여성으로서 준비하는 통일 |

포럼을 맺을 무렵 김선옥 총장님께서 통일의 문제를 여성의 관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독일 통일 후 일자리난이 심각했을 당시에 동서독 남성에게 일자리가 다 돌아간 후에야 여성에게 기회가 왔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약 75% 정도가 여성이다. 여성 탈북주민이 남성의 3배 정도 되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열악하다. 남성들의 군 생활이라든가 경제난 때문에 여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할 때도 많고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는 북한 사회 내에서의 여성의 문제와도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는 통일 한반도에서의 여성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따라서 통일의 문제는 여성의 시각과 입장에서 바라보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는 식상한 얘기지만 당연한 것은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점이다. 독일과는 조금 다른 상황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요건에 맞게 지혜롭게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지혜와 용기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혜로운 통일 준비도 필요하지만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용기 있게 기회를 잡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그렇다고 신중하지 않거나 서둘러서는 안 되겠지만 머뭇거리고 주저하기에는 통일은 너무 소중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통일된 독일〉 연구의 필요성

김나래

대학에서 윤리교육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윤리학을 공부하면서, 항상 통일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발간하는 통일문제의 이해와 북한 이해를 신청해서 받아 보면서 북한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통일문제는 학문으로서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력하여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그로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들을 도출해 내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특히 이 포럼을 통해 독일 통일 과정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먼저 이 포럼에 참석하기 전에는 독일 통일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서독의 일관된 통일 정책 그리고 많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진정으로 독일의 통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다름이 아닌 '동독인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즉, 독일 통일의 과정을 새로운 관점으로 조명해 볼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독일 시민들 즉 동독인들이 주체가 되어 평화적 혁명을 통해 스스로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고 통일을 이루었다' 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분명 한반도의 통일에 있어 남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물론 우리의 상황과 독일의 상황을 같다고는 볼 수 없다. 특히 동독의 상황과 북한의 상황은 확연히 다르다. 북한 사회가 감시와 통제가 훨씬 심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유'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간의 기

본권을 주장하며 외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동독시민들도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많은 억압을 받았지만 시민들이 용기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지 않았는가.

이 포럼을 통해 독일이 통일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또한 어떤 과정을 통해 통일을 이루어 나갔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동독인들의 주체성과 자유를 향한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통일에 있어서 서독과 동독의 쌍방향적 노력, 그리고 주변국의 호의적인 분위기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도 통일문제에 있어 오롯이 주체성을 지니면서 주변국과의 관계도 적절히 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문제 특히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으므로 제대로 잘 인식하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큰 틀 속에서 융통성을 보이면서도 일관된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우리는 독일 통일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배울 점이 많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포럼의 뒷부분에 마련된 질문 시간에 독일 통일의 결과의 측면에 대해 질문하고 싶었다. 물론 독일이 통일 이후에 유럽 국가 내에서의 위상도 높아지고, 경제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그와는 다르게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독일 통일의 딜레마 중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동독과 서독 국민들 간의 심리적인 이질감이라고 생각한다. 통일된 독일에서는 가난한 오씨(Ossis), 거만한 베씨(Wessi)라고 서로를 비아냥거리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 통일 국가에서도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가능하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가난한 북한 출신, 거만한 남한 출신의 꼬리표가 모두에게 붙어 다닐지도 모를 일이다.

오랜 분단 상황으로 인해 그리고 다른 신념과 가치관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통일이 되었다고 해서 그러한 문제들까지 한 번에 해결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독일에서 어떻게 해결되어가고 있으며, 현재의 통일된 독일은 어떠한 상황인지 궁금하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의 발생이 한반도의 통일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통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의 통일을 제대로 연구해 봐야 하는 이유이다.

독일의 통일을 보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우리의 통일이 남한만의 이해관계와 시각이 반영된 통일이 아니라 북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남한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통일된 독일이 겪었던 그러한 딜레마들을 우리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통일된 독일을 통해 배워야 할 점이고 연구해야

하는 이유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의 상황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줄 알아야 하며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하는 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결코 아깝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통일비용에 대해 너무 걱정하고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통일을 이루었을 때와 비교하면 이러한 비용은 결코 큰 것이 아니다. 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 하나의 연구로서, 먼저 통일 국가를 이룬 독일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무궁무진한 미래를 향한 첫 도약

김다혜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작년에 학교에서 국악수업을 듣고 방학 때는 가야금을 배웠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통일에 대해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듯이 알고 있었기에 한국인인 만큼 통일에 대한 제대로 된 소견을 갖추고 싶어서 이번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한반도비전포럼은 나에게 통일에 대한 소양을 정립시키는데 도움이 아주 많이 된 좋은 시간이었다. 또한 실제 독일 통일의 주역이신 분들과 우리나라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을 때의 이홍구 총리와 함께하는 자리였기에 더욱 생생한 통일 현장을 체험할 수 있었고 통일에 대한 다양한 생각거리를 가지게 되었다.

독일 통일의 주역인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와 요르크 쉐븐 전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주 내무장관의 통일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나라도 통일을 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포럼에 참석하기 전에는 평화적으로 우리나라 체제하에 북한이 들어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군대 통합 문제를 포함한 국내적, 국외적, UN이라는 3중 복합 구조에서 통일 준비과정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아주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 모두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고 하셨다. 그리고는 연사분들의 말씀을 통해 두 분처럼 통일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 필요한 우리의 자세를 정리해볼 수 있었다.

우선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보면 이렇다. 2차 대전 후 독일은 전패국이었기 때문에 승전국이 독일을 마음대로 해도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경우이다. 패전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인데, 일본의 항복을 받기위해 38선을 만들고 소련과 미국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것이다. 즉, 우리는 국제 정치의 부당한 처사 때문에 분단국이 된 것이다. 우리민족이 분단국으로 살아야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통일을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 문제이다. 그런데 흔히 범하는 오류가 비용문제를 걸고 통일을 꺼

려하는 것이다. 동독의 경제 수준은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할 때에는 독일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철도를 러시아까지 놓지 못하고, 중국까지 놓지 못하는 사례를 포함해 당장 지금의 분단비용을 생각해보면 통일비용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또한, 통일비용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현재 동독 인프라는 구 서독보다 훨씬 좋다. 각 가정에게 부담될 수도 있지만 독일의 경우 그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다. 오히려 통일이 유럽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 이렇듯이 통일비용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헤어진 가족을 만난다는데 비용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20년 전에는 독일도 통일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는 해냈다' 고 한다. 모든 비용지불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감사하고 있다. 통일을 통해 독일은 커다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통일에 대한 염원이라는 것을 이 강연을 통해 체험했다. 독일은 45년 만에 통일을 이루어냈다. 통일 전만 해도 독일은 우리에게 '너희가 먼저 통일 할 것 같다' 고 하였다. 그 이유는 독일은 강대국이어서 통일을 하게 되면 힘이 더욱 강력해 질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견제가 심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자국민의 뜨거운 통일 염원으로 통일을 이루어냈다. 그 누구도 독일 시민들을 막아낼 수 없었다. 스탈린 정부 밑에 있었지만 동독 시민이 주체적으로 평화적인 혁명을 통해 민주화 프로세스를 만들어 냈다. 또한, 통일에 대한 많은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통일을 이뤄낸 독일을 비추어보면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통일에 대한 열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즉, 우리나라 사람에게 통일의 당위성,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열기를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북한 주민도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질 것이다. 요즘 북한 국경은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를 접하고 있고, 북한 주민이 북한을 떠나는 비율이 더 높아진 조사도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독일이 아무도 예측 하지 못한 순간에 시민의 의견을 집결해 통일 한 것처럼 자율 책임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언젠간 자유를 갈망하고 행동할 것이다. 북한 시민은 자유를 먼저 배워야하는듯 하지만 자유를 원하는 것은 인간본성이라 생각한다. 굶주림 보다 더 강력한 것이라 생각한다.

위에서 말했듯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모든 국민이 통일에 대해 공동책임의식을 가지고 결연한 의지를 가져야한다. 하지만 분단 이전을 기억하는 사람은 10%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젊은 층들이 통일에 대한 연대책임감 가질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교량을 놓아주어야 한다. 홀로코스트와 같은 기억을 젊은이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한 듯, 학생들에게

강렬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비전포럼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가져야 할 태도를 알아볼 수 있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다. 국내적, 국외적, UN으로 3중 복합 구조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할 일은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쳐서 부지런히 많이 준비하고 약간의 운이 따라준다면 못할 것은 없다. 부지런히 준비해서 우리에게도 운이 왔을 때 그걸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도 독일처럼 통일을 할 때 자결권을 꼭 염두 해야 한다. 2+4조약과 6자회담은 열강과 당사국의 힘의 결합으로 안정성을 창출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동서독이 2+4조약에서 자결권을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도 통일할 때 그러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과 협력할 때 진실과 공정성을 통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시간에 나는 로타 드메지에르 전 총리와 요르크 쉐봄 전 내무장관께 통일 과정을 다 겪은걸 기억한 상태에서 통일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펼치고 싶은 정책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통일하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하는 분야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요르크 쉐봄 전 내무장관은 통일에 대해 낙관성을 가지고 바라보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다.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는 몰수되었던 재산을 어떻게 다시 분배하느냐하는 문제를 생각하면 지금도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셨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문제였고 각 소유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을 다시 시작해 최대한 공평히, 공정히 돌려주려고 하지만 참 힘든 문제라고 하셨다.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또 다른 부당함을 이용하는 것은 안된다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셨다. 그런 점에서 독일은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다고 하셨다.

통일을 하게 되면 많은 혼란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통일은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이며,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우리의 미래 모습의 문을 여는 첫 발걸음이다.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통일에 대한 염원이다. 전문가들이 통일 후를 대비한 대책을 준비할 것이니 우리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염원과 열기를 불태워야겠다. 끝으로 통일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여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한반도비전포럼을 열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모든 연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싶다.

한반도비전포럼 2011 ‘비전大강연’을 보고 와서...

김미리

부끄럽지만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번 학기 부터이다. 사실 그 전까지는 북한에 대해 딱히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 학기에 북한학 수업을 들으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북한학 수업을 들으며 북한에 대해 처음 느낀 감정은 안타까움이었다. 수업시간에 추천받은 북한 관련 서적과 영화를 통해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삶에 대해 더욱 생생하게 알게 되자 그들이 너무 안쓰러웠고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도 정신적으로 버겁고 힘이 들었다. 지금도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현재 나의 처지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힘이 들기는 하지만 안쓰러움은 서서히 기대와 희망으로 변화하고 있다.

강연 중 독일에서 오신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와 요르크 쉐븐 전 내무장관은 우리나라가 통일비용에 대해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데에 비판하셨다. 통일비용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통일비용은 버려지는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생각해야한다고 하셨다. 나는 이 말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큐멘터리 영화 ‘디어 평양’을 보면서 북한에서는 평양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빨간 흙밖에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었다. 그리고 북한 텔레비전극 ‘따뜻한 우리 집’을 보면서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평양산원’이 나의 눈에는 너무도 허름하게 보였고 허름한 그곳을 자랑스러워하고 내세우고 싶어 하는 그들의 태도에서 역설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안쓰러웠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안쓰러워하며 자책감에만 빠져있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그들이 그토록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통일이 되었을 때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을 하며 통일의 그 때를 그리게 되었다.

남한은 이미 국토 대부분이 사유재산이고 개발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총체적 국가

계획에 따른 개발이 어렵다. 예를 들어,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우리나라 곳곳에 자전거 도로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도로가 형성되어있어 자전거 도로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기 힘들다. 특히,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영토를 확보해야하는데 이는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쉽게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다. 그래서 여분의 토지가 모자라는 서울에는 인도에 페인트로 자전거도로를 표시해 놓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만들어놓은 자전거 도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관상 좋지도 않다. 그러나 북한은 다르다. 북한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깨끗한 백지 위에 완벽한 인프라를 설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통일에 철저하게 대비해야한다. 통일이 되면 독일이 통일 되었을 때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대거 이동한 것과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통일을 오히려 지역격차의 완화의 계기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살고 싶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갑작스러운 통일에 놀라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대책으로 단 한번의 기회를 망쳐버려서는 안 된다. 10년, 20년이 아닌 100년, 500년 후의 상황까지 고려한 도시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는 이상적이고 불가능한 계획이 아니다. 드메지에르 전 총리도 현재 동독의 인프라가 서독의 인프라보다 좋다고 하였다.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때문에 나는 종종 통일이 되어 많이 개발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넓은 자동차 도로와 자전거 도로가 어우러진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원동력으로 하는 진정한 녹색도시에서 여유롭게 거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한다.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 대비 연구 외에도 중요한 것이 있다. 이는 국가경쟁력 강화이다. 드메지에르 전 총리는 독일 통일 달성의 마지막 단계로 '2+4조약' 을 꼽았다. 이는 양 독일이 통일의 주체가 되고 주변 4개 국가는 통일을 입증하는 정도로만 협약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통일을 위해 너무나도 필수적인 조건이고 당사국의 당연한 권리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생각처럼 쉽지 않은 조건이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유길준의 중립화론이 그것이다. 유길준은 조선이 외세의 침략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중립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매우 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사회에서 무참히 묻혀버렸다. 이는 중립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군사적 힘이 있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중립국이 될 정도의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통일의 주체가 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얘기이다. 우리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으면 통일의 주체가 되겠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한반도의 통일은 여러 열강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인 만큼 결코 주체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주체가 되

어 통일을 주도해야 또 한 번의 실수가 없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인 노력 등 다방면에서 선진국이 되어야 우리 문제를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 변화이다. 분단이 된 지 65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 우리는 분단이라는 가슴 아픈 현실에 무감각해졌다. 북한 주민 또한 어느 정도의 교류가 가능했던 독일의 경우와 달리 지나치게 제한된 구조 하에서 지내다보니 통일과 자유에 대한 열망이 억압되어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도 독일의 경우처럼 북한 주민의 열망과 용기로 통일의 씨앗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통일의 감동의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남한에서는 북한 주민의 삶에 대해 배울 기회가 많이 생겨야한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그저 듣는 것과 보는 것은 다르다. 천편일률적인 표어나 강의보다는 한편의 영상자료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나 또한 그동안 무감각하게 살아왔지만 영상을 통해 북한사회의 실상을 알게 된 후에는 스스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볼 정도의 적극성이 생기게 되었다.

한편 북한 사회는 아직 교류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동독의 초등학교생이 서독으로 수학 여행을 가는 독일과 같은 방법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국제 행사에 북한과 남한이 함께 참가하고 입장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 이러한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교류를 증가하고 북한 주민에게 남한 사회의 접촉기회를 늘려야 할 것이다. 어릴 적부터 쇠사슬에 묶인 사자는 커서 쇠사슬을 끊을 힘이 생긴 후에도 도망칠 생각을 하지 못한다.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힘이 시민에게 있다는 것을 오랜 기간 잊고 지내온 북한 사회에 할 수 있는 한 다양한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야 할 것이다.

하루 빨리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중요성을 온 국민이 가슴에 품고 통일을 맞이할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야 할 것이다.

비전 大강연 : 남북통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출발점

김미리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노랫말에서 느껴지는 통일에 대한 염원은 노래를 부르는 이, 듣는 이 모두의 가슴에 뭉클하게 와 닿는다. 하나의 국가로 살았던 오랜 역사를 뒤로하고 남북 분단이 시작된 지 어느 새 반세기가 훌쩍 넘었다. 분단의 역사가 오래 지속될수록 통일은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문득 들면서 더 늦기 전에 통일을 이루어야겠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 지기도 한다. 사실 통일문제는 나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비전大강연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통일에 대한 나의 인식은 바뀌었고, 더 늦지 않게 그러나 성급하지 않게 통일을 이루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되었다. 2011년 한반도비전포럼에 참여한 것은 우연한 기회였지만, 강연에 참석함으로써 나는 많은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참가 소감문을 통해 강연, 좌담을 보고 남북통일에 대한 새로이 인식하게 된 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동독의 통일 과정을 통해 배울 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남북한의 통일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면 좋을지에 대한 나만의 소감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우선 한반도비전포럼에 참여하게 된 것은 아주 단순한 계기였다. 2011년 한 해 동안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 특히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그리고 뉴스를 통해 종종 접하게 되는 북한의 식량난 등은 자연스럽게 북한 그리고 남북한 관계에 대한 나의 관심을 유발시켰고 이 관심은 곧 남북한 통일로 이어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통일문제를 나와는 상관없는 정치적인 논의가 아닌, 좀 더 가까운 문제로 생각하게 된 것이 이번 비전大강연에 참가하게 된 동기였다. 통일에 대한 관심으로 참가한 이번 비전大강연을 통해 나는 통일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동독의 통일을 통해 남북의 통일을 재조명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전까지 나는 통일에 대해 막연한 그리고 당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

'통일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왜 통일이 되어야 하지? 통일이 절대적으로 좋기만 한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져왔던 것은 그 동안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해본 적이 없었고, 통일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비전대강연은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전제로 한 포럼이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논의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님, 요르크 쉐봄 전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주 내무장관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통일이 독일에게 어떤 긍정적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분들에게 그리고 독일인들이 느끼는 통일의 역사적 당위성을 느낄 수 있었다. 통일이라는 행운의 기회를 잡은 것, 그것에 감사하는 독일인들의 모습은 통일을 비단 비용과 창출이득이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논의되어서는 안 되며 그 자체가 갖는 내적가치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이 점에서 남북한의 통일 역시 그 비용과 이득이라는 측면에서만 논의 할 것이 아니라 통일 그 자체가 갖는 화합과 평화의 가치의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경제적 측면에서 논의 된다면 단순히 통일비용과 이득에 대해서만 계산 할 것이 아니라 당장의 분단 비용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연사의 말씀이 기억에 남았다.

통일에 대한 위의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앞으로 남북한의 통일은 독일 통일을 어떤 점에서 본받고 또 보완점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독일 통일의 단계 조치 중 '2+4조약' 이었다. 이것은 독일을 점령했던 2차 대전의 전승국들 즉, 미국, 프랑스, 영국, 소련이라는 거대한 나라들과 체결한 조약으로서 통일의 문제를 당사자인 동독과 서독이 주체가 되어 논의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 이는 남북의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다. 남북한 역시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으며, 남북한 통일문제에서도 그들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주체가 되어 통일을 '주도' 했듯, 남북한 역시 한반도의 통일문제에서 스스로 '주체' 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반면, 갑작스러운 통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독일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통일에 미리 대비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통일비용이 얼마만큼 들 것인지에 대해 미리 짐작해 계산하기 보다는 그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강연을 들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룬 그들의 자긍심이었고, 그들에 대한 부러움이었다. 연사들께서 재차 강조하셨던 것 중 하나는 바로 통일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지 예측할 수 없으며 중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고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렇다. 언제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지는 누구도 선불리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준비해야 하며 통일의 문제는 사회적 공론으로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을 막연한 꿈으로 생각해왔던 나에게 이번 강연은 통일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였고 또 통일의 희망을 실현할 세대로서의 막중한 책임감 또한 안겨주었다. 통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함과 동시에 좀 더 희망적이고 방법론에 대한 현실적인 태도를 갖게 해 준 비전대강연과 연사들께 감사함을 전하면서 소감문을 마친다.

비전대강연 참가 소감문

김민주

최근 한반도의 통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보고서, 대담 등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보고서, 조지 프리드먼의 한 일간지와의 대담 등이 바로 그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목소리는 통일이 결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지 프리드먼은 10년에서 20년 사이에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즉 통일에 의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당사자인 한반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예측이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전운이 돌던 한반도에서 통일의 분위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한편에서는 통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푼 가슴을 갖게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회의감을 가지게 하는 오늘날의 분위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반도 비전대강연은 이러한 혼란함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볼 기회를 주었습니다. 강연에서 우리 청년들이 느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전문가들이 쏟아내는 말처럼 통일이 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독일 통일도 결코 예상된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렇듯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통일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는 결코 무시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 자리에 모인 우리들, 즉 젊은 청년이 바로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바로 통일을 직접 이루고 이 결과를 누릴 세대라는 점에서 더욱 준비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해 집니다.

취업과 경제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우리들은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통일을 생각할 때 '남한 보다 못사는 나라 북한'을 '거둬야' 하는 부담감에 일단 고개부터 저어집니다. '빈곤한' 북한 주민들을 남한 사람들의 수준만큼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이른바 통일비용에 대한 고민은 청년들에게 또 다른 한숨만을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젊은 청년에게 있어서 민족적인 정체성에 기대 통일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습

니다. 이 세대는 분단이후 반세기 이상 서울을 중심으로, 휴전선 이남부터 제주도 끝까지를 '우리나라' 로 알고 지내왔습니다. 여러 번의 걸친 이산가족 상봉은 더 이상 젊은 청년들에게 감동을 주기에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치열해지는 무한경쟁만으로도 '아프기에 청춘인' 우리 청년들은 앞의 통일비용과 더불어 더욱 통일을 부담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한반도 비전大강연을 통해, 먼저 통일한 국가 독일의 사례를 듣고 더 넓게 생각할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차적 비용의 문제 그 이상의 통일 한반도에서 펼쳐질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과 시도들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는 '부산에서부터 하얼빈까지 기차를 타고 달려간다면 어떨까?', '개성의 만월대의 옛 왕터가 수학여행의 장소가 된다면 어떨까?', '우리나라의 국토종단이 전망대까지가 아니라 러시아 국경지대까지라면?' 부터 시작해 세계지도를 펼쳐 놓고 보면 참 작은 나라 한반도, 게다가 허리까지 잘려 있는 그 땅을 볼 때면 참 작지만 강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 내고, UN사무총장을 배출하고,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 있는 대한민국! 예로부터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로 나라를 경영했던 선조들처럼 지리적인 조건을 잘 활용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를 상대하는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고려의 부흥으로 어찌면 다시 한 번 Korea의 이름이 세계무대에서 우뚝 설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통일의 비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난 66년의 분단비용과 앞으로 최소 20년 그리고 최대 50년 지속될 수 있는 분단 비용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통일부담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통일비용이 결코 천문학적으로 크며, 쓸모없는 비용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확신이 들었습니다. 통일 이후 얻게 될 북한의 우수한 인력자원과 북한의 여러 광물자원 등을 생각해 본다면, 통일비용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통일 한국을 위한 투자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통일에 대한 준비를 아까워하지 않고 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일 이후 하나된 독일은 성숙의 시간을 딛고 유럽연합을 이끌어 가는 세계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와 같이 한국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두근거리기 까지 했습니다.

서독인들이 통일에 대한 희망과 믿음조차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동독인들의 강렬한 의지로 통일은 이루어 졌고, 서독 대다수의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은 과거의 역사와 유럽인들의 안정을 이유로 통일을 반대 했지만 동독인들의 상정을 통해 주변국

들의 동의를 얻어 민주적인 절차로 통일을 이루었고 서독인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한 쉐롬 연사의 언급에서 얼마 전 KBS 남북협력기획단의 '2011 통일의식 결과조사'를 떠올렸습니다. 통일에 대한 필요와 의식이 가장 저조했던 2040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 오늘날의 한반도에 갑작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남한역시 혼란의 도가니 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이 있다면 한반도에는 독일의 통일 전 서독과는 다르게 통일부가 존재하고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부서가 있다는 점입니다. 통일에 관심을 갖게 하고 같은 의식을 가진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된 사례를 듣고 생각 하고 또 그 생각들은 사회의 각 분야에서 뿌리내려 준비된 통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독일의 경우가 우리와 꼭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로타 드메지에르 전 총리의 말처럼 조금은 더 낙관적으로 현실성 있게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비전포럼 2011 비전大강연 소감문

김민지

“평화적인 통일에 대한 독일인들의 의지와 사회적 연대감, 그리고 용기, 그것들이 바로 독일 통일을 이끈 동력이었습니다.……” 믿음, 의지, 그리고 용기가 ‘한반도 비전大강연’을 듣고 내 머릿속에 남은 세 단어였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얼마나 통일 한국을 믿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또 통일을 이루기 위해 용기는 얼마나 낼 수 있을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접근이 요즘의 한국에는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독일에서 오신 연사님을 비롯하여 이홍구 전 총리까지 지속적으로 언급한 우려 섞인 이야기들의 중심은, 한국의 청년들이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상당수 젊은 세대들은 통일을 이루었을 때 이 세대가 짊어져야 할 막대한 통일비용에 대해 걱정하면서, ‘언젠가는 해야 하지만 내 세대에는 안 된다’ 라든지, ‘현상유지만으로도 만족해’ 라는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처 자세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통일비용과 비통일의 비용의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사실은 비통일비용이 통일비용보다 훨씬 높다는 것과 통일비용은 결국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비단 이번 강연뿐만 아니라, 통일에 관련한 어느 특강을 들을 때에도 이러한 ‘통일비용’ 과 ‘손익계산’ 에 대한 문제는 빼놓지 않고 가장 중요한 측면들 중 하나로 등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답을 들으면서 나는 또 다른 안타까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1980년대 독일의 상황과 2010년 한국의 상황은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다. 독일의 통일은 동독 사람들의 평화적인 통일에 대한 염원과 의지에 의해 불이 붙어졌다. 이는 1980년대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이념적인 새 바람들이 동독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그리고 안에서부터 자유를 찾기를 부채질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들은 동독에서의 자유선거의 실시와 함께 독재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을 만들어냈고, 평화통일을 통한 자유의 보장과 획득을 그들에게 최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기폭장치가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동독 사람들의 평화 통일의 의지에 서독 사람들은 당황했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념이 주요한 키워드였던 시대의 흐름이 해방에서 자유로, 자유를 위한 통일로 동독 사람들을 이끌었고, 서독 사람들은 처음엔 우왕좌왕했지만 반대하지 않았고, 오늘의 독일에 이른 것이다.

2010년대 우리의 세계는 1980년대의 그것과는 한층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있다. 전 세계에서 한반도를 제외하고 국가 간의 동서간의 이념적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대부분의 세계가 독일이 탔던 그 바람을 타고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뿌리내렸거나 내리고 있고, 이념을 넘어선 경제적 갈등이 최우선시 되고 있다. 1980년대 이념적 이슈, 자유와 해방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면, 2010년대는 경제적 자유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통일비용을 계산하게 되고, 손익계산이 민족성에 우선한다. 국제사회의 관심도 독일 통일을 둘러싸고 유럽 국가들이 걱정했던 이해관계들과, 한반도를 둘러싼 6자 국가를 위시로 하는 국제사회의 이해관계는 우선순위에 적어도 각자의 파이 배분에서는-에서 경제적인 쪽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이념적 가치 위에 다른 문화적 가치들 간의 갈등이 더 복잡하게 얽혀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는 오히려 이념을 통해 서로를 분리하는 갈등이라기보다는 좀 더 민족적이고 사람들을 뭉치게 하는 종류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선 '자본주의'에 입각한 경제적 갈등이 최우선시 되고 있다. 민족의 최우선과제가 평화통일인 것을 외칠 수 있었던 그 당시의 동독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경제적 성장이 최우선과제인 오늘날의 한국 사람들의 불협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가치의 변화와 사고방식의 변화가 한국 사람들이 통일을 '잘 살게 되면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우선 잘 살게 되고 나중에' 또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하면 뭐가 좋지?' 식으로 바꾸어 놓은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1980년대 이전의 가치관을 가진 기성세대들의 걱정과, 그 이후 세대들의 비용 산출 방식 차이에서 오는 관점 차이를 서로의 입장에서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하는 것 보다, 근본적으로 방법론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과제가 아닐까?

독일과 한국의 같은 듯 다른 점의 또 하나는 동독, 서독 상황과 우리를 비교한다면, 이념적으로 사회주의 동독은 북한과, 자유주의 서독은 남한진영과 닮아있다는 것이다. 자유선거가 아직 치러지지 않고 독재체제 안에 남아 있는 것도 북한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일어나도록 기다려야 할 것인가? 그러면 그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서독 사람들과는 달리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여 주면서 반갑게 맞아 주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념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동독 사람들처럼 먼저 강

하게 통일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북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만 하는가? 오히려 지금의 우리는 후자의 동독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이념적으로 동서독을 한국에 비교할 것이 아니라, '통일에 대처하는 자세'로 우리를 비교하여야 통일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우리 스스로 그려보고, 설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명심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독일 통일의 과정을 이야기해 주면서 연사 중 어느 누구도 '한국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든지, '한국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연사님들은 독일 통일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이를 받아들일지, 반대로 할지의 선택문제는 별개라고 명시하고, 한 분이 비슷한 점을 짚 말하고 나면 다른 분이 다른 점을 이어서 말씀하실 정도였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한반도의 통일미래 비전이다. 사전에 명시된 비전은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 '이상', '전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통일미래 비전은 예상일뿐이고, 연사님들이 제시하신 비전은 우리의 '믿음'과 '의지'와 '용기'가 없다면 실현 불가능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런 비전들 중 '용기'라는 말이 참 와 닿았는데, 어릴 때 위인전을 읽을 때마다 위인들의 '용기'에 대해 매일 매일 들으며 자랐지만, 20대 오늘을 살면서 '용기'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나 하는 반성의 의문이었다. 자유를 향해 용기를 내는 탈북자는 (한국 입국 기준) 매년 2,000명이 넘는다(통일부 자료 참고)는데, '용기'를 가지고 통일한국을 그려볼 수 있는, 그리고 공부하고 싶은 용기를 다시 한 번 새기는 참 좋은 시간이었다.

북한학도로서 느끼는 통일에 대한 고찰. - 한반도비전포럼 2011을 다녀와서 -

김범

북한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북한학경제, 북한의 특수한 정치체제, 그리고 북한의 인권상황 또한, 그러한 사실들이 우리나라 혹은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가장 거대하게 부딪히는 현실적 문제는 바로 지난 1945년 광복 이후 나타난 남과 북의 분단 문제, 즉 통일문제이다. 통일문제를 공부하다 보면 과연 정말 통일을 해야 하는가? 혹은 통일은 왜 해야 하는가? 비핵화가 통일에 있어서 정말로 가장 큰 걸림돌인가? 마지막으로 통일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주체적인 입장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안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대답은 단순할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통일문제라는 것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고, 첨예하게 그러한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지쳐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 소규모 충돌이 있기는 하지만 전쟁이 일어날 만한 상황도 아니고 세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괜히 통일을 해서 비롯되는 비용문제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떠맡을 필요가 있나요?” 라고 하며 통일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마다 나는 북한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한 설득하지 못한다는 데에서 커다란 자책감이 밀려오곤 했다. 하지만 난 이번 ‘한반도비전포럼 2011’을 다녀와서 나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커다란 자신감과 통일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한 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아직 사회 초년생인 나와 같은 대학생들에겐 앞에 놓인 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뿐더러 막막하기만 하다. 하지만 사회의 공신력 있는 선배님들이 얘기 해주고 보듬어 준다면 우리는 엄청난 추진 에너지를 단 자동차와 같은 힘을 갖게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포럼에선 정말 엄청난 분들이 나오셨다 할 수 있다. 김선욱 이대 총장님을 비롯해 한반도 통일의 수장역할을 하신 이홍구 전 국무총리 님 그리고 20세기 가장 큰 화제였던 독일

통일의 주역을 맡으신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독일총리님 그리고 요르크 쉐봄 내무장관님이 네 분이 참석하셨던 사실 만으로 북한확대로서 느끼는 일종의 희열을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분들은 내가 앓고 있는 통일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말끔히 해결해 주셨다. 독일의 총리이셨던 로타 드메지에르께서는 독일 시민들의 주체성 특히 동독 시민들이 했던 자유에 대한 열망을 말해주셨다. 그러한 노력 덕분에 통일에 대한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말씀 중에서 나에게 가장 감명 깊게 다가온 것은 바로 통일비용에 대한 문제이다. 독일 총리님께서 “한국 사람들은 통일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비효율적인 경제적인 측면만을 강조합니다. 민족의 통일이란 그러한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일비용은 예상치 보다 적을 수 있고 現 분단 비용은 예상보다 더더욱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통일 이후 독일 경제가 많이 뒤쳐졌던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린 행복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라고 했다. 나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은 통일문제에 있어 민족이라는 생각보다 경제적인 개념 즉 통일비용이니 분단 비용이니 하는 문제만을 고민하고 그러한 잣대로 통일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시험공부를 하는 데 핵심, 글의 요지를 보지 못하고 옆에 있는 자잘한 세부 조건들에 얽매어 공부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것에 빗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난 지금 우리들은 마치 통일이 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너무 재지 말고 세부 조건들을 무시하지 않은 채 통일이라는 품속에 조금 더 다가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계속 내 머릿속을 머물 때 쯤 이흥구 총리님께서선 수행 중인 도승이 갑자기 깨우침을 얻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을 주셨다. 바로 통일을 왜 하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이 문제도 앞에 통일비용과 연장선상에 있다면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다른 차원이다. 나이를 지극히 드신 분들에게 통일이 왜 돼야 하나요? 라고 여쭙어 보면 대부분 한민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신다. 그렇다 바로 민족의 개념이 어떤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지표보다 앞서 있는 것이다. 민족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정당성 과거 1천년 동안 단일 국가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그렇기 때문에 통일 과정에 있어 연방제니 하는 문제는 실제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물론 이러한 민족에 문제에 있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현 북한 문제는 단순히 한국과 북한과의 1대1 문제가 아닌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와 등 동아시아에서 태평양까지 많은 국가들의 이익이 얽혀있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의 정당성을 이들에게 설득하고자 할 땐 민족이라는 개념을 내세울 순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민족이란 개념이 우리와 달리 크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보다 오히려 비핵화 같은 문제가 더욱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

제는 이홍구 총리님의 말씀을 빌려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된다.”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민족, 자긍심 깊고 열정적이고 강한 민족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킬 때가 왔다. 61년이란 시간은 분단의 아픔을 기억하는 민중들을 하늘 저 멀리로 보낼 충분한 시간임에 틀림없다. 지금 대다수의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통일문제에 대해 잊고 사는 것이 현실이다. 많이 지친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자극하고 먼가 한 민족의 정기를 다시 한 번 끌어 올릴 때가 왔다. 이러한 말씀은 이 포럼이 끝날 때 쯤 나를 강하게 억눌러 왔다. 억누른다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공부해온 것보다 더욱 중요하게 있다는 것이 나를 깨우쳤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태백산맥」, 「한강」을 쓰신 민족주의 소설가 조정래 선생님의 말씀으로 글을 마친다. “민족이란 마치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물은 흐르다가 돌을 만나면 갈라져 흐르고 흙은 만나면 스며들어 다시 솟아오릅니다. 그러곤 결국 다시 바다에 가서 만납니다. 지금 우리 민족도 일시적인 헤어짐일 뿐 이러한 헤어짐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 아닌 다시 만날 것을 바로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한반도 주민을 위한 한반도 통일 한반도비전포럼 2011 소감문

김보현

포럼이 끝난 후, 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북한, 또는 통일에 대한 생각이 어떠했는지 다시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초등학교 시절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말을 외쳤던 용기 있는 어린 이승복을 그렸던 기억, 또 동시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라는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났다. '적' 이면서도 '한민족' 이라는 북한에 대한 오묘한 감정.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쩐지 망설여지는 한반도 통일. 이 감정은 1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이리저리 서로 뒤엉켜 내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떠오른 의문은 '통일은 왜 필요한 것일까?' 였다. 한반도는 왜 통일을 이룩해야만 할까? 왜 옛 동독의 유명한 정치가들이 와서 독일 통일은 어떠하였으며, 한국도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독일의 경험이 유용하길 바란다고 했을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나는 아마 거창한 통일의 이유를 찾았던 것 같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 국가의 이익을 위해? 또는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반드시 한 국가를 이루어야 해서? 우리는 이렇게 잘 와 닿지 않는 거창한 통일의 의미를 떠올리고 나서, 나와는 동떨어진 뭘지 모를 기분에 휩싸인다.

한반도비전포럼에서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는 서독의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었던 기쁨과 통일의 감격을 언급하였고, 요르크 쉐봄 전 브란덴부르크주 내무장관은 포럼 마지막에 훗날 한반도도 지금의 젊은이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손자, 손녀들을 앉혀놓고 통일의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는 발표를 끝내고 소박하게 덧붙이는 이들의 통일의 기쁨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통일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가족과 함께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는 기쁨, 과거 국제사회의 어지러움 속에서 무참히 갈라져야 했던 한반도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치유, 이러한 작은 기쁨과 의미를 위해 통일의 중요성은 부각되어야 하는 것이다. 남북한은 서로 보지도, 들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각 국가의 안보를 이유로 서로를 위협하고 적으로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안에 떨어야 했는가. '한민족'이라는 인식과 '적'이라는 인식의 틀 사이에서 6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고, 또 결국은 무심하게 지나치며 그에 따른 무력감을 느껴야 했는가.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의 힘겨루기도 아니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익 때문도 아니다. 사실은 남북한의 주민들의 불안과 동족상잔의 아픔을 극복하고, 그들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 통일은 이룩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통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아니라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북한 주민들의 행복이다.

20년 전, 독일 통일의 역사적 현장을 경험했던 로타 드메지에르와 요르크 쉐븐은 동독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 예상치 못한 통일을 위해 부지런히 대비했던 서독의 역할, 그리고 동서독간의 통일을 위한 협력을 독일 통일의 성공에 대한 중요 요소로 꼽았다. 또한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통일을 위한 남한도 서독처럼 부지런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성공적인 한반도 통일을 주도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처럼 말이다. 이번 한반도비전포럼 2011에서 내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정치학을 공부하면서도 나와 직접적으로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한반도 통일문제가 사실은 '나'와 관련된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태껏 인생을 살면서 비록 앞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한반도 통일도 그런 일련의 과정 중의 하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것이다. 결국은 내가 결심하고, 또 우리가 결심하고, 그것을 위해 함께 조정하고 발맞추어 노력하다 보면, 독일의 경우처럼 우리도 기회가 왔을 때 한반도 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은 한반도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과 성취 의지가 통일의 중요한 열쇠였다. 통일의 주도권은 미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정책 결정자들이 아닌, 나를 비롯한 한반도 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마음이 가벼워짐과 동시에 그렇다면 한반도 위에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선 해야 할 일은 통일이 우리의 행복과 멀리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는 일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번 '한반도비전포럼'과 같은 많은 행사가 곳곳에 열려 수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에게 인식의 제고의 기회를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남북한 주민들 모두, 국가란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도 전에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고, 세계대전 후에는 서구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단되었으며, 냉전의 틀을 강요당하고 결국 무엇이 주민 자신을 위한 길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여기까지 흘러왔다. 이제는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한반도는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인지, 분

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통일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겨봐야 할 때이다. 자신의 행복은 스스로 찾는 것이고, 또한 스스로 찾을 때 가장 참되고 가장 값지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통일비용이 막대한 만큼, 현 분단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 또한, 통일비용 그 자체에만 너무 연연하지 말고 통일 후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고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통일 후의 두려움 때문에 당장 제대로 된 준비는 뒷전이고 그저 통일만 반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느낄 수 있었던 대목이다. 어찌됐건 통일은 언제고 다가올 '현실' 인데 말이다. 현실을 애써 부정하고 피하려 들었던 노력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또 그로 인해서 6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민족의 분단이라는 얼마나 많은 희생과 슬픔을 초래했었는지 반성하고, 이제는 앞으로의 미래를 잘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한반도 땅의 주인인 남북한 주민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통일을 이끌어 낼까를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독일 통일을 통해 바라보는 남·북한 통일

김서영

2011년 11월 18일 금요일 이화여자대학교 음악관 김영의 홀에서 ‘한반도의 통일미래 비전’을 주제로 한 ‘비전大강연’이 있었다. 독일 통일의 주역이었던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와 요르크 쉐봄 전 베를린 내무장관, 우리나라 이홍구 전 국무총리께서 강연을 해주셨다. 쉽게 빌 수 없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주요 이슈인 통일을 주제로 강연하시는 것이니만큼 청중들의 열기도 매우 뜨거웠다. 강연 내내 나는 동독을 북한에, 서독을 남한에 대입하며 남, 북한 통일을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들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나는 사실 동, 서독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것이 없었다. 단지 ‘베를린 장벽의 붕괴’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또 나는 막연히 남, 북한의 통일에 대해서만 생각했을 뿐 통일을 위해 필요한 여러 요소나 과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다.

이번 강연을 통해서 그간 알지 못했던 독일 통일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남, 북한의 통일에 대해서 상상해 볼 수 있었다. 강연 내용 중 가장 놀라웠던 것은 서독 주민들이 아닌 동독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독일 통일을 이끌어냈다는 것이었다.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도 동독 주민들이 민주 정부를 원했고 결국 통일을 이루어냈으며, 이것은 정부가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통일이 아닌 주민들이 주체가 된 아래로부터의 통일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감동적으로 느껴졌다. 그런데 남, 북한의 통일과 대입하여 생각해볼 때 ‘과연 북한 주민들도 동독 주민들처럼 아래로부터의 통일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할 것이고, 통일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사회적인 논의로 확대해 나갈 기회조차 주어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동독 주민들이 독일 통일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한 정당을 선택하였던 것과 같은

정치 과정은 북한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동독과 북한에 존재하는 이런 객관적이고 명백한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통일 사례는 남, 북한의 통일에 대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볼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나는 특히 동, 서독간의 군대 통합의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들었다. 북한의 군대는 남한의 군대보다 양적으로 우세하다.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국방문제와 이를 뒷받침 할 군대의 문제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 중 하나이다. 과연 북한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동독의 국가 인민군의 해체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독일 군대는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마침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의 통일된 군대를 완성할 수 있었고, 이제 그들은 하나의 독일군으로 완벽히 융합하게 되었다. 통일된 이후 우리는 북한군을 통일 한국의 국방을 위한 필요 존재로 인식하고, 점차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통합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 독일을 위한 동독, 서독과 4개국 세계대전 연합국 간의 조약을 '4+2조약'이 아닌 '2+4조약'이 되도록 투쟁했다는 것에 감명받았다. 독일은 자신들의 통일문제를 세계대전 연합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양 독일 스스로가 주도하였으며 연합국은 단지 참여시켰는데 이는 통일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자세와 관련하여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 패전국이었던 독일과 달리 우리는 패전국이 아니라 패전국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독일과는 사정이 다르다. 통일에 임하는 자세는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해야 하며 독일의 경우보다 우리의 통일은 더욱 더 우리 민족 자주로부터 나와야 할 것임을 이번 강연을 통해 새삼 확신하게 되었다. 한반도는 주변에 여러 강대국을 두고 있으며, 각 국가마다 통일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 민족 자주에 의한 통일 추진은 어려움이 큰 것이 현실이다. 이런 면에서 정부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통일을 위한 노력이 남, 북한 주민들의 통일에의 염원으로 자주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이상적이고 그렇게 되어야 하겠으나, 통일을 위한 대외적인 여건과 분위기 조성은 남, 북한 정부의 몫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통일을 주도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남한 정부에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편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와 이흥구 총리께서는 통일비용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강조하셨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통일을 위한 비용이 오랜 기간 경제를 위축시킬 것을 염려하며 비용자체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한다고 언급하셨다. 통일 이후의 시대에는 현재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는 분단 비용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될 것이므로 통일비용을 미래를 위한 투자비용이라 생각하고,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독일은 분단 45년 만에 통일을 이루어낸 반면, 우리나라는 분단된 지 60년이 넘었다. 분단 이전의 하나의 조국을 경험한 세대보다 그렇지 못한 세대들이 늘어나면서 통일에 대한 간절함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도 한반도의 통일은 동, 서독의 통일보다 더욱 어렵고 치밀한 준비를 필요로 할 것임이 분명하다.

독일 분단, 통일 과정과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통일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이번 강연은 특히 역사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내게 매우 유익했다. 한편 독일 통일의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통일과정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도 통일 한국의 역사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우리의 통일과정을 자랑스럽게 가르치고 싶어졌다.

통일의 영향에 대한 새로운 시각

김수연

‘한반도의 통일미래 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금요일에 이화여대에서 한반도비전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포럼에는 전직 동독 총리셨던 로타 드메지에르 전 총리와 전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 내무 장관이셨던 요르크 쉐봄 전 장관, 그리고 전 총리이셨고 현재 통일고문회의 의장을 맡고 계신 이흥구 전 총리님이 연사로 서시고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님이 사회를 보셨다. 로타 드메지에르 전 총리님은 독일 통일 이후 동독에서 제도적으로 어떠한 개혁을 해야했는지를 중점으로 포럼을 시작하셨고, 그 뒤 요르크 쉐봄 전 장관님은 독일 통일 이후 군대 통합 문제에 대한 연설을 하셨다. 그리고 이흥구 전 총리님은 독일과 한국의 외교적, 지리적 차이점을 설명해주셨다. 그런 후에 이 포럼에 참석한 다양한 학생들의 질문 기회가 주어졌다. 이 질의응답 세션에서 학생들은 독일의 통일과 한국의 통일에 관한 흥미로운 질문들을 많이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연사님들이 매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다.

이번 포럼은 우리와 같은 시기에 분단되어 더 빨리 통일하게 된 독일의 사정을 그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통일의 과정의 중심에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인상적이었다. 우리가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통일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이 연설을 통해 통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게 되었다. 첫 번째로는 통일을 북한 입장에서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통일이 일어나면 생기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군대 문제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로는 통일을 통해 사회 개편이 이루어 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통일에 대해 생각할 때, 나를 포함한 많은 한국 사회의 사람들은 남한에게 미칠 영향을 위주로 생각한다. 통일을 고려할 때, 남한이 치러야 할 통일비용,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회에 미칠 영향 등등을 위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통일 후 북한의 입장에 관해서는 그저 그들에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그들이 자본주의 체

제나 현재 남한의 사회체제에 적응하지 못할 것을 걱정한다. 물론 이러한 입장은 남한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포럼을 통해서, 이러한 통일에 대한 인식이 통일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안일한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앞에서 말한 남한이 통일이 북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생각은 거의 탈북자가 남한에 오면 겪게 될 문제들에 대한 걱정 정도에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동독의 통일 과정을 바라보면 북한의 사회가 스스로 변혁해서 남한과 어우러지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통일은 북한에 남한의 모든 체계를 복사해서 붙여 넣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사회가 수많은 논의를 통해서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드메지에르 전 총리의 연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통치 체제와 정부 체제의 개편은 통일의 시작이자 뿌리에 해당하고, 결국 통일의 본질적인 과정은 북한 사회의 모든 체제의 개편에 있다. 동독이 그랬듯이, 북한의 통치체제도 물론이고 북한의 지역 행정 체제, 화폐 체제, 노동 조약, 법률 체제, 학위 체제 등 수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한 사회 위주의 통일 인식을 벗어나 통일이 구체적으로 북한 사회 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더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통일이 북한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사고에는 북한의 군대의 변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독일의 통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군대 통합 문제였다. 요르크 쉐븐 전 장관님의 연설에 따르면, 독일의 군대는 서독의 연방군 체제로 합쳐졌으나, 그 과정에서 동독의 군인들에 대한 신뢰 문제, 그리고 군사력 문제는 국가의 엄청난 투자와 많은 논의를 통해서 해결되고 있다고 하셨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에서 더욱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독일은 패전 국가였기 때문에 군사력을 많이 가지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을 받은 나라이다. 또한 그들은 내전을 통해서 분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침공의 염려가 있긴 해도 크지 않아 서로를 공격하기 위한 군대가 크지 않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은 이와 매우 다르다. 남한과 북한은 패전국도 아니고, 한국 전쟁이라는 끔찍한 내전을 통해 분단된 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은 통일 당시 독일보다 더욱 큰 군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남북한은 군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런 의무병 제도는 사회에 뿌리 깊은 요소이다. 남한의 경우 남성은 대체로 2년 정도를 군에서 복무해야 하며, 북한은 기간이 훨씬 길어서, 남성은 자신의 삶 중 10년을 군대에서 보내게 된다. 즉 우리는 더욱더 많은 수의 군인들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며, 군사력 해체에 관한 사회적 논쟁도 더욱 크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통일을 생각할 때, 김정일 정권의 몰락만을 생각하지만, 김정일 정권이 몰락한다고 해도 북한의 군대는 없어지지 않는다. 또한 통일 이후에 그들은 북한의 군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군대가 되며, 이들에 대한 사후 해결은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기에 통일에 대한 인식에는 통일 이후 대한민국의 군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언제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위에 두 문단에서 나왔듯이 통일 이후에 새롭게 고려되어야 할 것을 배우기도 하였지만, 통일의 이점에 대해서도 새롭게 느낀 바가 있다. 통일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변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다. 초기에 나타났던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헌법을 수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화 과정에서 헌법 개정을 한 이후 큰 헌법 개정이 실행된 적이 없다. 하지만 로타 드메지에르 전 장관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통일 과정을 보면 많은 법들이 바뀌는 데, 이것이 헌법을 뒤집을 정도의 변혁은 아니지만 사회 근본적인 법체제도 영향을 받는 변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위에서 말했듯이, 통일의 과정을 통해서 북한에 남한의 모든 것을 복사해서 붙여 넣는 것이 아니라, 두 사회의 체계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의 체계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 독일 보다 영토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의 변화는 더 큰 여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고 이러한 변화가 싫어서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통일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가 쉽게 얻지 못하는 두 번째 찬스를 얻는 것이다. 통일이라는 큰 변혁의 기회를 통해서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점 등 많은 것을 해결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우리 영토로 추가됨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일제 강점기의 친일파 재산 환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지 모른다. 북한 토지의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건국시기에 해결되고 넘어가지 못했던 사회 문제들이 다시금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포럼을 통해서 통일 이후에 영향에 대한 다양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되었다. 우선 통일 이후 상황에 대한 남한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통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군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한 통일로 인한 급격한 변화가 통일의 이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로 인해 당장 생겨날 비용만을 걱정하지만, 통일은 그런 것보다는 더 큰 변화의 행동이다. 우리는 이러한 통일에 대해서 단순한 비용만을 걱정하지 말고, 정말로 사회 전체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연구해야 한다. 통일이 언제 될 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 이러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만 최소한의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다고 통일의 비용을 너무 걱정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통일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두 독일 연사 분께서 마지막에 제일 강조하신 부분은 통일의 비용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통일을 통해 얻게 되는 우리의 역사, 문화, 민족적 반쪽이 모든 경제적 비용보다 소중한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 미래 비전 (Visions for a unified Korea)” 강연을 듣고... 준비와 용기, 그리고 하나의 마음

김영은

“제가 조약에 서명을 하고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을 때, 그 순간의 감정이 벅차올랐고, 그래서 저는 서명을 위해 준비됐던 만년필을 기념품으로 가져왔습니다. 출입문을 나오는 순간 뒤를 돌아보았고, 다른 서류 결재판 옆의 모든 만년필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양 독일 국가의 양 국민들의 자결권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재통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 동독 총리, 로타 드메지에르(Lothar de Maiziere)의 기념사 중, 그가 벅찬 가슴으로 독일 통일에 관한 일화를 소개한다.

서독과 동독의 통일이 이루어진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은 현재의 한반도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한반도비전포럼 2011의 비전대강연은 통일을 향해 이루어진 독일의 행보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위해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야 할 지를 생각해 보고자 했다. 과연 독일 통일 과정을 통해 한국과 북한의 통일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해낼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지만, 독일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극과 용기를 얻어 통일을 위한 우리의 모습을 성찰해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독일의 통일은 일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길고 세밀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한 체제의 다른 체제로의 편입이 아닌, 합의와 인정으로 일궈낸 통일이라는 점이 매우 인상깊었다. 독일 통일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공산주의 체제하에 살았던 ‘동독인들의 용기’였다. 그들은 스탈린주의적인 독재체제를 시위로 쓸어버렸고 민주화 과정 자체를 장악하여 평화적인 혁명을 완수한 것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재체제의 붕괴와 민주화과정과 더불어 이 동독인들의 용기는 현재 북한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어야하며, 북한 주민들에게도 인간의 근본적인 갈망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의 대한 열망이 크게 불타오르는 용기가 생겨나기를 바란다.

이렇게 베를린의 치욕적인 장벽은 무너졌고, 그 이후 서독과 동독의 얼마나 큰 노력과

지혜가 필요했는지, 포럼에 초청된 전 동독 로타 드메지에르, 전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 주 내무장관 요르크 쉰봄 강사님들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의 노력과 과정은 매우 치밀하고 정직했으며 숭고하기 까지 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로도 동독에는 잠시 새로운 동독이 존재했지만 이들은 '사회주의, 스탈린주의' 보다는 '그들의 자유와 평화', '주권과 자아'에 집중하였으며, 폴란드의 모범에서 따온 '원탁회의'를 통해 선거와 같은 정치적인 문제를 의결하는 등 큰 변화를 이루어냈다. 사실상 동독인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매우 새롭고 어색할 것이었으나 이렇게 그들 자신을 없애며 점점 통일을 향해 통합의 길을 간 것이었다. 이러한 '밑으로 부터의 개혁'과 '오직 통일을 위한 정부조성'이 얼마나 뜻 깊은 일인지 알기에 나에게 너무나도 큰 인상을 심어주었다.

이를 시작으로 독일은 서독과 동독간의 수많은 조율과 협의를 통해 '법의 통합, 사회통합, 경제통합 그리고 군의 통합' 까지 이루어갔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동독에게 체제 전환에 관한 철학이 없었고, 서독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지만 서독 행정부도 역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 서독에는 무려 40여 년간 우리나라의 통일부에 해당하는 비싼 전독문제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체제통합에 있어서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 시점에서 나는 현재 대한민국의 통일부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의 통일부가 형성된 이후로 통일부에서는 통일의 조장과 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서독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체제통합에 있어서 즉 경제, 사회, 문화, 법, 군 등의 복합적인 통일에 있어서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세 번째 초청강사님 이흥구 통일고문회의의장의 강의내용 중에서도 한국 국회의 4당 모두 합의 하에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지속적으로 채택되어왔다고 한다. 모든 당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만큼 뜻 깊은 결과 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한국도 서독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더욱 전략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한반도 통일의 긍정적인 결과가 훨씬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다.

반세기를 넘는 가까운 한반도의 분단을 통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처럼 통일된 법률 공간, 통일된 경제공간, 또한 국사안보적 통일을 위한 사전적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금부터 양국간의 신뢰형성을 바탕으로, 우리는 우선 방법론적인 기본접근방식에 대해 어떤 것이 이 모든 문제를 하나로 하기 위해 적절한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즉,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 계획이 북한의 국민들, 즉 독재주의와 교주주의로 물든 북한 부패주의 군인들을 대할 것이며, 또한 통일된 한반도의 군대가 어떠한 과제를 가져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위와 같은 독일 통일에 일조한 강사님들의 조언은 현재 우리 한국과 북한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한층 더 자극하였고 우리의 현 시점과 각 양국의 처사에 대해

깊게 성찰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잊혀 가고 있는 통일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시간이었고 이번 '비전대강연'을 통해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북한 주민들의 용기'와 '대한민국의 통일을 대비한 준비', 그리고 '각 양국의 국민들의 한마음'이 모이면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비전은 긍정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리더가 되어 이러한 통일문제의 긍정적인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싶고, 이번 강연에서 직접 생생히 전해 듣고 배운 독일 통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밝은 미래에 일조하는 인재로 거듭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준 이번 '비전대강연'은 매우 뜻 깊은 자리였다.

두 시간 반 동안의 흥미로운 이야기, ‘비전大강연’

김에다

나에게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이 어떤 책이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9살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먼나라 이웃나라 독일편’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아직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던 어린 나에게 책에 실려 있는 시민이 직접 베를린 장벽을 부수는 사진과 부수고 난 후에 서로 눈물을 흘리며 껴안는 장면은 왠지 모를 벅찬 감정을 느끼게 해주면서 동시에 통일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사진을 보고 처음으로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끼게 해준 그 사건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마침내 통일을 이룬 분들이 ‘한반도의 통일미래 비전’이란 주제로 하는 강연에 대한 소식은 수능시험의 부담감도 잠시 잊을 만큼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강연은 전 동독 총리였던 ‘로타 드메지에르’와 전 독일 국방부 차관이자 베를린·브란덴부르크주 내무장관이었던 ‘요르크 쉐봄’,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홍구’ 전 국무총리 이렇게 세 분이 해주셨다. 원래 예정된 2시간보다 30분 정도 연장되었지만 강연을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서 ‘혹시라도 학교수업이랑 비슷하면 지루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던 나의 머릿속을 180도로 바꿀 정도로 이야기 하나하나가 모두 보석처럼 값지고 귀한 내용으로 가득 차있었다.

강연의 첫 순서를 맡은 드메지에르는 독일의 통일과정에 대해 얘기해주셨다. 내가 드메지에르의 강연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본주의였던 서독과 공산주의였던 동독의 통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동독인들의 자발적인 체제붕괴’라는 것이다. ‘동독인들의 자발적인 체제붕괴’란 일반 주민이 알 수 있는 정보가 극히 적고 지배계급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를 교육하는 북한과는 달리, 비교적 쉽게 세계의 정보를 알 수 있었던 동독의 국민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베를린 장벽을 부수고 자유투표로 결정하여 민주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2+4조약에서 있던 짧은 일화다. 독일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진 후 승리한 4개 나라로 구성된 연합국에 의해 분단된 나라이기 때문에 동독과 서독 두 나라의 이해만으로는 통일할 수 없었다. 따라서 통일국가의 완전한 주권을 되찾기 위해 연합국의 승인이 필요했고, 이에 연합국과 동·서독 사이에 이루어진 조약이 2+4조약이다. 드메지에르가 이 조약에 서명하고 밖으로 나오려 할 때, 그 순간의 인상이 벅차올라 서명을 위해 준비됐던 만년필을 기념품으로 가져가고 출구에서 잠깐 뒤를 돌아보니 다른 만년필이 모두 사라졌다는 걸 확인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에서 나는 다른 나라들의 대표들도 동·서독의 통일을 같은 감정으로 느꼈다는 것에 부러움을 느꼈다. 그리고 나도 드메지에르처럼 남·북한이 통일되는 순간의 벅차오르는 감정을 직접 느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분명히 그 순간은 다른 어떤 순간보다 뿌듯하고 아름다울 것이다.

두 번째로 강연한 쉐븐은 통일 후의 독일에 대해 얘기해주셨다. 쉐븐의 강의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동·서독 군인들의 위상 차이와 그것이 좁혀지는 과정이다.

Zeit 신문에 한 연방방위군의 대위는 “국가 인민군(NAV)은 동료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국가인민군의 중위는 “우리는 오로지 충성했다”라는 제목으로 기고문을 실었다고 한다. 기고문 하나에서도 보이는 이 위상 차이를 좁히기 위해 쉐븐은 ‘병역의무는 통일과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명백한 의지의 표현이다. 우리의 연방기와 국가가 통일의 상징인 것처럼, 군대 역시 그렇게 돼야 하며, 하나의 독일의 군대에서 체험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기본이념을 세웠고, 서로 다른 연방방위군과 구 국가인민군이 서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하는 작업을 쉽게 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독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적개심이 점차 사라지고 선입견들은 증명되지 않고 오로지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한다. 공동의 미래에 대한 노력이 과거에 고착된 사고를 밀어낸 것이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

마지막으로 강연해 준 이흥구 전 총리가 말한 것이 가장 뼈아프게 다가왔는데,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져서 나뉘게 된 독일과는 달리 오히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강제 합병으로 말미암은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는 독립투쟁으로 독립된 나라가 된 승전국이다. 그런데 패전국인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의 이해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뉜 아픔을 가지게 된 것이다.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고 진 대가가 아닌, 단지 패전국인 일본에 원치 않는 강제합병으로 말미암은 식민지배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민족이 만날 수 없게 되고 연합국들의 이념대립 때문에

남·북의 이념도 서로 달라져서 아직도 휴전인 상태로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

지금 우리는 끊임없는 통일에 대한 교육으로 북한 주민이 나쁜 것이 아닌 독재정치를 하는 지배계급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북한 주민은 과연 우리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통일 후에 독재주의로 물든 북한 부패정부의 군인들과 남한의 군인들이 합칠 때, 독일보다 어려움이 적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전부 극복하고 정말 진실한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에 나온 얘기 중에 통일 후 부담할 비용에 대해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다. 실제로도 동·서독은 현재의 남·북한보다 경제적인 차이가 작았음에도 통일 후에 서독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동독을 끌어올리기 위해 상당한 세금이 국민에게 부과되었다. 통일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분명히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 텐데, 그렇다면 '통일을 하면 우리가 돈도 다 내고 부담만 될 텐데 차라리 통일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실제로 나도 조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드메지에르는 분단 때문에 들어간 비용은 낭비지만 통일 후에 들어간 비용은 투자라고 했다. 분단 때문에 들어가는 각종 군비나 통일을 위한 정책 때문에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용은 통일 때문에 생기는 낭비지만, 통일 후 휴전이 아닌 종전 덕분에 생기는 안정감이나 육로를 통한 교역이나 군비를 절약하고 경제발전이나 복지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확실히 우리나라는 영토의 넓이와 국민 수에 비하면 군인의 수가 너무 많다. GFP에 따르면 핵무기를 제외한 종합 군사력 순위에서도 7위를 차지하고 있다(2011 기준). 이는 우리보다 영토의 넓이와 국민 수가 훨씬 위인 독일이나 캐나다보다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바로 옆의 경제대국이라는 일본보다도 2단계 위에 있다. 북한도 따로 군비를 지출하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우리는 과연 얼마나 군비에 낭비하는 것일까? 그리고 통일 후에 그 낭비되는 군비를 경제발전에 사용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드메지에르의 답변을 들으면서 통일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모습을 상상해 봤다.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마지막 질문은 통일 후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것이 어떤 것이냐는 질문이었는데, 드메지에르는 옛 신성 로마의 유적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꼈다고 했고 쉐봄은 질문 전에 이미 이에 대해 대답을 했었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동독을 탈출한 지 45년 후에 이뤄진 통일을 통해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행복과 다시 찾은 고향에 대한 기쁨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강연을 통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통일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인식이 바

뛰었고, 오히려 빨리 통일이 되어 지금은 북한에 있는 옛 고려의 수도인 개성에 있는 유적들도 보고 싶고, 기차를 이용한 육로횡단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는 남·북한으로 나뉘어 있고 국가의 이념도 달라 통일이 된다면 처음에는 경제적이거나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힘들 것이다. 그러나 쉼봄이 통일 후에 알게 된 그 행복을 우리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정치적인 통일만이 아닌, 진실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진실한 통일을 위한 발자국을 남길 수 있다면 인생에서 정말 멋진 일이 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Vision 대한민국 청년의 역할을 촉구하다

김주현

“역사의 흐름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이 개혁과 개방, 시장경제를 통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통일에 있어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 흐름에 따라 갈 수 있습니다.”

- 이홍구 (전 국무총리)

“동독시민들의 자유에 관한 열망은 높았습니다. 독일 통일은 국민들의 열망이 집중한 결과입니다. 북한의 국경 근처에서는 기본적 시장경제가 형성되어 있다고 들었으며 북한을 떠나는 주민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먹을거리에 대해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스스로를 책임지는 방법에 대해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언젠가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

“독일의 청년들은 독일의 분단과 통일을 모두 경험한 어른들에 의해서 간접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분단과 통일을 겪은 어른들이 그들에게 교량(다리)역할을 해주고 역사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요르크 쉐븐 (전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주 내무장관)

역사의 흐름을 통해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파악한 이홍구 전 국무총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유와 민주화에 대한 갈망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어 낸 동독시민의 역할에 대해 강조한 드메지에르 전 동독총리, 국가인민군과 연방방위군의 동지애와 신뢰감, 열린 마음으로 진정한 통일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한 요르크 쉐븐 전 내무장관. 이 세 강사의 강

연을 통해 우리는 통일의 가능성을 긍정하고 당위성을 인식하며, 통일한국을 위해 청년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비전대강연>에서 논의된 독일 통일사례를 바탕으로 한 통일논의는 66년의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청년의 역할이 무엇인지’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해 주었다.

먼저,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통일의 가능성과 당위성을 주장한 이흥구 전 국무총리의 발언은 세계화와 다문화주의가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20대 청년들에게 통일을 바라보는데 있어 한국의 특수성과 역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국민국가 형성과 더불어 민족주의가 논의되어 온 서구와 달리, 국가와 민족이 일치되는 ‘한민족주의’를 가진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일의 당위성은 여러 민족이 결합되며 형성되어 온 독일의 상황과는 다르다. 베네딕트 앤더슨과 같이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로 정의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포스트모더니즘과 다양화가 부각되는 현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족적 가치와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통일의 당위성보다 국가의 경제적 이익과 대외적 안보를 바탕으로 한 통일의 당위성이 더 우선되어 질 수 있다. 그러나 반만 년 역사를 통해 형성된 남과 북의 공감대와 민족성에 대한 인식과 고려가 부재한 통일논의는 통일에 대한 당위성에 있어 더 큰 공감대를 쌓는데 한계로 작용한다.

이와 더불어, 통일비용에 대한 드메지에르 전 총리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통일비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변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동족상잔의 비극과 분단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은 현 20대 청년들에게 있어서 통일은 비용과 안보의 측면에서 고려되는 ‘선택과 기회비용’으로 종종 인식된다. 그러나 드메지에르 전 총리는 통일에 대한 열망과 연대감을 강조하며 통일비용은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비용으로 인식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198~90년대에 다수의 서독인들이 통일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고 통일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겼을 때, 통일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통일비용과 안보에 대한 분석과 걱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평화적으로 혁명을 완수한 동독인들이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통일이 논의되는 틀을 비용과 안보라는 단기적인 인식의 틀에서 확장하고, 당장 지불되는 통일비용을 측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통일한국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투자비용으로의 인식전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렇다면, 통일의 당위성에 있어서 한국의 역사와 민족주의를 이해하고, 통일을 논의하는 틀의 확장을 바탕으로 한 청년들의 구체적인 역할과 실천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한 가지 방안을 요르크 쉐븐 전 내무장관의 연설과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끊임없는 역사의 간접 경험과 인식이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서독의 학생들은 조부모와 부모를 통해 분단독일 이전의 모습과 동독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했으며, 동

독의 학생들은 서독으로의 수학여행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끈을 계속해서 놓지 않고 유지 시킬 수 있었다. 한국의 청년들 역시 간접적인 체험과 역사적 경험을 통해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관심과 통일에 대한 열망을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의 참여와 개최로서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청년들이 경험한 행사는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의 통일글짓기, 표어, 포스터 그리기 등의 활동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통일관련 행사는 콘텐츠 면에서 점점 다양성을 띄어가고 있으며, 기존의 참여중심의 수동성에서 벗어나 주제적인 참여와 개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통일부에 마련되어 있는 다양한 행사와 더불어, 북한인권학생연대와 청년지식인 포럼 Story K가 주최한 ‘안보서평 공모전’, 남북 대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북한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소통하는 이화여대 통일연구원 주최의 ‘역사·통일·평화 토론대회’ 등이 대표적이다.

간접경험으로써의 체험 외에도, 미래의 통일한국을 대비하기 위해 20대 청년들은 연습이 필요하다. 동독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통해 서독을 인식하고 서독학생들이 윗세대의 경험을 통해 동독을 인식했듯이, 66년의 분단으로 인한 남북의 차이를 줄이고 이해하기 위해, 대한민국 청년들은 북한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의 사회, 문화에서의 소통은 언뜻 상상하기가 어렵다.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작동 중이고 남한 내의 북한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의 경계에 서있는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간접경험과 통일을 위한 연습을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체제에서 탈출하여 남한체제에 적응하고 있는 존재이다. 그들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다가가는 과정으로서의 존재로서, 남한과 북한의 시각이 공존하고 소통되는 과도기적 존재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만 여명에 달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된 소통을 통해 통일의 미래 주역인 대한민국 청년들은 통일에 대한 준비와 연습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 이는 통일비용의 추산과 준비, 국방력의 강화만큼 중요한 통일의 준비이다.

독일의 통일과정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스스로 만들어간 ‘통일에 대한 교과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의 이론이 실제상황의 적용에 있어 모두 부합하지 않듯이 독일의 통일과정을 한국의 통일준비 과정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다. 그렇기에 <비전대강연>을 통해 고민하고 고찰한 한반도의 통일 비전은 독일과 한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통일 교과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통일교과서를 만들고 한반도의 통일비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통일의 주역인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역할이다. 한반도의 통일 Vision은 대한민국 청년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함께 웃을 한반도의 그날을 기약하며...

김혜영

작년 이맘때였을까? 각종 미디어를 통해 독일 통일 20주년을 지켜본 나는 부러움이 가득했다. 나뿐이었으랴, 모든 한반도의 사람들이 그러했으리라 믿는다. 6.25 전쟁 이후 하나가 아닌 둘이 되어 살아야만 했던 한반도의 우리 민족은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될 그날을 꿈꾸고 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 산적해있는 문제들은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만 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우리처럼 분단되어야만 했던 독일이 1990년에 통일을 이룩하면서 우리는 독일을 통해 미래의 통일 된 한반도를 예상해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비전포럼 2011의 비전대강연의 강연자로 나선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도 언급했듯이 독일 통일을 통해 한국을 위한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고자 한다.

독일 통일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동독인들의 평화적 혁명을 통한 통일의 사수였다. 서독과 동독의 지도자들이 만나 통일을 협의하고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통일이 아니라 동독 주민 스스로 당시의 체제에 대한 불합리성을 느끼고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일으킨 혁명을 통해 통일의 초석을 다지고, 결국에는 통일이라는 거대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이것이 한반도에 시사하는 바도 상당하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제대로 된 전국적인 혁명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너무 공고화되고, 억압된 체제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제대로 된 혁명의 길을 택하는 것이 어려울지 몰라도 한반도의 주체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쟁이 끝난 후 1961년 베를린에 본격적으로 장벽이 생기기 시작해서 1989년 이 장벽이 허물어 질 때까지 독일은 약 30년간을 두 지역으로 분단된 채 주민들은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야 했다. 하지만 동독 내에서는 서독의 TV프로그램 시청이나 라디오 청취가 가

능했고, 동독의 학생들은 수학여행으로 서독을 방문할 수 있기도 해 비교적 서로의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반면에, 이미 한반도는 분단 된지도 어언 60년이 넘었고, 서로에 대해 점점 무지해져만 가고 있다. 이는 훗날 통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남과 북의 문화적 차이를 좁히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은 분단된 지금부터 미래를 대비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질성을 없애고자 하는 것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통일과정에서 독일 자체의 주체성을 회복하고자 한 독일의 노력도 큰 시사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대전 연합국 4개국과 양 독일간에 이루어졌던 조약인 4+2 조약을 2+4조약이 되도록 두 독일은 투쟁했다. 얼핏 보기에는 그냥 똑 같은 조약으로 보일지 몰라도 4+2냐, 2+4이냐에 따라 독일의 완전한 주권의 소재여부가 달라졌다. 양 독일 국가는 양 국민들의 자결권 속에서 자신들의 재통일을 결정하였다. 한반도의 남한과 북한도 우리 국민들의 자결권 속에서 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 치하에서 갓 벗어나 혼란을 겪는 와중에 우리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나라의 이념대결의 부산물과도 같은 분단을 시작하여야 했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의 과정에서만큼은 주권 국가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독일과 같은 주체성을 가지고 통일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혹자는 혹시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되어 중국이 한반도의 북쪽을 점령하여 북한이 중국으로 편입되면 어찌나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이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의문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중국에 예속된 국가가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주권을 가진 하나의 국가에 속한다. 이런 국가가 무너졌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국가인 중국이 접근하여 북한을 중국에 편입시킬 수 있을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최근의 경제난 속에서 중국의 경제적 원조에 의지하고 있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체제적 유사성에 의한 북한의 의지일 뿐, 중국에 모든 국가의 권리를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북한 체제가 갑자기 무너진다고 해도, 북한은 한반도의 남한의 반쪽으로써 통일된 한반도를 이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북한 정권이 급속도로 무너질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는 지금부터 착실히 통일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통일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견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양해야 할 부적절한 태도이다. 통일하게 되면 한국의 경제가 반 토막 날 것이라는 언론의 호들갑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통일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북한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남쪽의 물자가 많이 소요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미 거의 포화상태에 이른 남한의 산업상태가 황무지에 가까운 북한의 토지와 자원을 개발하게 되면 새로운 경제자원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또한 통일을 이루게 되면 그 동안에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왔던 군사비와 같은 분단비용을 통일비용으로 돌려쓸 수 있기 때문에 통일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통일을 함으로 인해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통일을 미뤄서는 안 된다. 경제적 이유 때문에 민족의 숙원인 통일이 차일피일 미뤄진다는 것은 목적인 통일과 수단인 경제적인 것이 도치된 것이다. 시간이 갈 수록, 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줄어들 것이고, 그 이후의 젊은 세대들은 통일의 필요성을 그 이전 시대보다는 덜 느끼게 될 것이다. 이는 통일을 이룩하는데 방해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 빨리 한반도에서도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써는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남북한이 더 밀접하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번 강연은 나로 하여금 통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통일에 무관심한 젊은이들 중의 한 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통일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생각하는 의식 있는 젊은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보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또래의 친구들도 국가의 주요 사안의 하나인 통일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보다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을 얻고 목소리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유럽의 독일과 아시아의 한반도는 닮지 않은 듯 하면서도 묘하게 닮아있는 국가이다. 과거 통일의 과정에서 독일이 겪었던 문제들을 한반도의 미래와 대비해보며 미리 준비하게 된다면 어쩌면 독일보다 더 나은 통일 이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함께 웃을 미래의 한반도를 기약하며...

다가올 통일한국의 미래, 그 꿈을 만지다

김효연

북한과 통일은 줄곧 제 관심사입니다. 구글어스 프로그램으로 가볼 수 없는 북한 땅 곳곳을 구경했던 지리적 관심에서, 대학교에 온 후 다문화에 관한 교양 수업에서 한국 사회에서의 탈북자들의 삶을 접하고 난 후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방학 때 탈북청소년 돕기 캠프에서 만난 인연으로 탈북자 출신의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지금은 함께 NAUH(Now Action & Unity for NK Human Rights)라는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남북의 청년들과 스스로 통일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함께 거리 캠페인을 하고,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던 중 통일학연구원 등으로 통일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 저희 학교에서 독일 통일의 주역들을 모시고 '한반도비전포럼 2011'을 연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방청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번 포럼을 통해 저는 독일 통일에 대한 두 가지 선입견을 없앨 수 있었던 데에 큰 소득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독 시민들은 통일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가질 준비조차 되어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많은 정치가들 역시 독일 통일을 반대했고, 현실적인 통일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불편했다는 당시 상황이, 오히려 남한의 여론보다도 부정적인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독일이 현실이 된 지금, 당연하게 이루어 졌다고 생각한 독일의 통일이 서독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문제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드메지에르 전 총리님과 쉐븐 전 베를린 내무장관님이 강조하셨듯이, 남한 시민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갖고 준비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제 선입견은, 독일의 상황이 우리나라와 매우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의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들이 취했던 조치들을 간과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강

연을 들은 후 이런 제 자세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동독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평화 혁명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들을 때, 북한에서 자발적인 민주시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는데 김선욱 총장님께서 첫 질문으로 이 문제를 꺼내시는 것을 보며 우리의 통일 시나리오 중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동독 시민들의 용기가 매우 부러웠습니다. 또한 정치가들과 군 관계자들이 동독인들과 협력하려는 자세를 통해 신뢰를 구축한 점은 통일을 위해 꼭 배워야 할 자세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점에서 독일의 통일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부분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비전대강연은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이들이 모인 자리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통일의 방안을 함께 생각해볼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친구들과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머뭇거리는 저를 발견할 때가 많고, 막상 꺼냈어도 친구들이 자신의 의견을 잘 정리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저 또한 북한인권법, 북한 식량지원 문제 등 현실정치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좌/우로 나누는 시각을 보고 제 가치관을 올바르게 세우기가 매우 혼란스러웠었습니다. 하지만 상식으로 돌아가 생각해보니 오히려 간단히 제 입장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제는 좌/우 이념의 정치적 구분은 동굴의 우상에 불과하지만 그 동안 역사적 또는 사회적 잔존들로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그 자체의 존귀함을 중요시 하면 북한 주민들의 삶이 부조리함을 잘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연사님들은 북한 주민들의 용기와 관련해서 그들이 ‘자유’라는, 어쩌면 굶주림보다 더 강력한 열망을 일깨웠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Albert O. Hirshman은 그의 저서 “Exit, Voice and Loyalty”에서 기업, 국가 등 어떤 조직을 이루고 있는 것의 특징적인 움직임을 통찰력있게 설명했습니다. 그 구성원들은 조직이 주는 유익이 감소하다고 느끼면 조직을 떠나거나(Exit) 문제점을 개선하는 목소리를 낸다(Voice)는 것입니다. 이를 결정하는 변수는 조직에 대한 구성원들의 충성도(Loyalty)입니다. 현재 북한은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서 구성원들의 충성도를 증진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며, 수령이 헌법 위에 있는 체제 안에서 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사회 구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이 ‘탈북자’라는 형태로 계속해서 조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국적’이 있음으로 인해 누리는 당연한 권리,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리는 자유 등 이런 것들의 소중함을 평소에 느끼기는 힘듭니다. 통일을 통해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당연한 권리들을 일깨워주고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매우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친구들이 이러한 배경과 의의를 인지한 후, 앞으로 함께 살아가게 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통일을 앞서 이루신 주역들이 동독 시민을 '인간답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는 존재'로 바라보았던 그 시선을 함께 공감하고 확인할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강연 도중 역사의 우연성이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는 독일의 통일을 말하는 데 있어서 '운'이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독일은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주저 없이 이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서독 정치인들은 통일을 반대했었지만 현실로 다가온 통일을 받아들이고 해결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통일은 우리에게 애매한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한국이 도약하는 기회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다가올 기회를 바로 잡기 위한 준비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는 불안하지만 그 모습을 알 수 없기에 더욱 설레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래는 언젠가 현실이 되는데 통일한국의 모습이 곧 현재의 모습으로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다가와 통일의 느낌을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메지에르 전 총리님께서 라인강을 내려다 보시며 남다른 감회를 느끼신 것처럼, 또 쉐봄 전 차관님께서 바이마르 유적을 보며 남다른 설레임을 느끼셨듯이,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그의 고향인 함경북도 무산에 가보아 그가 어릴 적 뛰놀았던 곳을 가보는 꿈을 꾀봅니다.

통일에 대한 희망 - ‘한반도의 통일미래 비전’ 강연을 듣고

노경민

2006년, 저는 북한의 금강산을 방문했습니다. 한껏 기대를 품고 올라 탄 관광버스는 휴전선을 건넜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았던 총을 든 경직된 군인들과 황량한 들판의 풍경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금강산을 하산할 때는 장난기 가득한 두 명의 북한가이드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고등학생이던 우리를 붙잡고는 남한에서 유행하는 가요를 불러달라며 졸라댔습니다. 서로 우리는 같은 민족 아니냐며 농담도 건네고 웃으며 헤어졌고, 그들의 모습은 남한의 이웃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우리와 같은 말을 하는 ‘동네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지, 새로운 외국이 아니었습니다. 이 강연에 참석하러 오는 길에 몇 년이나 지난 그 때의 기억들이 제 머릿속에 필름처럼 지나갔습니다. 통일이 되어 휴전선을 건너지 않고 금강산을 다시 밟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저는 이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가장 저를 놀라게 했던 사실은, 독일 통일의 주체는 일반 시민들의 힘이 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일부 주도 세력이나 혹은 다른 나라와의 협력이 아닌 동독 시민들의 열망이 스스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를 쟁취해냈다는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용기가 통일을 가능하게 했고, 도전을 극복하고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그들의 의지가 오늘날의 통합된 독일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사실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라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주권은 국민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공산주의 하에 있던 동독 시민들이 자유선거를 통하여 직접 동독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것에서 시민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평화적으로 이루어낸 독일의 통일에서 저는, 남북한의 국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가 한반도의 통일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우리가 한반도의 통일에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몇 십 년을 떨어져 지내왔던 두 사회가 하나가 되는 것에는 굉장한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간의 준비도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화합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과연 북한과 남한의 어른들, 어린이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화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독일 통일에서는 이를 사회적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책임감으로 해결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군대가 통합되는 과정은 무척 감탄스러웠습니다. 동독의 옛 정부체제에만 충성하도록 훈련받았을 동독의 군대가 서독의 군대와 통일된 독일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과정은 인간의 존엄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옛 전체주의에 대한 반성과 분단의 극복을 넘어 체제가 달랐던 두 군대가 이렇게 통합되어 평화를 위한 성장을 이룩하다니. 독일 통일이 겪었듯이, 남북한 통일도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독일의 문제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독일이 통일이 되는 과정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러한 귀중한 경험을 나눠주어서 감사했습니다. 한편 강연에서 통일된 사회를 위한 새로운 법률공간에 대하여 동독의 시민들이 서독의 사회에 잘 조화되도록 '두 개의 시스템 사이에 있는 어댑터와 같은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음을 들었습니다. 저는 도시공학이라는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법률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도구를 준비할 수 있고, 도시공학이라는 분야도 통일 이후의 사회 통합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공학은 지역사회와 그 환경을 계획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일정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앞으로 전공 공부를 하면서 통일 후의 사회와 연관시켜서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북한의 주민들도 참된 자유가 뭔지 배워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굶주림에 대한 갈망 못지않게 자유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갈망이 깨어나야 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북한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북한의 일반 주민들과 어떻게 교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북한을 떠난 주민의 수가 2만명 정도이고 그 추세는 더 증가하고 있다는데, 지금 이들을 안전하게 남한으로 인도하고 남한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경제체제 사회에서 산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장경제체제가 낯선 북한 주민들이 여기에 적응하고 자신들의 삶을 꾸려갈 수 있고, 이를 넘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고 인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독일의 통일은 좋은 모범 사례이고 참고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의 현대 역사에 대하여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일이전의 우리와 지금의 한국 사람들은 같은 비전과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똑같은 우려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도 어렸을 때는 통일이 꿈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은 통일을 이루어냈고요. 강연에서 들은 내용처럼, 통일은 당연하게 도래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상황은 계속 변하고, 때로는 통일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연은 저를 포함한 대학생들에게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란 희망을 준 것 같습니다. 남북한의 국민들이 진정으로 통일을 바란다면 말입니다. 통일은 평화를 위한 길입니다. 북한은 독재체제와 눈뜨고 볼 수 없는 잔인한 인권유린으로 세계에 악명을 떨치고 있는데요. 심지어 핵개발 문제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돌이키기 힘든 커다란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 앞에서, 예전에는 평화적인 통일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북한의 그런 행동들 때문에 꼭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반도는 비핵화되어야 하고, 평화와 인권을 되찾아야 하니까요. 예전에 들었던 ‘북한의 문제는, 시간과 인내와 비전의 장기적인 싸움이다.’ 라는 말도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독일이 통일이 된 바로 그 해 199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제가 죽기 전에는 통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연을 듣고 난 후에는, 통일을 기다리지만 말고 통일을 위하여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데 참여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강연에서 드메지에르 전 총리께서 통일이 된 후 높은 건물에서 바이마르 시를 내려다보며, 통일이 결국 되었구나 하며 감격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들으며 예전에 갔던 금강산에 대한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분단된 독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두 독일인이 통일을 이루어 내고 지금 제 앞에 앉아있다니! 하는 생각에 저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통일이 되어, 기회가 된다면 그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히도 저는 이 강연을 들은 다음날인 토요일, 새터민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의 후원회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새터민 아이들이 뮤지컬 등의 공연을 펼쳤고 함께 자신들의 꿈도 발표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한 아이는 북한에서 비행기를 타는 직업을 갖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탈북을 해서 남한에서 그 꿈을 이룰 수 있어 기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보다도, 다시 북한에 있는 자신의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 더 간절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그 모습에서, 어렸을 때 동독을 탈출했다가 통일이 되어 다시 동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는 요르크 쉐봄 전 내무장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통일의 여명을 기다리며

류다솔

나의 어린 시절 기억으로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사건은 북한 김일성 전 주석의 사망이다. 1994년의 어느 여름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할머니께서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김일성 전 주석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알려주셨다. 할머니와 나는 그날 온종일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된 뉴스 특보 및 이후의 장례식 장면도 보았다. “이제 정말 통일이 곧 오게 될지도 모르겠다”던 할머니의 말씀이 지금도 이상하리만큼 선명하게 귓전을 맴돈다. 그로부터 어느덧 17년의 세월이 흘렀고, 초등학교 1학년 어린 꼬마였던 나는 국제학을 전공하며 국제법과 국제관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진 대학교 4학년이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녘 땅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저 먼 곳에 떨어져 있고 눈앞에 펼쳐질 듯하던 통일의 그 날은 아직 먼 미래의 일처럼 아득히 느껴진다.

동아시아 국제 관계의 형성에 남북한의 분단 현실은 언제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히곤 한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북한의 핵무기 실험 및 영변 핵시설과 관련한 논란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의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6자회담 역시 주요 당사국인 북한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은 국내외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여기에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까지 겹쳐서 식량 부족, 영양실조 및 빈곤의 심화 등으로 기아와 아사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는 국제사회에 안보, 인권, 개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여전히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비롯된 ‘햇볕정책’을 통해 대북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나, 2002년의 서해교전과 2010년의 천안함 포격 및 연평도 사태 등과 같은 북한의 만행이 이어지면서 남북한 사이의 적대적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긴장감이 다시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나는 강의를 통해 평소 궁금했던 북한의 실상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자 북한 정치론이나 동아시아의 인권 등과 같은 강좌를 수강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나에게 통일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등에 대하여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한반도비전포럼 2011’을 통해서 그동안 품어왔던 나의 의문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드메지에르 전 총리의 통일을 향한 독일의 5단계 조치에 대한 연설에서 독일의 통일이 단계별로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알 수 있었다. 또 쉐봄 전 내무장관의 연설에서는 그간 쉽게 접하지 못했던 퇴역 육군 중장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통일에 대한 견해를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인상적이었다. 한편 이흥구 전 국무총리의 통일과 관련한 한·독 비교 분석은 통일을 준비하는데 있어 우리에게 요구되는 과제가 매우 많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는 독일 통일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동독 시민들의 자유를 향한 적극적 참여를 꼽았다. 그는 이러한 자유에의 갈망을 바탕으로 폴란드와 체코(프라하) 등 동유럽 국가에서 잇따라 일어난 민주화를 향한 움직임과 고르바초프의 등장이 더해져서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이후 통일 독일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다섯 단계의 조치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거기서 나에게서는 3단계의 경제통합과 화폐통합 및 사회통합의 진행, 4단계의 통일 조약의 타결, 그리고 5단계의 ‘2+4조약’이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다. 앞의 1·2단계를 통한 국가 내 행정 구역 재정비도 물론 중요했지만, 통일된 경제 공간과 법률 공간을 만들고 세계화 시대에 국제 사회에서 통일된 주권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곤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독일과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여러 면에서 크게 다르겠지만, 통일 독일이 겪은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다소라도 통일 한국의 통합 작업과 관련한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요르크 쉐봄 전 장관은 통일 독일의 진정한 통합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였던 군대통합의 문제를 이야기하였다. 동독의 국가인민군(NVA)과 서독의 연방방위군(BW)은 오직 각각의 국가에 충성해왔을 것이기에 이들을 통합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임은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기본 이념 하에서 진행된 군대통합 과정과 관련하여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동·서독의 군인들에게 모두 같은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이다. 군인에게 군복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뚜렷한 징표일 것이다. 말 못할 이질감과 차별을 느꼈을 군인들에게 똑같은 전투복을 입

히고 동료애를 느끼게 하면서 공동의 미래를 모색하도록 노력하였다는 쉐롬 전 장관의 설명에서 지금 이 순간도 서로 총구를 겨누어야 하는 남북한의 군대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다. 같은 군복을 착용한 이후 동독과 서독의 징집 대상자들을 각각 서독과 동독으로 교환 배치함으로써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군대로의 통일을 완성시켜 나간 것 역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한반도와 독일의 지정학적 차이와 외교적 중요성의 차이, 그리고 통일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여러 요소 중 무엇보다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친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반도의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분단 이전의 한국을 기억하는 사람은 겨우 전체 국민의 10% 이내로 줄어들었고, 특히 젊은이들은 갈수록 통일비용에 대한 걱정만 생각한다고 지적하였다. 통일 한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일 시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높은 관심이 필요하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차근차근 준비를 해 놓아야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지금 한국을 둘러싼 외교 활동은 삼중 복합구조로 그물망처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매우 의미 깊게 가슴에 다가왔다.

이상 정리한 바와 같이 이번 ‘한반도비전포럼 2011’은 나에게 진정한 통일 한국의 미래 비전을 그려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 요르크 쉐롬 전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주 내무장관, 그리고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같이 훌륭한 분들의 발표와 좌담 그리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통일비용, 통일을 위한 적기와 운, 주변국과의 이해 관계, 통일 후의 재산 분배를 비롯한 행정 재정비, 예상 가능한 여성 고용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었다. 사실 이제까지 나는 ‘통일이 된다면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그러나 차후에는 경제적으로나 국가 경쟁력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것 같다. 그런데 이번 포럼에서 독일 통일의 실제 경험을, 역사의 주역들로부터 직접 생생하게 듣고 생각하게 됨으로써, 통일 한국의 미래가 구체적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같았고 실질적인 통일 준비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고민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하고 즐거웠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우리나라의 통일 의지가 적시되어 있다. 포럼에 참가한 세 연사들 모두가 강조하신대로 통일은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통일이라는 ‘카이로스(kairos, 기회)’가 찾아왔을 때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며 정

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드메지에르 전 총리가 베를린 제국의회 건물 19층에서 라인강을 바라보며 느꼈다던 감격과 쉐본 전 장관이 자기 어머니가 탈출하신 동독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 행복하다는 말씀은 큰 울림이 되어 나의 가슴 속 깊이 남아 있다.

하나 된 한반도가 하루 빨리 도래하여 분단의 비극이 추억이 되기를 기원하며 대한민국 젊은이의 한 사람으로서 통일 한국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슈피겔 : 통일 대한 민국을 위하여

류영현

저는 이 사회에 팽배한 통일에 대한 냉소주의에 젖어 통일을 살아생전 보지 못할 것으로만 생각했던 학생입니다. 미리 통일을 이룬 독일의 사례가 있지만 독일 통일 당시의 서독과 동독의 경제수준과 현재 남한과 북한의 경제수준을 비교하여 추산한 통일비용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접하고 아직은 통일이 비현실적인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일 이전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로서 동포애에 호소하는 통일의 당위성에 정서적으로 공감하지 못해 이러한 비용을 감수해야할 필요성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통일에 무관심하게 지내다가 대학교 내에서 우연히 보게 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전시회는 북한과 통일문제에 관한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관심을 가지고 알아본 북한의 현실은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안락한 현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명 북한 문제는 다른 모든 이유를 제쳐두고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해야할 문제인데, 정작 북한 동포와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에서는 북한 관련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 있다는 현실에 실망했습니다. 이 때, 공직자가 되어 국민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저의 꿈은 통일부에서 통일을 꿈꾸고 한민족을 지원하는 곳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통일이라는 꿈은 한 대학생이 품기에는 너무 큰 꿈이어서 저는 처음에 통일된 대한민국의 사회 통합을 미리 그려 볼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통합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에 들어온 북한 주민만 대한민국 정부가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소위 '탈북자'에 한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통일부를 방문한 결과 한국의 의학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통역사를 두거나, 연령대에 따라 하나둘, 셋넷

학교, 하나원과 같은 기관에서 교육·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맞춤형 정책 설계를 통해 보다 빠르게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안도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시행은 통일 이후에 북한 출신 주민 전체로 확대되어 유기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이 통일에서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하지만, 우리는 이 2만명 남짓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뒤로하고 온 약 2000여만 명의 북한 동포를 잇을 수는 없습니다. 통일을 이루어낸 동독 주민들이 통일만이 동독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저의 생각과도 같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아야 마땅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통일이 된 이후에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비전포럼 2011 ‘비전대강연’에서 독일의 통일에 대한 강연을 듣기 전까지 저는 독일의 통일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통일된 독일이 선진국의 반열에 있다는 점 때문에 독일은 통일 당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준비된 상황에서 통일을 한 것이라고 으레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드메지에르 전 통리의 독일 통일과정에 대한 회고는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독일의 통일은 통일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통일 이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의 뒷받침, 정책적 제도의 마련,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견의 합치 없이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순수한 염원만으로 이루어 낸 결과였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개혁, 새로운 주의 구성, 경제통합, 화폐통합 그리고 사회통합에 대한 합의 모두 한 단계 한 단계 함께 고민하여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 체제전환에 대한 합의도 없이 통일에 대한 의지로 시작해 모든 문제를 차례대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독일의 통일 사례는 우리에게 통일은 모든 절차적 준비를 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하나의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통일을 향한 과거 동독 국민들의 굳은 의지와 그들의 행동을 지지한 서·동독의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북한의 상황은 과거의 동독과 많이 다르지만 아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통일한마당이라는 동아리에서는 교내 북한 출신 친구들과 만나 친목을 다지고 통일에 대한 대학생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특별 강연에서 시민단체의 대표님을 통해서 북한의 최신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는 중국과 접한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경제가 발달하고 있고 계속된 빈곤과 기아에 북한 주민들 중 북한 체제에 대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은 독재체제 아래 있을 뿐, 남한 사람들과 같이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서·동독 주민들이 베를린 벽을 허물어버린 것

과 같은 일이 한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드메지에르 전 독일 총리님과 쉐봄 내무장관님은 한국 통일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통일에 대한 비관론이 만연한 가운데 통일을 미리 이루어낸 국가의 이러한 격려는 저에게 크게 고무적입니다.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한민족의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동시에 같은 아픔을 겪은 마음의 이웃인 독일의 통일을 지켜본 우리는 보다 준비된 통일을 꿈꿀 수 있고 또 꿈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일 세대로서 우리는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살려 통일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통일의 실현을 위해 통일의 당위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과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동시에 북한에서 일고 있는 자유주의의 바람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루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이것은 시민단체와 결합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감당해야할 몫입니다. 두 번째는 통일된 남한과 북한이 물리적, 제도적 통일을 넘어서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학교는 북한 출신 학생에 대한 교육 방안, 기업은 북한 출신 노동자의 취업 기회 제공 방안 등 사회 전반에서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슈피겔’은 독일어로 ‘거울’을 뜻합니다.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독일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경험하고 극복한 나라로서 현재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통일 방안과 통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거울입니다. 물론 서독과 동독을 남한과 북한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독일 통일 사례를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분석한다면 한국의 통일을 향한 비전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독일의 통일 과정과 그 이후에 독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한국의 통일 시기를 앞당기고 통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통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할 것입니다.

걱정은 숫자에 불과하다

박라경

몇 년 전 우리 사회에서 큰 화제가 된 광고 문구가 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라는 문구인데 5,60세라는 나이가 수동적이고 청춘의 패기가 결여된 시점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결국 그 5,60대라는 숫자는 단지 키, 몸무게와 같은 수많은 수치적 데이터에 불과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비전대강연을 들으면서 이 광고카피가 아직 스물두살의 젊은 내 머리를 스쳤던 이유는 아마 나의 통일에 대한 생각과 의지에 대한 나이가 노년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짐작한다.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점점 낮아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지식인들의 걱정과 달리 포럼에 많은 학생들이 찾아주어 이홍구 전 총리님은 희망을 보는 느낌이셨다면, 그 희망의 장본인인 학생이었던 나는 통일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분단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으나 통일한국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주인의식을 회복하는 느낌이었다.

로타 드메지에르 전 총리님의 강연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흐르는 역사' 속의 주인공인 시민들의 역할과 성숙한 시민의식의 중요성, 그리고 이러한 관념적인 것들이 바탕이 되어 행동하는 의지로 구축할 수 있는 통일로 나가는 방법들에 대한 실마리였다. 요르크 쉐봄 전 장관님의 강연에서는 통일하는 과정 중 군대의 통합에 대한 문제와 그 해결책을, 마지막으로 이홍구 전 총리님의 강연에서는 한반도의 시각, 그리고 한반도의 역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독일의 통일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통일에 대해 폭넓은 식견을 갖추신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각각 다른 주제와 시각에서 바라본 통일에 대한 교훈도 감명 깊었지만 무엇보다도 세 강연에서 나는 한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신뢰를 지키는 것, 신뢰를 주는 것' 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우리가 통일을 바라는 세대로서 마땅히 지키고 또 충실해야 할 덕목이라는 점

이다. 구 동독의 시민들이 자유를 갈망하고 또 통일을 목표로 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베를린 장벽' 외에도 사회체제와 정치체제, 외교,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장벽들을 걷기 위해서 동독, 그리고 서독의 모든 사람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평화적인 방법과 지속적인 대화에 노력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동독 시민들의 뜻을 수렴하고 통일 이전의 준비단계를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인 기반을 마련하였고 열린 형태의 원탁회의를 통해 정해진 답으로 무조건 달려나가기보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얻고자 했다. 이러한 기본적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독일 통일의 원리는 비단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독일을 둘러싼 유럽의 다른 국가들의 동의를 얻기까지, 그들을 설득하기까지 독일이 변함없이 보여준 자세였다. 평화와 민주라는 원칙에 선 통일이라 하여 힘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독일의 통일이 더 의미 있어 보였던 것은 서독인들이 동독인들의 자긍심을 세워주고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려 했다는 점, 그리고 외교적인 노력의 일환으로는 '자주통일'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방법은 평화적이되, '통일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의 문제만을 너희들(타 국가)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겠다'라고 했듯이 동독과 서독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주장했다는 점도 인상 깊었다. 이러한 강한 의지가 바탕이 되는 동독과 서독의 긴밀한 협력은 필연적인 결과라는 생각과 이후의 경제, 화폐, 사법제도의 통합 등 모든 방법적인 것들은 대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적인 방법이라는 분명한 원칙 하에서 시간문제인 과제라는 느낌을 받았다.

또 이번 강연에서 내가 받은 가장 신선한 충격은 쉐봄 전 장관님의 강연에서 언급된 군대의 통합이었다. 통일에 대한 경제적인 비용, 그리고 통일로 나아가기까지 문화적인 교류의 중요성 등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이나, 군대의 문제는 북한의 무력도발, 그리고 국방비라는 주제로 국한되어 있었다. 군대가 '또 다른 사회'로 규정되고 그만의 성격, 규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군대의 통합은 단순한 제도적 통일, 그 이상의 깊은 '신뢰 구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현재의 남북한 무력대치와 긴장감만으로도 주변 국가들의 정책에 (일본의 자위대법안 등)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일 이후 대한민국의 군대 재편성은 아시아의 안보, 나아가 세계의 안보에도 중요한 이슈이다. 군사력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남한에서 병역의 의무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두라는 점에서도 남한과 북한의 군대 재편성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며 핵안보에 대한 세계사회의 협력,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할 대한민국이 다각도로 고려해야 할 문제임을 깨달았다. 비록 병역의 의무는 지고 있지 않으나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대한민국 군의 통합'을 보다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기회였다.

통일세에 대한 논의, 그리고 통일 이후 남한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경제적인 부담에 대

한 산출 통계를 보며 사람들은 통일의 필요성, 그리고 통일의 비용을 따져가며 왜 통일해야하는가 점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 또한 막대한 비용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구체적으로 다가올 때 겁부터 먹게 된다. 그러나 이홍구 전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듯 통일한 이후의 비용만을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생각을 버리고 통일이 되지 않은 지금,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불통일비용으로도 우리의 시각을 넓혀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숫자는 항상 무섭다. 수험생 시절, 시험점수라는 숫자의 높낮이에 울고 웃는 나를 보며 아버지는 ‘움츠린 개구리가 멀리 난다.’는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며 낮은 숫자에 결코 나의 꿈을 맞추지 말라고 격려해주셨다. 이처럼 나의 개인적인 문제 속에서도 숫자는 무섭지만, 사회 문제 속에서도 숫자는 무섭게 다가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한편으론, 숫자가 담지 못하는 숫자의 한계들을 생각하면 통일에 대한 시각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지난 10월초, 최전방에 위치한 도라교회와 파주 GOP에서 근무하는 부대에 군선교를 갔다오며 제3땅굴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가족의 품을 떠나 24시간 꼬박 밤을 새우며 최전방을 지켰던, 습하고 어두운 땅굴을 지켜낸 국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또래 군인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한편 잔한 마음으로 기도제목을 나눴었다. 강연에서 언급되었던 ‘불통일비용’이라는 숫자 속에 포함된 그들의 고생과 땀과 눈물은, 사실 어떤 화폐로도 측정하기 힘든 비용들이다.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의 국민이라는 타이틀은 외국인들의 시선으로 볼 때 부끄러운, 안타까운 수식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강연으로 나의 생각은 달라졌다. 통일을 ‘필요성’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분단의 역사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를, 그리고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점에서 감사함으로 책임감을 질 수 있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숫자는 한국판 ‘베를린 장벽’이 될 수도, ‘3.8선’이 될 수도, 한반도의 한계가 될 수도 없다. 다만 차갑고 무서운 숫자 보다 더 뜨거운 통일에 대한 의지, 그리고 신뢰와 협력에 대한 비전을 가진 한민족의 의지가 중요할 뿐이다.

통일, 이제는 나의 문제

박보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커다란 강연이었다. 학교에서 이런 저런 행사를 알아 보던 중 지금 듣고 있는 교양과목과도 연관이 있고 교수님께서도 들어보라고 추천해주셔서 듣게 되었다. 간략히 느낌을 말하자면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나도 통일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야 갇구나’를 깨닫게 된 시간이었달까?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다. 물론 배신으로 인한 감정이 아니라 큰 깨달음으로 인한 느낌이다.

솔직히 대학생이 되었지만 아직은 1학년이어서 그런지 아직은 오늘의 주제였던 통일과 같은 사회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의 깊이 등이 넓고 깊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통일에 대해 나보다 더욱 깊은 사고를 가지고 그 분야에서 많은 것을 연구해 오신 분들의, 또 어쩌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행보를 미리 걷고 있는 독일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막연했던 나의 생각이 정리되는 듯했다.

통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직도 우리 모두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중 하나이다. 어렸을 적엔 왜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나? 그냥 북한과 남한 모두가 화해하고 화합하면 그만 아닌가? 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통일은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정책적 문제, 경제적 문제, 군사적 문제... 수도 없이 부딪혀야 할 것들이 많다. 어쩌면 분단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더더욱 힘들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독일은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 낸 것일까?

사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더 늦게 통일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단다. 한반도보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많았고 크기도 컸기 때문이다. 예상 밖으로 독일은 점차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공산 체제 하에 있던 동독인들의 반란으로 하루아침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한다. 나로서는 상상이 잘 가지 않는다. 동독인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 그것들이 점차 합쳐져 통일까지... 과연 우리도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

이 쌓이고 싸여 폭발할 언젠가'가 다가올까? 통일이 되기 전 서독과 동독이 우편이나 언론 등의 교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남북 간에도 교류를 점차 늘려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점차 교류를 늘리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심을 증가시키고 서로 다른 문화를 간접적으로 더 체험하게 하면서 통일 후 다가올 후폭풍에 대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교류를 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에 대한 막연한 갈망을 남한을 통해 좀 더 가슴 깊이 느끼고 근본적인 갈망이 있게 되면서 그들에게 통일을 위한 행동을 고취시키는 것까지로 이어 질 수도 있겠다.

우리의 통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 중 하나는 통일비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라고 했다.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 언젠가 부모님께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냐고 물었는데 안 그래도 좋지 않는 형편인데 통일이 되면 더 살기 힘들어 질 것이라고 통일은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 통일을 그다지 찬성하지는 않는다고 하셨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단지 하나의 경우의 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통일을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 비용을 예측할 수 있을까? 지금 분단으로 인해 생기는 손해비용은 생각하지 않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열심히 살아간다. 마찬가지로 통일에도 이를 적용시켜볼 수 있지는 않을까? 후손들이 한 나라에서 한 민족으로 살아가는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현재 잠깐 투자한다고 생각해도 될 텐데. 나의 이러한 생각을 이홍구 전 총리님, 드메지에르 전총리님과 쉐본 장관님이 잘 집어 주셨다.

오늘 위와 같이 언론에서 한번 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 이외에도 군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루어졌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여자라서 그런지 군에 대한 이야기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그렇지만 군에 대한 것도 생각해 봐야할 문제는 확실하다. 현재도 북한의 핵미사일이나 미군의 주둔, 최근에 있었던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만 생각하더라도 군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 되어야 할 것들이 많다.

마지막으로 제일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던 부분에 대하여 말해보고자 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어릴 적에 한번쯤은 들은 노래였고 가사를 정확하게 끝까지는 모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이 노래를 배운 적이 있다. 그 때는 아무생각 없이 단지 어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른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 노래를 듣거나 혹은 흥얼거릴 때 한 번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지금 분단국가에 살고 있지만 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지 않았기에 분단의 현실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잘 와 닿지 않기에 통일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초등학교 즈음에는 대대적인 이산가족 상봉을 텔레비전에서만 보았고 나의 친가나 외가 쪽에는 이북이 고향이신 분들이 없었기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었다. 솔직히 나는 분단국가에 살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통일의 필

요성을 느낀 적도 없어서일까? 그래 바로 이 부분이었다. 나와 같은 젊은 청년들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아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나처럼 분단국가의 슬픔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정작 분단국가의 아픔을 경험한 세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거나 혹은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이제 통일은 우리의 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다. 어떻게 해야 젊은 층의 통일 의지를 느끼게 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게끔 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우리들의 애국심에 호소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홍구 전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맞는 말이다. 어릴 적부터 대한민국은 단일민족이라고 배워 온 우리가 이렇게 남남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 타국인 일본보다 자국인 북한을 더 가기 어려워야 할 이유가 없다. 독일도 통일 전에 분명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을 것이다. 그들은 동독에서는 서독으로 학생 때 수학여행을 가서 분단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했다. 또한 서독에서도 그들의 조부모 세대를 통해 분단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분명 이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백날 통일이 필요하다고 말만해서는 필요성을 잘 느낄 수가 없다. 천천히 하나씩 나와 같은 청년들의 생각에 통일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오늘 이러한 한반도의 통일 미래 비전과 같은 포럼을 자주 개최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든다. 나와 같이 통일을 말로만 생각하다가 마음으로 느끼게 될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될 테니까 말이다.

오늘 포럼에 참여하면서 독일의 통일을 부럽게 바라보고 계시던 이홍구 전 총리님의 눈빛을 보았다. 통일이 되어 동독과 서독의 대표가 한 자리에서 다른 나라에게 참고적인 이야기를 제시하는 모습이 많이 부러우셨나 보다. 그 눈빛을 처음에는 정말 의아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두 시간을 통일에 대해 듣고 생각해보면서 점차 내 눈빛도 바뀌어 감을 느꼈다. 통일을 위해서는 정치나 경제 쪽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의 임무가 막중할지 모른다. 하지만 나도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또 미래의 과학학도로서 통일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겠다. 이제 통일은 그 누구도 아닌 나의 문제로 다가 왔으니까 말이다.

한반도비전포럼 2011 ‘비전대강연’을 다녀와서

박소영

우리나라는 통일을 해야 할까? 필자는 언제나 통일은 반드시 할 일이라고 생각해 왔다. 아마 이런 생각은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실시되었던 “이산가족상봉” 방송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필자에게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할만 한 이유는 없다. 다만,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이다, 또 남과 북은 민족이 같고 사용하는 언어는 같으나 다른 두 개의 국가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도 인정하고, 한국인들도 인정하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에게 통일은 해야만 하는 것이고, 언젠가 이루어 질 것이고, 북한이 붕괴하게 되었을 때, 다른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2011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 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53.7% 필요하다고 대답하였으나, 이는 2007년에 63.8%에 비하면 10%나 하락한 수치이다. 또한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입장도 2007년 15.1% 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21.3%를 기록하였다. 특히 20대의 통일필요성은 2007년 53.3%에서 40.8%로 하락하였다. 이는 1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주목할 점은 2010년 이후 통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아마도 천안함사건과, 연평도사건으로 인한 북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여론조사를 이용하지 않아도, 젊은이들의 통일인식은 주변 친구들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크게 두 부류의 의견으로 나뉘는데, 통일은 필요하지만 우리 세대는 피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과 통일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그것이다.

필자의 통일을 해야한다는 주장은 매우 확고하나, 주변 사람들의 위와 같은 의견을 설

득시킬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번 강연 참가를 통해 그 답을 얻고 싶었다. 독일 통일의 어떠한 점이, 통일 이후 민족의 큰 갈등없이 통합을 이루어내고, 더 나아가 세계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하였다.

이번 강연을 들으면서 느꼈던 점은 먼저, 독일은 통일 이후 독일의 운명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독일의 통일은 위로부터의 통일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통일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통일을 원했던 주체는 시장도, 정부도 아닌 국민들이었다. 특히 동독의 시민들이 통일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런 이유로 독일은 완벽한 통일을 이를 준비단계를 제대로 밟지 못한 채, 약간의 불안함 속에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다. 이와 같은 불충분한 준비와 고민 속에서 시민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통일이지만, 이 점 또한 우리나라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한국을 생각해보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일 이후의 삶을 걱정하고 있는가? 통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어려운데, 통일이 되면, 우리의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은가? 또, 이 작은 남한 내에서도 영남, 호남으로 나뉘어 싸우고, 한나라당, 민주당 나뉘어 싸우고, 심지어 세대간 통합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남한, 북한으로 나뉘는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독일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그 고민 때문에 통일을 망설였다면, 지금과 같은 통일 독일을 맞이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독일이 철저히 계산한 끝에, 통일이 되어도 경제발전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는 결론으로 통일을 접근하였다면, 이에 따른 수많은 반박으로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우려 중 사회통합의 어려움은 충분히 예상되는 시나리오다. 이 점에 관해서도 독일로부터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 독일은 한국과 상황이 매우 달랐다. 독일은 동독과 서독 서로의 생활이 어떠한지 미디어를 통해 항상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분단 이후 북한을 “빨갱이”라 지칭하며, 공산당을 철저히 배제하였고, 남으로 내려오는 북한 사람을 간첩으로 간주해왔다. 이외의 북한 소식을 알 길도 없었고, 알려고 하는 자체가 위험한 행위였다. 21C가 된 지금 20C에서의 빨갱이 북한이라는 접근은 거의 사라지고, 북한의 문화생활에 대해서는 탈북자나, 미디어매체를 통해 들을 수 있지만, 여전히 북한을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한국의 소식을 얼마나 접하고 있는 지에 관해서는 더욱 미지수이다. 더욱이 독일은 통일 이후에도 통일 세대와 현재의 청소년들의 역사관을 연결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12학년도 수학여행 장소를 서독으로 선정하여, 학생들이 공동의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통일 이후에도 민족통합은 물론 세대통합까지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금강산을 수학여행지로 삼는다면 적용할 수 있는 점이라

고 생각한다.

독일 통일의 가장 중심지에서 오신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와 쉐븐 전 독일차관을 직접 만나, 그 당시의 상황과 오늘날까지의 노력을 들으면서,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 진행해야 할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느꼈다. 단순히 교육,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외교관계에서의 국가 위치를 잡아나가는 점, 군사력을 통합하고, 군대 내부에서의 정서적 통합 등 준비할 점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통일을 위한 학술분야에서의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이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국가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정작 통일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은 회피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필자에게는 참으로 슬픈 점이다.

왜 한국인은 통일을 피하려고 하는 것일까? 왜 통일로 인해 잠시 동안 힘들 그 시기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그 이상의 잠재력은 외면하는 것일까? 이번 강연을 통해, 필자는 앞으로 통일을 위해 한국이 무엇을 직면해야 하고, 통일을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지 공부하고 이를 알리는 활동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와 쉐븐 전 독일차관이 말씀하셨던 건너지 못했던 그 땅에서 국가통일의 기쁨을 느끼고 싶다.

비전大강연 참가 소감문

박수빈

비전大강연이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건 학교 게시판에서였다. 지나가다가 얼핏 본 포스터에 구동독의 총리였던 로타 드메지에르와 전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주 내무장관인 요르크 쉐봄의 강연이 있다는 것을 보고 내가 잘못 봤나 싶었다.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번 학기에 교양수업으로 <북한정치론>을 듣고부터 통일과 북한문제에 관심이 생겼고, 이후 관련 강연이나 포럼 등을 찾아다니면서 이미 21년 전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선례를 점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던 차였다. 그런데 내게 독일도 아닌 한국에서 독일 통일 격변의 시기 그 중심에 있던 두 분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다.

강연을 듣는 내내 통일이라는 것이 역시나 복잡한 일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통일은 단순하게 남과 북이 통일을 하겠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엄청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통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통일한반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도 또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이런 사실들이 실제 독일의 선례를 들으면서 점차 구체화되어가는 기분이었다. 강연의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군대통합, 2+4조약, 통일비용에 관한 내용이다.

군대 통합과 관련된 내용은 내가 가장 관심 있게 들었던 부분이다. 사실 이 부분은 통일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통일비용이나 북한 급변 사태 등의 논의에 밀려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이다. 하지만 나는 요르크 쉐봄 전 내무장관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우리가 왜 군대 통합 문제를 간과했는지 굉장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한반도 통일문제에 있어서 군대통합 문제는 어찌면 통일 전과 통일 후를 모두 아우를 만큼 가장 중요한 안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북한의 특수한 통치방식인 선군정치 때문이다. 선군정치는

군을 우선하는 통치방식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취임과 함께 북한의 핵심 통치체제로 자리 잡았다. 이런 통치체제의 영향으로 북한에서 군의 위상은 매우 높다. 북한에서는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 군의 역할이 중요하고, 반대로 군의 유지를 위해서도 국가의 존속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 군부에게 ‘통일’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지위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안정된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군부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통일 후의 군부처리문제도 관건이다. 통일 후 군부의 위상이 약화되게 되면, 분명 영향력의 회복을 위해 이전 체제로의 회귀를 꾀하는 무리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북한 군부의 통합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정적인 통일한국의 정착도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4조약에 관한 내용은 ‘통일문제에 있어서 자결권의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되었다. 마침 얼마 전에도 친구와 이 주제에 관해 논의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이 어떻게 4개 승전국 사이에서 자결권을 획득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은 내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자결권 획득 문제는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도 당연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독일의 선례를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한 패널 분이 말씀하신 대로 2+4조약은 6자회담과 유사성이 많다. 독일의 2+4조약은 앞으로 한반도에 통일이 임박해 왔을 때 남한과 북한이 6자회담에서 취해야 할 입장을 제시해준다는 측면에서 좋은 선례이다. 꼭 6자회담뿐만이 아니라라도 앞으로 통일이 임박해왔을 때 통일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국가가 생길 경우, 그 때 우리의 대처 방안으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타국에는 우리의 ‘통일 여부’에 관여할 권한이 아니라 ‘통일의 방식’에 관여할 권한만이 있다는 것에 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통일에서의 자결권 획득을 위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통일비용 관련 내용 또한 인상적이었다. 작년에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언급된 통일세 때문에 통일비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던 적이 있다. 약 일 년 쯤 전인 그때나 지금이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통일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국은 지나치게 통일비용 문제를 걱정하는 것 같다”거나 “독일도 같은 걱정을 했었지만 지금 잘 해나가고 있다”는 등의 자신감과 확신이 담긴 말은 통일비용에 대한 걱정을 한 번에 씻어주는 듯 했다.

이번 강연을 들으면서 나는 이화여대 김선욱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독일이 통일했다는 것 자체만 부러웠던 것이 아니라 통일 후 21년이 흐른 지금 통일을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부러웠다. 로타 드메지에르 구동독 총리 분과 요르크 쉐

봄 전 내무장관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셨듯이 지금은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이다. 예전에 다른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1990년 초반 독일에서 ‘독일이 통일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설문조사 한 적이 있었는데 부정적인 대답이 압도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해, 독일은 통일되었다. 이 이야기가 시사하듯이, 우리나라도 언제 통일이라는 것이 눈앞에 다가올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북한은 흔들리고 있고 통일을 마주하게 될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인 내가 죽기 전까지는 통일이 가시화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 전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한국을 맞이하고 이끌게 될 우리 세대의 관심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은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어찌면 우리 세대의 의무인지도 모른다. 우리도 머지않아 구동독, 구서독처럼 구남한, 구북한으로 역사 속에 남을 벅찬 날이 오기를 소망해본다.

한반도비전포럼 2011 소감문

박은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통일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한국의 통일 방향성과 가능성은 현재 논의의 중점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국민들의 인식, 특히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 갈 젊은 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본다면 통일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통일이 되더라도 미래는 암담하다. 이번 한반도비전포럼 2011을 통해 독일의 경우를 보며 현재 한국의 통일을 향한 논의 방향의 문제점을 볼 수 있었다. 이 소감을 통해 북한이 우리의 동포임을 제대로 인식하면 통일이 더 이상 예상되는 부담으로 인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근본적인 태도를 개선 시켜 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음을 주장하려 한다.

남북 분단이 근 60년이 되는 지금 한국에서 정도의 차이는 현저히 있겠지만 결코 통일 문제를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포럼에서 전 동독 총리 로타 드메지에르씨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인들은 경제적인 요인을 통일에 있어서 가장 큰 중점으로 여기고 있다. 여론 조사의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통일이 필요한가로 시작하여 통일비용 지불의 의사 그리고 왜 해야 하는 것이 중점 요소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통일을 다루는 경우, 통일이 될 경우의 경제적 가치와 손실, 가장 적절한 시기와 주변 국가들과 지구촌 사회의 환영도이다. 물론 이성적인 판단력을 요하는 이 자본 국가 한국사회에서 이 경제적인 요소는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한 주제로 인식 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한국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은 점점 줄어들었다. 특히, 민주주의와 의사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세대이므로 자발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외치지 않는 이상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들은 극히 드물다.

그러므로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통일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계산하기에 앞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분단의 아픔과 계속 커져가는 갈등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이다. 이흥구 전 국무총리께서 포럼에서 언급하였듯이 독일과 다르게 남북한 분단은 패전의 결과물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전쟁으로 빚어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분단이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의 기질상 통일을 민족적 자긍심과 자존심의 회복으로 받아드린다면 통일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어 북한의 존재를 정의해야하는데 현재 한국 국민들 중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왕래를 자유롭게 경험한 국민들은 매우 드물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현재의 북한의 행동에 따라 그들의 존재를 확립하고 있다. 북한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과 왕래가 없는 우리로서는 안타깝게도 북한 지도자의 공격적이고 독단적인 태도와 경제 상태를 보며 북한을 어려운 존재라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동포 즉, 지금은 '말을 조금 안 듣는 가족'이라고 비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물론 대중 매체에서도 동포라는 단어는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 한사람이 북한을 가족으로 보기 시작 할 때만이 우리의 통일 논의 주제의 방향성이 달라 질 것이다. 더 이상 물질적 가치에 의해 국민들의 통일을 향한 판단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는 하나의 극복해야하는 점에 지나치지 않다. 가족을 다시 만나는 데 그 누가 경제적인 손실을 먼저 계산하며 결정 할 것인가?

북한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만 한다면 통일의 논의주제는 좀 더 방향성을 잡게 된다. 일단, 통일은 필요한 것인가의 대한 논의 주제에서 벗어나 통일에 대해 적극적이고 당연한 것 이라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다음 논의 주제는 항상 어느 시기가 가장 적절할 것이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여기서 현재 젊은 세대는 가장 큰 문제를 맞고 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왜 희생을 해야 하는지 반문 하고 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택 결정하는 사람은 개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강압적으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의 결정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북한을 가족이라고 여기는 사고를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우리가 적선해야 하는 존재가 아닌 당연히 품어야 하는 동포이다. 개인주의가 주를 이룬다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한가정의 일부분이고 각자가 그 가정을 위해 양보하고 더불어 사는 것을 배워 왔고 그를 통해 안정감과 사랑을 느껴 나의 존재를 확립 해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지도자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의 동포 북한 주민들을 보며 통일에 부정적인 생각을 떨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흥구 전 총리께서 말했듯이 분단으로 빚어지고 있는 현재의 경제적 손실과 불안정한 안보문제만 보더라도 통일은 필수이다.

이렇게 국민 한사람의 역할이 중요한데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도 독일의 성공적 통일의 주요 요인을 독일 시민으로 꼽았다. 물론 그는 동독인들의 민주화 과정을 지적 하였

지만 이 글에서는 남한의 사람으로서 우리 개인의 큰 역할에 대해 말할 것이다. 통일은 매우 복잡한 일이다.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교육, 사회적 요소들을 다른 체제에서 살았던 북한 정부와 주민들과 합하는 과정이다. 독일을 교과서 삼기에는 우리와 다른 점이 많으므로 참고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남북통일 과제 중 초래 될 수 있는 작고 큰 문제들은 우리의 지혜로 풀어야 한다. 통일은 탈북주민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과 다른 점이 있다. 탈북주민들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한국의 체제에 흡수 되어야 하는 자리에 있지만 통일이 될 경우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 동포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면 큰 사회 문제가 초래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의 역사를 이해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신뢰하고 존중해야한다. 그 근본적인 신뢰 없이는 화합을 기대할 수 없다.

독일과 같이 통일이 되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현재 정치인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노력해서 해결 방안 점을 계획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 각 한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사회는 지도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때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 시민들이 근본적으로 갖추어야하는 조건은 북한 동포들을 향한 장기적인 믿음이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물론 북한 동포들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누려왔던 특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더 빛을 발하고 북한 동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동시에 우리도 배울 것이 있으면 인정해주고 그들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전에 필요한 근본적 요소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북한동포 개개인을 대할 때의 믿음과 이해이다. 이것은 통일 전부터 우리 모든 국민들이 준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다. 이 바탕이 있어야지만 통일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때마다 알맞은 정책으로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다.

끝으로, 이 소감문은 결코 경제적인 요인들과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하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너무나도 집중되어 있는 논의 주제를 넘어 더 근본적인 이슈를 다루어 보고자 했다. 통일 후의 문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우리 국민은 민족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분단을 소극적인 자세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동포를 가족이라고 여기는 자세이다. 그리고 시민 한 사람마다 근본적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믿어 주기 위한 준비를 한다면 우리는 통일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자신감과 함께 목적으로 이룰 수 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박익신

저는 실향민 3세입니다. 황해도 출신이신 저의 할아버지께서는 한국 전쟁 중에 형제들과 남쪽으로 내려오셨지만 혼란 속에서 부모님과 어린 막내 동생은 미처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잠잠해지면 곧 만나자 했는데, 그것이 부모님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지금도 매년 명절이면 헤어진 가족들이 그리워 우십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매년 신청하셨지만 할아버지에게 그 기회는 한번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부모님께서 이미 돌아가셨겠지만 막내 동생의 생사라도 확인하고 싶으시라며 희망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은퇴하신 지금은 고향이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으시다며 강화의 교동도라는 섬에 들어가서 살고 계십니다. 교동도에서는 황해도 땅이 보입니다. 날이 맑은 날이면 높은 곳에 올라가 한참을 북쪽을 바라보다 오십니다. 할아버지의 가장 큰 소원은 당신 생전에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단의 아픔’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사실 저는 통일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머리로만 알았지만 한번도 가슴으로 와 닿아 통일을 갈망한 적은 없었습니다. 힘들어 하시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조차도 그랬습니다. 다만 실향민들을 위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더욱 활성화시키면 되지 않나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통일의 과정에서 겪어야 할 혼란과 그 후폭풍을 굳이 우리 세대가 감당해야 하나, 이미 너무 오랜 세월을 다르게 살아온 남과 북이 다시 하나 될 수 있을까, 이제 북한과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개념보다는 각각 다른 나라가 된 것을 인정해야 할 때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2010년 3월에 있었던 천안함 사건, 같은 해 11월에 있었던 연평도 사건은 북한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한 민족이 아니라는 저의 생각을 더욱 확고하게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통일을 위해 애써야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이 강연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국가가 되었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와 같은 분단 국가였던 독일의 이야기였습니다. 독일이 통일을 이루게 된 배경과 과정을 대충 배워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 속사정을 자세히는 몰랐는데 듣고 보니 통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멀고 막연하기만 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일 과정의 독일의 정치의 최전방에 계셨던 두 분의 생생한 이야기와 분단 한국의 전 총리님의 진심 어린 말씀 하나하나가 감동적이었습니다. 무뎠던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이토록 저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통일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이었던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스스로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찾아 왔고 그것을 잘 감당해 내고 다시 하나가 되어 유럽 강국으로 자리잡은 독일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을 지 모르는 통일의 순간을 상상해보았습니다. 반세기라는 긴 시간 동안 북한과 우리는 너무도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이상을 추구하며 살아왔고, 지금 우리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분명 처음에는 엄청난 혼란이 찾아 올 것 같습니다. 말도 많이 달라졌고, 생각도 많이 달라졌고, 생활 수준도 다르고 생활하는 모습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였던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긴 역사 속에서 하나였듯이 결국 다시 예전처럼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흥구 전 총리님의 이 말씀이 한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헤어진 가족이 만나는데 비용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할아버지는 북녘을 바라보며 헤어진 가족들을 가슴에 한번 더 묻고 계시겠지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인 통일이 꼭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의 통일미래 비전에 대한 강연을 듣고서...

박주현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고, 1990년 연방국가로서 독일로 통일이 되었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 사람들은 독일이 통일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고, 통일이 되더라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독 안에서 민중들 자신의 자유를 위하여 투표를 통하여 독일은 통일이 되었고, 현재는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비전강연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이 오갔다. 한반도는 66년간 분단되어 있었고, 어떤 방향으로든 교류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의 젊은이들은 통일에 대하여 관심조차 없기 때문이다. 나도 그런 젊은이들 중 하나였던 것 같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까지는 학교에서 하는 통일 교육이나 사회시간에 한반도의 문제에 대하여 접하였지만, 고등학교에서 이과로 진학하고 대학교에 입학하면서는 통일에 대하여 고려해본 적도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친구의 소개로 이번 강연을 듣게 되어서 많은 통일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선 드메지에르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공감이 갔던 말은 한국 사람들은 통일에 대하여 접근할 때 경제적인 측면만을 강조한다고 한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국민 한 명당 부여되는 세금의 양과 같은 돈 문제만을 생각하고,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적인 힘이 더 커져야한다고 생각하는 점이었다. 아마 이 강연을 듣기 전에 내게 누군가가 통일에 대하여 한반도가 아직 통일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물어보았다면 금전적인 측면 때문이라고 대답했을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에는 통일의 경제적 문제점에 대하여 심각하게 깊이 존재하고 있다. 북한과 남한의 경제적 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는가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시장경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어서 남한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혹은 오랫동안

안 부담해야하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드메지에르 전 총리와 요르크 쉐봄 전 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독일이 통일되던 당시에 사람들은 독일이 통일될 거라고 예상도 하지 못했었고, 때문에 그 당시에 접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경제적인 비용은 통일의 여러 가지 조건 중 하나일 뿐이고 그 이외에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많으므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여 통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에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하셨다. 오히려 통일이 일어나고 생겨난 경제적인 문제들보다는 통일이 되고나서 생기는 좋은 점들이 더 많았다고 하셨다. 가장 좋았던 것은 교과서나 책을 통하여 알게 되던 다른 쪽 나라에 있는 것들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고, 군사적으로 보면 분단되어 있었을 때 서로 적의 침략 대비를 위한 예산이 극감하였다고 한다. 이런 예시들로 통일이 되었을 때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들 중 장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통일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한과 북한 두 나라 모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지금 당장 통일을 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반도가 통일을 해낸다는 결과보다는 한반도가 통일을 할 때 어떤 방법을 통하여 하는지에 대하여 여러 전문가들이 고려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둘러싼 나라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6자회담'은 독일의 '2+4조약'과 비슷하다고 한다. 여기서 '2+4조약'은 통일을 해야 하는 두 나라가 주체가 되어 그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조약인데, '6자회담'도 현재보다 더 북한과 남한이 주축이 되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효과적인 방법들을 생각하는 동안 다른 국민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전문가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나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는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을 느꼈다.

독일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바로 모든 면에서 통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도 몇 년 동안은 분단되어 있을 때 생겼던 차이점들로 인하여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었고, 이를 독일에서는 연방주의로 해결하였다고 한다. 연방주의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방식으로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발생된 문제들을 알고 이를 다른 연방과 협의하여 해결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연방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독일과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가 통일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들이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통일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두 나라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나

라를 둘러싼 나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는 여러 나라들이 서로 경제적, 사회적 등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는 만큼 우리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앞으로는 통일에 대해서도 안일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의식 있는 시민으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통일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주는 지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독일의 통일을 통해 한국의 미래를 보다

박지혜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다. 이보다 더 현재 한국의 상황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 1948년의 남북한 개별 정부 수립 이후로 반백년도 더 흐른 지금, 한국은 여전히 분단되어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분단된 세월만큼 통일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다. 작년의 천안함 사건과 뒤이어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북한에 대한 의혹과 적대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같은 한 민족이지만, 우리는 그 어느 나라에게 가지는 것보다도 더 먼 거리감을 북한에게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통일에 대한 생각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학교 교과서에서는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말하지만, 인터넷에서는 마치 70년대를 보는 것 같은 북한의 실제 사진이 구경거리로 떠돈다. 그러한 사진을 보는 사람들은 북한의 낙후함에 대해 놀라고, 또 현재 2011년의 남한과 너무나 다른 것에 또 한 번 놀란다. 한민족이라 느끼기에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어서, 우리는 이제 통일로 인한 기쁨이 아닌, 통일의 비용을 걱정하고 있다. 대학생의 절반이 “통일정책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굳이 서두를 필요 없다”, “통일이 필요한지 의문이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포럼에 온 두 명의 독일인은 그러한 우려에 대해, 그러면 도대체 언제 통일할 것이냐고 반문한다.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되었지만, 약 30년 후인 1990년 베를린 장벽은 붕괴되고 지금의 독일로 성장했다. 독일의 통일에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힘이 가장 컸다. 동독 시민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자발적으로 장벽을 부수기 시작했고, 이러한 열기가 서독으로도 전해져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베를린 장벽 붕괴와 통일은 예견된 것이 아니었다. 동독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한 소련군의 위협도 컸다. 하지만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거리로 나왔으며, 자유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통일을 외쳤다. 그리고 그 후 동독의 시민들은 90%가 넘는

높은 선거참여율로 개혁을 성공시켰다. 다시 말하면, 독일의 통일은 전적으로 시민들의 노력에서 시작되어 시민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국가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통일로 하나의 독일이 된 것에 대해 무척 감사하다고 말한다.

독일에서 일어난 일이 현재 한국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바람일 것이다. 하지만 독일의 예처럼 한국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조건이 있다. 바로 통일이 국민에 의해 주도돼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은 국민의 손에 달려있다. 무엇보다도 통일에 대한 열망과 확고한 의지가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동독 국민들은 90%가 넘는 선거 참여율로 통일에 대한 지지와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그 결과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어 통일로 나아가는 개혁이 실시될 수 있었다.

당시 독일의 상황에 비해 현재 한국의 상황은 훨씬 불리하다. 현재 남북한의 분단 기간은 동독 서독의 것보다 2배 이상으로 오래 지속되고 있다. 또한 서독의 방송을 보거나 라디오를 들을 수 있었고, 12학년의 학생들은 서독으로 수학여행을 갈 수 있었던 과거 동독의 모습을 북한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북한은 훨씬 통제적이며, 남한과 단절되어 있다. 남한의 국민들은 북한 국민에게는 동정심을 갖는 한편으로, 공산주의 정권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통일의 주축에 되어야 할 젊은 세대는 점점 통일이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나 또한 마찬가지로 통일을 반대하고, 막연히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몸소 통일의 기적을 체험했던 두 독일 관리는 통일을 하느냐 마느냐의 고민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단언한다. 중요한 점은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가장 적절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통일에 확실히 대비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들은 또한 한국인들이 통일에 대해, 특히 통일로 인해 발생할 비용 부담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분명 통일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엄청난 것이다. 하지만 어차피 통일 이전에는 그 비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한국은 이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비용은 전제조건이며, 통일 후의 수많은 가능성들을 비용으로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 들 비용을, 비용이라 생각하지 말고 관점을 바꾸어 이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그들은 조언한다. 독일의 경우, 이제 동독의 인프라는 서독의 것보다 훨씬 좋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그 과정에서 모두가 공동책임의식을 가지고 통일세를 부담했다. 물론 이는 모든 가정에 부담을 주었지만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다. 그리고 독일은 현재 유럽 총생

산의 25%를 담당하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이번 강연을 계기로 나의 생각도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통일비용을 떠올리며 마치 북한을 위해 남한이 희생해야 하는 것 같았고, 내가 부담하게 될 세금만을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근시안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왜 비용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먼 미래의 일일지라도, 통일이 가져올 장점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저 내 인생 안에서의 한국, 내가 부담할 비용을 떠올리며 편협하게 사고했던 것 같다.

어쨌든 북한과 우리가 한 민족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같은 모습을 하고, 같은 역사를 겪었기에 남북한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이다. 언제까지나 통일이 되기 이전에는 북한의 문제가 논의 될 때, 남한도 함께 논의될 것이다. 또한 한 쪽이 무너지다면, 다른 한 쪽도 결코 무사할 수 없다. 남북한은 서로의 운명공동체인 셈이다. 둘의 통일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힘이 필요하다. 통일의 중요성을 대중들에게, 특히 통일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분단은 부모나 조부모세대가 겪었지만 이를 공동의 문제라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독일의 경우처럼 기존 세대의 분단으로 인한 아픔의 기억을 젊은 세대도 체감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 열린 비전대강연도 그러한 '다리'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독일 통일의 이야기를 당사자로부터 직접 들으니 베를린장벽 붕괴의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었고, 우리의 통일문제를 타국민의 시선에서, 특히 먼저 통일을 이룩한 독일인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서 신선했다. 그리고 그들의 확신을 통해 한국 통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젊은 세대를 위해 이렇게 좋은 체험의 '다리'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비전대강연 참가 소감

변정연

2011년 11월 18일.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논산 훈련소에 입소한 날. 같은 시각 나는 “한반도의 통일미래 비전”이라는 주제로 한반도비전포럼 ‘비전대강연’에 참가했다.

독일 통일의 주역이셨던 분들의 경험을 직접 듣는다는 설렘과 동경심으로 포럼을 시작하였다. 초반부에는 ‘동독인들의 평화적인 혁명완수’가 독일 통일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총리의 말씀을 듣고 약간은 상심하였다. 역시 북한 주민들의 결단을 바라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럼이 계속 진행될수록 통일에 대한 기대감과 통일이 생각보다 더 가까이에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탈북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북한의 국경부근에 이미 1차적으로 시장경제 체제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징후들이 독일 통일이 임박했을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통일에 대한 관심은 ‘수치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어렸을 적에, 우리나라가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우리는 형제끼리 싸우다가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것이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수치심에 어린 마음이 뜨거워졌던 기억이 있다. 이어서 휴전협정이 체결된 날짜가 1953년 7월27일. 30여 년(한 세대)후 나의 생일과 같은 날이라는 것을 듣고 나는 꼭 남북통일에 도움 되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포럼에서도 한 사회학과 학생이 로타 드메지에르 전 총리와 고르바초프 전 러시아 대통령의 생일이 같은 날인 것을 언급하며 전 총리께 역사의 우연성을 믿느냐는 재치 있는 질문을 하였다. 교과서에서 휴전선 사진 밑에 적힌 휴전 협정일을 처음 봤을 때 흥분했던 것이 기억났다. 나와 같은 친구들이 각자가 이런 작은 ‘계기’ 로라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북한에 대해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

통일이 언제 올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통일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남과

북이 영영 나뉘어 서로 다른 두 나라로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다. 그런데 막상 ‘곧 통일이 된다면?’이라는 질문을 던지면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포럼에서도 수차례 언급되었듯이 사람들이 비용문제를 생각하면 고개를 젓거나 자신 없는 표정을 짓는다. 독일 전 총리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비용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며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라는 충고를 해주셨을 때, 나는 제2의 수치심을 느꼈다. 물론 비용문제가 어찌 보면 가장 크고 직접적인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코 통일을 저지하는 이유여서 안 될 것이다. 하루빨리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 비용문제를 절감시키기 위한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독일과 같은 선례를 살펴보고 많은 자문을 구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해결해야 할 우리의 몫이다. 독일 통일 당시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들었다는 말에 용기를 얻고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독일 전 총리께서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해 미리 고민해보는 것이 좋으며 필요하다고 하셨다. 독일은 그들 스스로 the first textbook을 써 내려갔기 때문에 겪은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 하지만 포럼의 마지막 ‘통일 직전 시점으로 돌아간다면?’이라는 철학과 학생의 질문에 답을 해 주시면서 “좀 더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일을 추진할 것이다. 당시 너무 급박하고 많은 위협을 느끼며 정책을 추진했고 나 자신에게도 너무나도 큰 경험이었다.” 라고 하셨다. 당시 겪으셨을 여러 고충들이 충분히 느껴졌다. 독일의 상황은 한국의 상황은 물론 차이점도 많고 더욱이 우리가 현 시점에서 통일을 위해 따를 수 있는 모델도 되지 못한다. 그러나 독일 전 총리의 회상이 우리가 통일을 위한 준비과정과 통일이 닦쳤을 때 the first textbook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교훈이다.

요르크 쉐른 전 내무장관께서 우리를 위해 많은 일화들과 경험담을 들려주셨다. 군대 내 통합이라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더 귀 기울여졌다. 경제, 문화, 정치 그리고 군사 분야. 통상의 외교관계에서도 주로 마지막 단계에서 개방되는 분야이다. 나라를 지키는 군대의 내재적 특성 때문에 통일군대의 새로운 좌우명과 통일독일에서의 역할과 입장 수립과정에서 더 큰 결단과 희생을 겪어야 했다는 일화들을 들려주셨다. 독일 전 내무장관께서는 ‘신뢰구축’을 강조하셨다. 군대 내부의 신뢰구축, 정치지도자와 군사지도자의 긴밀한 협력과정. 연방헌법재판소의 여러 차례의 결정과 그 의견의 수용. 사회 각 분야 간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과정이 통일과정의 원활유가 되었던 것 같다.

나는 지금 법 공부를 하는 법학도로서 법 공부를 마친 후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통일 관련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통일의 과정에서이든 (만일 생각보다 빨리 통일이 된다면) 통일 이후 통합과정에서이든 사람들의 신뢰를 끌어내고 여러 그룹 간의 차이를 조율하려면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심리

학이 그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이다. 많이 배우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실천하고 싶다.

독일 전 총리께서 당시 혼란상황 속에서 연방헌법재판소가 많은 결정에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말을 듣고 법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서 많은 감명을 받았다. 통일은 몇몇 분야의 문제가 아니다. 나라 전체의 각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준비가 이루어져야하고 통일이 되면 각각의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에 따른 분쟁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승인하고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이 해결책으로써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미리 남과 북의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해보고 나름의 철학을 세워 두는 것이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으로서, 통일 미래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라는 것을 배웠다.

끝으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실한 마음이다. 우리 민족이 6.25전쟁을 겪은 지 6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세대를 거듭하여 부모님의 부모님으로부터 전해들은 우리들은 이미 전쟁이나 민족분단의 아픔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였고, 통일에 대한 관심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흥구 전 국무총리께서 젊은이들을 설득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이끄는 방안으로 ‘통일은 우리의 자존심문제이다. 애국심에 호소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셨다. 그것이 수치심에서 비롯되든 자존심에서이든 간에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언제 올지 모르는 통일, 다음 세대에 올지도 모를 통일에 대한 준비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고, 또한 통일이 찾아왔을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 순간을 경험하셨던 분이 바로 앞에 편안하게 앉으셔서 그 때를 회상하며 만년필 일화를 들려 주셨을 때, 통일 후 고향을 다시 방문한 기쁨을 이야기 해주셨을 때 너무 부러웠다.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이제 우리나라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이 나보다도 어린 나이에 떠나온 고향을 다시 찾는 행복, 기쁨을 ‘단 한분이라도 더’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포럼의 좌장이셨던 이화여자대학교 김선옥 총장께서 “독일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1년 뒤 독일이 통일되었다. 그런데 내가 독일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통일의 기운을 피부로 느끼지 못했었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해주시며 통일이 생각보다 빨리 오길 바라는 기원과 함께,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통일을 준비해야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주셨다.

북한이 또 다시 권력계승을 준비하고 있다. 멀지 않은 시기에 올지 모를 ‘적기’를 놓치면 우리의 통일이 더 요원해질지도 모른다.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지 않고 더 큰 시각을 갖고 통일을 이룰 마지막 세대라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비전大강연 참가소감문

서승희

맥주가 맛있기로 유명한 곳, 베토벤과 괴테의 나라, 유럽 재정위기 속에서도 EU의 지대 역할을 하는 나라 등 독일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가는 이유들은 많고도 많지만, 내가 독일에 주목하는 이유는 독일이 통일을 이루어낸 국가이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승전국들에 의해 독일은 동, 서로 갈라졌고 그 분단은 약 40년간 지속되었다.

독일 분단의 실질적인 이유가 냉전체제 하에서의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고, 결국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과 붕괴의 시기에 독일 국민들의 노력이 더해져 통일까지 이루어냈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아직까지 분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독일의 통일과정과 그를 위한 정책과 노력들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에 전 동독 총리, 전 독일 국방부 차관 등 통일 독일을 일선에서 만들어 나간 두 연사 분들과 현재 통일고문회의 의장으로서 우리의 통일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분들의 통일에 대한 의견과 비전을 듣게 될 기회가 생겨 이번 포럼에 참가하게 되었다.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의 강연을 들으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점은 독일 통일의 근본적인 원동력은 헌법도,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라는 국제환경도 아닌 바로 사회적 연대감을 바탕으로 한 통일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었다는 점이었다. 2+4 외무장관회의에서 “우리는 통일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의 문제만을 너희들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겠다”는 통일에 대한 동, 서독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에 통일 독일에 대한 많은 나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41년만에 통일을 이루어내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통일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라는 독일 통일의 원동력에 대해 들으며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과연 우리의 경우, 통일에 대한 원동력은 무엇이 될까?’ 라는 점이었다. 강연이 마친 후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질문과 같이 독일의 경우 동독인들의 평화적 혁명이 통일독일의 물꼬를 틀었지만, 현재 체제에 대한 세뇌와 함께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과연 동독과 같이 혁명을 이루어 낼 수 있을까? 설혹 그러한 혁명을 이루어낸다 하더라도, 남한의 주민들이 서독이 그러했던 것처럼 물질적, 경제적 지원을 아낌없이 함으로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어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물론 개인적으로 나는 통일에 찬성하며, 한반도의 통일은 찬/반의 문제, 경제적 문제를 떠나 이루어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국민들의 합의가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기에 지금부터 조금씩 통일에 대해 국민들이 논의하고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의 체제에 대한 세뇌와 함께 억압을 받고 있는 북의 주민들이 통일에 대해 준비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통일의 다른 주체인 남한에 서라도 통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단이 된지 6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흐른 지금, 통일에 대한 염원이나 바람이 열린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통일이 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입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분단 상황하의 한반도에서 나고 자란 젊은 세대의 경우,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 본다. 하지만 통일이 될 때의 사회주역은 바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될 것이기에 이들에게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그러한 통일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 이유를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꼭 젊은세대 뿐만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통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경제적 부담과 관련된 것이라면 우선 그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실제 어떠한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고,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통일은 이미 앞서 이루어낸 독일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질 만큼 언뜻 보기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사실 이 강연을 통해 통일 후 군사문제에 대해 처음 생각해볼게 되었다. 내 생각이 짧아서 일수도 있지만, 통일 후 남한의 군병력의 축소까지만 생각해봤지 양 측 군사들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다. 이와 같이 통일은 통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통일 후에도 수많은 예상 밖의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는 독일의 경우에서와 같이 ‘우리는 한민족이다’라는 생각, 서로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한국인이라는 의식일 것이다. 이를 위해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새로이 창조할 수 있는 정신적 기반을 쌓을 필요가 있다. 이런 민족적 동질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함께 만들어 나갈 미래에 대한 대화 속에서 가능할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루어낸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드 메지에르 전 동독총리가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 분단부터 통일에 이르기까지 동,

서독간에 인적, 물적 교류뿐만 아니라 편지와 전화의 교환 및 TV시청을 통한 문화적 교류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러한 끊임없는 교류와 문화의 나눔이 바로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하는데 기반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 우리와 북과의 관계는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물론 북핵문제를 비롯하여 연평도 사태 등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어느 정도 북에 대해 강하게 나갈 필요도 있지만, 소통을 할 최소한의 통로마저 없는 지금의 태도가 결코 바람직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남북간의 모든 소통의 통로가 막혀있는 상황 하에서 우선 소통의 통로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강연자들께서 언급해주신 바와 같이 한국의 통일은 독일과는 다른 양상으로, 다른 상황 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선례마저 없었던 독일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독일의 통일과정과 그 후의 상황들의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취할 점은 취하고 다르게 적용할 점은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한층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로 되는 통일된 한반도의 희망찬 모습을 상상해보며 이번 포럼의 소감문을 마친다.

통일은 갑자기 반드시 온다

손지윤

때는 20××년. 눈 뜨고 일어난 다음날 아침, TV를 틀었더니 주요 언론사 뉴스는 난리다. “긴급속보, 남북한 통일…통일한국의 대두시대”라는 자막이 뜬다. 앵커는 흥분한 나머지 말을 이어나가지 못한다. TV에서 비춰진 통일의 현장은 국내외 언론사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로 앞이 안 보일 지경이다. 정부 관계자, 정치인, 유명인들은 축하의 인사와 소감을 전한다. 가족과 열싸안으며 눈시울을 붉히는 한 노인은 북에 가족을 두고 6.25 때 내려왔었다며 그 간의 고된 심정을 토로한다.

갑자기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그 다음날 아침은 이런 시나리오가 전개되지 않을까 싶다. TV에서는 기쁨에 찬 사람들의 얼굴로 통일한국의 모습을 그릴 것이다. 일각에서는 갑작스런 통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도 조명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둘은 모두 놀라움이라는 공통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물론 위의 시나리오 정도로 앞뒤 없는 갑작스런 통일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통일은 앞일을 예견하면서 천천히 오는 것이 아님은 확실하다. 통일은 갑자기 그리고 반드시 온다.

역사는 각 시대마다 주어진 과제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일제강점기에서는 독립이, 광복 이후 사회에서는 독재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우리의 과제였다. 역사는 그렇게 해당 시기에 주어진 과제를 차례차례 수행하면서 진보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과연 무엇인가? 바로 통일이다.

통일이라는 갑작스럽고도 거대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다행히 우리에게선 독일이라는 좋은 선례가 있다. 이번 <한반도비전포럼 2011>에서는 독일 통일의 선례를 통해 주요 인사들의 강연과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요르크 쉐븐 전 독일 국방차관은 독일 통일 당시의 군대 문제에 대해 말했다. 그는 서독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통일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 내 두 개의 군대에 따른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총리는 독일이 통일을 위해 진행한 5단계의 조치와 그 과정에서 동독인들의 평화적 혁명완수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특히 요르크 쉐봄 전 독일 국방차관은 “한국에는 통일부가 있기 때문에 통일을 조준해 잘 대비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단계별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이전에, 이를 조직하고 계획할 상황부터가 여의치가 않아 보인다.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배경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요즘은 북과의 교류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사건에 따른 남북의 경색된 관계와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북한의 폐쇄성은 이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통일 당시 독일의 상황과 현재 우리의 상황은 확실히 다르다. 이번 포럼의 연사들 역시 이 부분을 지적했다. 남북의 경제상황과 국제사회의 도래 등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북한 내의 자유 부재였다. 동독에서는 TV, 라디오 등을 통해 제한된 소식을 듣고도 동독 주민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다. 또한 동독에서는 기독교도 인정될 수 있었고, 이는 자유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북한은 어떠한가? 그들에게 있어서 자유란 존재하는가?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는커녕 심지어 직업 선택,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없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지시 아래 이루어지고,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 이는 사회주의라기보다 독재국가에 더 가까워 보인다. 따라서 통일을 위해서는 그 폐쇄성을 깨고, 자유를 원하는 북한 주민의 용기가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자유를 배우고, 이에 따른 책임을 북한 주민들이 배운 상태여야, 통제를 넘어선 통일이 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통일에 대한 남한의 의지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은 감성적인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경제적인 이유도 중요시 하는데, 이 때문에 통일에 대한 의지를 불명확하게 해서는 안 된다. 통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독일 경제가 휘청거렸다는 점을 ‘독일 통일 후유증’으로 지적하고 있다. 물론 아직 모든 것이 치유된 것은 아니지만, 독일 경제는 통일 이전보다 악화되지 않았으며 2006년부터는 ‘유럽의 엔진’으로 재도약하고 있다. 경제적 비용 때문에 주저하는 이들에게 이번 포럼에서의 연사들은 말했다. “고민하지 말고 그 시간을 오히려 미래에 투자하라”고.

“통일은 반드시 온다. 통일은 갑자기 온다. 통일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작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독일 대통령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북한 주민은 스스로에게 자유에 대한 갈망을 심어야 할 것이며, 남한은 한시적인 비용을 핑계로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남북한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통일이라는 합작품을 기대해 본다.

한반도비전포럼 2011 비전대강연 참가후기

송다솜

‘통일’이란 단어만 들으면 속이 울렁거리는 증세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런 내가 학교 홈페이지에서 「한반도비전포럼」 공고를 보자마자 주저 없이 참가 신청을 해버린 것은 그리 유별난 일은 아니었다.

며칠의 기다림 끝에 맞은 2011년 11월 18일. 개회 시간에 거의 정확히 맞춰 들어왔음에도 들어설 자리 없는 1층을 보자 가슴 속 한 구석이 쿵쿵쿵쿵 거리기 시작하였다. 마치 동지들을 만난 느낌이랄까. 음악대학 김영의 홀에 들어서자, 독일사의 역사적 격동기를 두 눈에 가득 머금은 파란 눈의 두 거장이, 바로 내 눈 앞에 있었다. 동독의 마지막 총리였던 ‘로타 드메지에르’, 전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주 내무장관 이었던 ‘요르크 쉰봄’, 그리고 우리나라 전 국무총리이자 현재 통일고문회의 의장 ‘이홍구’, 큼지막한 홀을 가득 메우고도 남을 만한 이들의 무게감이 무대 한가득히 묻어나왔다. 삶으로 겪어낸 독일 역사를 짊어지고 태평양을 건너 반토막 난 한반도를 찾은 그들은, 우리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분명했다. 역사책의 한 귀퉁이나 TV 프로그램 역사 다큐멘터리 정도로만 인식되는 통일이란 개념이 손에 잡히지 않는 ‘아늑한 이야기’가 아닌 분명한 ‘실체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들려주기 위해서였고, 그 앞에서 진지함으로 가득한 학생들의 눈빛은 연신 반짝였다.

난 그 자리를 가득 메웠던 학생들의 간절한 눈빛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우리 같은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북한’은 너무도 낯선 존재이고, ‘통일’은 안개 속에 가리워진 막연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단 66년을 지나오면서 그 시대를 기억하는 사람은 고작 10%만이 이 땅에 남았다. 우리들은 한반도가 하나였던 때를 역사 공부로밖에 인지할 수 없고, 역사를 더듬어가며 기억하는 선조들의 ‘옛날 옛적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만 귀동냥으로 넋지시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러한 우리들은 ‘통일이 정말 이뤄질 수 있는 현실 가능한 것일까?’란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런 질문조차 흔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66년이 흐르는 동안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대치상황의 분단국가’라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위협감이 아닌 불감증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시야에서 북한이란 존재가 서서히 멀어지면서 가슴 속 통일에 대한 소망도 점차 사그라지기 시작했다. 가끔씩 간첩, 탈북자 등의 북한에 관련된 보도를 접할 때마다 북한에 대한 적대감만 반짝 증폭되는 듯하다가 또 다시 사그라지는, 그러한 행태의 반복만 허무하게 남아 한반도를 맴돌고 있을 뿐이다. 통일에 대한 언짢은 감정은 비용에 대한 문제점으로 여기저기서 표출되는데, 파란 눈의 그분들도 그러한 소문들을 듣고 오셨던지, 지속적으로 힘주어 강조하셨다. “여러분, 통일비용에 대한 걱정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분단 비용과 통일 후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어 우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날아오기 시작하였다. 사실상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만연했던 당시, 동독인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며 평화적 통일을 이루었다는 ‘결론’에서부터 출발한 이야기는 통일 전 구 동독의 구체적인 시대 상황으로 넘어가면서 흥미진진함을 더하였다. 그들의 통일은 다수의 독일인들이 희망을 포기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찾아왔는데, 그들은 그 기회를 주저하지 않고 ‘선택했다’고 표현했다.

통일 전 구 동독에서 꿈틀거렸던 새로운 움직임들은 사실상 독일 통일에 대한 복선이었다. 구동독에서 이뤄진 첫 민주주의·자유주의 선거는 93%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하면서 연방법치국가와 시장경제를 위한 교두보를 열기 시작하였고, 동독인들은 스스로 스탈린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다섯 가지의 조치를 가동시키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개혁, 두 번째는 기존의 5개 주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 세 번째는 서독과 경제통합·화폐통합·사회통합을 이루는 것, 네 번째는 경제·화폐·사회 관련된 통일 조약과 통일된 법률공간을 만드는 것, 마지막으로 2+4조약이었다. 이 조약은 독일 주변의 세계대전 4개 연합국들과 독일 간에 이뤄진 조약으로 주변국들에게 ‘우리의 통일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문제가 아닌, ‘어떻게 통일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만을 던져두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 대목이었다.

이흥구 전 국무총리께서는 독일과 우리의 명백한 차이점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주셨다.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전쟁에서 이긴 나라들이 마음대로 해도 어쩔 수 없는 처지였지만, 우리는 패전국이었던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미국과 소련의 의지로 억울하게 분단되었다는, 즉 국제정치의 부당한 처사로 인해 얻어진 결과라는 사

실. 두 번째는 지정학적인 위치로, 최하 10개 이상의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독일은 유럽 대륙 내에서 가장 큰 나라이며 NATO에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거대한 강대국들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라는 차이이다. 우리의 6자 회담과 2+4가 보다 적절히 비교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주권을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이양(移讓)시키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선 이홍구 전 총리의 말씀처럼 ‘소프트 파워’를 강화시키며 주변에서 업신여기지 못할 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꼈다.

통일 후 독일 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군대”라는 통일된 독일의 군사력을 세우기까지의 심층적인 과정들을 언급해주셨던 요르크 쉐봄 전 내무장관의 강연과 이들의 강연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신 우리 김선욱 총장님의 정갈한 진행의 막바지에 다다라, 여기저기서 아주 날카로운, 날 선 질문들이 날라들었다. 붕괴 후 중국으로의 흡수 통일 우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민족성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며 이홍구 전 총리께서 명쾌하게 대답해주셨고, 통일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준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나, 라는 질문에 로타 드메지에르 전 총리께서는 “몰수된 재산을 소유자들에게 어떻게 분배해 줄 것인가를 골몰하겠다”며 신중히 대답해 주셨다. 쏟아지는 학생들의 궁금증과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후끈 달아올랐던 2시간, 그러나 그들의 경험과 삶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너무도 짧은 시간이었다.

음악대학 건물을 내려오며, 나의 사명(使命)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정립했다. 이 나라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막힌 담을 허무는 일, 그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잇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며 쓰러진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켜 재건하는 일, 그 일에 내 인생을 통째로 건다. 자신이 겪어낸 통일의 역사를 짚어지고 찾아와 ‘우리도 했으니 너희들도 할 수 있다’며 가슴으로 일러준 그들에게, 우리가 직접 일궈내는 통일의 과정을 펼쳐 보여주고 싶다. 반드시 우리 스스로의 자결권을 갖고 조약에 사인을 한 후, 만년필을 손에 쥐고 나오는 그 역사적 순간을 내 살아생전 이루리라. 한껏 다짐하며 뜨겁게 부풀어졌던 가슴이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있다.

한반도비전포럼 2011 ‘비전대강연’ 소감문

신희영

2011년 11월 18일 한반도의 통일미래 비전과 관련하여 우리와 같은 분단이라는 상황을 겪었지만, 20년 전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험을 듣고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독일 통일의 주역이었다는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총리와 요르크 쉐븐 전 베를린 내무장관,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흥구 전 국무총리께서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뜻깊은 시간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연히 분단국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라고 하면 완전한 한반도의 모양을 그리면서도 나의 조국으로서는 남한만을 생각하고, 단지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제가 진심으로 남과 북이 이전처럼 하나가 되어 하나의 정부 아래, 하나의 제도 아래 서로를 ‘우리’의 범주에 놓고 살아야한다는 강렬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그릴 때 한반도를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소리를 거침없이 해왔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분단국가에서 태어났지만, 분단을 직접 내 몸으로 겪지 않았고 언뜻언뜻 윗세대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으며 ‘그들’의 가족이 서로 떨어져있어 심정적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 분단이 비정상적인 상태이며, 다시 합쳐져야 할 절실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비전포럼에서 통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도 독일의 주민들이 열망했다는 만큼의 간절함을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고통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세대였다면 얘기가 달라졌겠지요. 어쩌면 저한테는 날 때부터 분단 상태였던 이 상황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에 적응되어 편한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와 쉐븐 전 베를린 내무장관의 경험에서 우려나온 연설들을 들으며 뭐니뭐니해도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향해 충분

한 노력과 일정부분의 희생은 감당할만한 국민적인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통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메지에르 전 총리께서 말씀하셨듯, 동독의 주민들 스스로가 스탈린주의의 독재체제를 물리치고 자신들의 손으로 독일의 통일을 제 1 목적으로 하는 정권에 투표를 하여 힘을 실어 줄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주민들이 스스로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이었고, 쉐본 전 베를린 내무장관께서 이야기해주신 군대 제도의 통일 역시 통일에 대한 전국민적인 강한 염원이 없었다면 시행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진정으로 통일을 목표로 한다면 국민들이 진심으로 통일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 자신들의 정치적 역량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분단의 아픔을 직접적으로 겪은 세대보다, 오히려 이 분단이 더 익숙한 세대들의 비율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진심으로 통일의 가능성을 믿고, 되어야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적어지고 통일의 길도 더 요원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단순히 '통일비용보다 분단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경제적인 이유에만 의지하게 될 것이고, 기타 우리의 비극적인 역사를 되새김질하고 그것을 본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자는 의미는 퇴색될테니 말입니다.

물론 통일비용보다 분단비용이 더 크다는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의 분단이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었고, 열강들의 세력 다툼의 결과였으며, 그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끊임없이 주지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보활동도 중요하고, 교육에 있어서도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거의 동시에 분단의 길로 접어든 우리의 암울한 한국 현대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교사를 목표로 사범대학에 진학한 만큼, 그 동안 우리 교과서를 살펴볼 때, 역사뿐만 아니라 지리나 일반사회 교과서에서도 끝자락에는 항상 통일 한국을 위한 우리의 자세를 언급하는 단락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사실 그런 단원은 진도상의 이유로 넘어가거나, 다루더라도 정말 간략하게 교과서를 읽고 넘어가는 정도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었는데, 제가 교사가 된다면 그러한 통일과 관련된 단원에 대해서 오히려 토론수업이나, 역할극, 감정이입, 아니면 이러한 포럼의 참여, 관람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심도 깊은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것을 장려하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론적인 교육만큼이나, 우리가 한민족이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던 사람들이라는 일체감을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동

독에서 일정 학년이 되면 학생들이 서독으로 수학여행을 간다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학생들이 직접 북한에 가서 북한을 느끼고, 이곳이 우리의 영토 중 하나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비록 직접 분단의 아픔을 겪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통일을 바라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국민적인 정서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쾰른 전 베를린 내무장관께서 과거 통일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통일에 대해 더욱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당장 통일에 대한 생각을 물으면, 막연히 영원한 분단상태를 유지할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 혹은 빠른 시일 내에 하나의 국호와 제도 등을 공유하는 통일국가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잘 안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통일을 늦추는 것은 제가 걱정하는 각종 통일로 인한 비용상의 문제, 현실의 장벽이 아니라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의식 자체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된다고 생각하고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러한 통일비용들을 극복할 방안을 생각하지, 비용이 드니 지금은 무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측의 노력 못지않게, 북한과도 계속해서 통일에 관한 주제를 논의하고 교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쪽이 한 쪽을 흡수하는 통일을 할 것이 아닌 이상, 동등한 위치에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다면 우리만의 논리와 우리만의 생각으로는 통일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역시 우리가 통합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한반도 통일의 또 하나의 주체인만큼, 서로 잦은 교류를 통해 두 주체가 조화롭게 통일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날 독일의 통일의 경험을 한국의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해주려 자리해주신 두 독일 통일의 주역들이 공통으로 하셨던 말씀이, 통일의 경험은 너무나 감동적이고 잊을 수 없었던 경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은 독일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고, 우리는 우리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만큼 독일의 경험을 완전히 우리의 상황에 접목시킬 수는 없겠지만, 통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관해서는 분명히 배울 점이 있고, 그들의 사례를 통해 희망적인 전망을 갖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쪽의 바람이 북쪽에 꽃을 피워

심현규

저에게 '독일'이라는 생소하고 친근하지 않던 나라에 한걸음을 내딛어 이번 강연에 참가하게 된 것은 일종의 도전이었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에 관하여 제가 아는 지식은 단지 맥주, 소시지, 화페단위, 베를린 장벽, 그리고 독일 또한 역시 지금은 통일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의 아픔을 겪은 나라라는 것 쯤 이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또한 어떠한 사건으로 우리나라가 아직 이루지 못한 통일이라는 과제를 이루어 내었는지도 알지 못하였던 저는 적어도 독일 통일에 대한 과정은 알고 강연에 참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독일이 우리나라가 아직 이루지 못한 통일을 먼저 경험한 모범이 될 만한 나라라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닌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독일 통일 방식에 대해 배울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통일시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과거를 비출 수 있는 거울만이 아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의 실질적 경험이 있었던 총리의 강연은 저에게 상당히 수준 높은 것이었고, 또한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알게 된 사실 중 놀라웠던 것은 동독과 서독을 갈라놓았던 베를린 장벽이 동독일에 의하여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독일 통일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동독일을 현실적으로 서독에 비해 정치체제와 이념이 달랐고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였기에 동독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것은 마치 북한쪽에서 통일을 주장 하는 것만큼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독일 사람들과 서독일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등을 이용하여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제가 영감을 얻은 것은 통일이 남쪽의 일방적 주장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쳤을때 소리가 나듯 북한의 민중들이 원해야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북한 역시 경제적 기반이나 민중들

의 인권의 신장과 남북 민중들의 만남이 지속되어야 하고, 이는 정부차원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교류와 만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연자 로타 드메지에르 구동독 총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 '인간의 자유에 대한 욕망은 배고픔보다 강하다.' 라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소련의 공산주의 지배 지역에서 자유의 대한 의지가 동독일 시민들을 서독을 향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동독일 국민들을 깨우치게 한 계기가 다름 아닌 서독일의 대중매체라는 말씀을 듣고 대중매체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독일과 서독일의 월드컵 단일팀 출전과 우승, 서독일의 발전사항을 알 수 있는 여러 보도 내용들은 동독일 사람들에게 통일과 자유에 대한 열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저는 김일성이 사망 후 김정일 정권을 거쳐 김정은 체제로 이어지면서 지도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우상숭배도 많이 사라졌을 것이며, 현재진행형인 한류 열풍이 중국을 넘어 북한쪽으로도 흘러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매체의 힘은 북한 민중들 역시 자유에 대한 갈망을 갖게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내부적으로 북한 민중들은 동요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지도부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빵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독일의 사례와 비교하면, 자유에 대한 갈망에 최소한의 삶을 살고 싶다는 욕구가 더해지고 이를 대중매체가 자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독일에서는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유발을 위해 동독일 학생들을 서독일로 수학여행을 보내면서 동독일학생들이 감명을 받게 하기위한 계기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도 학생들의 애국심에 대한 의지와 자극을 줄 계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나라 학생들도 만약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갈 수 있을 날이 언제쯤 올까 하며 또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젊은이 과연 동독일 학생들이 받은 그런 감명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며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통일을 위한 국민들의 의지와 관심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 통일에 대한 대비가 거의 전무했던 그 당시의 동독일과 서독일은 경제 통합과 사회 통합 그리고 화폐 통합에서 큰 난항을 겪었고, 동독일과 서독일의 화폐 통합 과정에서 저축액 환산 등의 문제로 큰 고난을 겪은 적이 있었다라는 동독 총리님께서서는 통일비용 문제에 관하여 강조하셨던 것을 되살려서, 그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약간의 조사를 하였는데, 독일이 통일 되면서 당면했던 문제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나열한다면, 첫째로 통일되기 전 동독일의 지도부가 행했던 인권탄압 문제에 대한 처벌 문제가 야기되었고, 그래서 사회는 혼란스러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는 동독일과 서독

일의 통일 이후에 심각한 실업난과 지역적 차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칫 독일을 정신적으로 분열 시킬 수 있는 위험한 문제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유재산재인 서독일과 달리 동독일은 공산주의 옹기에 재산분배 문제가 사회적 갈등의 요소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 사회는 많은 갈등을 겪었고, 세계 3위안에 들었던 서독독의 경제상황도 매우 힘겨움을 겪어야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로타 드메지에르 전 총리는 현재 독일에 비해 우리나라가 통일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대치상황에서의 분단비용과 피해, 우리나라가 통일할 때 얻게 될 이익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며, 가장 큰 재산은 전쟁에 대한 걱정 없으며, 남북한이 분단되었다는 치욕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과거의 서해교전 사건, 사실관계의 증거가 불확실하다는 천안함 사건, 그리고 얼마 전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보면서 통일에 대한 확신보다는 북한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저런 존재들을 민족으로 인식하고 정부나 혹은 적십자를 통한 민간인 차원의 지원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폭력이 적어도 민중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민중들은 적개심이 팽배했던 세대와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통일을 염원해야 하는 책임의 시간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동독일과 같이 민중들의 자유에 대한 강한 열망이 북한의 민중들로부터 샘솟아야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배고픔에 죽어감에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과연 북한의 아이들이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다고 고민을 한 적이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대중매체에 비치는 아프리카 주민들의 고통을 눈물 흘리며 아직까지 이념과 체제의 대립 때문에 텔레비전의 카메라의 저 너머에 북한 민중들의 가난함을 마음속에 공감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공이라는 두 글자 대신 연대와 이해를 꿈꾸어야 합니다. 분단과 폭력이라는 단어를 희망으로 마음속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 희망은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야 하며, 북쪽 사람들의 염원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통일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교류가 더 확대되어야 그들의 마음속에 통일에 대한 꽃이 필 것입니다. 동독의 통일은 가장 바닥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통일은 단순히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의 화약고가 되어있는 전 세계인들의 평화의 문제고 보편적 인류애로도 외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한반도비전포럼 2011 비전大강연 소감문 건강한 통일한국이 되기 위한 준비

양수연

한반도의 분단은 지난 60여 년 간 수많은 예술과 문학 작품의 소재가 되어왔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왼쪽의 그림은 올해 초까지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분단미술 : 눈 위에 핀 꽃'에 전시된 임옥상 화가의 '하나됨을 위하여'이다. 휴전선을 넘어 서로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화가의 마음이 느껴진다. 그 외에도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해방 직후부터 휴전선이 그어질 때까지의 한반도를 민족의 관점에서 그려내고 있다. 이념갈등과 열강들의 압력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분단되어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우리의 현실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나는 6.25 전쟁을 겪어보지도, 북에 이산가족이 있지도 않아서 분단의 아픔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교과서 속에서만 배웠을 뿐이지 가슴으로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태백산맥』을 읽고 난 후에는 같은 민족에게 총을 겨누어야 했던 사람들의 심정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60년이 지났지만 분단을 그린 예술작품들이 계속해서 나오면 먼 세대의 우리 후손들에게도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나서 그 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북한정치론이란 과목에 끌려 수강을 하고 있다. 그러던 중에 이 강연을 들을 기회가 생겼다. 우리나라와 같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분단이 되었지만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의 연사들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에 설렘이었다. 특히 통일 당시 동독 총리와 같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역사의 한 장면에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게다가 강연을 듣기 전 북한정치론 수업시간에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배웠었는데 이흥구 연사님이 바로 그것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선물을 받은 것만 같았다. 하지만 사실 독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점이 별로 없어서 독일 통일에 대한 연사님들의 말씀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는데, 이흥구 연사님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가 알아

듣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면 연방주의나 지방자치제도가 어떻게 해서 통일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 이흥구 연사님은 독일의 연방주의는 통일을 위한 개혁을 위해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걸쳐 형성된 독일 고유의 역사적인 산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각 나라마다 적합한 제도는 다르다고 설명해주셨다.

강연은 매우 만족스러웠고, 통일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다른 참가자들의 통일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은 나를 더욱 자극시켰다. 우리나라에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한다면 한반도의 통일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한다. 강연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선 로타 드메지에르 연사님은 기념사에서 독일 통일의 과정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셨다. 독일의 통일도 역시 지금의 한반도에서처럼 불확실했고 머나먼 미래의 일처럼 여겨졌다고 했다. 그러나 독일은 분단 45년 만에 통일을 이루어냈다. 통일은 동독인의 평화적인 혁명으로 완수되었다고 말하는 드메지에르 연사님의 표정에서 진정성과 자긍심을 엿볼 수 있었다. 또 인상 깊었던 점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에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선거를 국민들의 힘으로 쟁취했고, 그 투표율은 93.4%에 달할 만큼 자유에 대한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는 것이다. 최근 남한의 투표율은 50% 남짓이고, 북한의 선거는 '북한 주민들에게 선거란 아무런 정치적 권한이 없고, 오로지 수령과 당의 지시에 의하여 찬성표를 투표함에 넣는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 "인 상황을 돌아볼 때, 매우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 통일에서의 특징적인 점은 2+4조약에서와 같이 동독과 서독은 자신들의 통일에 있어서 주체적인 위치를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6자회담에서 남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한반도에서의 핵 문제이고 분단된 국가는 남한과 북한인데, 왜 우리는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하는 대목이었다.

다음으로 요르크 쉐봄 연사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 통일과정에서 동독과 서독 주민들이 어떻게 통합했는지에 대해 알려주셨다. 통일 직후 국방부 차관을 지내셨던 쉐봄 연사님은 서독의 연방방위군에 동독의 국가인민군이 큰 충돌 없이 인수될 수 있었던 이유로 국가인민군의 적극적인 협조, 연방방위군의 지원과 배려를 꼽았다. 연사님이 직장을 잃게 된 조종사들에게 했던 영어수업 지원약속을 끝까지 해낸 일화는 우리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했다.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

1)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2204>

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지원을 이끌어냈다.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정부신뢰도가 낮은 우리나라 정부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제시해야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흥구 연사님은 한국과 독일을 비교하여 독일의 교훈을 우리나라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독일과 한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치, 지리적 요건과 정치적 상황, 그리고 같은 민족 간 전쟁을 겪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통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젊은 세대들은 비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통일을 반대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걱정할 것 없다고 하셨다. 우리는 지금 분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군사적, 경제적 비용이 상당한데다가, 통일한 후에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이득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분단 비용의 구체적인 수치와 통일 후 얻을 수 있는 이득의 전망치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면 통일이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비전대강연’은 나의 통일에 대한 인식에 큰 전환점이 된 것 같다. 아주 먼 일이라고 생각되었던 통일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북한 주민들도 통일을 열망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들과의 거리감도 좁혀졌다. 이 강연에서 배운 바를 토대로 앞으로는 건강한 통일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좋은 경험이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독일인 전체의 마음을 알기에는 동독 출신의 연사만으로는 부족한 듯 했고, 참여자들 간에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소규모의 토론장도 열렸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비전大강연을 듣고 난후 소감

엄재정

나는 강의를 듣고 집으로 오면서 울었다. 45년의 독일의 통일이 부러워서, 66년의 분단의 한국의 통일을 간절히 원하면서, 이북에서 배고프게 사는 형제들을 생각 하면서, 너무 살기 힘들어 자살을 택하는 이북의 형제들을 생각 하면서, 중국을 해매며 살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팔려 살면서 붙잡히면 죽으려고 약을 가지고 불안 하게 사는 형제들을 생각 하면서, 목숨을 걸고 탈북 하다가 붙잡히거나 총살당하는 형제들을 생각하며 울고 울었어요. 일정의 36년의 압정 하에 해방 되어 춤추며 좋 와 했던 우리 민족에게 이런 슬픈 괴로운 마음 앞은 분단의 처절한 고통을 가지고 66년을 살게 되니 절망감 실망감 포기 까지 느끼게 되지만 하나님은 한국을 인도 하시고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훈련 하여 Pax Asiana 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게 하는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과정인지 너무 과정이 길고 감당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한국을 아시아 아니 세계 주도국으로 사용 하실 것을 믿고 감사 주일을 당해 감사하며 고대한다.

요르크 쉐본 내무장관의 강의 내용에 의하면 1989년 10월 동독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 나와 반정부 시위를 했다고 한다. 동독시민들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유를 요구했으며, “우리는 민족이다”라고 외쳤고. 후에는 그 외침이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고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북의 형제들은 자유를 간절히 원하지만 배고파 죽어 가면서 총 칼 앞에서 두려워서 말도 할 수 없으니 독일의 상황과는 다른 것 같다. 우리는 이북과 남한이 교류가 없고 종교의 자유도 없으니 독일의 상황과 많이 다르다고 느끼며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는 통일의 계획이 필요 하다고 느낀다.

용감한 동독의 시위자들이 이 테마를 의사일정에 상정시켰고, 헬무트 콜 수상이 미국 부시 대통령,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함께 회의장에 모인 모든 독일 주변 국가들의 동의를 얻어 정치적 독일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군대는 독일 통일에서 독일의 동서 사이

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신뢰구축이라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었다고 한다. 독일군은 대립으로부터 벗어나 협력의 길을 걷기를 원했다. 우리의 주변 국가 중국 일본이 잘 협력 할 수 있을까? 혹시 미국은 도울지 모르지만 소련은 잘 협력 할까 의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주위 국가들이 도울 수 있게 할 것이다.

독일 통일 후 수많은 정치가들이 1990년 7월까지 기대했던 것과 같은 국가인민의 작은 부대라도 방위군으로서 동독지역에 존속해야만 한다는 것은 받아들여 질 수 없었다고 한다.

독일은 오직 하나의 군대를 가질 수 있었으며 군대의 이원화를 지속시킬 수 없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군대, 또한 국가인민군은 해체 되어야만 했고, 연맹지역에 주둔한 연방방위군의 군대는 국가인민군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 재건해야 했다. 국가인민군 소속의 한 육군중위는 “우리는 오로지 충성했다. 군대의 업무는 모든 것들에 우선했다. 가정생활보다도 우선했다. 누군가 소대장으로 60시간 또는 그 이상 업무를 수행 했을 때 독일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했다. 우리들도 독일 민족 같이 한 민족으로 국가의 통일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 할 필요가 있다.

스토티베르크 장관은 모든 이들에게 모든 노력의 목표는 하나의 통일된 연방방위군이 있음을 명확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1990년 10월 3일부터 모든 군인들이 같은 연방방위군의 군복을 입도록 결정했다. “우리는 1989년 11월9일 장벽붕괴 명확하게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군대는 무조건적인 복종하는 책임이 동반되는 복종을 요구하는 군대이며, 이 군대에서는 “인간의 존엄은 침해 되어질 수 없다는 기본이념이 복무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군대의 정신이 생겨나게 된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커다란 도전이며, 우리는 이 도전을 함께 극복하기를 원했다”고 했다.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총리도 말씀하기를 독일 통일로 이끈 결정적인 사실은 바로 동독인들의 평화적인 혁명 완수였다. 동독인들은 스탈린주의적 독재체제를 시위로 쓸어버리고 민주화 과정 자체를 장악하였다. 베를린의 치욕적인 장벽은 서독이 아닌 바로 동독 쪽에서 밀어 무너뜨렸다고 했다.

구동독에는 근본적으로 세 가지 사고방식들이 존재했다.

첫째, 사회주의의 새로운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둘째, 예방 겔리쉬 교회의 본호퍼 하우스에서 열린 원탁회의에서 새로운 동독을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동독은 작고, 겸손하고, 평화주의적이고, 친환경적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적이며,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셋째, 그들은 우리가 독일 통일을 향해 전진 할때, 우리의 문제들을 가장 잘 해결 할 수 있다. 원탁회의는 우리에게 자아 발견, 민주주의 습득에 기여하였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열심히 듣고, 존중하는 점을 가르쳤다고 했다. 원탁회의는 구동독에서 처음으로 자유 선거를 가능케 한 선거법을 의결하였다. 또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5개 단계의 조치가 있었다.

우리들도 독일의 통일전략을 연구하고 상고하여 우리 한국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 할 수 있나,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하나, 많은 연구와 토의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며 우리의 소원인 통일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이 일에 기여하고 싶다.

Unified Korea for All Nations

오은찬

‘한반도의 통일미래 비전’이라는 주제로 로타 드메지에르 전 총리와 요르크 쉐봄 전 내무장관, 이홍구 전 총리의 대담회가 진행되었다. 학교에서 진행되었던 수많은 강연, 저명한 인사와 함께하는 대담회 중에 ‘비전’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은 처음 보았던 것 같다. 특히 통일이라는 역사적인 관문 앞에 선 한반도에게 제시하는 비전이라는 주제가 매우 흥미로웠다. 그리고 그동안 색이 바랜 나의 어여쁜 비전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나의 비전은 ‘Unified Korea for All Nations’이다. 모든 열방을 위한 통일 한국을 꿈꾼다는 의미이다. 한 때 나의 심장에 아로새겨졌었고, 나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던 문구였지만, 지금은 그 때의 두근거림을 더듬어 기억해야 한다. 2006년, 처음으로 통일 한국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 그 때만 해도 전 세계에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나라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었고, 하루 속히 한민족이 통합되어 온전한 한반도의 원형이 회복되길 매일 고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통합은 단순히 자국의 유익을 넘어 모든 나라에게 이로움을 전하는 기쁨이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비전이요, 사명으로 삼았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통일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알아갈수록 어찌면 통일은 저 멀리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한반도비전포럼 2011’에서는 독일 통일의 주역들의 이야기를 통해 통일한국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해주었다.

첫 번째 연사는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였다. 그는 시민들의 손으로 일궈낸 통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다. 그의 음성, 표정 속에서 통일의 현장은 더없이 감격스럽고, 격정적이었음이 전달되었다. 특히 공산주의라는 장벽 속에서도 주체적으로 평화적인 민주화 혁명을 이룬 독일들이 통일의 주역이라고 말했다. 동독은 스스로 자신들의 체제를 변혁시키고, 스스로 국가의 문을 열고, 통일을 완수하였다.

통일에 대한 동독인들의 갈망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의 연설에서도 잠깐 등장하였지만, 동독과 서독의 시민들이 한데 뒤엉켜 독일이 분단국이었음을 상징하였던 베를린 장벽을 부수는 장면은 전세계로 하여금 그들의 열망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짐작케하였다. 그 장면은 나에게도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정치도, 경제도 그 어떤 압력도 그들의 열망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그리고 독일을 가로질러 솟아있던 무의미한 분단의 상징이 해체되어 서로가 만났을 때,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감동이 전파를 통해 전해졌었다.

독일의 경우는 동-서독 간의 서신, 전파 등의 교류가 활발했기에 동질감을 구축하고, 시대착오적인 체제에 대한 반발, 시민의식의 함양을 이끌어내는 데 보다 수월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동독에 비해 사정이 좋지 않다. 정치적, 경제적인 상황이 모두 현저하게 떨어진다. 북한이 동독과 같이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킬 힘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도 역사에는 예외지대가 없다는 점, 가능성이 낮다고 좌절하기 보다는 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한 도전 등이 논의되면서 보다 우리나라에도 통일에 대한 낙관론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연사는 요르크 쉐봄 전 재무장관이었다. 그는 통일 이후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통일이 가져다주는 감동 그 자체만에 취해있을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통일은 바로 그 직후의 현실이고, 일상으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 이후 갑자기 모든 변화가 한꺼번에 밀려온다. 철저히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조화의 짐임을 상기시켜 준 셈이다. 요르크 쉐봄 전 재무장관이 던진 화두는 군대통합 이슈였다. 동-서독간 서로 대치하고 있던 거대한 병력이 하나로 합쳐지고, 이를 축소하는 과정, 그리고 이 때 발생한 퇴역군인들에 대한 국가적 개입 과정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나라 역시 겪어야 할 과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일반적으로 그러하겠지만, 선군정치를 내세우는 북한에서 군인은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상당하다. 때문에 통일 이후 군대를 축소하고, 퇴역군인을 새롭게 재사회화하는 과정에서 모두를 만족시키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역할이 사라지는 것이기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만만찮을 것이다.

쉐봄 전 내무장관은 그들을 움직인 것은 바로 신뢰였다고 말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창조적으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었던 것, 쌓인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양측 간에 무던한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통일의 과정, 통합의 과정은 꽤나 치열했고, 아무것도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더 많은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해야만 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연사는 이흥구 전 총리였다. 그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구상하고, 20세기 초반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냈던 주역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알קות은 역사의 흐름으로 인하여 통일은 문전에서 놓치고 말았다고 한다. 그는 수십년 동안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헌신했던 분이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마음가짐이 남달랐다. 그리고 정말 간절히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고 있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는데 한 세대의 역사를 이끌어 온 거장이 다시 다음 세대에게 나라를 부탁하는 비장함까지 느껴지기도 했다.

그 분들이 해주셨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두 가지의 핵심 단어로 축약될 수 있을 것이다. 갈망과 신뢰가 바로 그 것이다. 통일을 향한 모두의 갈망과 염원, 그리고 통일 이후 서로에 대한 신뢰와 따뜻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아닌가 싶다. 현재 남북관계는 뜻하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서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때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정성있는 갈망과 서로에 대한 따뜻한 신뢰가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도전까지 안겨주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비전이라는 말은,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나의 비전은 마음속에만 그리어볼 뿐, 가시적으로 다가온 장래의 상황이라고 할 수 없었다. 분단 66주년을 맞아, 통일을 66년간 그리어 온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리라. 수없이 외쳐보았지만,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에 막연한 피로감과 매너리즘으로 인하여 말이다.

그러나 이번 강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꿈꾸게 되었다. 이미 몸소 체험한 두 사람, 그리고 통일한국을 위해 역사의 선봉에 섰던 이의 이야기는 충분히 나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고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그리고 통일을 온 몸으로 받아들일 통일세대인 우리가 바로 그 준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강한 메아리로 남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식어진 나의 열정에 온기를 불어 넣고,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일꾼이 되어 이 나라의 설움과 아픔을 어루만지는 곳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한반도비전포럼 2011 비전대강연 참가 소감문

과거 독일 통일의 주역과 미래 한국통일 주역의 만남

오정현

“1961년 8월, 냉전체제의 상징으로서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고, 이는 독일을 동과 서로 갈라놓았습니다. 이후 1989년 11월 장벽이 붕괴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동에서 서로 넘어갔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총살을 당했습니다. 옆에 보이는 것처럼 동독의 군인들도 서쪽으로 도망쳤고, 이 사진을 통해 유명해진 저 군인은 이후 동쪽의 가족들이 보복을 당해 실제로 탈동을 후회했다고 하네요.”

2011년 8월,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지 50년이 되던 때 혼자 독일여행을 하면서 받은 영어 투어가이드의 설명이다. 내가 속한 투어 그룹은 미국, 호주, 영국 등 각기 영어권 관광객들로 이루어져있었고, 그만큼 다양한 국가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건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모국인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지요.”

투어는 단순히 시티투어였지만 독일이라는 나라,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안고 있는 역사적 고통, 그리고 역사적 발전 덕에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냉전, 분단, 이데올로기, 인권 등으로 이어졌고 나는 많은 사람들과 남북분단에 대해 이야기를 할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1989년 11월, 동독 주민들의 개혁 바람에 의해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고, 유럽 시민들은 이제 독일의 분단이 아닌 독일의 통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베를린 장벽 붕괴 22주년인 2011년 11월, 이화여대 김영의 홀에서는 독일의 통일을 통해 한국의 통일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여름 남북의 분단에 대해서 이야기 하던 나도 이제는 통일에 대해 목소리 더했다.

전 동독 총리 로타 드메지에르와 전 베를린 내무장관 요르크 쉐븐은 독일 통일을 단순히 ‘평화적 통일 사례’로만 보고 있는 우리의 시각을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갔다. 이에 더해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독일과 한국의 유사성 및 차이성을 설명하며 균형 잡힌 틀을 제공했다.

드메지에르 총리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독일의 통일 진행 과정에서의 쟁점사항 다섯 가지를 명료하게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개혁, 새로운 주의 구성, 경제, 화폐 및 사회통합, 통일조약, 그리고 2+4조약, 이렇게 다섯 가지 조치이다. 언뜻 들으면 평범해 보이지만 가장 첫 단계 조치가 '중앙' 정부의 개혁이 아닌 '지방' 단체의 개혁이라는 점부터 주목할 만하다. 이는 중앙에서 새로운 지령이 내려오더라도 하위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구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는 변화가 생기기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내게 가장 인상적인 조치는 다섯 번째 2+4조약이었다. 2+4조약의 숫자 2는 동독과 서독을, 4는 주변 국가인 소련, 영국, 프랑스, 미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실질적으로 독일 통일을 합의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처음에는 '4+2조약'으로 명명되었었다. 주변 4개국이 중심, 주체가 되고 당사국인 2개의 독일은 수동적인 개체임을 암시하는 이름인 것이다. 그러나 양 독일은 통일이 주변 국가에 의해 결정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독일 국민의 자결권 속에 결정하고 주변국의 인정을 받는 것임을 명확히 하려고 노력했고, 마침내 조약의 명칭도 '2+4조약'으로 바꿀 수 있었다.

이 설명을 들으면서 나는 2+4조약이 동아시아의 '6자회담'과 매우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북핵 문제 혹은 통일문제의 당사국인 북한과 남한, 그리고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이렇게 4개의 주변국가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일단 숫자부터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첫째로, 통일문제가 당사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이해관계와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유사하다. 그리고 둘째로 통일문제에 있어서 당사국의 힘보다 주변 국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공통점이었다.

그러나 독일은 초기 4+2조약이었던 것을 2+4조약으로 바꾸면서, 합의의 주체가 그들임을 세계에 확고히 했고, 그들의 자결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한편 한국은 2003년 4월 베이징에서 남한은 제외하고 북한과 중국, 미국간에 이루어진 3자회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아직 당사국으로서의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했다. 이 점에 입각해서 나는 드메지에르 독일 총리에게 어떻게 하면 한국도 주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평소 독일과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마침 독일어를 공부해오던 중이었고, 조심스레 독일어로 말문을 열었다. 질문은 오해의 소지를 염려해 한국어로 했지만 총리는 대답을 하면서, 그리고 모든 행사가 끝난 후에 내 독일어에 대해 감탄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질문에 대해서 총리는 2+4조약을 6자회담에 견주는 것은 매우 적절한 비교라면서 2+4조약에서 보여진 자결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총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국도 더 높은 자결권을 획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

처음에는 드메지에르 총리에게서 확실한 답을 듣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렇지만 어쩌면 그 해답은 통일을 이룩한 전 총리에게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통일을 이룩할 우리가 힘을 다해 찾아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여름 내가 독일 곳곳을 돌아다니며 독일의 통일 흔적을 느끼고 온 것, 이번 강연에서 독일통일의 주역들로부터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모두, 미래 남북통일의 주역으로서 현재의 노력 중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 감상문을 마치며.. |

제가 통일문제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7월, 혼자 독일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열린 북한과 스웨덴의 여자월드컵 경기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16살 때 혼자 미국 뉴욕에서 유일한 동양인으로서 1년간 교환학생 생활을 할 때, 올해 1학기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교환학생 생활 등, 키도 크고 목소리도 큰 서양인들과 경험이 많은 저이지만, 그 날 경기 두 시간은 지금까지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운동화에 배낭, 저는 영락없는 어린 배낭여행객의 모습이었지만, 사람들은 저를 적대적으로 쳐다보았고,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북녘에서 응원 온 열댓 명의 북한 중년들을 발견했고, 용기 내어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냉대에서 받은 상처는 유럽 응원객들에게서 받은 상처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 후 경기를 보면서 주변에 앉은 스웨덴 팀 응원객들에게 저를 한국에서 온 학생으로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처음에는 저를 멀리 하던 그들과도 곧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독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독일 통일의 흔적을 살펴볼 때 수많은 감흥과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혼자 한 배낭 여행인 만큼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이후 한국에 돌아와서 독일어 자격증도 따고 여러 북한학 수업을 들으면서 깊이를 더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이번에 통일부에서 마련한 기회를 얻어 또 다른 시각과 깨달음을 가지고, 또 동료들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를린 장벽 앞에서 고하는 통일의 소망

유수연

“헉헉..., 어디로 가야 하나요?”

“2층으로 가세요. 1층에는 사람들이 꽉 찼어요~”

11월 18일, 나는 이화여대의 김영의 홀을 찾아 가파른 경사를 뛰어올라가느라 숨이 가빴다. 3시부터 전 동독 총리의 강연이 시작된다는데 이화여자대학교 정문에서 본 시계는 2시 58분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얼른 서둘러 뛰어가는데 김영의 홀의 정확한 위치를 몰라 헤맸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비전대강연’ 팻말과 함께 큼지막한 화살표를 따라 올라가니 가파른 언덕 위에 위치한 김영의 홀에 얼른 들어가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내가 2층의 첫째 줄에 앉으니 로타 드메지에르 전 총리께서 바로 말씀을 시작하셨다. “저는 이 자리에서 독일의 통일과정을 통해 한국의 통일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동독의 마지막 총리였던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와 전 독일 국방부 차관이었던 요르크 쉐봄으로부터 독일 통일의 산 역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은 매우 설레는 일이었다. 처음 한반도비전포럼, 비전대강연 포스터를 보았을 때, 초청강사들을 보고 ‘아직도 동독의 전 총리가 살아계셔?’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화들짝 놀랐다. 독일의 통일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뤄졌던 지라 나도 모르게 독일 통일을 머나먼 옛날로 인식했었나보다. 그런데 이번에 이화여대에서 이제는 세상에 없으신 줄로만 알았던 독일 통일의 산 증인들로부터 생생한 통일과정과 그 경험을 들을 수 있다니, 매우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드메지에르 전 총리께서 강조하신 것은 진정한 통합을 위한 사회적 연대감이었다. 통일을 위해 통일헌법도 제정했던 독일이었지만 통일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동독인들의 평화적인 혁명완수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동독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게 한 밑바탕이 되었다. 그래서 동독은 통일독일을 위한 스탈린의 사회주의 독재체제에서 벗어난 새로운 동독의 정부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민주적인 토론과 합의를 통해 기존의 우리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동의 것으로 권력을 이양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서 5단계조치를 시행했다는 것이 드메지에르 전 총리의 말씀이었다. 이러한 5단계조치는 사회, 정치, 경제 등의 부문에서 구동독 주민들뿐 아니라 주변국들과 전승국 간의 관계 또한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독일이 지속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신뢰와 합의가 독일이 자국통일문제에 있어서 전승국으로부터 자결권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였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가능하게 했듯이 한국도 북한과의 지속적인 합의와 신뢰를 쌓아간다면 주변4강들의 이해관계에 끼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통일을 이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다.

뒤이어 시작한 요르크 쉐봄 전 국방부 차관님의 독일의 통일과정 속의 연방방위군과 국가인민군의 군 통합과정들에 대해 발표하셨다. 군의 통합과정에서 생긴 어려움과 해결과정 그리고 현재의 평화로운 연방방위군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 군대에 대한 내용은 원체 나에게 생소한 주제였을 뿐 아니라 군대가 통합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해보지 못한 나에게서는 한편 충격이었다. 나는 단순히 통일이 되면 군대가 사라지고, 군대가 존속되더라도 매우 축소된 규모의 남한 군대일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따라서 현재 적대관계인 북한군과 남한군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한번도 생각지 못해봤던 것이다. 독일에 있어서도 군대통합은 매우 골치아픈 문제였다. 구동독에 주둔하던 국가인민군은 구서독의 연방방위군보다 물리적인 수준면에서 열등한 군대로 간주되었고, 지휘체제, 기본적인 문화와 말투도 44년 동안의 분단시기를 통해 달라져 서로에게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진정한 통합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도기적 상황에서 군을 통한 사회질서 회복, 치안 유지 등 군대의 역할이 필요했지만 동독을 흡수통일한 서독의 입장에서 연방방위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동독의 국가인민군은 해체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연방방위군과 국가인민군이 서로를 배려하기 시작했고, 작은 희생 속에서 통합을 이루며 지금은 안정된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이 군대는 나토군 안에서 활동하며 전세계의 평화를 위해 파견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지금은 남북한 군인들이 서로를 향해 총대를 겨누고 있을지라도 통일 후에는 전세계 평화를 위해 싸우게 되기를 소망했다.

마지막으로 발표하신 이흥구 전 국무총리는 한국 분단의 역사와 한국 국민 전체가 모여 의견을 합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셨다.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을 이유삼아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통일편익이 통일비용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며 확신하는 태도로 말씀하셨다. 이흥구

전 국무총리께서는 통일에 있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는 구체적인 방법론은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통일에 회의적인 국민들의 태도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 듯 했다. 통일을 하기 위해 통일 이전의 문제해결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다. 한편, 드메지에르 전 동독총리와 쉐본 전 국방부차관께서는 통일 이후의 발생했던 문제들과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행동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셨다. 이러한 부분은 '우선 통일을 하는 것부터가 먼저야' 라는 단힌 사고가 아니라 통일 이후의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독일을 통해 성찰하고 준비하는 사고까지 확장시켜주었다. 독일도 경제적인 문제를 걱정했었지만 통일은 비용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하시며, 지금은 독일이 통일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셨다. 본인들도 통일독일의 경제에 대해 매우 걱정했었지만 그것은 독일의 평화와 유럽전체의 평화에 비할 수 없는 것이었고, 통일독일의 현재 모습은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다. 역사의 실제 가운데 점점 성장하는 통일독일은 한국에게 긍정적인 표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일한다는 전제가 없으며 너무나 폐쇄적인 북한의 특수성은 독일과 한국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한 방법일지 모른다. 그러나 아무런 참고서 없는 통일의 과정을 먼저 겪은 선배로서, 그리고 아직도 통일독일의 사회적 통합과 과거 청산, 경제적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독일의 모습을 보며 나도 또한 통일한국에 대한 자극을 받고 성찰하게 되었다.

쉐본 차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서독의 젊은 아이들은 12학년이 되면 동독으로 수학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모든 서독 아이들은 이 수학여행을 갈망했다." 그런데 나도 동일한 감정을 가졌었다. 중학교 때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는 친구의 여행담을 들으며 말이다. 그 친구는 북한의 한 가게에 들렀는데 먹을 것이나, 상품 같은 것들이 빈약하고 적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자신은 또래 북한 친구를 만나보고 싶었는데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 길목마다 사람 다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비록 그 친구가 그 당시 인식하지 못했을 지라도 나는 상점방문 하나만을 통해서도 북한의 상점은 다양한 물건이 가득한 동네 문방구와 어쩔 이리 다를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으로부터 남과 북이 분단된 이유에 대해 고찰해보게 되고 통일에 대한 공동의 책임감을 갖게 되었으리라 확신한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금강산 노래를 생각하며 기대했던 금강산 여행은 지금은 언제가 될지 기약할 수가 없어졌다. 그러나 나와 내 친구들, 그리고 어린 동생들이 직접 북한에 대해 알고 간접적이라도 체험할 수 있는 연결고리들을 만들어 통일에 대해 점점 무관심해져가는 젊은이들을 일깨워주고 싶다. 그리고 로타 드메지에르 전 총리께서 통일 후 갈 수 있게 된 라인강 옆 사무실에서 라인강을 내려다보며 이

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헛갈리며 감격했다라는 말을 하셨다. 그에 반응해 쉐븐 전 국방부 차관도 괴테의 도시인 바이마르를 방문하며 괴테의 도시를 오게 되다니! 라며 감격했던 순간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순간 지금은 무너진 베를린 장벽과 소수의 이해관계와 미움으로 점철된 4km의 우리나라 군사분계선이 오버랩 되었다. 동독인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과 통일의 소망이 28년 동안의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듯 나와 내 친구들, 젊은 세대들의 통일을 향한 열망과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 군사분계선을 뚫고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는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기념의 일부로 남아있는 베를린 장벽 앞에서 통일 그날을 위한 기쁨의 노래를 같이 부르고 싶다.

한반도비전포럼 ‘비전대강연’ - 단상 위에 앉아 얻은 생각들

윤소진

한반도비전포럼은 이화여대 음악관의 김영의 홀에서 개최되었다. 이화여대가 작지도 않지만 크지도 않다고 생각해 왔지만, 김영의 홀을 전혀 몰랐던 나는 새삼 놀랐다. 사범대, 인문대, 경영대 중심으로 오갔기에, 다른 대학들의 건물에 대한 관심이 정말 없었다. 건물에 입장하기 전에 건물 밖에서 아는 선배를 만났는데, 그 선배는 예약을 하지 못해서 미리 들어갈 수 없었다. 나는 예약을 했고 두시 반까지 단상에 가야 했으므로 언니를 두고 홀로 들어갔다. 김영의 홀에 도착하니 정중한 몸짓과 옷장의 사람들이 안내를 해주고 있었다. 나는 화장실을 가고 싶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고 남자 화장실만 보였다. 여자 화장실은 알고 보니 홀에 입장 후 몇 번 돌아 걸어가야 있었다. 남녀 화장실이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나 멀리 떨어진 건물은 이화여대 말고도 더 있을까?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다. 화장실에 갔다 온 후 단상에 올라갔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질문을 준비해 왔냐고 물어봤다. 아차, 나는 질문을 생각해보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다. 그때부터 질문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긴장감이 몰려왔다. 사실 그럴 듯하면서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질문이 있기는 있었지만, 막상 질문의 시간이 돌아오니 긴장돼서 그냥 조용히 앉아있었다.

사회는 이화여대에서 ‘북한정치론’을 가르치시는 최대석 교수님이 보았다. 단상 위에서 역시나 여유 있고 재미있게 말하셨다. 포럼이 시작하기 이십분 정도 전에는 남자 네 명이 어디에선가 등장해서는 ‘오 솔레미오’, ‘통일부에서 만든 어떤 곡’ 등등을 우렁차게 불러댔다. 단상 위에는 여러 송이의 장미들이 있었는데, 그 남자들은 그 장미들을 들고는 단상에 있는 학생들은 고려도 안하고 관객석에 가서 나눠주었다. 그 후에는 이 비전의 주인공이신 전 동독 총리, 로타 드메지에르, 전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주 내무장관, 요르크 쉐븐, 전 국무총리, 이흥구, 마지막으로 김선욱 총장님께서 입장했다. 우리는 준비한대로 그 분들이 입장할 때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김선욱 총장님은 역시나 미소를 띠

며 단상위로 올라오셨으나 그에 너무 반대되게 로타 드메지에르는 얼굴에 성이 잔뜩 나 있었다. 다른 두 분들은 별 문제 없어 보이는 무덤덤한 표정이었다.

그리하여 포럼이 시작되었다. 김선옥 총장님께서 온화한 표정과 목소리로 이 포럼에 대해 설명하셨고, 바로 로타 드메지에르 전 총리님에게 순서가 돌아갔다. 드메지에르는 동독이 통일을 달성해가는 시기에 총리였던 분으로서 통일이 이루어지던 그 순간을 누구보다도 더 잘 기억하는 것 같았다. 물론 통일은 동독 시민들이 이루었지만 그들에 바람을 들어주기 위하여 열심히 일한 사람은 정치인들이었을 것이다. 동독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을 부심으로서 통일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한국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 아주 부러운 일이다. 북한 사람들은 과연 3·8선을 넘어서 올 가능성은 정말 낮기 때문이다. 3·8선으로 오기만 해도 북한군에 의해 죽임을 당할 테고, 넘어오는 과정에 지뢰에 밟혀 죽을 테고, 내려와도 남한 군에 의해 죽임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예측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사람들이 남하한다는 것에 대한 나의 시나리오다. 정말 실현 가능하지 않지만 상상해 볼 수는 있다.

북한과 동독의 현실을 비교하는 것이 무리가 있기는 하다, 독일영화 '타인의 삶(Das Leben der Anderen)' 을 보면 동독 역시 북한과 마찬가지로 독재시대였고 정부의 감시 하에 개인의 목소리가 자취를 감추는 때였다. 그러나 북한의 지금 3대 독재와 비교하면 덜 부패된 사회였을 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재미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북한의 독재체제가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을 거라는 것이다. 이흥구 전 국무총리님이 말씀하셨듯이 역사에 역행하는 흐름은 오래 지속 될 수가 없다. 즉, 독재체제는 구시대의 것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가는 것이 역사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라는 것이다.

전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주의 내무장관인 요르크 쉐볼은 주로 군의 통합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내무장관이란 위치는 군에 대한 상당한 결정권이 있나 보다. 아니면 그 당시 군의 통합이 서구의 선진국들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보다 평화롭게 해결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독일 통일의 임무였기 때문이었을까? 내가 이해한 바로는 독일은 군의 크기를 줄였고 지금은 20년보다도 더욱 축소된 규모라고 한다. 군사비로 국가의 많은 재정을 쏟아 붓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 정말 부럽다.

이흥구 전 국무총리의 말씀은 주로 참석한 사람 중에 고등학생과 대학 학부생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정말 이해하기가 쉬웠다. 그에께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드러났다. 컨디션도 훨씬 좋아 보이셨다. 질의응답을 가지는 시간에 이흥구 전 국무총리는 북한

이 중국에 흡수통일 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니 걱정 말라는 대답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도 확신감이 드러났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하여 생각하면 정말 북한이 중국에 흡수되지 않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인가? 중국은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고 그중에 조선족도 포함 돼있다. 조선족은 한국말을 할 줄 알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인으로 인정이 된다. 혹시 북한도 그런 민족 중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중국이 북한의 흡수를 강요하게 되면 북한 사람들의 남한과 중국 중 어느 것을 선택하게 될지 모르겠다. 오랜 세월을 통하여 많은 북한 사람들이 남한은 가난하고 못사는 나라이며 북한의 적이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의문은, 북한이 역사에 역행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추진력이 어딘가에서 정말로 생길 것 인가? 이다. 북한은 지금 현재 여러 국가들이 채택하는 체제와는 현저히 다른 독재체제와 시장경제 개방 거부를 선택하여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이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이 언젠가 시대의 흐름을 따를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근거가 있을까? 국가 사이의 상호 교류가 날로 커가고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져가는 시대이지만 역사가 지역과 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상대적인 것도 사실이다. 즉 17, 18세기에 유럽이 이성에 대한 탐구와 과학 발전을 이루는 그 시기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부족문화 속에서 유럽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이라 북한이 마냥 몇 백 년 전의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처럼 스스로 자족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북한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도 나름 흥미있다.

그러면서 통일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 보면 방관하는 태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겠다는 생각도 한다. 나는 북한이 우리 민족 같다는 생각을 하여 분단에 대해 감상적으로 슬퍼하는 편은 아니지만 실리적인 면에서 볼 때 분단비용을 상호가 치뤄야 하는 것이 억울하기 때문이다. 이번 포럼은 나에게 단상 위에 올라가 있게 해준 흥분되는 경험을 주기도 하였지만, 그 동안 중요하지만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분단과 통일에 대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이십대인 나에게 경각심과 책임감 역시 주었다.

한반도 통일을 고민하는 대학생에게 고함

이가람

우선 통일부와 이화여자대학교의 공동 주최로 열린 한반도비전포럼 《비전대강연》을 통해 ‘통일’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보냈던 로타 드메지에르 전독독 총리와 요르크 쉐븐 전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주 내무장관을 직접 뵈 수 있게 되어 영광이었다. 또한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총장님의 귀중한 발걸음 역시 잊을 수 없다.

남한의 많은 대학생들은 국가의 대북정책이나 여러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통해 ‘한반도 통일’에 관한 생각을 발전시킨다. 하지만 특별히 조금 더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두루뭉술하게 ‘통일은 언젠가 해야 한다, 북한 체제 탓이다, 통일비용은 부담스럽다’라고 대안 없이 부정적 문제인식만 하기 십상이다.

《비전대강연》에서 생생한 담화를 들으며 통일에 관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부분을 앎으로써 잘못 인식한 부분을 수정함으로써, 종전과는 달리 위의 부정적 문제인식을 해결하며 구체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통일은 언젠가 해야 한다, 통일 시점은? |

독일이 통일을 이룩하게 된 과정과 통일된 독일의 행보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며 한반도의 미래에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중대한 과업임을 마음에 다시금 새겼다. 통일된 독일을 이루기까지 동독의 변화는 상당히 가시적이었지만, 모두의 예측과는 다르게 결정적으로 독일이 하나 되는 시점은 ‘순간’이었다고 회고된다. 그 이유는 동독 시민들이 평화적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종결짓고 민주화된 통일독일을 원했지만, 서독 시민들은 과거 역사와 유럽의 안정을 이유로 실제로 통일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가질 준비조차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일 통일이 우리 한국처럼 그렇게 당연하게 언젠간

찾아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준비하지 못한 채 순간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적어도 지금 남한 시민들은 통일을 우리가 당연히 이루어야 할 일임을 인지하고 있고 통일부를 통한 통일 교육원과 북한자료센터 등을 통해 손쉽게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또한 남한의 정치에서 북한과의 통일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이 항상 뜨거운 감자로 다뤄지고 있고, 북한에 대한 소식도 대부분 가감 없이 접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남한의 우리 대학생들이 북한의 실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흥구 전 국무총리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통일의 시점은 누구도 정확히 재단할 수 없다고 한다. 결국 우리 대학생들은 언제 이뤄질지도 모르는 막연한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언젠간 꼭 이루어질 통일에 대한 소명을 간직하고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나갈 시민으로서 통일 의제에 대해 매사 고심할 필요성을 느꼈다.

| 북한 체제 탓이다, 통일을 위한 방향에서 동독과 북한의 체제 차이점은? |

베를린 장벽은 서독이 아닌 동독에서 밀어 무너뜨렸고, 동독 시민들은 사회주의 체제를 타도하고자 하는 반정부 시위를 벌이며 평화적 혁명을 통한 민주적인 통일독일을 원했다. 이는 현재 북한의 상황과는 사뭇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북한의 권력이 존속 또는 붕괴를 결정적 요인으로 북한 주민을 억압하는 강제력이 여러 측면에서 발생되고 있다. 그러므로 동독의 사례처럼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 주민에 의한' 체제 붕괴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북한 주민은 자유를 위한 평화적 혁명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존재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분단 상황의 동독에서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서독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남한의 소식을 접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며 중국을 통한 남한의 드라마나 종교 등의 소식을 접하는 것이 반역에 가까운 중죄로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민주주의를 향한 자의적인 혁명을 기대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에게 낮은 단계라도 문화적·인적 교류를 요구해야 할 것이며, 북한 주민들이 당연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통일비용이 부담스럽다, 통일비용의 진실은? |

강연 말미에 통일비용에 관한 질문이 나온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일시대를 살아 갈 대학생 사이에서 일명 통일세(統一稅)에 대한 걱정은 상당하다. 하지만 담화를 통해 통일 논의가 지나치게 경제적 준비에 대한 논의로 흐르는 것은 안타까운 일임을 알게 되었다. 더불어 질의응답의 과정에서 북한학 수업시간에 그에 관련한 내용을 배운 기억이 났다.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은 현재의 분단비용을 고려했을 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통일비용에 있어 도로와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새로 공장을 지으며 학교와 병원을 건설하는 비용은 투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 측면은 비용 내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대부분 우리기업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할 것이므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할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다시 말해 통일을 이루었을 때 지금보다 부담이 소폭 늘어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통일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통일비용에 관한 오해를 푸는 데 적합하다.

사회과학을 공부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답이 없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의 가능성을 열어둔 채 토론하는 방법을 공부했다. 한반도비전포럼(비전대강연)을 통해 얻은 독일 통일의 귀중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 통일에 관한 본질을 객관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소중한 경험이었다. 또한 통일 안전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맹목적인 다수의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통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들었다. 우리통일의 시기가 10년 후가 될 지, 그 이전 또는 더 먼 미래가 될 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대학생이 사회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통일을 위해 정확히 알고 행동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인터넷 뉴스의 제목만 보고 대략적인 추측만 하는 우리 세대가 가벼운 마음으로 간과 해버리는 일 없이, 통일과 북한의 기사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으로 접근할 때 통일의 시기를 긍정적인 순간으로 배치할 수도, 북한 주민들과의 문화·사회적 교류를 이끌어낼 수도, 기쁜 마음으로 통일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사에 있어 역사적인 마디를 그을 우리 통일의 순간이 하루 빨리 찾아오길 기대한다.

이루어질, 통일

이가영

나에게는 통일을 간절히 소망하시던 할아버지가 계신다. “통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나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할아버지의 모습이다. 언제였는지는 정확히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TV에서는 감격적인 이산가족들의 상봉 장면을 방송했었다. 이제 통일은 그다지 먼 미래가 아닌 것 같았기에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감격에 겨워 들썩이던 분위기였다. 하지만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 무엇보다 가장 선명하게 내 기억에 남았던 것은, 서로의 눈물을 닦아내며 감격에 겨워하던 형제도, 노모에게 큰절을 올리던 아들도, 죽은 누군가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나온 손자도 아닌, 초조하게 리모컨을 만지작거리시면서 뚫어지게 화면만 바라보시던 내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강연 이후, 통일을 이룬 독일에서 오신 로타 드메지에르 전 총리님과 요르크 쉐봄 전 차관님이 통일 이후의 감격을 담담하게 전해주셨을 때, 나는 오랜만에 또 다시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이유도 목적도 알지 못한 채 노래를 부르던 어린 시절을 지나, 나는 점차 통일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반문하게 되었다. 당위성을 따져보려 들었고, 학문을 배우는 대학생으로서 그 비용에 대해 셈을 해보고 손익을 비교해보려 들었다. 나름 배웠다는 이론과 지식으로 예상도 해보았고 북한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보기도 했다. 나는 언젠가부터 통일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았고,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연을 통해 나는 다시 한번, 그리고 다른 방향에서 통일을 생각하게 되었다. 독일의 통일은 너무도 급작스러웠고 그 당시는 충분히 낙관적이지 못한 자세로 임했음에도 그 자체가 독일인에게 얼마나 큰 감격으로 다가왔는지를 두 분의 말씀을 통해 느끼면서, 우리에게 허락될 통일은 어떠한 감격으로 다가올지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았다. 또한

가보지 못한 땅, 책으로만 알고 그림으로, 사진으로만 보던 그 땅을 직접 밟고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다가왔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단순한 절차와 정치적 합의, 이성적 판단만이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특히나 요르크 쉐븐 전 차관님의 연설을 통해, 독일 통일의 배후에서 이루어졌던 독일 연방방위군 신설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알게 된 것은 물론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결단까지 알 수 있게 되었다. 독일 연방방위군 신설의 과정은 그 자체로 너무도 소중한 역사였고 진정한 독일 통일의 증거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된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독일과 한국의 상황은 비슷하기도 하지만 강연을 통해 생각한 것처럼 매우 다르기도 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한국의 분단의 과정은 단순한 물리적 분단만이 아닌, 한국전쟁이라는 대리전을 통한 고통스런 감정적 분단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독일에 비해서 한 가지 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바로 서로에게 총과 칼을 겨누는 진정한 분단을 통일로 치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분단을 경험한 세대도 아니며, 요즘 추세처럼 회의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로 통일에 대해 생각했었기도 하다. 하지만 독일 통일의 역사적 순간을 함께 하신 드메지에르 전 총리님과 쉐븐 전 차관님, 그리고 우리의 통일을 위해 노력하셨고 지금도 노력하시고 계신 이홍구 전 총리님의 강연을 통해 나는 통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려고 다짐한다. 통일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아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아니며, 이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이루어질 것, 그것이 통일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통일된 그 감격을 누려보고 싶다. 조금 욕심을 낸다면 그 감격을,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할아버지와 함께 누린다면 참 좋겠다.

독일 통일에서 한반도의 통일로

이경민

| 아래로부터의 통일, 위로부터의 통일? |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의 기념사를 통해 동독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열망이 매우 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스탈린주의적 독재체제를 시위로 무너뜨리고 민주화 과정 자체를 장악하였다고 한다. 동독국민들은 스스로 원탁회의라는 장을 통해서 최초로 자유선거를 가능케 한 선거법을 의결하였고, 그들은 이 선거에서 통일을 추진할 당을 선택하였다.

비록 많은 진통이 뒤따랐을지라도 내부에서 민주화와 자유화를 먼저 이룩한 동독국민으로부터의 통일과정이 바람직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자연스레 이런 과정이 한반도에서 재연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게 된다. 북한과 같은 폐쇄사회에서 과연 동독에서와 같은 아래로부터의(bottom-up)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설사 원한다고 하더라도 동독의 경우처럼 그 의지를 연대하여 구체적, 정치적 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의 경우 1992년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한 각 정부가 구상한 통일방안이 공통성을 가진다는 점에 합의하고 그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였다. 위로부터의 통일(top-down)을 어찌면 약속한 셈인데, 동 합의서 제1장 제1조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는 민족자결권의 발로가 아닌 정부와 정부 사이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통일이 성공하는 예가 될 수 있을까?

“보통 정부란 권력을 제대로 유지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을 지향하지만, 통일을 임무로 선출된 인민회의는 그들의 주권을 정부 이상의 목표를 위해 조금씩 이양해야 했다.”

기념사에 나오는 말이다. 독일에서의 통일과정은 주권과 인권 혹은 자결권의 긴장관계

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제국주의국가들로부터 해방된 2차 대전 후 탈식민지국가에서 인권의 한 부분으로 표현되어 온 민족자결권은 대개는 독일의 경우에서처럼 인권과 가까운 관계이다. 결국 국가 내지 정부가 가지는 주권과 민족이 가지는 민족자결권 사이에서 긴장이 가장 줄어드는 무게중심의 위치를 찾는 것이 과제가 아닌가 한다.

! 남한사회에서의 통일에 대한 준비 !

한편 남한의 경우는 통일 이전의 서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민들 사이에서 통일에 대한 의지가 크게 떨어져있다. 말하자면, 통일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가 북한에서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남한에서는 통일에 관한 건설적 논의의 미발달로 아직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요르크 쉐봄 전 장관의 글에서 보듯이 군대를 비롯한 국가를 구성하는 각 분야의 체제의 통합에서 발생이 예견되는 마찰들이 있다. 기념사에서 언급된 학제문제, 토지소유문제, 사유재산 몰수문제 등도 마찬가지이다. 남한사회는 체제전환에 관한 철학과 더불어 불평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포함한 현실적인 준비들을 해야 한다. 국민 차원에서 가장 가깝고도 효과적인 준비 중 하나는 탈북자들을 잘 대우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탈북자들이 제도적인 지원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남한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유대감과 친밀감을 느낄 때에 북한 내에 통일에 대한 국민 차원의 컨센서스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체제가 바뀐 사회에서 느끼는 혼돈은 요르크 전 내무장관이 국가인민군 소속 군인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닌 책임이 동반되는 복종,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어질 수 없다는 기본이념이 복무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전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는 먼저 민주화를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시장경제사회, 민주주의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응원해야 한다. 양쪽의 사회를 모두 경험해 본 탈북자들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그들에 열려있어야 하며 그들을 축복이자 통일을 위한 귀중한 인적자원으로 보는 시각이 요구된다.

! 주변 이해국의 지지를 얻는 일 !

양 독일 국가는 양 국민들의 자결권 속에서 자신들의 재통일을 결정하며, 4개 승전국들은 “통일인지 아닌지”가 아닌 “어떻게”의 문제만을 결정하게끔 하였다. 이는 소련이나 영국에 사고전환을 요구하는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45년부터

냉전체제의 영향을 받아 분단하게 되었고,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정전협정의 당사자도 남한과 북한이 아닌 북한, 중국, 유엔사(실질적으로 미국)였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에 관해서 독일과 마찬가지로 주변 이해국들의 지지를 얻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독일은 2차대전 당시 제국주의 국가였고 우리나라는 피침략국이었던 바, 통일독일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동의는 민주주의 독일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증거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통일한국의 어떤 모습을 제시하여야 주변국들의 전폭적인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 그 내용뿐만 아니라 남한이 우선 컨센서스에 도달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꾸준하게 주변국들을 설득하고 협의에 임하는 태도 및 그 과정 자체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한편, 북한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이 무력개입을 원할 때에 제시할 수 있는 국제법적 논리에 대해 우리의 방어논리를 수립하고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역사적 권원, 난민(북한 주민) 유입의 방지, 인도적 개입 내지 보호책임, 핵무기 제거 및 북한의 초청을 국제법적 이유로 하여 북한에 진입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방어하는 우리 측의 국제법적 논리의 개발은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내에 꾸준한 공감과 논의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또 다른 이유이다.

1990년 10월 3일, 역사의 그 날을 기다리며

이규리

| 역사의 그날을 떠올리며 |

역사의 그 날, 독일의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 마침내 굳건한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오랜 세월 염원했던 통일을 이룩한 주역들을 만난 시간은 참 많은 것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장벽이 사라지고 베를린 광장에서 서로 마주보았을 통일된 독일의 국민들이 떠올랐고, 그 날을 이루기 위해 희생되었을 수많은 사람들이 떠올랐고, 마침내 진정한 독일 국가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독일인들이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역사의 그 날을 있게 한 과거와 오늘의 독일인들과 그들의 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동서독, 하나의 염원 아래서 |

독일의 통일은 오랜 세월 분단되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통일 민족으로 가고자 한 동서독 국민들의 염원과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동독 국민들은 자발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스스로 사회주의 체제에 물든 과거의 자신들을 버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독재에 저항하였습니다. 이후에 자유주의 선거에서 보여준 그들의 높은 정치의식은 동독 국민들이 품고 있던 통일독일에 대한 희망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정치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던 서독 국민들은 낙후된 동독으로 인한 통일비용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분단을 직접적으로 경험해본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 간 소통으로 독일 통일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 보장금과 같은 경제적 손해를 수용하고, 2류로 간주되던 국가인민군을 서독 군인과 차별 없이 하나의 유니폼 안에 포

융합으로써 동서독 모두의 염원인 통일된 조국을 위해 한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동독인들의 염원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통일이라는 목적 아래서 힘썼기에 수많은 희생과 눈물의 세월은 45년을 지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러한 통일을 정확히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예감조차 못했을지 모릅니다. 동독인들이 통일에 대한 갈망으로 혁명을 진행해나가고 있던 시절에도 서독인들은 결코 통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리라 예상치 못했다고 했던 요르크 쉐봄 전 내무장관의 말이 그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가 스스로 인정했듯, 당시에 독일인들은 통일 독일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도 철저한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통일이라는 하나의 염원 아래 서로의 이익과 손해를 모두 내려놓고, 진정한 통일 연대를 이룩했기 때문에 통일된 독일은 역사 속에서 등장했고, 오늘날에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 남북한, 진정한 통일 연대를 꿈꾸며 |

독일의 통일은 2+4조약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비단 독일의 정치적, 혹은 외교적 노력에 의해 이룩된 것만은 아닙니다. 동독과 서독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독일 영토 내에 비핵화를 약속하고 생화학 무기를 포기했고, 독일 군사력을 대폭 감소했습니다. 국가인민군을 해체시키고 서독 군인에 편입시킨 것은 물론 소련에 막대한 자본을 제공함으로써 소련에게서 독일 통일에 대한 수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통일을 위해 동서독 할 것 없이 모두가 발벗고 나섰기에 국제 사회의 목인을 얻어 전쟁 없이 나라를 통일 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또 다른 분단 국가였던 예멘은 주변 강대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소련의 간섭으로 통일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경이 맞닿아 있는 중국과 러시아, 바다 건너 일본과 미국 등 강대국들의 한국 통일에 대한 이해를 받지 않으면 평화적 통일은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일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동서독의 노력처럼 남북한이 합의한 공동체에 의해 통일 연대를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통일 연대는 어느 한쪽의 주장만이 강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독인들의 피 묻은 혁명이 독일 통일의 전진기지가 되었고, 서독의 외교적 노력이 통일의 추진

력이 되었던 것처럼 남북한은 각자의 이익을 내려놓고, 손해를 감수할 때 진정한 통일 연대를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노태우 정권 이후부터 남한이 고수해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한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연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흡수하는 것은 북베트남과 서독의 경우처럼 흡수하는 쪽에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고,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통일로 서독의 경제가 입었던 것 같은 비싼 통일비용을 피하기 위해서 남북한 정부는 단계적인 통일 연대를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일 연대의 힘이 강해지고, 남북한이 더욱 가까워질 때, 통일 세대가 깊어져야 할 짐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남한의 젊은이들은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에 대한 생각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저 역시 잘 알지 못할 때는 그렇게 생각한 때도 있었습니다. 통일은 해야 하지만, 막대한 통일비용을 내가 짊어지기는 싫으니 내 다음 세대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분단 비용을 생각하면 통일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흥구 전 총리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설령 통일비용이 든다 해도 한민족을 꿈꿨던 동독 국민들처럼 민주화된 통일 한국을 꿈꾸고 있을 북한 국민들을 생각하면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 국민들이 함께 통일을 위한 연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경제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돕는 남한의 노력을 계속되어야 합니다. 다가올 세대는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통일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통일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동독이 그러했던 것처럼 발전된 남한의 정책과 제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독일처럼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의 기회가 찾아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까마득한 미래일지, 내일일지 모를 통일을 오늘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더 오랜 기간 분단된 한국은 독일보다 더 철저한 준비로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올 통일을 통일 연대 아래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시, 역사의 그 날을 떠올리며 !

부족한 글을 끝내며 저는 다시 역사의 그 날을 떠올립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인 모두가 하나 되어 한 민족이 됨을 기뻐했던 역사의 그 날이 아닌, 휴전선이 잘려나가고 평양 광장과 광화문 광장에 한민족이 얼싸안고 분단세월의 해후를 나누는

역사의 그 날 말입니다

역사는 방향성을 가진다고 했던 이홍구 전 총리의 말을 되뇌어봅니다. 독일이 통일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랜 세월 한민족의 수많은 눈물도 끊어내지 못하고 한반도의 허리를 움아 매던 휴전선이 드디어 산산이 쪼개어지고, 해방의 그 날처럼 온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함성을 토해내며 기뻐 얼싸안는 역사의 그 날. 마침내 한반도에도 1990년 10월 3일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통일비전

이미한

“동독보다 한반도통일이 더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는 대부분의 학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20년이나 전에 독일은 아무런 준비 없이 예고 없는 통일을 맞이했다. 냉전기 동안, 분단국 독일의 통일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동독인들의 평화적 혁명은 사회주의 독재체제는 무너뜨리고, 동유럽 민주화의 계기가 되었다. 독일 통일은 동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완화시키고 동서독이 신뢰구축을 이루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달성되었다. 한반도와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인위적으로 분단된 국가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하지만, 독일은 분단 45년 만에 통일을 이룩한데 비해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 66년째에 머무르고 있다.

왜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된 상태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독일과 같이 한민족이 통합할 수 있을까? 이번 포럼은 앞으로 한국이 통일을 어떻게 주도해나갈 수 있는지 독일 통일의 사례를 통해서 분석하고, 과연 한반도에도 적용가능 한 것인지, 어떤 점을 사전에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고찰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되었다.

우리는 그 동안 서독이 진행한 독일 통일의 프로그램을 학습하여 갑작스러운 통일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냉전기 서독이 전개한 대서방 외교를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된다.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한 서독의 적극적인 외교노력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로 서독이 펼친 대동독정책(접근을 통한 변화)의 효과와 한계성을 냉정하게 평가하여, 우리의 대북한정책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독이 실시한 통일정책에 대한 국내홍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우리의 통일정책을 국내외에 홍보해야 한다.

냉전기 동안 서독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독은 체제전환에 관한 철학이 없었고, 서독 역시 통일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졌다. 당시 동독의

지도자들 또한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정당, 국가, 사상에 관한 기본 원칙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아가 동독은 평화적인 혁명(1989년 10월)을 통한 독일 통일을 원했지만, 서독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가질 준비조차 되어있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일방안은 1989년 이후 보완·발전시켜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이것은 하나의 민족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 3단계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호 불신을 해소하려는「화해협력」,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남북평화를 제도화하는 단계인「남북연합」, 남북한 대표들에 의해 마련된 통일헌법에 따라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하는 「통일국가 완성」이 주요내용이다. 얼핏 보면 통일을 위한 큰 방향이 잡혀있지만, 독일의 통일과정과 대비해보면 미비한 점이 많다. 특히 경제통합, 화폐통합, 사회통합을 위한 기반을 전문화, 세분화하여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아무런 역사적 사례 없이 이를 진행해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제도적 통합의 과정뿐만 아니라 고유한 정체성의 통합과정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분단독일의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우리는 보다 순조롭고 안정적인 통일을 이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일련의 독일 통일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은 분단극복의 프로세스이며, 한반도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단계가 될 것이다.

동독시민들은 1968년에 일어난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자유화를 향한 운동과 프라하의 봄을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소련군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자유화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가졌다. 이러한 동독인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더불어 독일 통일에 결정적인 역할은 한 것은 동독인에 의한 평화적인 민주화과정의 실행, 자유로운 선거로 통일과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반도 통일, 한민족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을 우리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어야 하며, 또 해야 한다"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 "남북 7천만 민족 모두가 바라는 통일의 달성"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비전은 우리 한민족뿐 만이 아니라 주변 4강에게도 서로 도움이 되어야 목표가 실현될 수 있다.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들과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여기에 지나치게 얽매어서는 안 된다. 우선 6자회담 혹은 남북한의 대화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이어서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북아 안보협력체제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 통일문제도 6자회담의 틀 안에서 2+4의 형태로 제기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독일의 "2+4"를 위한 통일노력, 즉 양 독일국가의 자발적인 통일정책은 한반도에게 적

용 가능할 것이다.

다음은, “막대한 통일비용”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한다. 실제로 만약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양국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의 젊은 층이 이 막대한 통일비용을 부담하기 꺼려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총리의 “통일비용은 하나의 국가를 위한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비용에 너무 연연하여 통일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우선 통일을 어떻게 이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듣고, 우리가 통일비용을 이유로 한반도 통일에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요즘 젊은이들은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함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청소년의 통일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우리의 통일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둘째로, 학교생활에서 통일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한다면, 한반도 통일은 앞당겨질 것이며 통일준비 또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성공적으로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통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통일 프로그램을 만들어 통일 미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 통일은 철저히 준비할 때 갑자기 다가 올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통일 준비 프로그램 개발은 빠른 시일 내에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각 대학의 동아리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통일모임은 여러 가지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대학에서도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학습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북정책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화하며, 남북관계에 불신을 낳고 신뢰성을 상실하게끔 한다. 이는 예상외로 우리나라 젊은 층의 의식 또한 바뀌가고 있다. 즉, “통일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 단정지어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통일을 위한 자세만큼은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세종대왕이 한반도의 소프트파워를 강조하며 한민족의 태평성대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북측을 바라보고, 같은 한민족으로서 어떻게 평화적으로 화합할 수 있을지 모색해야 한다. 통일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그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반도의 통일미래비전 그리고 여성의 역할

이민영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오라”

2000년 경진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당시 초등학교생이었던 나도 남북의 헤어졌던 가족들이 정말 오랜만에 감격스럽게 만나는 모습에 TV 앞에서 엉엉 울었다. 너무나 감동적이고 슬퍼서 한 동안 여운이 남았다. 여기까지가 북한, 통일에 대한 느낌이었다. 대통령과 고위간부들만이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통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했었다.

통일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 여겼던, 나에게 이번 포럼은 특별했다. 분단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느껴보지 못하고, 이산가족도 없는 평범한 여대생인 내가 왜 통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지, 내 삶의 문제로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다. 경험만한 훌륭한 교과서가 없다고 하듯, 독일 통일이 주는 교훈은 정말 의미가 있었다. “1989년 서독은 통일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준비도 없었지만 동독의 평화적인 혁명을 통해 통일은 현실이 됐다”라는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의 말처럼, 동독인들의 두려움을 무릅쓴 용기와 행동은 결국 독일 통일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 1989. 11. 9일, 언제나 덩덩히 세워져 있을 것 같았던 베를린 장벽은 동독인들에 의해 무너졌고, 동독인들의 자유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스탈린주의적 독재체제를 시위로 쓸어버리고 민주화를 이끌어 냈다. 무려, 서독의 정치 지도자들은 과거 역사와 유럽의 안정을 이유로 대다수의 지식인들과 독일 통일을 반대하였던 상황에서 말이다.

93.4% 동독 국민들의 통일을 향한 열의를 느낄 수 있는 선거참여율이다. 처음으로 자유선거를 가능케 한 선거법이 원탁회의에서 의결되고, 독일을 위한 연맹이라는 개념하에 결성된 정당들이 선거에서 이기게 되었다. 그리고 5개의 단계 조치들 즉, 자치단체의 개혁, 새로운 주 구성, 경제통합·화폐통합 그리고 사회통합에 관한 조약 체결, 통일조약,

2+4조약들을 통해 동독인들이 선거를 할 때 원하던 바를 달성하게 되었다. 이렇듯, 독일 통일은 동독인들의 자유와 민주에 대한 열의와 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로 동서 냉전구조가 약해짐에 따라 서독에 유리하게 조성된 주변 환경이 상호 결합하여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통일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다. 수 십 년간 분단과 대립상황에서도 동독 주민들이 서독을 선택했던 것처럼, 통일은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이 남한을 선택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본다. 때문에, 한국인의 통일 하고자 하는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한국으로 오기를 원하도록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얼마 전 북한에서 TV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이 큰 인기를 얻고 있고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어느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권력층이 더 남한 영상물에 적극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남한의 TV 방송을 직접 수신해 시청하는 북한 주민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동독과 달리 완전히 외부와 차단되어 고립된 북한 지역 동포 들일지라도, 미디어를 통해 문화접촉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굉장하고 무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퇴역 육군 중장 출신의 요르크 쉐봄 전 독일 국방차관의 통일과정에서 군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해 얘기해주셨다. 보통 독일의 통일을 흡수통일이라고 하는 데, 나는 연방방위군과 구 국가인민군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작업하는 모습을 알게 되었고 일 방향적인 흡수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흡수통일이었다는 것을 느꼈다. 승패와 같은 이분법적인 시각이 아닌, 하나의 목표를 향해 어떻게 독일 군대가 통합 되어지는 과정은 통일은 상생의 구도로 가야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시민에 의한 자발적이고 서로를 위한 상생의 구도가 되었을 때 독일과 같은 평화적인 통일의 기회가 오는 것이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경제교류 협력을 중심으로 발전되면서 남북 상호간 신뢰관계가 상당히 진전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남북한 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해질수록 우리는 발 빠르게 제도와 정책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통일이 이루어지는 데 하늘의 힘이 조금은 필요하다는 한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을 말하고자 한 것 같다. 시간이 흐를수록, 통일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념이 줄고 있는 현실에서 나와 같은 젊은이들이 통일에 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려고 하셨을 것이다.

이 번 포럼을 통해 통일이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라 동서독이 그랬듯 한국의 통일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리고 마지막 이화여자대학교 김선옥 총장님의 통일과정에 있어서 여성들이 정책결정자로서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이 정

말 마음에 와 닿았다. 그 이유는 지금의 동독 출신 여성들이 통일 이후 사회적 지위가 하락해 공적 부문과 노동시장에서 상당히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여성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은 남북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거치면서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나를 비롯한 많은 여성들이 통일 후 남녀 평등에 기초한 민주적인 사회가 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어렸을 적, 방학 때만 되면 철원에 계신 외가댁에 갔다. 할아버지는 한국전쟁과 분단의 현실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 곳들에 데려가고는 했다. 특히, 통일전망대에서 망원경을 통해 본 북한의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다. 6.25 한국전쟁 이후, 남북간에 3·8선이라는 경계선이 그어지게 되어 남과 북을 관통하던 달리던 기차가 끊어지게 되었다. 달리고 싶은 건 철마뿐만이 아닐 것이다. 철마가 다시 달리기 위해 필요한 쪽 뺨은 길과 연료는, 통일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던 나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로부터 온다는 것을 포럼에서 깨달았다. 한국전쟁이 끝났던 1952년으로부터 꼭 60년 환갑이 되는 2012년이 다가 오고 있는 지금 나는 하늘을 믿기 때문에, 통일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쉽지 않은 만큼 의미가 있고, 빨리 되지 않는 만큼 남북통일은 소중한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나를 포함한 많은 젊은이들의 통일염원이 이루어져 하루 빨리 철마가 달리기를 바라며 소감문을 마치고자 한다. 감사합니다.

높은 만족에서 행해짐

이세린

독일 통일의 과정은 전 세계에 독일 시민들의 높은 의식수준과 자발성을 똑똑히 보여 줄 수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들의 통일을 향한 염원,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민족애, 한 민족 안에서의 차별 없음,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따를 수 있는 용기 등은 분단 현실에 놓여있는 한반도 사람들에게 있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이화여대 김영의 홀에서 열렸던 비전대강연은 위와 같이 위대한 일들을 행하였던 독일 시민들의 지도자였던 로타 드메지에르 전 총리와 요르크 쉰봄 전 장관을 직접 만나 볼 수 있었던 멋진 기회였다. 무엇보다 당시 동독 총리였던 로타 드메지에르의 살아생전의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뜻 깊은 경험이었다. 진부한 말이나 한 국가의 리더로서, 국가의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그 국민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이 국가가 역사적 기회 또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있을 때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무엇 이상으로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난제일 것이다. 그러나 동독 원탁회의에서 자발적 선거에 의해 뽑혔던 로타 드메지에르 전 총리는 수준 높은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여러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우선적으로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동독의 정치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국가의 리더들이 자신들의 권력, 이권보다 시민 사회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금씩 이익을 이양해주기를 다짐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바탕 위에 드메지에르 총리는 동독의 지방자치제 수립과 새로운 주 탄생, 서독과 통합 등을 이루어내기 위해 만전을 기울였고 이는 대체적으로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더욱이, 이와 같은 것들이 체제전환에 관한 철학도 부진한 상태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드메지에르 전 총리의 정치적 수완과 독일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가장 큰 근원이었을 것이다.

나는 로타 드메지에르 전 총리뿐 아니라, 쉐블 전 장관의 연방군을 위한 노력에서도 국가의 리더들의 뛰어난 리더십과 시민들의 자발성, 의식의 높음을 엿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연방군 내에서 동, 서독 군인들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전을 기했던 것이었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 그들이 행하였던 노력 중 가장 깊게 인상 받은 것 중 하나는 동독 군인을 서독으로 서독 군인을 동독으로 자대 배치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에서 젊은 군인들은 제대 후 동 서독간의 오해와 거짓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이 통합된 독일을 이끌어 나갈 젊은 세대들을 낳았을 것이며 그러한 노력들이 지금의 독일을 있게 한 것이 아니었는가 깊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드메지에르 전 총리와 쉐블 전 장관의 노력과 더불어 독일 시민들의 공동체적 의식수준은 한반도 국민들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통일을 향한 청사진임에 의심할 바가 없었다.

덧붙여 인상 깊었던 것을 말하자면 독일의 2+4조약이었다. 본디 4+2로 정하려던 조약의 이름은 2+4로 바꾸었으며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동, 서독 양국의 자발성을 높이 샀던 것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나는 현재 북한학과 소속으로, 또한 한반도의 남한에 살고 있는, 통일을 염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처한 현실과 독일 통일 과정을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것 중 가장 큰 것으로 '높은 만족에 대한 기대'를 뽑고 싶다. 높은 만족의 기대란 실리적인 차원에서의 만족 그 이상의 것으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명예와 민족적 사명감, 정의구현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만족으로 얻는 행복에 대한 기대를 말한다.

현 우리나라 상황을 돌아보자. 우리나라 국민들 중 상당수가 통일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의 근거를 볼 때, '통일 후 우리나라가 북한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빈곤하여 질까 우려' 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근거는 매우 실리적인 근거이며 그들은 이런 차원에서의 만족으로 그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 상황에서의 경제적 번영에 만족하며 통일 후 다가올 미래에 있어서의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바라보지 못하는 매우 근시안적 사고임이 틀림없다.

독일 시민들은, (물론 동독 시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통일을 갈구했다. 서독 시민들도 이에 대하여 큰 반발은 없었으며 그들은 무엇보다도 한 민족으로서의 재결합, 정체성 회복을 갈구하였다. 그들은 진정한 시민으로서의 명예는 한 민족으로서 느낄 수 있을 때에 가장 큰 것임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강한 민족애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은 그들이 인간 내적 차원에서 느껴질 수 있는 만족의 수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수천 년의 기간 동안 동고동락, 생로병사, 희로애락을 같이 해왔던 민족이 분열되어 있

는 상태에서 이 분단이 재결합되고 동북아 평화에 이바지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존경을 받는 국가가 되고 경제적 번영까지 누릴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물론 나는 이와 같은 말이 다분히 이상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이상으로만 머무를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통일을 진정으로 염원하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현실적 상황은 독일의 상황과 비교해보았을 때 더 좋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김일성 3대세습 체제, 북한 정권의 부패, 인권유린, 학살, 군 물자 조성으로 인한 북 주민들의 굶주림, 북한의 폐쇄정책, 도저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은 이상을 돌아보는 것이 우습기만 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우리나라의 통일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말하였듯이 우리나라는 독일과 같이 한 대륙에서 강한 힘을 가진 나라는 아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국제적 위상이 현대에 와서 매우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동북아 강대국들과의 비교에 있어 상대적으로 열세인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재결합하는 것에 있어 주변 국가들이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물론 중국에 북한을 이용함, 미국의 한국을 통한 동북아 대륙에서의 세력 유지와 같은 난제들이 있으나 우리 시민들과 국가의 리더들이 강한 염원과 함께 자발적 태도를 보인다면 해결 가능할 일이라고 본다.

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한 목표의식, 사명감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통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내야만 하는 목표의식, 이를 위한 사명감이 주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높은 수준에서의 만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인지가 필수적이다.

로타 드메지에르 전 총리와 쉐본 전 차관 그리고 독일 국민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이다. 그러나 같은 인간으로써 이들은 이미 21년 전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주어진 시대 속에서 올바른 시대관을 통해 역사적 과업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강력한 소명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도 이와 같이, 실리적 수준에서 더 나아가 높은 수준에서의 만족으로 행하여 나가기를 이번 비전大강의를 비롯하여 염원해 본다.

우리는 통일 세대? 가 아닌 통일 세대!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수진

| 기도하라. |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찾아왔습니다. 옛 동독과 서독을 45년간 갈라놓았던 베를린 장벽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입니다.” 강연 내내 저를 사로잡았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저의 소망을 강하게 심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반도에도 그러한 봄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현재 대학교 4학년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저를 소개할 수 있는 수식어들을 딱 잘라 그냥 ‘그리스도인’ 이라고 소개를 한 이유는 이 강연을 듣게 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통일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그냥’이었습니다. 6.25 전쟁의 아픔을 겪은 것도 아니고 가족 중 북한에 이산가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딱히 왜 통일이 돼야 하는지 감정적으로도 잘 느낄 수 없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그냥 좋겠지 라고만 생각하고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던져 준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온 젊은이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훈련을 받는 크리스천 공동체에서 지냈습니다. 이 1년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 공동체의 거의 유일무이한 아시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연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나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온 터라 사람들의 관심은 남과 북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정세에 관한 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다 함께 모여 기도를 하는 시간이면 빠지지 않던 기도 주제 중 하나도 바로 한반도의 통일이었습니다.

다. 저는 그 뜨거운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정작 한국인이었던 저는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한 번도 현실이 될 꺼야 라고 기대를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왔던 지난 시간들이 저를 부끄럽게 했던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 많은 크리스천들의 눈과 마음에도 공홀한 땅 한반도. 그 때부터 저는 뉴 코리아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뉴 코리아, 한반도의 통일된 국가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기도가 밥 먹여 주니?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온정성과 맘을 다해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 통일 후 뉴 코리아의 땅에서 종교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뉴 코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 사랑하라. |

강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옛 동독 국민들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도 한 민족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연을 듣는 내내 저의 마음 속에 떠올랐던 키워드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향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방어의 이유인 것입니다. 자기 방어를 하지 않으면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하기 전 지난 45년간 군대를 존속시키고 강하게 훈련시켜 왔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다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기를 버리게 합니다. 또한 사랑은 대화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랑은 상대방에 대해 이해를 하게 해줍니다. 진정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단순한 연애의 감정과 다릅니다. 금방 좋았다가 싫어지고 또 좋아지는 등 변덕을 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나요? 남과 북이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한이 전체 국가 재산 중 많은 예산을 국방비에 쏟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긴장감을 조성하고 더 많은 무기를 보유하게 하고 군인들을 훈련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강연을 통해서도 들었던 바 동서독은 군을 축소시켰고, 군복을 통일했고, 많은 군인들을 제대 시켰습니다.

한반도를 게임을 위한 체스판 으로 여기고 서로 이권다툼을 벌이는 주변 강대국(미국, 중국, 일본 등)들에게 사랑하라는 어찌면 세상물정 모르는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독일의 통일에서 주는 교훈 중 하나는 주변의 많은 인접 국가들이 독일

의 통일을 찬성하고 지지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지정학적 위치와 국가의 규모 면에서 한반도와 독일은 다소 큰 차이가 있지만 말입니다.

통일부의 대북정책인 상생공영이 무엇이냐고 한마디로 대답하라고 하면 저는 당당히 '사랑'이라고 말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더 많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남북한의 이념 대립을 또 다른 차원의 이념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북 도발 시 대비할 수 있는 최상과 최악의 시나리오를 짜느라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는 그 상태, 바로 사랑이 있을 때입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만나고 부대껴야 가능합니다. 옛 동독과 서독이 베를린 장벽으로 갈라져 있던 시절, 그러나 그들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통일 Day를 공유했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 하물며 지난 61년간 헤어진 몸들끼리의 마음은 얼마나 더 멀어져 있겠습니까? 사랑에도 다 순서가 있듯이 우선 남과 북, 서로 이야기 좀 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도 북한의 인민들 가슴 속에, 남한의 국민들 가슴속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뜨겁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 도전을 주었던 이번 강연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나와 같은 대학생들 각자의 꿈과 비전에 통일 뉴 코리아가 함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반도비전포럼 2011 강연 소감문

이시연

교양 과목 교수님의 추천으로 참여하게 된 한반도비전포럼 2011 ‘비전大강연’은 처음으로 들어본 통일관련 강연이었다. 이 강연에서는 과거 분단국이었지만 현재는 통일을 이뤄낸 독일이 어떻게 통일되었는지, 현재 우리나라는 통일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토의하였다. 평소에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에 관련된 강연을 듣는 것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강연의 진행은 이화여자대학교 김선욱 총장님께서 맡으셨다.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고 현재 대한민국 법제처 법제처장으로 계시는 총장님께서도 통일문제에 관심이 많아 보이셨다. 초청강사님은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님, 요르크 쉐봄 전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주 내무장관님, 이흥구 전 국무총리님이셨다. 한 나라의 총리이셨던 분들과 내무장관이셨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배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기대되는 강연이었다.

첫 번째는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께서 강연을 진행하셨다. 그는 독일 통일의 결정적인 요인을 동독인들의 평화적인 혁명 완수로 꼽았다. 즉, 동독인들이 스탈린주의적 독재체제를 시위로 타파하고 민주화 과정 자체를 장악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을 때 구 동독인들의 근본적인 3가지 사고방식에 대해 말하였다. 한 가지는 사회주의의 새로운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됨으로서 스탈린주의적 비난으로부터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새로운 동독을 구상하지는 사고방식이었다. 이러한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은 새로운 동독이 작고, 겸손하고, 평화주의적이고, 친환경적이며, 민중민주주의적이며, 천상에서와 같이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공동체의 재정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 지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마지막은 독일 통일만을

향해 전진할 때,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통일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주장을 한 이들이 결국 통일과 관련해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결정하였다.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께서는 원탁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셨다. 원탁회의는 자아발전, 민주주의 습득에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원탁회의는 구동독에서 처음으로 자유선거를 가능케 한 선거법을 의결하였다. 당시 동독 국민들의 선거참여율은 굉장히 높았으며 이렇듯 독일 통일을 성취하려는 국민투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정부는 다른 정부와는 달리 자신들을 없애고, 새롭고 공동의 것에 주권을 이양해 주어야만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섯 단계의 조치를 취하였다. 1단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개혁이다. 이들 하위 정책결정 층이 의회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단계는 새로운 주 구성이다. 전통적인 5개 주들을 새로운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었으며 국민의 다수는 주들이 1952년 없어지기 이전의 형태로 되찾길 바랐다. 3단계는 경제통합, 화폐통합 그리고 사회통합이었다. 이러한 통합에 관한 조약과 더불어 독일은 서독 마르크를 도입하였고 아주 쉽게 시장경제를 도입하였다. 독일은 이러한 체제 전환을 어떻게 다룰지 몰랐고 미리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것은 서독 행정부도 마찬가지였다. 4단계는 통일 조약이다. 즉, 통일조약을 합의, 타결하여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일이었다. 동독과 서독의 법질서는 1949년 이래로 점차 달라졌고 1960년대 구동독이 새로운 형법을, 1970년대에 민사법을 새로이 공포하였다. 두 독일의 법은 완전히 상이하였다. 동독 직업교육 졸업, 학교졸업, 대학학위, 토지소유 문제 등이 시급하게 설명되어야 할 문제가 되었다. 5단계는 “2+4”조약이다. 이 조약은 독일의 완전한 주권의 재획득과 관련하여 4개국 세계대전 연합국들과 양 독일 간에 이루어진 조약 타결에 해당한다. 양 독일 국가는 “4+2”가 “2+4”가 되도록 투쟁하였다. 양 독일 국가는 양 국민들의 자결권 속에서 자신들의 재통일을 결정하며, 4개 승전국들을 전후 질서 당시의 조약상황에서 필연적이었음이 입증되는 정도에서만 협의과정에 참여시키게 된 것이다. 조약은 궁극적으로 독일 국경 문제를 규정하였는데 통일 독일은 서독, 동독, 베를린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조약에서 독일은 핵, 생화학무기 생산과 소유를 궁극적으로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독일이 이러한 조약에 서명한 후, 지방자치단체 선거, 주들의 재도입, 통일된 화폐공간과 경제공간, 통일된 법률공간 등 5개의 단계조치들이 완수된 것이다.

두 번째 강사는 요르크 쉐봄 전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주 내무장관이었다. 그는 서독 내에서 어느 누구도 독일 통일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군대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며 독일의 통일과정 내에서 연방방위군의 사례를 말

하였다. 군대는 독일 통일에서 독일의 동서 사이와 유럽에서 신뢰구축이라는 중요 임무를 띠고 있었다. 통일 후에 독일은 2+4협정에 입각해 연방방위군, 국가인민군을 축소해야만 하였다. 독일은 하나의 군대를 가질 수 있었으며 군대의 이원화를 지속시킬 수 없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군대”를 내세우며 국가 인민군을 인수하고 단계적으로 해체하며 국가 인민군에서 선발된 직업군인 그리고 기한부 군인과 연방방위군들이 공동으로 통일된 독일의 군사력을 새로운 연방주 지역에서 재건하도록 하는 결정이 연방방위군의 정치적 지도자와 군사적 지도자의 일치된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스톨텐베르크 장관은 하나의 통일된 연방방위군을 최종의 목표로 명확히 하고 모든 군인들에게 같은 연방방위군의 전투복과 군복을 입도록 하였다. 또한 연방방위군은 서독에게 부담이었던 동,서간 사회기반 구조의 차이를 고르게 조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요르크 쉐봄 전 내무장관님은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험을 강연하였고 여기서 우리가 자극과 성찰을 도출해내기를 바랐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통일계획을 완성하여 독재주의와 교주주의로 몰든 북한군을 대할 것인지, 통일된 한반도의 군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폭 넓은 결론들로 생각하기를 바랐다.

세 번째 강사는 이흥구 전 국무총리님이셨다. 그는 독일과 한국 통일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강연하셨다. 우선 독일과 한국은 2차 세계대전 결과 상황이 달랐다. 독일은 패전국으로 승전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만 한국은 1945년 당시, 제국주의의 횡포에 휘둘러 분단이 된 것이다. 또한 독일과 한국은 지리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다. 독일은 유럽의 큰 나라로 인접국이 굉장히 많았다. 하지만 한국은 작은 나라로 주위에 세 나라 뿐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작지만 그러한 약점을 인정하고 발전시키려는 지도자가 많았다. 예를 들어, 세종대왕님은 한글이라는 문자를 만드셨고, 그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경쟁력이다.

내가 강연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 독일과 한국은 상황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었다. 60년 이상 분단된 우리에게 북한과 함께 맞춰 나가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다. 게다가 북한은 철저한 사회주의 국가로 일인 독재체제 방식이다. 하나의 당에 모든 권력이 모아져 있는 북한은 인민들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한다. 우리가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모두 고려해야 하며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번 강연을 통해 내가 알지 못했던 통일의 요소들과 통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상황, 준비해야 할 것들을 잘 알 수 있었다. 앞으로도 독일의 통일과정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한국 사회를 책임질 젊은 세대로서 우리의 통일을 위한 대비도 해나갈 것이다.

비전대강연 참가 소감문

이예원

To. Lothar de Maiziere, Joerg Schoenbohm

Guten Tag, mein Name ist Yewon Lee. 저는 독일이 통일 되던 1990년에 태어난 한국의 대학생입니다. 다가올 통일을 염원하고 준비하는 '통일바라기' 이기도 합니다.

연사님, 금요일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강연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통일부 상생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무대 위에 앉는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연회의 뜨거운 열기를 몸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사님들과 자주 눈을 마주쳤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독일 통일의 주역인 두 분을 모시고 연설을 듣게 되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두 시간의 강연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독일의 통일 사례를 통해 한민족 통일에 대한 자극과 성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연사님의 연설을 듣고 한국을 위한 교훈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얻은 교훈들은 준비, 자주 포용, 청년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찾아올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 통일 당시 서독은 통일을 위한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합 과정에서 통일비용을 비롯하여 많은 통증을 겪었습니다. 통일이 오는 것은 누구나 반가워 할 일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통일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통일 준비를 위한 공론화 장이 많이 열렸으면 합니다. 이런 준비들을 통해 통일에 한 발짝씩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통일을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 세력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 나라입니다. 분단이 된 것도 외부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만큼은 우리 스스로 이뤄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주 통

일한국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독일 통일 당시, 독일은 군대를 통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성공하였고 군인들은 차별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군대를 넘어 사회의 통합을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통일의 때가 찾아왔을 때 북한 주민들을 차별 없이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현재 탈북자 문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 탈북자들은 2만 여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태어난 곳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의 한 민족입니다. 저부터 그들을 포용하는 마음씨를 기르겠습니다.

네 번째, 통일의 주역은 바로 우리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분단의 아픔은 잊혀져가고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팽배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솔직히 저도 통일부 상생기자단으로 활동하기 전까지는 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요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이라 봅니다. 통일부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100명의 대학생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청년들이 통일에 관심을 가져야 통일이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비전대강연을 하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끌어낸 교훈들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훈들을 바탕으로 통일한국이 오는 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통일은 먼 나라, 남의 일이 아닙니다. 통일을 위해 강연의 젊은 청년들이 있기에 한국 통일은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통일이 다가오는 그 날, 저희를 지지해 주세요. 저도 연사님들께서 느낀 통일의 행복을 느끼고 싶습니다.

다시 빛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는 분단국의 학생이 아니라 통일한국의 국민으로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 다가올 통일의 날을 꿈꾸며 11월 21일, 이예원 올림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통일에 대해 항상 준비된 자세로 현명하게 마주하기

이지민

저는 정치외교학과 학생도, 북학과 학생도 아닌 체육학과 학생입니다. 그러나 항상 올림픽 등의 세계축제에 대한 것을 배우며 평화에 대해 그리고 전 세계인이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해 고민해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전쟁영화와 전쟁에 대한 관심이 많기에 '태극기 휘날리며'와 '공동경비구역 JSA' 등을 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만 그래도 저에게 북한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북한은 적이라는 생각이 조금 더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관련 수업을 듣고, 북한의 영화를 보며 저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북한은 제게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을 저는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자막으로 된 글씨도 아니고 머릿속에서 재해석해 듣는 것이 아닌, 말하는 대로 바로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제가 몸소 느낌으로써 심장이 뭉클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말로만 같은 민족, 같은 민족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했습니다. 이러면서 관심이 점차 많아져 이번 강연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서 직접 더 집중하기 위해 강단 위에서 듣기를 희망하여 위에서 들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동독인들이 스스로 평화를 위해 민주화를 이룩했다는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의 말씀이 귀에 끝까지 남았습니다. 북한이 우선 자유에 대해 알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생각해 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얼마 전 리비아에서 카다피 정권이 몰락한 것처럼 다른 나라들은 시민들이 모여 스스로의 자유를 얻기 위해 투쟁을 합니다. 리비아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은 투쟁이라는 것을 한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투쟁을 할 기운조차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은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일본 강점기와 나라가 광복 후 소련과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둔할 당시에 우리나라는 남한만이

투쟁 한 것이 아닙니다. 북쪽의 진보적인 세력들도 굉장히 활발한 투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권력에 복종만 하는 피가 흐르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나라 어디에서든 만약 북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자연스레 '자유'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통일비용만 생각하지 말고 비통일비용을 생각하라는 말씀도 저를 자극했습니다. 저도 통일비용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한창 사회활동을 할 때에는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통일비용을 생각해보니 정말 창창한 나이에 군 생활에 2년여 세월을 보내는 친구들, 북한은 남한보다 심해서 8년 정도를 한다고 하니 북한의 젊은이들도 다른 공부에 투자를 해 개발 할 수 있는 나라에 같은 민족, 어쩌면 한 증조할머니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형제지간이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가장 창창할 때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아까워졌습니다. 해외에 나가있는 운동선수들도 군 문제에 항상 발목을 잡혀 더 피어 날아올 수 있는 날개를 마저 다 퍼지 못하고 접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단 이 뿐만이 아니라 저는 직접 잘 알지는 못하지만 경제적인 문제, 무역문제 등도 많다고 합니다.

이번 강연이 뜻 깊었던 것은 동독 출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통일 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를 한번 더 생각하게 했습니다. 똑같이 대응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북한 사람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일 후 동독인의 자긍심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남한과 북한 사람을 비교한다는 것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남한 사람들은 세계와 함께 공유하며 많은 것을 알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있지만 현재 북한 사람들은 갇혀있는 세계에서 그들만의 것에 한정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대적으로 열등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공부하면 충분히 우수한 인력이라는 점을 통일 후 열등감을 느끼지 않게 잘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르크 쉐봄 전 베를린 내무장관님과,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께서 통일이 된 후 좋았던 점을 말씀해주시는 것을 들으니 통일이 되는 감격적인 순간을 직접 제가 사회에서 일하며 활동할 때 느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품은 장면은 남한보다 더 춥고 눈이 많이 오는 북한에서 스노보드와 스키를 재미나게 타는 장면입니다. 아무래도 남한은 인공눈을 많이 뿌리는데 북한은 그래도 눈이 더 많이 오니까 설질도 좋고 해서 스노보드와 스키를 타는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나이가 많이 들기 전에 통일이 되어야 하기에 통일이 빨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감상문을 마치겠습니다.

Impossible = I'm possible.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

이항진

1945년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국가이자 하나의 민족이 억울하게 분단되어 살아온 지 어느덧 66년째에 접어들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우리나라는 전쟁에 진 나라가 아니었지만 패전국인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던 차에 미군과 소련군이 일본의 항복을 얻기 위해 한반도에 왔고 우리나라는 억울한 분단을 당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억울하게 또 부당하게 분단되었고, 이는 우리가 꼭 통일을 이룩해야 함을 무엇보다도 강하게 알려주고 있다.

이번 한반도비전포럼을 통해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꼭 통일이 되길 바라던 나의 염원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독일의 2+4조약 당시 조약에 서명을 하고 나오던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가 서명을 위해 준비했던 만년필을 기념품으로 가져왔고 모든 다른 서류 결재판 옆에서 만년필들이 사라졌다는 말은 통일의 감동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동독을 탈출했다가 통일된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요르크 쉐른의 일화를 들으며 가슴 한 칸이 뭉클해져 옴을 느꼈다. 우리나라에도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리고 헤어진 가족들과 만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이들이 많다. 그들의 염원과 바람이 투영되어 강연회에 참석한 나의 마음은 한없는 간절함과 부러움으로 가득 찼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과연 통일이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참 오랫동안 해왔다. 북한과 남한의 분단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왔고 생활방식부터 사고방식에 이르는 많은 부분들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질감이 점점 더 커져가는 상황 속에서 통일을 전망하는 회의적이고 비관적이 인식들이 많이 생겨났다. 나의 주변인들도 종종 그런 의견을 내놓기도 하고 나 역시 가끔은 통일에 대한 불투명성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오늘의 강연을 듣고 나서 통일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꼭 이루어져야만

하고 그 주역에는 국민들의 자유를 갈망하는 의식과 통일을 이루고자하는 염원과 의지가 함께 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와 같은 시기에 분단이 되어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에 관한 사례를 이전부터 종종 접해왔지만 강연회를 통해 더욱 자세히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 교훈과 성찰을 얻을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 독일의 통일은 그야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을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다수의 독일인들이 당시 통일에 대한 희망을 포기했거나 혹은 적어도 통일을 20세기에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보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통일을 이루어냈다. 유럽 대륙의 심장부에 위치한 가장 큰 나라인 독일의 통일은 유럽 주변 국가들이 두려워하고 견제하는 상황이었기에 그들의 상황은 어쩌면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조용히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왔고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독일의 통일에서 가장 큰 교훈은 바로 통일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루어낸 쾌거라는 점이다.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 같이 힘을 모아 이루어 낸 혁명이었던 것이다. 시민들은 언제나 자유를 갈망했고 그 힘은 반드시 무언가를 이루어 내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들 역시 통일을 바라는 이들도 많이 있지만, 통일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또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나’라며 통일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통일비용이 들게 될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남한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기에 굳이 통일을 이루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오늘의 강연회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통일비용은 한반도의 평화적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을 말이다. 현재 분단비용 역시 어마어마한 액수이며 이러한 분단 상황이 계속된다면 통일비용보다 더 큰 액수가 될 것이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젊은이들의 인식전환이 통일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크게 동감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고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꼭 통일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 당장의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더 크고, 통일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예측하고 걱정하는 것은 기우일 뿐인 것이다. 국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해야 한다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의 말씀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최근까지 탈북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된다. 오늘의 강연에서 로타 드메지에르는 독일 통일로 이끈 결정적인 사실은 바로 ‘동독인들의 평화적인 혁명완수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우리의 통일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으로도 이어

질 수 있다. 자유를 갈망하는 북한의 주민들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남한 주민들의 인식이 합쳐져 힘을 발휘하면 우리도 충분히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이 되면 기차를 타고 베이징이든 모스크바든 그 어디든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냉면을 먹기 위해 평양에 가고, 아름다운 금강산 관광도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갈 수 없는 가장 외딴나라인 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하게 되기를 상상해 본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인식에서부터, 가장 먼저 나의 인식에서부터 비롯돼야 하는 것이다. 오늘의 강연회를 통해서 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주인공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앞서 통일을 이룩한 독일에서 배울 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뜻 깊은 시간이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서 국제정세의 화합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밝은 비전을 갖게 되는 날을 기대해본다.

국민의 관심으로 이뤄낸 독일 통일

이현아

60년, 한국 분단의 아픔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상당수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이미 새로운 세대들이 분단을 바라보고 있다.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은 통일에 대해 얼마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까. 미래에 인재인 대학생들은 학점경쟁과 취업난에 허덕이며 통일은 전혀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미 나 역시 통일에 대해서는 미래의 먼 이야기로만 느끼고 있었다. 분단의 아픔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겪어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직접 보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 비춰지는 북한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이질적으로 다가왔기에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느낌이 전혀 와닿지 않았다. 하지만 학교에서 북한정치론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고 북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면서 통일이 된다면 미래에 한국의 국제적 위치가 조금 더 좋아지고 젊은이들이 지금과는 다른 세계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통일에 한발 더 나아가고 더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룩한 독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2차 세계대전에서의 연합국의 승리로 독일과 한국은 같은 시기에 인위적으로 분단되었다. 그리고 40년만에 독일은 시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룩했다. 민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한 나라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고, 선례가 없는 일을 독일은 어떻게 이루어낸 것일까 궁금하고 또 때마침 좋은 기회에 독일의 통일에 대해 알 수 있는 ‘한반도비전포럼’이 열리게 되어 그 연설을 들으러 갔다.

포럼에 참석한 독일의 로타 드매지에르 전 동독 총리는 독일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사회적 연대감과 동독인들 스스로의 자유갈망이라고 했다. 독일인들에게 통일은 스스로 이루어낸 역사적인 평화적 혁명이었고, 현재 독일인들의 자긍심을 높여준 원인이기도 하다. 주위를 둘러싼 국가들이 독일의 통일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나, 그들은 자신들의 주권을 끊임없이 갈구했고, 결국은 다시 되찾았다.

통일은 총 5단계의 조치와 원탁회의를 거쳐 민주주의적 선거를 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 5단계의 조치를 살펴보자면 첫째로는 자유선거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개혁했다. 이는 그동안의 낡은 정치가 아닌 새로운 정치, 또 하나 된 정치로 거듭나는 과정이었다. 둘째는 신연방주, 즉 새로운 형태로 주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주로 구성되어 있는 독일은 국토를 구역별로 나누는 주 또한 옛 모습을 원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셋째로는 가장 어려웠던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제, 화폐, 사회통합이었다. 서독 마르크로의 화폐통합은 서독을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었고 많은 동독인들은 서독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체제전환을 어떻게 다룰지 전혀 경험과 지식이 없었고 이는 잘 준비되어 있지 못했다. 넷째로, 통일조약을 맺었다. 통일된 법률공간을 만들어내는 일이었다. 모든 것이 새로이 규정되었고 교육, 졸업, 학위, 토지소유 같은 민감한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2+4조약인데 세계대전 연합4개국과 양 독일 국가 간의 조약이었다. 이는 처음에 4+2 과정으로 진행시키고자 결정되었지만, 독일의 자주적 통일이 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2+4조약으로 결정되었다.

통일 5단계 조치를 지켜보면서 독일 국민들의 자결권이 느껴졌다. 남이 해주는 통일이 아니라 스스로 이룩하는 통일이라는 점이다. 특히 마지막 2+4조약 같은 경우, 세계국가들이 통일 협의과정에 양 독일을 참여시키게 아니라 그 반대로 양 독일이 다른 국가들을 참여시켰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서 참 인상 깊었다. 그리고 '지금 남북한이 통일 당시 독일처럼 여러 주변국들에게 스스로 강력한 자주적 통일이라고 국민들의 자결권을 내세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한반도비전포럼' 에서 통일이란 국민들의 강한 열망에서 시작되며 통일의 주체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가장 크게 깨달았다. 그리고 남북한 국민들은 과연 통일에 대해 얼마나 열망하고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들기도 했다. 통일 당시 독일과 현재의 남북한의 상황은 다르다. 남한과 북한은 교류가 적으며, 북한의 주민들이 당시 동독 주민들처럼 스스로 자유를 갈망하고 있을지 알 수가 없다. 탈북자가 증가하는 면을 본다면 분명 북한 주민들도 북한을 떠날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갈망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당장 눈앞에 닥친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인지 알 수가 없다. 남한에서도 통일은 장기적인 문제로만 다루어지고 있지 당장 통일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다. 남한에서는 분단되었던 독일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통일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에는 북한학과가 설치되는 등 통일에 더 많은 준비가 있으나 독일보다 빨리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도 그 결과가 불투명한 이유는 국민들의 관심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경제적으로 민감한 남한 사람들은 궁핍한 북한 주민들을 세금으로 모두 떠안아야 한다는 생각에 오히려 통일에 대해 꺼리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포럼에서 통일비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되었듯, 통일비용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독일 국민들도 당시 막대한 통일비용이 들었으나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은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국민 모두가 통일이 된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남북한도 통일이 된다면 많은 통일비용이 들겠지만 그 비용 또한 미래를 위한 투자로 들어갈 것이고 한국은 더욱 강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이 된 미래에 혜택과 높아진 민족의 자긍심을 갖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아닌가? 또한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지금 현재의 젊은이들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한 경제학도의 참가 보고서

이혜영

2010년 봄, 교환학생으로서 독일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Duesseldorf에 체류할 당시, 뒤셀도르프와는 완전히 반대쪽에 위치한 독일의 가장 동쪽의 Dresden에서 유학 중이던 친구가 제가 있던 곳으로 여행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 서쪽은 확실히 다르긴 다르구나!”

제 친구가 뒤셀도르프 중앙역에 도착한 지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주변을 둘러보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길거리의 사람들, 거리의 분위기 등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쪽 도시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이 그 친구의 설명이었죠. 그 후로 몇 달 지나지 않아 베를린과 드레스덴 등의 구(舊)동독 지역을 방문한 저 역시 그러한 느낌을 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독일에 머무르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 외국인들에 대한 태도부터 시작하여 집세까지 독일의 동쪽과 서쪽 도시들은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남을 몸소 느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우리나라가 통일된 이후에는 이와 같은 편차가 더욱 더 클 텐데, 과연 어떻게 통합정책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저는 2011년 11월 18일,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비전대강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님의 첫 연설을 들은 후, 제가 안고 왔던 궁금증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구체적으로 해결이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는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동독과 서독 사이의 정치, 경제적 차이를 없애고자 하는 노력은 실제로 통일 후 신속하게 행해졌고, 현재까지 진행 중이었습니다. 동·서독의 행정적 통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선거를 통해 개혁되었고, 새로운 주들이 신속하게 구성되었습니다. 흩어져있던 두 법 역시 개편되어 새로이 하나의 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경제통합에의 노력 역시 계속해서 투입되어 왔지만, 여기에는 다른 분야의 통합보다 특히 더 큰 어

려움이 있었습니다. 동, 서독간의 경제력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인 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원인은 통일에의 준비미비 문제였습니다. 경제정책은 하루아침에 마련해낼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통일 이전 당시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 이후의 경제통합에 대한 철학이나 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점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결국은 독일에 머무를 당시 저와 제 친구가 느낀 동서독일간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르크 쉐봄 전 내무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인들이 통일에 대해 더 낙관적이었다면 급격한 변화에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지요.

경제학도인 저는 이 부분에서 크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의 대다수 역시 많은 독일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거나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통일은 언젠가 갑자기 찾아올 것인데(그러리라고 믿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준비상황으로는 북한과 남한의 큰 경제적 차이를 메꾸기 여간 힘든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님의 말씀대로, 북한은 과거 통일 이전의 동독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어려워져 자립하기 힘든 수준이고, 인구비율 역시 구서독 대 동독은 4 대 1 이었던 반면 남한 대 북한은 2 대 1 이므로 통일 후 남북한의 편차는 독일에 비해 몇 백 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체제전환문제나 문화적 격차가 더해지면, 두 나라가 완전한 하나가 되는 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통일 후 남북한의 경제통합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시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배우며 가계,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문제까지만 생각해보았지, 통일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접근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강사님들의 연설을 들으며 저는 통일 후의 경제통합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통일의 날을 위하여, 통일 후 경제에 대한 많은 시나리오를 짜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응책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점은,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희망과 믿음’이라는 것을 이번 포럼을 통해 배웠습니다. 드메지에르, 쉐봄 두 연사님들께서는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독일의 통일은 자유를 염원한 동독의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합니다. 서독의 전독문제성도 아닌, 독일을 둘러싼 수많은 주변국들도 아닌, ‘독일 시민들’에 의해 통일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참 고무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역시 조금 더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통일을 ‘나의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손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특히 저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의 주

역이 될 세대들은 분명 오늘날의 10,20대 학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젊은이들이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린 학생들이수록 북한과 아무 연고도 없는 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통일에 대한 열망이 사그라질 것입니다. 저와, 또 포럼에 참가한 학생들과 같이 통일을 염원하는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애국심에 호소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풍부한 분야를 바탕으로 어떻게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본다면 분명 많은 인재들이 통일로의 운동에 앞장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 또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결코 주변국들에게 통일에 대한 주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분단은 주변국들의 싸움에 의해 억울하게 행해졌지만 통일만큼은 우리의 힘으로 이룩해야 합니다.

만약 이번 포럼을 통해 독일 통일 현장방문의 기회가 감사하게도 제게 주어진다면, 저는 통일을 이끈 독일 시민들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현지에서 듣는 생생한 경험담은 우리가 상상만 하는 것과는 분명 크게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통일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독일 시민이라는 역할 모델을 통하여 우리의 비전을 찾고 싶습니다. 또한 '4+2-조약'을 '2+4-조약'으로 바꾸어, 4개 승전국들의 개입을 줄이고 주체적으로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정신 역시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비전대강연을 통하여, 독일 통일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전문적인 지식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비전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방관자로서가 아니라 주체자로서, 제가 하는 공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통일을 앞당기고 또 그 이후의 대책을 마련해보고 싶다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은 꿈이지만, 이렇게 제 가슴 속에 꺼져가는 불씨에 다시 한 번 뜨거운 불을 붙여주신 행사 주최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점은, 이번 포럼과 같은 행사가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참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통일에 관심이 없었던 젊은이들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통일부를 비롯한 각 관계단체에서 이번 행사와 같은 뜻 깊고 유익한 행사를 자주 주최해 주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비전포럼 2011 강연 소감문

임고는

내가 한국의 통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심과 소망을 갖게 된 계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2010년 10월에 미래기획위원회와 외교안보연구원의 주최로 열렸던 “한반도 공동체 통일의 모색”이라는 주제의 컨퍼런스였다. 그날의 컨퍼런스에서 나는 처음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열망과 가슴 뛰는 설렘을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그날의 컨퍼런스 이후, 나는 어떻게 하면 하루 빨리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우리정부가 북한에 대해 취해왔던 정책의 방향과 그 결과, 국제관계라는 큰 틀 속에서 남북분단과 통일이 주는 의미, 주변국들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와 그에 따른 그들의 정책들에 특히 관심을 두어왔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독일이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냈는지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만 알 뿐, 잘 알지 못했었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남북한이 처한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에 나는 오늘 포럼에서 독일과 우리가 처한 환경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더욱 명확히 발견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한국에 접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사실, 나에게 있어서 한반도의 통일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가 강조했듯이, 독일의 통일은 동독시민들의 자유와 통일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의지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인적 교류와 서신교환 등으로 서독에 대한 정보와 생활상, 그들이 누리는 자유가 동독인들에게 자유롭게 파고들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남북간에는 인적 교류가 엄밀히 차단되어 있고, 동독과 달리 일당독재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북한은 더욱 심하게 외부정보와 외부와의 교류를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부의 상대가 남한이라면, 그러한 억압과 탄압은 더욱 심하다. 현재 남한에 정착한 많은 탈북인들의 주된 탈북 이유가 자유에 대한 갈망이라기 보다는 배고픔과 굶주림 등의 어려운 생활난

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북한이 붕괴된다고 할지라도, 과연 북한 주민들이 남한과의 통일을 원하느냐가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 남한 정부가 북한에 취해왔던 주된 정책은 북한 주민들을 초점으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설사 개성공단과 같이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해 변화를 이끌려는 노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북한 정권의 제재와 통제로 인해 그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고취시킬 수 있을까? 이것은 민주적인 통일과정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풀어내어야 할 숙제이다.

무엇보다도,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남한 정부가 독일의 통일과정 중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결과를 열어둔 채 진행하는 원탁회의였다. 이러한 원탁회의가 있었기에, 동독인들은 통일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최초의 자유선거라는 선거법을 이룩할 수 있었다. 남한의 상황을 한가지 예로 들자면, 지금까지 남한 정부는 경제개입을 지속하는 것이 옳으나 옳지 않느냐로(그것이 조건적이든, 비조건적이든 간에) 미리 결과를 두 가지 중 하나로 정해 놓았던 듯하다. 그 결과, 각자가 지지하는 입장들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갈등의 골만 깊어져 왔고,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없었다.

또한 평소 내가 고민해왔던 문제 중 하나는 지금도 이미 나타나고 있고, 통일이 되었을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남북한 주민간의 이질감과 위화감의 해결책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의 답은 요르크 쉐봄 전 베를린 내무장관의 연설 중 통일과 더불어 통일군대를 이루고자 했던 일련의 과정들에서 얻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남한 정부는 선진경제를 앞세워 북한에게 어필하고자 해왔다. 남한의 앞선 경제는 분명 북한 주민들에게는 동경과 매력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한 남한의 우월의식이나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이 한민족 통합에 장애가 된다면, 진정한 통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승자나 정복자의 입장이 아닌 대등한 독일인으로 구 국가인민군을 대하고자 했던 연방방위군의 노력과, 동일한 사명과 공동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한 신뢰구축은 서로 다른 이념과 경험을 가져왔던 두 군대의 통일을 이뤄낼 수 있었다. 오늘의 포럼을 계기로, 나는 독일의 통일사례로부터 우리가 어떤 점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욱 깊이 알고 싶어졌다.

비전大강연 참가 소감문

임흥식

이화여대 김영의 홀에서 한반도비전포럼 2011 '비전大강연'이 열렸다.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통일'에 대한 새로운 의견 교환과 소통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또 한 한국의 이러한 기조에 도움을 주기위해 독일 통일을 직접 목격, 체험 하고 큰 역할을 담당했던 전 동독 총리 로타 드메지에르와 전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주 내무장관 요르크 쉐봄이 기꺼이 참석해 주었다. 지구 반대편에 서로 위치한 독일과 한국의 관계는 그 물리적 거리만큼은 '이질적'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분단 상황을 공유한 두 국가는 동시에 '동질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음을 새삼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다. 또한 김영의 홀을 가득채운 인파는 현재 통일문제를 대면하고 있는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통일에 대한 문제인식이 희미해지고, 대북 관계가 경색되어 가는 세대이지만 통일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우리 가슴에 남아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전 동독 총리 로타 드메지에르의 기념사로 비전大강연은 시작하였다. 독일 통일에 큰 역할을 담당했고, 그 열매를 맛보고 있는 그의 연설에는 통일에 대한 자긍심을 엿 볼 수 있었다. 독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동독 주민들의 의견제시와 주민투표, 그리고 그 이후에 통일 독일을 이룩하기 진행된 다섯 단계의 조치에 대한 자부심이 자연스럽게 그의 어조에 나타났다. 특히 동독 주민들의 자발적 통일외지에 대해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 그는 동독 주민들의 오로지 자유를 위한 갈망과 통일 독일에 대한 의무감만으로 그렇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남한은 물론이고 북한에서도 통일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할 수 있게끔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느껴졌다.

요르크 쉐봄 전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주 내무장관의 연설에서는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없지만, 통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 문제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국가인민군을 해체하고 통일된 독일의 군사력에 새로운 연방방위군을 포섭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었다. 남과 북의 통일 이후에 우리 국군과 북의 인민군의 통합문제는 최대의 난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남과 북의 군대의 성향이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상이해 졌지만, 분명히 독일의 통합된 군사력을 위한 노력은 본받을 점이 충분해 보였다.

두 독일 관계자가 독일 통일과정에 대해서 알려 주었다면 전 국무총리 이홍구씨의 연설은 독일과 한국이 분단에 직면했을 때 그리고 통일을 이루기 위한 주변국 정세 등의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다. 또 한 우리가 마주한 현실에 대해서는 통일문제에 오랜 시간 종사하셨던 분답게 많은 부분을 일러주는 좋은 시간이었다. '89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던 그의 연설에서는 자신의 시대에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현재 세대에 대한 또 다른 기대감이 교차하는 듯 했다.

시대의 흐름 앞에 통일의 '의무감'마저 희미해지는 이 시기에 비전大江연은 통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다. 현재 분단 1세대들은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나고 2,3세대들이 분단의 현실 앞에 아로 서 있다. 그런데 현 세대는 분단은 개인의 '의지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분단에 대한 '합의책임'을 이 세대는 지니고 있지 않기에 통일을 자신의 의무감으로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무책임 하거나 거부감을 느낀다. 심지어 이런 분단 상황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선대에 대한 전적인 책임전가와 북에 대한 중요성만이 가중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과연 통일에 대한 그 어떤 책임도 의무도 지니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이홍구 전 총리와 두 독일 인사는 통일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애국심'에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이는 민족주의 의식을 강화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는 개인의 '권리' 이전에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오천여년을 '연대의식' 속에서 함께 살아온 공동체이다. 누군가는 근본주의를 논한다하며 한민족 의식을 폄훼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같은 '뿌리'에서 출발해 현재를 이루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남과 북을 가르고 있는 '휴전선'을 단지 무책임하게 누군가의 책임으로 떠넘길 수 없다는 것이다. 본래 하나였던 민족이 타의에 의해서 철저히 둘로 갈라져 버렸다.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였던 본질이 흐려졌기에 남과 북의 이념 대립은 점차 심해지고 있다. 우리는 애국심은 '미덕'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런 애국심은 우리에게 책임의식을 더해주고 저 넘어 북녘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좌시하고 넘어갈 수 없게끔 만들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통일은 우리 세대의 '의무'이다. 독일의 두 인사들도 통일에 대한 당연한 갈망을 최우선 필요 과제로 역설했다. '의무'에 앞서는 그 어떤 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의무'와 '권리'는 동전 앞뒷면과 같다. 그 어떤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한 동안 개인과 그리고 오로지 남과 북을 분단국가로 규정 하여 우리들의 '권

리' 만 누려온 것을 반성해봐야 할 시점이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의 시민들의 그 어떤 보답을 바라지 않고 오로지 하나의 국가, 통일 독일을 원하고 외쳤다. 그들은 그런 본질적 의무감이 결국에 그들의 자유증진과 권리를 쟁취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스스로 분단에 대한 책임회피, 이념갈등, 통일비용 감당문제 등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통일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지금 당장에 분단된 현실에서 취하는 작은 자유와 권리들은 통일 이후에 다가올 새로운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 통일에 대한 의무감, 그것은 통일을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앞당길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연사들의 강연 이후에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그들에게 이어졌다. 이흥구 총리뿐만 아니라 독일의 두 인사도 끊이지 않는 질문 세례에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예상보다 수준 높은 질문에도 놀라기도 하면서 긍정적 의미의 미소를 보여줬다. 예정된 시간이 너무 아쉬울 만큼 빠른 속도로 시간이 지나갔다. 발걸음 때기 아쉬운 참가자들은 강연 이후에 독일의 두 총리를 찾아가 기념사진을 찍거나 유창한 독일어로 질문을 하는 진풍경도 볼 수 있었다. '비전대강연'은 앞서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통일 과정을 배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나라의 당면한 통일 과제들을 본질적으로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도 더 알찬 한반도비전포럼들 기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반도비전포럼 참가소감

장선희

현재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북한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서 “한반도비전포럼”에 참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연세대학교로 교환 학생을 온 재미교포가 있었는데, 통일이 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한국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다며 그 자리의 한국학생들에게 질문은 던진 적이 있었다. 그 당시 거기에 있던 학생들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통일을 반대한다고 했었다. 나는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여러 이유를 논리적으로 말하고 싶었지만 쉽사리 떠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이 쉬운 질문 하나조차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서 북한학 전공을 생각하는 나 자신에게 큰 실망을 하였다. 하지만 이번 강연은 학부를 졸업하고 북한학을 더 공부해서 통일관련 일을 하고 싶었던 나에게 내 비전을 더 공고화 해주는 계기였을 뿐만 아니라, 통일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 머리로서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었다.

우리가 통일을 하면 그에 따른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사람들은 북한과 남한의 경제적인 수준이 평등해지기까지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통일을 반대한다. 반면에, 통일을 하면 유럽까지 육지를 통해 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점과 북한의 지하자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남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이유로 통일을 찬성하는 의견이 있다. 이번 강연을 통해 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남한과 북한,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같은 민족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었다. 이는 단일민족을 중요시 하던 한국인 이흥구 전 총리나 김선욱 총장이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독일인인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와 쉐봄 전 내무장관이 이야기 한 것이다. 남한과 북한은 분단 후 점점 분단된 국가의 아픔을 잊어가고 각각의 국가로 독

립해갔다. 사실, 서로를 적대시한 것이 더 맞을 수도 있다. 우리는 통일을 이야기할 때에 먼저 거부감부터 느끼고 경제적 장단점만을 따진다. 하지만 이번 강연에서 두 독일인 지도자들을 통해 독일인들은 통일 이후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족이 상봉한 것에 더 많은 의의를 두고 통일에 매우 만족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들은 한국에서 통일이 거론되었을 때 통일비용을 너무 걱정하지만, 통일 이후에 찾아오는 행복은 경제적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했다. 이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통일을 이뤄낸 국가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생생한 경험이 우리의 통일에 있어서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면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은 눈 앞의 경제 상황에 매우 민감하다. 그래서 통일을 반대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이홍구 전 총리는 젊은 계층의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애국심에 호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자긍심의 문제이다. 독일의 통일 전 당시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동독과 서독의 언론 매체를 통해 서로의 상황을 알 수 있었고, 서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자유로웠다고 했다. 이러한 작은 교류는 동독인들로 하여금 자유를 갈망하게 했고 그 결과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게 했다고 하지만, 동독인뿐만 아니라 서독인 또한 분단의 아픔을 더욱 느낄 수 있게 했던 것 같다. 현재 남한과 북한은 완전히 분리되었다. 방송 매체나 편지 같은 교류는 없고, 이산가족 상봉마저도 북한에 의해 중단된 상황이다. 이는 북한 사람들이 김정일 체제 하에 ‘자유’라는 것을 갈망하는 것에 대한 기회가 줄어들고, 남한에서는 젊은 층으로 갈수록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민족의식도 점점 없어지게 된다. 북한 사람들과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점점 잊혀질수록 애국심에 의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다.

드메지에르 전 동독총리는 말했다. “독일인들은 적지 않은 통일비용을 치르고도 통일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통일을 했기 때문에 커다란 경제 국가로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 독일인들은 평화의 움직임을 경험했고, 공유했다. 통일비용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통일의 이유를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다. 통일을 통해 한 나라가 더욱 결합되고 그를 통해 더욱 커다란 경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나의 가슴을 울린 것은 이들이 경험한 “자유와 평화”이다. 현재 남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국가가 경제성장 이후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가 되었다. 남한이 자국의 경제성장에만 목표를 두지 않고 범국가적인 도움을 주는 이유

는 남한 사람들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원조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북한과 통일을 함으로써 북한 지역에서 굶주리는 사람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이들에게 자유를 맛보게 하고 남한과 북한 사람 모두가 “평화의 움직임”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선진국가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말하면 通하게 되고, 통하면 소망하게 되고, 소망하면 하나가 된다

장양선

| 비전대강연참석을 하게되다. |

저의 vision은 통일한국의 법적문제들을 해결하는 법관이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통일한국을 위해 기도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인지, 언젠간 통일이 반드시 될 것이며 그 통일은 지금 대학생인 저의 세대에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보인다.’고 하듯이, 통일에 대한 열망을 품고, 통일한국을 위해 대학생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제게, 비전대특강을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불편하지만, ‘말할’ 때, 마음은 通한다. |

‘에이 그게 더 이상한데? 아마 속으론 엄청 쌓여서 여행 갔다와서는 개들 아예 만나지도 않을걸?’ 흔히들 꽤 길게 단체행동을 했는데 그 곳에서 단 한번도 충돌이 없었다고 하면, 주변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대개 일주일을 초과하는 단체행동에선 예외없이 갈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2009년 겨울이 선물해 준 이화봉사단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3년 전,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11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이화봉사단으로 방글라데시에 건축봉사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11박 12일이라는 일정 동안 우리 봉사단은 단원간에 큰 싸움은 물론, 소소한 다툼 하나 없이 봉사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도 끈끈한 인연을 유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11박 12일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봉사를 떠난 첫날, 단장은 우리 단원들에게 딱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매일 봉사가

끝나면 가장 큰 방에 모여 하루를 보내면서 서로에게 고마웠던 일 하나와, 섭섭했거나 마음이 불편하게 느껴졌던 일 하나를 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11박 12일동안, 매일 그 날의 봉사를 마친 뒤, 가장 큰 방에 모였습니다. 벽돌을 백 개 넘게 나르고, 바지는 흙투성이가 되었어도 일단 모였습니다. 이 때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고마웠던 일은 말하지 않더라도, 섭섭했거나 마음이 불편하게 느껴졌던 일은 반드시 1개 이상 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섭섭했거나 불편했다는 건 결국, 단원 중 한사람에게 불만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 간단하고도, 이상한 룰 덕분에 우리는 無사고 無충돌 귀국은 물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좋은게 좋은거지.' 하면서, 맘 속에 꺾꺾 담아놓는 대신 건강한 분위기 속에서 속내를 '말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이에 신뢰를 생기게 한 것입니다.

이번 강연에서 요르크 쉐븐(전 베를린 및 브라운부르크주 내무부 장관) 연사께서는 통일 후 동독 조종사들을 방문하여 영어교육을 시켜주기로 약속했는데, 후에 계획된 예산이 없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무척 당황했지만, 그 약속을 바로 철회하는 대신 유능한 행정관의 지혜를 통해 영어교육비용을 지원하여 약속을 지켰노라고 하시면서 '모든 일에 진실함과 공정함을 통해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주셨습니다.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동독 병사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손사래를 치시면서 말입니다.

요즘 들어 나라와 나라의 관계, 즉 '외교'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간에 '마음이 통한다'고 하듯, '나에게 누군가 무엇을 주면 나도 뭔가 주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 이듯 나라간의 관계도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남과 북의 관계는 지나친 경색에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진보, 보수 등 자신의 정치적 색채를 불문하고 남북간 대화채널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모두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강연을 통해 남북관계의 경색은 '말' 해야 해결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편하지만 우리는 천안함 사태이후 지나치게 강경한 5.24조치로 현 남북관계경색을 주도한 면이 있는 점을 인정하는 '말'을 해야 하고, 북한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확실히 사과를 표하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 통일의 주역은 우리 대한민국 國民의 통일에 대한 강한 열망 |

요르크 쉐븐, 로타 드메지에르(전 동독 총리) 연사님은 남북 통일은 통일에 대한 국민의 강한 열망,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의 표출로부터 이루

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자유를 갈망하는 동독 국민으로부터 그 통일은 이뤄진 것이며, 그 열기는 제2차 대전 패전국이라는 지위와, 러시아와 영국의 강한 간섭력 행사를 배제하고 4+2조약을 2+4조약으로 바꿀 만큼 강한 힘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강연을 들으면서 서독과 비교적 자유로운 소통을 할 수 있었던 동독 국민들과는 달리 북한 주민들은 남한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에, 북한 주민의 자유에 대한 갈망의 표출이 어서 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비현실적인 면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는 달리 한반도의 통일은 남한의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그 대문을 열어야 한다는 목직한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독 학생들이 12학년이 되면 기차를 타고 서독으로 수학여행을 떠나면서, 기차의 창문너머로 베를린 장벽을 보고 통일에 대한 열망을 고취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어서 금강산 관광이 다시 재개되어, 우리 남한 학생들이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가면서, '어서 통일이 되어 이렇게 좋은 금수강산으로 매 주말마다 소풍을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열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 Soft power 로 우린 하나 |

일찍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여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한 이홍구(전총리) 연사님은, 통일을 위해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인 세종대왕을 상기시켜주셨습니다. 연사님은 군사력이 약하고, 인구도 그리 많지 않았던 조선 땅을 외부의 침략에도 '한민족'으로 지켜나가기 위해 세종대왕은 인구증강, 군대양성이라는 Hard Power 대신, 국민의 정서 속에 '우린 하나'라는 공동체인식을 심는 한글을 통한 Soft Power로 조선을 지켜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세종대왕 때부터 전해져오는 한글을 함께 물려받은 우리 남과 북은, 둘(二)아닌 하나(一)'라는 의식이 진솔한 대화를 통한 신뢰에 +α(플러스알파)되어진다면 통일은 성큼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라는 기분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통일을 위한 용기

전지영

‘로타 드메지에르 전 총리님, 통일이 된 이후에 가장 좋았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강연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을 했다. ‘저에게 가장 좋았던 순간은 저의 집무실에 앉아 라인강을 바라보며 로마시대를 떠올렸던 때였습니다.’ 드메지에르 전 총리의 답변은 통일된 독일에서 프랑크인의 신성로마제국이라는 공동의 역사적 정체성을 재발견해낸 순간의 기쁨을 말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 독일의 통일은 베를린 장벽으로 나뉘었던 영토가 하나로 합쳐진 것을 넘어 ‘독일인 공동의 역사’를 되찾은 것이다. 드메지에르 전 총리의 답변은 나의 한없는 부러움을 샀다. 자신의 거대한 역사적, 정신사적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은 인간이 100년이 채 되지 못하는 짧은 생애를 극복하고 수천 년을 거슬러 오르며 살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는가.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우리 사회는 조국을 되찾았다는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기쁨은 5년 남짓한 시간이 흐른 뒤 적개심과 공포로 바뀌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6.25 전쟁으로 한반도는 분단되었고 그로부터 66년 후 오늘 여전히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 한편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분단된 독일은 45년 만인 1990년 10월 3일 통일되어 독일연방공화국이 되었다. 여전히 분단 상태에 있는 우리는 독일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낸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군사적인 충돌 없이 평화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통일을 이루어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점으로 강조된다.

통일을 이루어내고자 각계각층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독일이 어떻게 평화적으로 통일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연구하는 것부터 이번 강연회처럼 통일 주역들을 초대해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등의 활동은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렇지만 나는 줄곧 우리와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지

않은 분단독일의 통일을 우리의 통일 모델로 쓸 수 없다고 생각했다. 분단이라는 점에서는 남북한과 독일이 유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왜 분단이 되었는지 등 그 내부에는 여러 가지 상이한 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완전히 동일한 비교대상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독일 통일의 경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 발전시키려면 남북한과 독일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먼저 남북한과 독일이 분단되게 된 배경에서 차이점이 있다. 남북한의 경우 분단의 직접적인 배경은 6.25 전쟁이다. 한반도의 경우 휴전상태에서 분단된 것으로, 휴전과 분단을 동시에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되어 소련군이 진주한 동독과 서방 연합군이 진주한 서독으로 나뉘어 분할 통치되었다. 그러다가 냉전체제가 굳어지면서 1949년부터는 동서 양쪽에 독립된 정부가 들어서 분단이 공식화된 것이다. 특히 60년대부터는 서독의 이른바 할슈타인원칙에 따라 동독과의 대결 국면이 조성되어 동독은 베를린에 장벽을 설치한다. 독일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것이다.

두 번째 차이점은 분단 상황에서 교류 존재의 유무이다.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동·서독은 현재 남북관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연결돼 있었다. 베를린은 동서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었는데 베를린의 지리적 위치는 동서독 교류의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게 했다. 동독 주민은 서독 방송이나 라디오를 보고 들을 수 있었고 가족 상봉을 위해 서로 오가고 서신왕래도 가능했다. 문화적 교류가 끊이지 않고 계속 되었다. 동독의 저렴한 책과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서독 학생들은 일일 비자를 신청해 동독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러한 교류는 동독 시민들이 서독의 문물을 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었다. 한편 남북한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 베를린과 같이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는 없고 북한 주민들은 정부에 의해 극도로 폐쇄된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민주를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차단된 것이다.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차이점은 국제정치 환경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진영을 양극으로 하는 냉전체제는 1970년대에 들어 데탕트의 시기를 맞게 된다. 1970년 8월 서독-소련의 불가침협정,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1973년 동서독 국제연합 동시가입 등으로 화해와 긴장완화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미·소 간에 '신데탕트' 국면이 조성되었고, 고르바초프에 의해 추진된 소련의 개방과 개혁정책(Perestroika)의 영향으

로 동구권 국가들이 소련의 영향에서 벗어나 민주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동독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와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는 독일 통일에 좋은 여건을 제공해 준 것이다.

위와 같은 국제 정치 환경의 변화는 남북한도 함께 경험했다. 우리의 경우 1989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발표되어 남북한 통일을 향해 진일보 할 수 있었지만 통일의 과업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현재 남북한이 처한 국제환경은 냉전이 종식된 탈냉전의 시대이다. 이것과 동시에 여태까지 한반도는 냉전시대를 살고 있다. 구동구권 국가들이 주변국들의 변화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식의 극적인 변화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전환된 정치체제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고화할 수 있느냐를 논하고 있는 시기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개방적인 자세로 남한과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외부환경을 찾기가 쉽지 않다. 물론 중동의 자스민 혁명은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우리로 하여금 북한 시민들의 용기 있는 움직임에 기대하도록 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징후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남북한과 독일을 동류로 놓고 비교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은 남북한이 독일 처럼 통일을 이룰 수 없음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차이의 인식은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 올바른 통일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분할 것을 강조하셨다. 주체적으로 통일을 달성한다는 말에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이렇듯 우리가 서있는 정치적 토양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한민족이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분단으로 인해 한민족은 반만년을 이어온 무구한 문화와, 정신사적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 분단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만큼, 반만년의 역사적 숨결을 남한에 한정해, 또는 북한에 고립시켜 이해해야 하는 것이 대단한 손해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드메지에르 전 총리의 로마제국에 대한 상기한 이유는 독일 통일이 독일인의 역사적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우리에게도 남북한 통일은 무한경쟁 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이해되어 짐과 동시에 우리의 문화적, 정신사적 뿌리를 되새기고 되찾을 수 있는 보다 큰 의미의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과업임을 강조하고 싶다. 통일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용기는 무엇보다 우리의 반만년 역사로부터 전해오는 공동의 인간상과 공동의 역사를 사랑하는 것에서 나올 것이라 생각된다. 한민족의 역사적 지평은 어디에서 머물 것인가. 숭고한 정신사적 되새김은 통일한반도의 수천 년의 명운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동족상잔(同族相蠲)의 축배 기울일 날을 염원하는 청춘의 고백(Go Back)

전혜민

올 한 해를 대표할 키워드가 있다면 ‘청춘’이 아닐까 싶다.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비롯한 청춘지침서는 연일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청춘에 대한 기성세대의 미안함과 진심 어린 메시지를 담은 ‘청춘 콘서트’ 역시 전국의 청춘들을 독려하고 있다. 이는 결국, 우리 사회와 내 자신에 대한 진지한 고찰 없이 방황하는 우리네 청춘들의 우울한 자화상이기도 하다. 졸업이 한 학기도 채 남지 않은 내가 마지막 학기 강의로 ‘북한 정치론’을 수강하게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분단의 고착화가 한반도에 대한 무관심을 낳았던 게 아닌가 하는 반성 때문이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 우리 역사에 대해 이해해야 하는 것은 자명하기에 어쩌면 수많은 청춘 매뉴얼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도 ‘남북통일’ 문제에 관한 깊이 있는 관심, 그리고 실천일 것 같다. 그러던 중 듣게 된 ‘한반도 비전대강연’은 내 대학생활에 큰 의미로 남을 것 같다. 24세 꽃다운 나이 대학생으로서, 대한민국의 청춘으로서 한반도비전포럼을 들은 나의 고백을 시작하려 한다.

한반도비전포럼의 큰 테마는 ‘가슴과 머리에서의 냉전 종식을 위한 통일 방안’이었다. 이를 위해, 앞서 통일을 경험한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 요르크 쉐븐 전 베를린 내무장관께서 먼 걸음을 해주셨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통일에 성공한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훌륭한 지침서이자 살아있는 통일교과서였다. 포럼을 들으며 독일과 한국 통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2차 대전 이후 독일은 동, 서로 한국은 남, 북으로 분리되는 분단의 아픔을 겪었다. 당시 독일은 패전국이었지만, 한국은 일본이 패전국임에도 강제적으로 분단된 억울한 나라다. 하지만 강제된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는 서로에 대한 무관심, 더 나아가 불신과 분노마저 야기했다는 점은 통일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동시에 깨닫게 했다. 지정학적으로도 독일은 유럽에, 우리나라는

세 나라에 둘러싸인 약소국이었다는 사실을 통해 동병상련의 감정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성공한 독일이 부러웠고, 연사 분들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었다.

포럼 내내 독일연사, 이홍구 전 국무총리, 김선욱 총장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은 '통일비용' 문제였다. 나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통일에 쉽게 찬성하지 못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통일비용에 대한 막연한 걱정 때문일 것이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는 상상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고, 이는 남한에 손해일 것이라는 생각이 통일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포럼은 통일비용에 대한 내 고정관념을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바로, 통일에 드는 비용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및 동북아 안보문제에 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통일비용은 상상보다 훨씬 클 지도 모른다. 하지만, 통일비용이 무서워서 가족을 안만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며 반문하셨던 이홍구 전 국무총리의 말씀이 떠오른다. 남과 북을 갈라 경제논리를 적용하며 이해타산을 운운하기에는, 분단으로 인해 생이별을 겪었던 이산가족의 눈물이 너무나 뜨겁고, 같은 민족을 향한 군사배치가 너무나 덧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단비용보다는 통일비용이 훨씬 적으며, 이 모든 것을 둘째로 치더라도 통일문제는 결코 수수방관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절감할 수 있었다. '독일도 20년 전에는 통일비용을 걱정했지만, 지금 해냈다. 비용에도 불구하고 독일인은 통일에 만족한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라'는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의 말씀이 귓가를 맴돈다.

무엇보다 한반도비전포럼을 통해 가장 감명받은 순간은, 드메지에르 전 동독총리께서 뜨겁게 연설하신 '주체적 통일'에 관한 이야기였다. 옛 동독의 시민들이 스탈린체제를 무너뜨리고 주체적으로 쟁취한 통일이자 평화적 혁명은 커다란 자부심이라고 말씀하셨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동독시민들의 간절한 염원, 통일에의 노력을 눈앞에 그려볼 수 있는 순간이었다. 특히, 세계대전 연합국들의 협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4+2'를 독일의 주체적 통일을 뜻하는 '2+4'로 변화시킨 독일의 노력은 통일을 대비하는 한반도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했다. 남한은 민주화 이후 줄어든 통일에 대한 무관심, 북한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자유에 대한 인식을 억압하는 사회사상적 배경으로 인해 통일에 관한 주체성을 기르기 힘들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연사의 말씀처럼, 통일의 선결조건은 다름아닌 '통일에 대한 주체성'을 기르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전쟁을 경험한 할머니와 할아버지 세대, 이를 듣고 자란 우리 부모님 세대를 넘어 한반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청년들의 각

성과 반성의 몫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서독의 언론과 매체를 통해 동독인들이 자유를 갈망할 수 있었듯, 북한 주민들도 자유와 통일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가치를 깨우쳐야 할 필요성도 느꼈다. 그런 의미에서 탈북자가 증가하고, 국경지역의 시장경제가 활발해 진 것이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연사의 말씀에 공감이 갔다. 세계화로 인해 그 관계가 더욱 복잡해진 지구촌, 그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주변국들의 압력에 눈치만 보며 ‘우리 것’에 제 몫을 다하지 못하는 안일한 통일의를 정부와 국민 모두가 각성하고 깨쳐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통일 이후에도 해결해야 할 숙원과제는 상당수 남아있다. 경제통합, 화폐통합,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통합이 그것이다. 독일은 총 5단계에 걸친 통일 준비로 인해, 어려움을 거치면서 더욱 단단한 통일체제를 마련할 수 있었다. 남한과 북한의 통일 역시도 꾸준한 준비과정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일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남북문제에 이제 막 걸음마를 떤 나로써, 거창한 해결책은 생각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안보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이성적으로 대하되, 지극히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소프트 파워’를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의미에서 만국공통의 힘을 지닌 문화의 성장과 한류의 전파는 향후 통일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기에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민주화 혁명을 뜻하는 아랍의 봄에서부터, 월가시위를 상징하는 미국의 가을까지 전 세계인들은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주체가, 국가 문제에 주체적인 역할을 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했던 대다수 시민이라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이제 세계 역사에 기록될 변화는 한반도의 차레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역량과 노력의 온전한 주체 역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 통일을 염원해 온 한반도 역사, 이산가족, 한민족의 간절한 외침이 다만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우리의 준비와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독일 유학 시절만 해도 통일이 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는 김선욱 총장님의 말씀은, 통일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 자연스럽게 올지 모름을 의미한다. 옛 독일시민들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듯, 한반도 한민족의 뜨거운 염원으로 38선을 녹일 수 있는 그 날이 오길 바란다. 더불어 한반도의 변화가 전 세계인들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계기 또한 되길 희망한다. 한민족끼리 상처를 입혀야 했던 同族相殘의 비극이, 한 민족끼리 같은 술잔에 축배를 기울일 수 있는 同族相壽의 행복이 되길. 분단 없이 하나되어 행복했던 그 때로 ‘Go Back’ 하길 간절히 바라는 대한민국 청년의 다짐과 기도가 담긴 ‘고백’을 마친다.

비전大강연을 듣고

정송희

이번 강연은 통일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나 자신도 통일이 된다는 것이 요원한 것처럼 느끼고 있었고, 북한에 대해 공부를 한다고 하여도 일련의 선입견들을 피할 수는 없었다. 북한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공부를 한 적은 있어도 현실적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요르크 쉐봄 전 내무장관이 말한 대로 독일의 통일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 이 사실은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던 독일의 통일은 웬지 준비된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며 반겼을 것이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다. 독일의 통일이 특수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했다.

로타 드메지에르 전 총리는 실제 독일 통일이 진행된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 주었다. 장벽이 무너진 것과 동시에 통일이 이루어졌을 리가 없는데도 나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현실적으로 우리도 통일이 된다면 충분히 독일이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 기본적인 의사소통 결정기구부터, 화폐의 사용, 학위의 문제까지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문제임에도 나는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에서 약간의 충격을 받았다. 나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경제적인 사회부담' 정도 밖에는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단 나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강연 후의 질의 응답 시간에서 드메지에르 전 총리가 여러 번 언급했듯이 우리는 통일비용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집착하고 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비용이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관한 전반적이고 대중적인 토론과 이해일 것이다.

또 다른 것은 2+4조약과 관련한 것이다. 4+2조약이 아닌 2+4조약이라니, 통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사안은 분단된 두 나라가 정해야 할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분단된 때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통일에 관한 사안을 우리에게 맞길 정도로 주변국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을지는 독일의 경험과 비교했을 때 또 다른 맥락에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독일을 신뢰하는 것과 미국이 북한을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맥락일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소련이 존재했던 때에 독일이 통일되었다는 점은 약간은 의아스러웠다. 소련이 자신의 형제국가였을 동독의 해방을 용인하였다면, 미국이 우리의 통일을 인정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요르크 쉐븐 전 내무장관의 연설에도 우리의 통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볼 수 있게 하였다. 통일 과정에서의 군의 역할이 가지는 중요성에 관한 것이다. 천안함 도발사건이나 연평도 폭격사건등과 같이 대치 상태에 있던 두 무력집단을 어떻게 융합할 수 있을 것인지, 보유하고 있거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핵'에 관한 사안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게 했기 때문이다. 뒤이은 이홍구 전 국무총리의 연설처럼 독일과 한국은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적어도 동독과 서독은 우리와 같이 6.25를 겪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로 대립하고 서로의 목숨을 빼앗던 양 나라의 군대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군의 문제는 중요하면서도 나의 의식 속에서는 배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데, 이것은 아마도 내가 군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한국도 역사적으로 쿠데타 등을 경험했음에도 정치적으로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군대를 포함한 모든 조직이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곤 하는 것이다. 만일 통일이 된다면, 군대에 대한 이슈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르크 쉐븐 전 내무장관의 조언대로 신뢰를 쌓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의 연설에서 들은 바와 같이 역사에는 어떤 특정한 방향이 있다는 점. 그래서 통일은 역사의 방향성에 옳다는 점은 희망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한민족이라는 감정이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한민족이라는 감정은 통일을 하고 통일 후에 일을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여기에 약간의 질문을 하고 싶다. 북한은 폐쇄적인 특성으로 외부인의 융화가 많지 않다고 해도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최근 개봉한 영화 완득이에서도 보이듯이, 필리핀, 베트남, 기타 등등의 인종들이 섞이고 있고 이들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만일 통일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한국인이 된 외국인의 비율도 많아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귀화한 외국인들을 통일의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단지 애국심이나 한민족이라는 개념으로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점에서 독일과 한국은 같은 분단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점들도 존재한다. 이들의 경험이 바로 우리가 이상적으로 봐야 할 통일이 청사진으로도 보기도 힘들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점들은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 사람들도 많은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이 이뤄졌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독일의 청소년들이 수학여행으로 서독으로 가기를 무척 희망하고, 가서는 공동의 책임감과 통일에 대한 감정을 느끼고 오곤 했다는 사실에서 감명을 받았다. 지금은 잠시 단절되었지만 이와 같은 감정은 한국에서도 공유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통일에 대한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아도 공유되고 있는 역사가 있는 만큼 우리의 통일도 요원한 것은 아닐 것이다.

독일이 한국과 같이 분단국이었다가 통일된 나라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 이번 기회에 자세한 내용을, 직접 경험한 사람에게서 들을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되었고 이 강연에서 전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는 신선한 충격이 되었다. 앞으로의 통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독일의 통일을 통해 본 한반도 통일의 여건과 과제

정재엽

큰 변혁이 일어나려면 외부적 요인과 함께 내부적 여건도 충족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상당히 좋은 시기에 통일이 이루어졌다. 고르바초프가 집권함에 따라 데탕트가 진행되었고, 서독은 소련 및 동구권과 외교관계를 맺으며 교류하기 시작했다. 서독의 경제적 지원으로 소련은 동독의 통일을 묵인해 주었고, 독일은 역사적 기회를 쟁취할 수 있었다. 물론, 독일의 주변국들은 1·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 그리고 유럽의 안보 때문에 하나의 독일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독일은 평화적인 국가체제로의 이행과 상호 협력하는 하나의 유럽을 강조하여, 어렵게 주변국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런 외부적 여건이 조성되던 때, 변화는 내부에서 먼저 시작 되었다. 1989년 동독에서는 자유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했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시위의 결과,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가 치러졌고, 통일을 목표로 한 정부가 수립되었다. 국민들에 의해 정당성을 갖춘 정부는 통일을 추진해 나갔고, 불과 1년 만에 군사적 충돌 없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 비슷한 시기 동구권에서 발생한 민주화 시위가 소련의 탱크에 의해 무자비하게 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외부적 여건이 조성됨과 함께 독일 내부에서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의 핵심은, 자발적인 자유화의 움직임이 일었다는 것과, 공권력이 이를 진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자유화·민주화 의지를 시민들만 주창한 것이 아니라, 기득세력과 정부도 수용했다는 뜻이다. 전 국민적, 국가적 합의가 있었기에 독일의 통일은 평화롭게 이행될 수 있었다.

현재 한국은 외부적으로는 당시 독일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 동아시아의 주변 3개국은 모두 북한이 유발하는 안보불안을 겪고 있으며, 지역 안정화를 위한 한반도의 통일에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 또한 지도층이 교체되면서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던 '혈맹' 의식이 많이 약화되었고,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도발을 불편해하고 있다. 여기에 동아시아에 지대한 영향력이 있는 미국까지 통일에 긍정적이지, 외교적으로 통일에 크게 장애가 될 요인이 없다.

한국의 경우 문제는 내부에 있다. 남측은 막대한 비용과 혼란으로 통일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되려 통일에 소극적이다. 통일을 하나의 목표로 접근하기 보다는 정치적 요소로 여겨 계산하는 경향이 있다. 북측에는 더 큰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하부의 인민들이나 상부의 기득세력 모두 통일에 그리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어려서부터 김일성 일가의 신성성을 교육받고, 체제의 우월함에 대해 세뇌교육을 받은 주민들은 맹목적으로 '수령'을 떠받들고 있다. 인권을 유린당하고, 굶주리면서도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체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김정일을 필두로 한 지배계층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다. 인민을 위한 정책은 사라진 지 오래이고 체제 유지에만 신경을 쓴다. 사상적으로 약간만 문제가 있어 보이면 3대까지 수용소로 보내니, 문제의식을 가진 주민들은 전부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혹은 문제의식을 전혀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상태에서 주민들에 의한 민주화 혁명을 기대했다가는 자칫 킬링필드와 같은 대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통일을 위해선 북한 주민들은 물론, 지배계층의 의식까지 변화시켜야 한다. 물리적인 접근은 생각의 변화는 커녕, 되려 역효과만 발생하기 쉽다. 때문에 생각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Soft Power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Soft Power가 북한 사회의 기저에 까지 스며들어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교류와 협력을 통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교류협력 과정에는 민간단체와 기업뿐만 아니라 주변국들도 참여시켜야 하며, 특히 개별 주체들이 통일을 통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지난해 5.24조치에도 개성공단은 중단되지 않고 가동되었다. 북한 주민과, 정권 그리고 남한 기업인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개성공단 인근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상당히 향상되었으며, 의식수준도 꽤 성장했을 거라 예상된다. 이 지역의 파급효과는 이미 개성 주변부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런 경제협력 지구가 여러 군데 있으면 북한 전역의 생활수준 향상과 의식성장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계몽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곳곳의 경제발전을 통해 인권을 개선하고, 통일비용을 감축하는 효과도 있으며, 국부의 증진에도 이바지한다. 반면,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제재를 통해 억제력을 키워야 하며, 그 과정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공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도발이 즉시 주변국 공동의 제재로 이어진다면, 북한은 큰 정치적, 경제적 부담을 받을 것이며, 이를 인식한다면 한반도에는 평화 체제가 고착될 것이다.

물리적 충돌 없이 남북간의 지속적 경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신뢰체계가 구축된다면, 보다 범위를 확대해서 문화적인 영역에서의 교류를 늘려야 한다. 남북간의 방송이나 공연 등의 교류를 통해 상호 문화의 이질성을 이해하고 줄여나가야 하며,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에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현실을 알려야 한다. 기독교력의 경우에는 한국의 우수한 제품과 문화를 유행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루이 14세 시절 전 유럽이 프랑스의 문화를 동경하고 모방했던 것처럼, 북한 상층민들이 남측의 문화를 동경하게 된다면, 통일에 대한 저항과 문화적 이질성이 크게 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추진하려면 남북은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성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신뢰를 형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언행이 일치하며,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권에 따라 대북정책의 변동성이 너무 커 장기적인 신뢰를 쌓기가 힘들다.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민의의 직접 반영이라는 정당성으로 인해 정권의 일방적인 정책 수립은 불가능해질 것이며, 보다 안정되고 연속적인 정책이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

섬이나 다름없는 반쪽의 우리나라는 규모 면에서 발전에 한계가 있다. 각종 거시지표는 우리가 이미 고점에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분단된 상태에서 한국은 점차 제자리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통일이라는 발판을 딛고 도약한다면, 우리민족과 국가는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성장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은 우수한 두뇌와 교육열, 그리고 높은 성취욕을 지녔음에도 엄청난 분단비용에 날개를 제대로 퍼질 못하고 있다. 통일된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의 균형추 역할을 하며, 민족적 역량을 발휘하여 Soft Power를 통해 세계사회에서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비전大강연 참가 소감

정정현

저는 현재 북한학과를 재학하면서 통일학 입문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첫 수업중에 통일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독일이 통일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굿바이 레닌'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독일이 통일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건, 현재 남북의 모습과 달리, 교류도 되고 있었고 텔레비전을 통해 동독, 서독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언어의 차이나 생활의 차이가 없었을 때 통일을 했고, 또한 독일은 그 당시 동서의 경제적 격차가 있더라도, 독일이 유럽국가중 가장 부유한 나라였기에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강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 선배님을 통해서 이 강연을 듣고, 잘하면 독일여행을 보내준다고 해서, 나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이라는 마음에 참석했지만, 좀 더 색다른 내용, 더욱 구체적인 무언가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강연이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시사점은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의 기념사에서 독일의 통일은 동독인이 강력하게 통일을 주장했다는 사실 부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굿바이 레닌'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과 동독 시민들이 시위를 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서독사람들 또한 통일에 대해서 반겼지만, 시작은 사회체제 속에 있는 동독의 시민들이었다는 사실은 현재 북한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북한 인민들도 현재 남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개성공단 주변에서는 시장 경제의 모습이 보여 지고, 탈북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이야기 하시면서 가능성을 제시하셨는데, 정말 동독의 시민들처럼 북한 인민들도 그렇게 해줄 수 있을지 라는 의문에 대해 고민하고 상상해 보게 했습니다.

또한 동서독의 통일에서 군사적인 통일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통일된 모습을 보통, 남북이 하나 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하나 된 체제 등에 대해서 막연한 것을 상상해

와서 그런지, 군사적인 부분의 통일에 대한 생각은 새로웠습니다. 같은 유니폼을 입혀서 걸 모습 뿐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으로 통일감을 주기위해 노력했구나 신기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통일을 위해서 신뢰감 구축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도 일깨웠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우리는 분단으로 인해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고, 북한으로부터 핵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런 군사적인 문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하는 대상이고 잘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다시 일깨우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사례가 완전히 우리에게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군을 어떻게 통합할지 계속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흥구 전 국무총리님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국무총리님께서 한국사람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하시면서, 특히 통일비용에 대해서 너무 걱정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이상한 소리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의 경제는 너무 열악해서 가장 먼저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남북의 경제적 격차를 좁히는데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인데, 비용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총리님의 이야기와 동서독의 총리님들의 보충내용을 들으면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동독 총리님께서 예전에 생각했던 통일비용보다 막상 통일이 된 상황의 비용은 적게 나올 수 있고, 지금 동독의 지역은 더 큰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쩌면 정말로 우리가 지나치게 걱정부터 해서 일을 그르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통일에 대한 비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로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먼저 통일에 대해 현실적인 방안들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강연을 들으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막연히 독일 통일현장 여행을 하고 싶어서 였지만, 독일의 통일의 모습에서, 총리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진정한 통일의 모습은 어떤 것일지 상상해 보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겉에만 신경 써서 구체적인 내용, 본질 등을 보지 못하거나 잊고 있었다는 것을 일깨울 수 있었다. 오래전부터 독일의 통일 사례를 본받지만 우리는 독일처럼 갑작스러운 통일을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고,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주 들었고, 계속 생각해 오던 내용이었다. 이 강연도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어서 의문이나 이런 부분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준 것 자체가 정말로 소중한 강연이었다고 생각한다. 아직 1학년이라서 그런지 북한에 대해서 배우면서, 통일에 대해서 배우면서 너무 막연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게 내가 이 과를 선택하고, 통일을 이끌어갈 주체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했다.

독일 통일 경험으로부터 배운 우리가 갖춰야 할 통일의 기반 그리고 통일세대로 이어지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희망

정정혜

올해 초, 아무것도 모른 채 호기심 반으로 '북한학' 부전공을 신청했다. 북한에 대한 환상으로 신청했지만 부전공 승인이 난 후, 오히려 북한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번 '비전대강연'은 수강 중인 북한학 관련 수업의 교수님의 추천에 의해 참석하게 되었다. 매우 수동적인 참여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교수님께 강연공지를 들은 후, 너무 흥미롭고 기대되어 바로 등록절차를 밟았다.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내 생애 최초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북한학 관련 강의를 들으면서 '만약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이라는 가정에 대해서는 여러 번 상상해 보았겠지만,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는 많지 않다. 이 강연은 등록절차에 있어서부터 독일의 통일 과정에 대해 떠올리게 되었고, '독일인들은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강연은 북한학 전공의 최대석 교수님의 사회로 시작되었고, 김선욱 교수님이 좌장을 맡으시고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님과 요르크 쉐봄 전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주 내무 장관님, 그리고 이홍구 전 국무총리님의 강연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내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점은 많은 강연참여자들과의 열정적인 좌담회 및 질의시간이었다. 비록 연사님들께 질문을 직접 하지는 못했지만 세 분의 강연은 통일에 대해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님께서 동독인들의 평화적 혁명에 대해 강한 인상을 심어주셨다. 실제로 전 동독 총리님의 말씀에 따르면, 동독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은 서독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회의감마저 포용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와 비교해볼 때, 현재 북한과 남한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적화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남한은 경제적인 퇴보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한 상태이다. 강연을 들으며 한반도가 독일과

같이 통일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이념적 갈등, 경제적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층에서부터 오는 통일에 대한 강한 열망이라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다.

우리 세대는 어릴 적부터 흔히 통일 세대라고 하여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어구가 낯설지 않으며, 통일글짓기 대회 등 통일과 관련하여 많은 경험을 한 세대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통일 분위기는 점차 사그라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북한의 체제 붕괴를 기대하는 듯한 여러 매체의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언론에서도 요즘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는 좀처럼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반도가 독일과 같은 통일의 모습을 연상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너무나도 부러운 독일의 통일된 모습, 그 뒤에는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동독 전 총리님의 강연을 통해 우리가 갖춰야 할 통일의 기반은 체제적인 어떤 것 보다 남한과 북한 모든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요르크 쉰봄 전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주 내무장관님께서서는 특히 군대의 통합에 대해서 강연해 주셨다. 분단 국가의 통합은 사실상 서로 대치하고 있던 군대의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동의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분단국가일 때 서로에게 겨누던 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군대통합을 위한 정치적, 행정적 방법론도 물론 효과가 있었겠지만, 내 생각엔 적어도 같은 민족에 대한 '민족애'가 그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이다. 그리고 북한을 한민족이라고 여기는 국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북한과 통일이 된다면, 이 문제는 기술적 범위를 넘어서 '민족애'적인 모습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동독과 서독 사이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남북한 사이의 휴전선이 사라지는 날에는 이러한 '민족애'를 통해 군부조차도 평화롭게 통일되는 진정한 평화통일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적인 기대를 해본다.

마지막으로 이홍구 전 국무총리님께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의 통일에 대해 많은 역사와 진전을 강연해주셨다. 전 총리님께서서는 우선적으로 독일과 한국의 차이를 분석하시면서 말씀을 꺼내셨다. 독일의 평화 통일 과정을 들은 상태였기 때문에 독일 통일에 대한 환상으로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약간의 괴리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를 우리나라의 현실과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여, 다시 한 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임을 깨달았다. 전 총리님께서서는 이제는 통일이 군사적 또는 물리적인 하드파워가 아닌 소프트파워로부터 일어나야 한다고 하셨다. 이 강연을 듣기 전, 나의 비전과 연관된 국제 원조에 대해 공부하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본 적

이 있다. 원조에 대한 활용 투명성이 밝혀지지 않은 북한에 대한 지원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은 처음부터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북한은 워낙 베일에 쌓인 국가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으니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라는 것이 북한 원조의 시발점이었기 때문이다. 국제 원조는 전 총리님께서 강조하신 소프트 파워의 일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나라의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정책이 통일문제에 대해 엄청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리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해 나의 공부가 부족함을 절감했다. 하지만 적어도 소프트 파워가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에 공감할 수 있었고, 나의 비전과 연관되어 내가 통일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번 '비전대강연'은 나 자신으로 하여금 '통일'이라는 반세기에 걸친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독일 통일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전 동독 총리님, 전 내무장관님의 강연에서 우리가 앞으로 갖춰야 할 통일의 기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고, 또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전 국무총리님의 강연으로부터 나의 비전과 통일에 대해 관련시켜 향후 통일을 위해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우리 세대에게 통일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짙어진 과제라고 여겨졌고, 장차 어느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든 상관 없이 한반도 통일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강연을 통해 이 시대에 분단국가에 살아가는 우리세대가 한반도 통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희망적인 계기가 되었다.

비전大강연 참가 소감

정진현

통일부에서 주최한 ‘한반도비전포럼 2011’은 분단의 역사를 경험한 독일과 한국이 통일과 통합의 교훈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통일과정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효율적으로 교환하고 통일에 유용한 독일 정부 문서와 역사적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상호 인적교류를 통해 통일을 대비한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본 행사의 일환으로 이대에서 실시된 ‘비전大강연’에 참석한 동독 전 총리 로타 드메지에르와 서독 전 내무장관 요르크 쉐븐, 그리고 전 국무총리 이홍구님의 강연은 이러한 행사의 내용을 통일한국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에게 공유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먼저, 통일은 분단 당사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주변국들과도 연관이 깊은 외교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홍구 전총리는 강연 도중 우리는 분단된 현실을 평강히 억울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패전국가로서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되었지만 한국은 미국과 소련 두 강호 사이에 끼어서 억울하게 분단되었으니 자존심 문제로 인식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외교에 의해서 분단된 한반도를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에 있는 주변국들의 심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는 것이다. 드메지에르 전총리 역시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했다. 독일의 무력 앞에 굴복했던 주변 국가들은 독일이 통일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만큼 독일보다는 한국 통일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당시에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독일은 통일 후 20년간 경제 침체기를 극복하여 새롭게 부상한 반면 한반도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중국은 북한이 붕괴될 경우 미국을 견제할 공산국가가 사라지는 것을 염려하여 통일에 대해서 소극적인 반면 미국과 소련은 오히려 남한과 경제적으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보다 북한이 보다 안정적

인 정치를 펼칠 것을 원한다. 하지만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폭격 사건에 대해서 여전히 잘잘못을 따지지 못한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는 아직도 사상누각이라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할 것으로 한반도 미래에 보이지 않는 천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2+4 회담을 통하여 주변국들의 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독일 통일에서 중요했던 점으로 동구 진영의 쇠퇴를 꼽을 수 있는데 이것 역시 현재 한반도 통일에 시사점이 크다. 북한은 현재 역사상 거의 유례없는 3대 세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김정일이 죽는다면 김정은에게 군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력이 도전을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본다. 더군다나 현재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지만 점점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점에서 북한 역시 어느 정도 개방을 추구할 가능성이 보인다. 이러한 상황 전개 속에 현재 중동에서 불고 있는 민주화 물결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북한의 세력은 더욱 약화되는 것이며 독일 통일 당시 동구 진영의 쇠퇴와 비슷한 길을 걷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북한 해계모니의 정치 경제적 쇠퇴는 기정사실화 되었으며 그들이 무너지는 것 역시 시간문제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독일 통일이 남한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시민 운동의 중요성을 꼽을 수 있다. 드메지에르에 의하면, 동독에서는 교회의 보호 속에서 시민들이 평화혁명을 이룩하여 동독 정권을 무력화시킨 것이 통일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결국 동독 체제를 무너트린 것도, 베를린 장벽을 무너트린 것도 다 시민의 힘이고 독일 통일이 어떤 특정한 이물들에 의해서가 아닌 다수 시민의 힘으로 이룩한 것이다. 북한의 공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 것처럼 결국 북한도 시민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로 시민들의 뜻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비록 현재 정치범수용소와 군부의 억압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지만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는 탈북자의 수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를 향한 시민들의 갈망은 계속되고 있다. 쉐븐에 의하면 자유를 향한 갈망은 배고픔보다도 더 원초적이고 강렬하다고 했다. 이처럼 언젠가 중동에서 일어난 자유화 바람처럼 북한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킬 가능성도 엄청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동독과는 달리 북한에서의 시민통제는 보다 강렬하기 때문에 동독 통일 당시보다 보다 큰 촉매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혁명이 어디서 시작될지는 예측할 수 없으나 일어날 것임은 분명하고 남측은 이를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점은 동서독간의 지속적인 교류이다. 대다수가 분단 상황에서도 서로 접촉하고 방문하고 우편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심지어 연구와 스포츠 분야에서도 간헐적이든 지속적이든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한

다. 또한 동독에서도 서독의 언론매체를 접할 수 있었고 텔레비전으로 양측 상황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교류가 동독 시민들이 자유를 갈망하고 혁명을 일으킬 촉매제가 된 것이다. 이처럼 현재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 남한 매체를 접할 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 평양 간부들 사이에서는 남한 드라마가 인기라고 하니 생각보다 우리 매체가 북한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었을지도 모른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금강산 관광이 가능하여 양측간의 교류가 활발했으나 불의의 사고로 중단되었고, 사실 현재로써는 언제 그러한 교류가 재개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류우의 통일부 장관 말대로 안정적인 남북 대화 채널이 조성되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한 원칙을 지키는 한에서 또 유연한 대북정책을 펴서 무너진 신뢰관계를 회복한다면 다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이처럼 한국은 독일 통일로부터 배울 점이 매우 많고 이러한 통일모델의 좋은 예가 있다는 점에서 감사해야 한다. 비록 베를린처럼 얇은 벽을 두고 있진 않지만 어느날 시민들이 DMZ를 건너 자유로이 왕래할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드메지예르와 쉐본이 말하기를 한국측은 너무 통일비용 걱정에 얽매이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 또한 이홍구 총리는 통일비용도 크지만 분단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처럼 통일이 이뤄진다면 비용도 문제지만 그것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통합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어느정도 이주를 제한할 필요도 있을 것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도 있어야 할 것이다. 본인이 채택되어 북한을 방문하게 된다면, 이처럼 비용적 측면보다도 사회적 다방면으로 동서독이 어떻게 통합을 이룩하였는지 자세하게 배우고 올 것이다.

쉐본 전 내무장관이 얘기를 하는 도중, 이홍구 전총리가 물을 마시려 하자 드메지예르 전 총리가 대신 물을 따라주는 장면을 보았다. 무슨 연유에서 그랬는지 알수는 없지만, 그 모습은 마치 독일이 한국에게 이제 통일은 당신들 차례라고 바통터치 하는 모습으로 보였다. 20세기 가장 역사적인 순간이 독일의 통일이였다면 그 경험과 지식을 이어받아 21세기의 가장 역사적인 순간으로 한국 통일이 뿔뿔이면 좋겠다.

2011 한반도비전포럼 ‘비전大강연’ 참가 소감문

Vision for a Unified Korea, a Unified World

정해영

우리에게 통일이라는 목표는 목표달성의 합리적 이유를 찾기 보다는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당위적인 목표이자 민족 최대의 목표이다. 10여 년 전만 해도 통일이라는 주제는 우리 국민의 기본적 관심사였고 언론에서도 통일에 관한 행사들을 많이 비추어 줬었다. 하지만 분단 60년이 훌쩍 넘은 지금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간절함 염원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혼란으로 많이 사그라졌다. 또한 미래 통일의 주역으로 앞장서야 할 젊은 세대들은 취업과 스펙 쌓기에만 온 관심을 집중하기에 그들에게 통일은 관심사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반도비전포럼 2011은 다시 한 번 나와 같은 젊은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민족의 오랜 염원을 각성시켜 주어 통일 의식을 불어 넣어 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각성의식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통일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였다.

! 통일에 구체적으로 다가가게 해준 독일 통일 주역들과의 만남 !

고등학생 시절에 나는 한반도 통일에 관한 원탁토론에 참여했었다. 원탁에 둘러앉아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에 대해 고등학생의 시각에서 2박3일간 토론을 했었는데 고등학생이 가진 견문으로는 한계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의 포럼은 오랜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이고 현실성이 부족해 결국 탁상공론에 머무르게 되었고 그 아쉬움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었다. 그런데 이화여대에서 한반도비전포럼을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게다가 독일 통일을 이룬 주역들이 초청 강연을 해주신다고 하기에 이번에는 현실적 답안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포럼 개최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실제로 포럼은 로타 드메 지에르 전 동독총리, 요르크 쉰봄 전 베를린 내무장관 그리고 이홍구 전 국무총리의 경험에

서 우리나라의 현실적 이야기들로 채워졌고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진지하고 흥미로웠다.

| 1. 통일은 민족의 염원을 행동으로 옮길 때 실현 가능하다. |

드메지에르 전 동독총리는 독일 통일이 어떤 단계의 조치를 통해 이루어 졌는지 구체적인 조치 과정을 설명해주셨다. 독일의 통일을 이끈 힘은 동독인들이 스스로 스탈린주의적 독재체제를 시위로 쓰러뜨리고 민주화 과정을 장악한 데서 출발한다. 이를 시발점으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개혁하고, 새로운 주를 구성하며 경제, 화폐, 사회부분에서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통일 조약을 맺었고 독일 통일의 주요한 역할은 서부의 다른 나라가 아닌 독일 스스로가 하겠다는 2+4조약까지 실현하였다. 독일은 이처럼 통일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비록 한 쪽에서 통일의 의지를 행동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이 약속이라도 한 듯 단결된 마음으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통일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이다.

독일의 통일이 특별히 대단한 이유는 당시 독일은 통일문제 해결에 대한 참고 서적이거나 교과서 같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통일의 행보를 밟았기 때문이다. 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란 것은 없었지만, 통일에 대한 염원이 항상 존재했었고 그 염원은 뜬구름이 아니라 독일 스스로 설계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가슴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실현이 가능했던 것이다. 물론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독일 통일의 모든 행보를 한국이 똑같이 밟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독일 통일을 참고서적으로 삼아 교훈을 이끌어 내어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 2. 군사 부분에서도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

요르크 쉐븐 전 베를린 내무 장관님은 하나의 통일된 연방 방위군을 조직하는 과정을 이끈 중심인물로 그 과정의 도전과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셨다. 독일의 통일은 누구나 기원하긴 했지만, 통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은 통일 바로 직전까지에도 부정적이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통일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독과 서독의 군사력도 통합되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민족의 단결심과 통일에 대한 염원으로 결국 통합에 성공한 것이다.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는 쉐븐 전 내무장관님의 경험담 중 신뢰형성에 관한 것이었다. 재정 지원이 규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서독으로 가는 조종사와의 영어교육을 지원 약속을 이행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통일에 있어서도 모든 일을 처

리 할 때에 진실함과 공정함을 통하여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도 군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느꼈다.

| 3.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 적절한 시기를 맞이한다면 통일은 가능하다. |

이홍구 전 국무총리님은 28대 국무총리 시절에 겪었던 남북관계의 경험을 근거로 통일을 이야기 해 주셨다. 한국은 패전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강제점령 아래에 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분단되었다. 국제정치의 부당한 처사 때문에 우리 민족은 분단의 아픔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비록 60년이 넘게 분단 상태에 있지만, 우리 국민이 한반도 뿐 아니라 외교적 상황을 잘 분석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독일 통일을 교훈삼아 노력할 때 적절한 시기를 맞이한다면 통일은 이루어 질 것이라고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한민국과 통일된 한국을 이끌어갈 우리 젊은이들부터 통일에 관한 의지를 키우며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홍구 전 총리님은 '역사는 예외지대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 독일 통일이 그랬듯이, 역사는 한반도를 통일의 방향으로 흐르게 할 것임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통일에 대한 염원과 구체적 실천 의지를 실현하여 언제 불현 듯 다가올지 모르는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통일을 이루기 직전까지의 과정도 어렵지만, 통일을 이룬 후에도 사회, 경제, 정치 통합을 위해서는 힘든 과정이 분명히 요구될 것이다. 북한에 체제전복이 일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또한 남한에 있어서는 경제적 혼란 때문에 통일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여론도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북한에도 시장경제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동독의 주민들이 그랬듯이 북한에도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포럼에서 배웠듯이, 통일은 결국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우리나라가 통일한다면 지금보다 더 강대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에 있어서도 통일 초반에 야기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는 기회비용인 것이지 결코 희생이나 경제 파괴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의 당위성에 더 이상 문제제기하지 말고, 언젠가 다가올 통일의 순간을 위해 항상 준비해야 한다. 또한 통일을 이루려면 우리 국민이 모인 어느 곳이든 어떤 시간이든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포럼은 통일이라는 미래에 대해 우리 대학생들을 각성시켜준 효과 좋은 각성제의 역할을 톡톡히 했고, 우리들이 통일된 한반도를 만들어 갈 통일의 주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우리에게 독일의 통일은 아직은 그저 부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여 때를 맞이한다면 한반도의 통일도 먼 미래의 일이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To be Reunified or Not to be, That is NOT the Question.

조문주

저는 항상 시대에 맞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그 시대의 사명을 위해 살고 싶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국권회복이라는 사명을 위해 많은 분들이 목숨까지 바치셨고 광복 후에는 자주적 국가재건 그리고 민주주의 확립이 우리 민족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적 사명은 선진민주주의 확립과 남북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맞게 미약하지만 저 역시 통일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꿈을 키워왔고 향후 전공을 살려 남북협력기금에서 일하며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통일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저에게 경제학과 친구들은 되묻곤 합니다. 그들의 요점은 '통일이 과연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효율적 보탬이 될 것인가'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반박을 하면서도 어느새 저도 모르게 통일의 효율성에 관해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다보니 저도 모르게 모든 일에 비용과 효율을 따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친구의 주장대로 어찌하면 더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대한민국이며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통일이 초래할 혼란보다는 당장의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북의 도발이 잦아들면서 북한에 대한 적대 감정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저 역시 점점 통일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게 되었고 이런 혼란을 가지고 한반도비전포럼 대강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강연을 통해 제가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 번 일깨우게 되었으며 이러한 의구심은 싹 사라졌습니다.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님의 '통일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일은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한 순간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도

당연한 일을 마치 선택의 문제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먹고, 자는 것 등과 같은 생리적인 일은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기 이전에 당연히 추구되어야 할 욕구입니다. 먹음으로써 비용이 발생하니 먹지 말아야한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사람은 없듯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통일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처럼 통일역시 우리 민족에게는 당연히 추구되어야 할 욕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하는 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당연히 통일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통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하는 것입니다. 강연을 들으며 제가 깨달은 '통일은 한민족의 당연한 기본욕구'라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마 설명 불가능 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모든 현상을 객관적, 과학적,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는 인간의 언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통일을 향한 우리의 열망도 이와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재학 시절 아침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전 태극기를 보며 알 수 없는 서러움에 눈물이 났는데 당시에는 친구들이 운다고 놀릴까봐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곤 했습니다. 이는 국가지상주의, 독재의 획일주의에 몰든 한 초등학생의 어긋난 애국심이 아니라, 태극기를 볼 때 마다 한민족의 기상이 담겨있는 태극문양이 보이지 않고 남북으로 갈려져 적색과 청색을 띠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모습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것이 제 속에 녹아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통일에 대한 열망일 것입니다. 단지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가 바빠서 그러한 욕구를 숨기거나 잊고 있을 뿐 우리 민족 모두에게는 그러한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를 탁상 공론할 것이 아니라 '통일은 무조건 해야 한다'에서 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러한 저의 말에 대해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한다고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국민들에게 있어서 통일문제야 말로 가장 감성적으로 접근해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홍구 전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민족 자긍심, 애국심'의 문제와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관심'과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선 민족의 '대의'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강연자 분들 모두 강조하신대로 통일비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홍구 전 국무총리님의 '헤어진 가족이 모이는데 비용 때문에 안 모이는 가족이 어디 있는가' 하는 말씀이 인상에 남습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가족이 억울하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일입니다. 만남 그 외에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통일의 비용과 효율성을 따지고 싶은 이들은 김선욱 총장님과 이홍구 전 국무총리님의 말씀대로 당장의 분단이 초래하는 비용과 분단 상황이기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의 효용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님과 요르크 쉐봄 전 내무장관님은 독일의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불가능해보였던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시민의 자발적 힘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통일에 관한 참고 서적이 없었기에 모든 것을 스스로 하나하나 시행착오적으로 해나가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사회 어디에서도 통일의 기운은 느껴볼 수 없습니다. 통일에 부정적인 사람들만 늘어가고 심지어 통일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님 말씀처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기에 북한에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가족들도 언젠가는 그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홍구 전 총리님이 말씀하신 역사의 흐름도 믿습니다. 역사는 결국 '자유, 민주' 라는 하나의 흐름을 향해 흘러왔습니다. 그 아무리 탐욕의 지도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에 대한 욕구도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도 역시 언젠가는 통일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독일과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에게 '독일 통일'이라는 하나의 교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지리학적 상황에는 차이가 나지만 분열되었던 민족의 다시 만남이라는 큰 틀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비전대강연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통일이 왔을 때 이를 잘 받아들이고 잘 풀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있느냐는 것입니다. 이홍구 전 총리님의 말씀처럼 준비는 요란한 것이 아니라 '관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남한의 통일에 대한 피로, 무관심'이라는 이전 총리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요르크 쉐봄 전 내무장관님께서 말씀해주신 동독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의 현장, 현실비극의 현장을 방문토록 하여 역사를 간접체험하게 했던 것의 중요성은 우리에게 하나의 방안 시사점을 마련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의 무관심으로 통일의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며 또한 앞으로 대한민국을 짊어져 나갈 젊은이들에게 통일의 정당성과 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저의 역할을 고심해보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 인물들과 한 시공간을 공유하고 나아가 그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신비하고 소중한 경험입니다. 이번 대강연은 제게 이러한 경험과 함께 제 사고의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해주었고 저의 미래를 좀 더 구체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연

마지막 즈음의 '독일 통일 후 라인 강과 바이마르를 내려다보며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황홀함을 느꼈다'는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님과 요르크 쉐봄 전 내무장관님의 말씀을 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흘렸던 부러움의 눈물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과거 분단 대한민국을 떠올리며 전 세계인들에게 통일한국의 벽참과 자긍심을 이야기하게 되는 그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아이들은 선죽교 위에 서서 우리 역사를 배우고 정몽주의 시를 읽고, 평양성에서 고구려 조상들의 기상을 느끼고 그리고 언젠가 저도 대동강을 바라보며 그들이 라인 강을 바라보며 느꼈던 형용할 수 없는 벽참과 설렘을 느끼게 될 날을 조심스레 상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비전포럼 강연 감상문

조아해

나는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지도 않으며, 통일에 대해 마냥 반기는 입장도 아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번 학기에 북한정치론을 듣고 있다. 내가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이제라도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북한에 대해 알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수강하게 된 것이다. 또한 다른 국가의 통일 사례에 대해서도 무지한 나는, 그나마 잘 알려진 독일 통일도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저 중, 고등학교 역사책에 두 세 줄로 간단히 언급된 정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독일 통일에 관한 지식의 전부이다. 그러던 차에 최대석 교수님을 통해 통일에 관한 한국, 독일의 인사들을 모시고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는 강연에 대해 들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이유들이 복합되어, 독일 통일에 대해서도 알 겸,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관해서도 생각해 볼 겸 이 강연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 강연에는 동독의 마지막 총리이자 변호사로 활동 중이신 로타 드메지에르님과 서독의 국방부차관, 내무장관을 지내신 요르크 쉐븐님, 한국의 전 국무총리이자 현재 통일고문회의 의장을 맡고 계신 이홍구 님,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으신 김선욱 이대 총장님께서 자리를 빛내주셨다. 특히 드메지에르님과 쉐븐님을 초대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동독과 서독 모두의 상황, 입장을 조화롭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고 그 기대는 어긋나지 않았다.

독일 통일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독일 통일이 되어 하나의 군대만을 가져야했던 상황에서, 동독의 군대와 서독의 군대를 조화롭게 하나로 통합한 것이 그것이다. 같은 독일인임을 강조하며 한민족으로서 서로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독의 군인들이 서독의 군인들에 비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하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간 것

은, 말이 쉽지 그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과연 군대뿐만일까? 분단으로 인해 멀어졌던 둘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군대뿐만이 아닌 다른 부분들에도 엄청난 노력과 신경을 썼으리라 짐작되었다.

그리고 통일의 문제에 있어 서독과 동독이 한마음이 되어 독일의 통일을 우려하는 주변국들, 특히 승전국인 4개국을 설득해 낸 부분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고 동시에 부러웠다. 요즘 다시 6자회담을 여느냐 마느냐로 한반도 안팎에서 시끄럽다. 정치에 무지한 나로서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6자회담에서 사실상 주인공은 남과 북인데, 조연의 입장인 4개국의 입김이 너무 센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연 우리에게도 통일의 기회가 찾아올 때, 독일처럼 주변국들을 잘 설득해서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부러움이 밀려 왔다.

강연 내내 과거 독일과 한반도의 상황은 다르다는 생각을 했다. 벌써 70년 가까이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와 달리, 독일은 이미 우리보다 20년 전에 통일을 했다. 또한 이흥구 전 총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거 동독에 비해 북한의 상황은 누가 봐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훨씬 심각하다. 그렇다고 한반도의 상황이 마냥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과거에 저질러진 과오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함이 아닌가. 그렇다. 우리는 독일, 예멘, 베트남 등 통일을 이미 이룩한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이 점은 분명 우리에게 있어 긍정적인 점이라는 것에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됐다.

사실 내가 통일을 걱정하는 것은 통일 이후의 사회적 문제 때문이다. 이미 너무 오랜 시간 분단되어 있었기에 과연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제대로 된 통합을 이룩할 수 있을까 싶다. 지난 학기, '다문화 사회의 이해'라는 강의에서 새터민에 대해 들었다.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경제적인 차이도 있지만 일단 새터민은 키에서 남한 사람들과 눈에 띄게 다르다고 한다. 이유는 '못 먹어서' 이다. 특히 경제난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극심해졌을 시기인 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이들은 남한 사람의 평균 키에 비해 10cm나 작다고 한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남성에게 있어 가장 중요시되는 외모적 요인은 누가 뭐래도 키다. 그 키가 남한 여성의 평균 키와 같다는 것은 북한 출신 남성들에게 있어서도 스스로 움츠러들게 될 문제이며, 사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도 차별당할 수 있는 요소들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외모적 부분을 예로 들었지만 과연 그 뿐일까? 경제적인 차이를 생각해도 막막하지만, 사상적인 차이를 생각하면 더 막막하다. 아무리 김정일 정권에 언더리가 난 북한 주민들이라고 할지라도, 70년 가까이 북한 사회

에서 교육 받고 살아온 그들이 한순간에 자유민주주의에 적응할 수 있을까? 과연 지금 당장 통일이 되고, 내가 북한 출신 남성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사랑이 중요한 거라며 기꺼이 승낙해주실까, 아님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리실까? 남한 부모들이 속물이라서가 아니라, 이건 어떤 부모라도 후자에 가까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즉,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로 인한 결과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먼저, 사회적인 차별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회의 통합을 저해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사회에 더 심각한 양극화를 낳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매우 걱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연을 들으면서 또 한 가지 걱정거리, 바로 통일비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덜 수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이원복 교수의 '먼나라 이웃나라-독일 편'을 봤다. 이상하게도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은 독일 연방정치의 배경도 아니며, 나치의 유태인 학살도 아니다. 다름 아닌 독일 통일의 이후였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독일 통일 후에 나타난 문제였다. 나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장밋빛 결과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우선으로 생각해보고 결정한다. 그래서일까? 독일 통일 이후에 나타난 긍정적인 모습은 기억에 거의 남지 않고, 부정적인 모습만 기억에 남았나 보다. 물론 꽤 시간이 오래 지나, 부정적인 부분도 장황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 그저 이 한 문장, '서독 주민들이 동독 주민들의 옷부터 갈아입혀야 했다'는 것이 뇌리에 박혔다. 이는, 서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떨어졌던 동독과 통일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이 만만치 않았음을 의미할 것이다. 현재 북한에 비하면 훨씬 잘 살았을 과거의 동독임에도 불구하고 서독 주민들이 동독 주민들의 옷부터 갈아입혀야 했다면, 남한 주민들은 북한 주민들의 속옷부터 갈아입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렇게 통일비용에 대해 우려하던 내 자신이 한없이 무지했음을 느꼈다. 젊은 나이에 군복무를 2년씩이나 할 남성들의 시간,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군대에 쏟아 붓는 비용, 매년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비용들을 생각한다면 당장 통일했을 시의 단기적인 비용은 속된 말로 '껌 값' 일 수 있음을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강의를 들으며 느꼈던 것은, 통일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통일 이후의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계획들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깨달았다. 또한 통일을 위해서는 남한도 변화해야하지만, 문제는 북한을 우리가 변화시켜야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세계는 하나라는 말이 나올 만큼 국가 간의 관계와 교류는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으나, 여전히 북한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부족한 지식이지만 추측컨대, 남한은 북한이 시장 경제를 도입하도록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북한은 매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

록하고 있고, 협동농장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시장경제의 도입을 극도로 꺼린다. 김일성 왕조가 북한을 통치하는 이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만큼, 시장경제가 북한의 체제 변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 이는 북한을 통일 쪽으로 한 걸음 가까이 하도록 만들 것이다. 물론 그 통일은 흡수통일에 가깝겠지만 말이다. 물론 꺼려하는 시장경제를 도입하도록 만드는 데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며,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것이지만 말이다.

사실 이 강연을 통해서 내가 통일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고는 할 수 없다. 아직도 통일이 되었을 때의 혼란, 사회 양극화 현상 등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강연을 통해 나는 독일의 통일 과정과 동독, 서독의 당시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다. 독일의 상황과 한반도의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되었으며, 과연 우리는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나가야 할 지 고민해보게 되었다. 또한 통일의 비용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만으로도 강연이 나에게 준 가치는 꽤나 컸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통일에 대해 어떤 변화된 시각을 갖게 할 지,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그 변화가 몹시 기다려진다.

비전大강연 참가 소감문

조은정

평화적 통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독일 통일 준비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알아야 했다. 평소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나에게 독일 통일의 역사적 현장에서 통일의 기쁨을 맛보았던 동독총리님이 강사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와 지리적, 국제적으로 다른 독일이지만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이끌어낸 과정의 이야기들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이번 통일부에서 주최한 '한반도비전포럼 2011'은 나에게 중요했고 이미 내 마음속에 '통일'이라는 단어로 인해 설렘과 함께 긴장감이 감돌았다. 독일의 통일 과정 속에서 한국은 어떠한 결론을 끌어내야 할지, 그리고 한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포럼에 참여하였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러 젊은이들 사이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더이상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통일에 대한 갈망이 점차 시들어진다면, 어릴 때 자주 불렀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 소리가 점차 사라진다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준비해야 하는 원천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위한 포럼 행사는 앞으로도 많이 생겨나 젊은이들에게 새 소망과 통일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계속 언급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였다. 나는 현재 대학생인데 내 주변에서 통일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우리가 함께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 이루어야 할 통일은 이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감을 비추는 사람들이 사실 많다. 독일의 경우에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통일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생각들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현재 독일은 통일을 이루어낸 국가가 아닌가? 한 민족이라는 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위해 계속 준비하고 기회가 왔을 때 준비한 것들을 풀어놓는다

면 그러한 생각과 여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한반도비전포럼 2011'은 나에게 새 희망과 가능성을 가져다주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열망하고 함께 뜻을 모아 앞으로 다가올 통일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 온 많은 사람들로 인해 내 마음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독일 통일의 경험을 밑바탕으로 삼아 한국에게 맞는 제도화된 통일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인가? 방향성을 다시금 살펴보아야 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이루어 갈 수 없는 것이 통일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미 많은 세월이 흐른 남과 북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달라졌다. 동독과 서독은 법의 질서뿐만 아니라 경제통합, 화폐통합 그리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가는데 중점을 두어야 했던 것은 그들 또한 서로가 많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독일 통일의 결정권은 동독 사람들 스스로가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로운 선거로 인해 성숙한 시민들의 참여로 인해 통일을 이루어 나갔다는 점이다. 그 후 독일은 지방자치 개혁 및 4+2조약을 통해 통일을 위해 과정들을 탄탄히 건설해 나갔다. 사실 독일은 처음으로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참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독일은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을 시켜야만 했다. 하나된 경제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였지만 서로 다른 법질서를 통일시키는 일, 군대의 축소, 주변국과의 관계 등이다. 독일은 내부적, 외적으로 문제들을 하나씩 다루어 가는 과정 속에서도 동독인들과 함께 나아가야 했다. 한쪽의 의견만 주장하는 것이 의미가 없었기에 동독인들의 자긍심을 세워주며 동독의 양질에 대한 능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한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비해 남한은 경제적인 성장과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국제적인 위상 또한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을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서로 조화와 함께 연대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통일을 이룩해 나간 독일의 경우에서 중요한 점이 '신뢰'였다. 동독과 서독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일도 필요했지만 주변 국가들에게 군사적으로 신뢰를 주어야 했다. 그래서 계약에 따라서 군을 축소시키는 일이 중요했다. 최소한의 방위만을 남겨둔 채 군을 축소시킨 일은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였다. 사실 우리 또한 통일은 남과 북 사이에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과 독특한 관계를 지니고 있고 지리적으로 붙어있는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6개국의 나라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주는 경험을 잘 분석하되 우리가 처한 상황들도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통일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 그 중에서 비용의 문제를 많이 언급한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장 분단비용만 따져봐도 실 이득은 통일 후 일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비용만으로 통일이 주는 수많은 장점들을 잠재울 수 있을까?

싶다. 왜냐하면 이홍구 전 국무총리님의 말을 빌리자면 “헤어진 가족들이 모이는데 비용으로 인해 안 모이는 가족이 어딴냐”는 것이었다. 그렇다! 비용의 문제에 앞서서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것이 우리를 통일해야 하는 주요한 이유가 아니겠는가? 우리 모두 계산기를 두들겨 이득을 취하기보다는 먼저 우리에게 통일이 왜 중요한가를 살펴보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 동포들을 떠올려 보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통일을 향해 준비하는 그 과정이 더욱 지혜롭게, 순탄하게 나아 갈 것 이라고 믿는다.

독일의 경우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준비를 많이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놓치지 아니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 우리 역시 언젠가 적당한 타이밍에 통일을 이루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차근차근, 조용하게 천천히 준비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적 기쁨의 현장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기대한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뜻과 지혜를 부지런히 한곳으로 모으는 단결력이 필요할 것이다. 나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이익을 살피면 우리 모두의 행복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 한사람이 자신의 위치에서 통일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치 않고 더욱더 관심을 가지며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독일 통일을 이루어낸 사람들은 통일을 갈망했던 시민들이었기 때문이다.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통일이 꼭 도달할 것이라는 의지를 가진다면 우리의 통일 역시 아주 먼 미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닌 곧 올 새로운 날인 것이다. 우리는 이제 날로 증가하는 새터민의 숫자만 보더라도 자유를 갈망하여 목숨을 거는 북한 동포들의 관심을 가지며, 이러한 자유의 갈망 속에는 통일이 속히 올 수 밖에 없기에 그동안 준비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한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통일을 향해 대응하는 일이 중요함을 다시금 깨달았다. 한 민족의 인권에 대해 내 스스로 한 개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실천의 방안들을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이번 한반도비전포럼으로 인해 내 마음 속 깊이 울린 감동과 희망은 나에게 통일에 대한 열망을 더욱더 깊이 심어주었다. 그렇기에 이러한 좋은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감사했다.

이제는 우리가 ‘공존’ 해야 할 시간

조은혜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반을 차지하는 ‘북한’으로 수련회를 갔었다. 17살이란 나이에 도덕 교과서에서만 보던 ‘북한’이란 나라로 2박 3일 간의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내게 굉장히 매력적인 일로 다가왔었다. 마치 같은 나라가 아니라 외국에 가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내 환상은 가이드와 같이 탄 버스에서부터 깨지고 말았다. 가이드는 17살 풋내기인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했다. ‘손가락질 하시면 안돼요. 지금 차창 밖으로 보이는 저 군인들이 동갑이라고 인사해도 안 되고 웃으면서 쳐다봐도 안돼요. 제 말 명심하세요. 정말 총 맞아 죽는 수가 있어요.’ 솔직히 그 곳에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지금 내 기억으로는 정말 맛있었던 꼬치를 사 먹는 일 밖에 없었다. 그 경치 좋은 금강산에서 사진 한 번 마음대로 찍을 수도 없었다. 목에 걸려 있는 내 사진과 내 얼굴이 맞는 지 확인하는 분께 인사 한 마디 건넬 수도 없었다. 도로에서 있는, 내 나이 또래라는 군인들에게 웃으며 인사 한 번 할 수 없었다. 아니, 그들의 발 끝 한 번 제대로 볼 수도 없었다. 그 때 이후로 나는 우리나라와 같은 언어를 쓰며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외면하며 살았다.

그리고 3년이 지나 어엿한 대학생이 된 나는 2011년 11월 18일 오늘 한반도비전포럼 비전대강연에 참가하게 되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통일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단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수업이 이 포럼과 비슷한 시간에 시작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나는 정말 듣기 싫은 수업을 피하기 위해 본교에 있는 김영의 홀에서 Receiver 이어폰을 끼고서는 ‘잠이나 자야지’ 하는 심정으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처음 들어보는 포럼이었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는 저 멀리 점처럼 보이는 연사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연사들의 소개가 끝나고 드디어 직접적인 강연이 시작되었다. 솔직히 Receiver를 끼고 번역투의 말을 듣는 것이 내게는 거북했다. 그렇지만 열심히 경청했다. 그 알아듣지 못 하는 독일어를 Receiver의 도움을 받아 듣고 이흥구 전 국무총리의 말을 다 종합하여 생각해 본 결과, 나는 정말 그 자리에 있기가 창피했다.

그랬다. 나는 나 스스로 통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했다.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의 말처럼 통일에 관련된 뉴스와 기사를 볼 때마다 '대체 왜 저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저 사람들과 교류하려는 거야!' 라는 못된 생각만을 했을 뿐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 그 과제를 해결하려 했다.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역사적인 의식은 손톱만큼도 있지 않았다. 오죽하면 통일에 찬성하냐는 설문지를 받아두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답변을 했을 정도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통일을 할까요? 말까요? 하며 찬반을 따질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해야만' 하는 의무의 문제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통일을 경험했던 독일의 사례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이흥구 전 국무총리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감한다. 물론 독일 연사들의 말처럼 동독과 서독의 통일 당시 상황과 지금 우리와 북한이 처한 상황은 현저히 다름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통일'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절대적으로 같지 않은가. 독일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언론을 많이 이용했다. 그렇게 언론을 잘 이용한 결과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했다. 결국 동독과 서독의 통일은 국민들이 이루어낸 것이다.

금강산 갔던 얘기를 위에서 소개한 바 있으니 한 가지 예를 더 들고자 한다. 그 당시 금강산에는 북한의 인재들이라는 김일성대학의 많은 학생들이 안내원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나는 우리를 인솔하던 선생님 덕분에 우연히 그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게 되었다. 날씨 얘기, 나이 얘기 등 사소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들 중 한 사람이 우리를 인솔하던 그 선생님께 이렇게 물었다. '올림픽은 잘 끝났나요?'

우리는 통일에 대해 절대적으로 무관심하다. 또한 우리의 형제로 마땅히 도와주고 보살펴야 할 북한에게 관심을 가지기는 커녕, 오히려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점에 이르렀다.(이 포럼을 듣기 전까지 나도 그런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다.) 그것은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북한과 우리는 다르지 않은가. 그들에게는 아직 자유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고 우리의 정세와 사회를 잘 알지 못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 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뿐인 형제와 다시 한술밥을 먹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통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생각하게 된 데에는 지금 우

리의 현 교육에도 이러한 포럼들이 잘 열리지 않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에 대해서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잘 배울 수 없는 현 교육제도를 좀 더 개선해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배우고 인식하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북한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자라나는 청소년,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

또한 통일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떠들어대는 부정적인 기사들 말고 통일을 하고 나서 우리가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통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교육하는 포럼이나 강연들이 많이 열렸으면 한다. 물론 많이 열리는 것을 넘어서 그러한 교육들이 있고 포럼이 있다는 홍보도 잘 되어야 할 것이다.

내 스스로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통일에 대해 인식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바꿔 준 이 포럼에 감사한다. 또한 이제 우리는 그들과 '공존'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한 뜻 깊은 말을 전해 준 연사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독일 통일 후 20여년, 2011의 한국

조주영

이번 비전포럼은 나에게 특별한 경험이었다. 평소 직접 보기 힘든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님과 요르크 쉐봄 전 내무장관님 그리고 유홍구 전 총리님까지, 유명인사 분들을 직접 뵈 수 있고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또한 입구에서부터 호기심을 일으켰던 동시 통역기를 처음으로 써볼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하였다. 통역기를 타고 흐르는 소리에 신기했던 것도 잠시, 타 대학, 기관에서 온 많은 사람들에 놀라면서 독일 통일에 관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듣게 되었다.

먼저 이번 강연을 통해 가장 놀랐던 점은 독일 통일에 동독 사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막연히 우리나라의 상황을 바탕으로 생각하던 나는 공산주의권의 동독사람들이 통일을 간절히 바라고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 매우 의외였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우위였던 서독이 통일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자연스럽게 흡수통일이 이뤄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동독인들은 스스로 독재정권을 끌어내리고 평화적 혁명을 통해 민주화를 이뤄냈다. 그렇지만 동독과 현재의 북한의 상황은 다르다. 북한은 폐쇄된 사회라 북한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오히려 북한 지도부의 모습만을 바라보면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독일의 통일 경험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움이 되지만 독일과 한국의 상황 차이를 고려하며 통일을 진행해야 한다.

솔직히 독일 연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독일은 참 통일 준비를 체계적으로 잘했구나’라며 혼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개혁, 새로운 주 구성, 경제·화폐·사회 통합, 군대해산까지. 그러나 전 총리께서 갑작스런 통일로 대응을 제대로 못했으며 한국처럼 철저한 준비는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셔서 새삼 통일의 대비에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정부가 통일시 시나리오와 북한 급변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물론 정부에서는 당연한 준비겠지만 든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된다. 과연 그 시나리오대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그 시나리오는 어떤 내용일지, 여러 의문점이 생긴다. 갑작스런 통일 기회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통일 이후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었다.

‘양 독일 국가는 “4+2”가 “2+4”가 되도록 투쟁하였다’, 굉장히 인상 깊은 부분이었다. 양 독일과 4개의 승전국들, 독일은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서 승전국들에 의해 자유와 공산 진영으로 나뉘게 되었다. 독일은 통일 과정에서 자신들과 깊게 관련되어 있는 4개의 나라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독일 통일에 따른 우려를 가라앉히고 스스로 통일을 이룬 것이다. 통일을 이루는 것은 외교적인 노력이 필수적으로 따른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외교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그 과정 중인지도 모르지만, 주변국들에게 한국의 통일에 따른 이점을 제시해야 하여 통일에 우호적일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부에 노력이 있겠지만, 미디어를 통한 일반인이 보기에는 정부가 그만큼의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전 동독 총리와 내무장관께서 말씀하셨다. ‘적기를 잡아라, 비용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한국인들은 통일비용을 걱정하여 통일에 대한 열망이 독일인보다 낮다는 글을 어떤 블로그에서 읽은 적이 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비용 걱정 에 대한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 우리가 엄청난 세금 부담을 안게 되고 우리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 될 것이다. 나도 그렇다. 그러나 현재 분단 상황에서 드는 물질적, 감정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통일비용은 우리가 꼭 걸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비용에 너무 연연해 하지말자, 통일을 위한 시기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를 위한 대비를 하자. 적기를 노리자. 통일에 대한 대비보다도 그에 딱 맞는 시기가 온다는 게 더 어렵고 하늘의 운인 것 같다. 유홍준 전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패전국이었던 독일과 달리 우리는 사실 승리한 입장이면서 이념 갈등에 의해 갈라진 억울한 경우이다. 한 나라가 철창에 의해 반으로 나뉘었고 가족이 서로 만나지 못한다. 사실 통일은 머나먼 미래의 일일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 포럼은 많은 생각의 여지를 던져주었다. ‘통일이 과연 내가 살아 있을 때 일어날까?’, ‘갑작스럽게 북한이 무너지면 남한도 위협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통일을 생각하던 나는 통일은 사회 모두가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노력하면서 이루는 것임을 이번 포럼을 통해 생각하게 되었다. 독일 통일을 생생하게 바로 그 자리에 봤던 이 분들처럼 우리도 38선이 무너지는 바로 그 감동의 순간을 다같이 공유하는 날이 오길, 평양을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란다.

소 감 문

조해니

20대에게 있어서 통일이란 어떠한 의미와 무게로 느껴질까? 마치 80년대 노래제목 '우리의 소원은 통일' 처럼 매우 윗세대들의 이야기 같기도 하다. 무언가 우리의 생활과 연관되지 않은 공허한 이야기 같기도 하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통일은 우리가 결국엔 맞닥뜨리고 풀어가야 할 과제이고 직면해야 하는 현실이다.

현재 우리는 대륙과 통하는 반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분단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우리 존재를 한정된 인식의 틀 속에 가둬두고 있다. 이런 장벽은 세대가 갈수록 점점 고착화되어 60년 이상 지속되면서 우리들은 이전의 한반도는 본래 하나의 국가였다는 인식과 느낌을 점점 망각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망각을 되돌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통일 하면 떠오르는 주요 이슈는 통일에 도대체 얼마만큼의 비용이 소요되며 그것을 어떻게 대비하느냐는 것이다. 이런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일들이 통일에 대한 구체적 준비는 맞다. 하지만 독일의 상황에서도 보듯이 통일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가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비방법 보다는 통일이 라는 기회와 마주했을 때 그것을 단박에 잡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우리의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들 중의 하나가 통일 이전의 상태를 상기시킬 수 있는 남북한 간의 지속적인 교류라고 볼 수 있다. 분단 이전 한반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사람들 간의 교류는 분단 이전의 한반도를 느낄 수 있게 하고 그것을 느낄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통일을 상상해 볼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교류를 만들 수 있는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실 경제적인 교류나 정치적 교류는 쉽게 틀어지거나 지속되기 힘든 주제이다. 남북한 끼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들이라는 변수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포럼에서 독일 통일 후 느낄 수 있었던 가장 좋았던 점이 무엇이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두 사람 모두 교과서에서나 배웠었던 서독 혹은 동독의 역사유적이거나 자연경관을 볼 때라고 꼽았었다. 이것은 남한과 북한이 분단 후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와 생활양식, 언어, 이념 등의 이질성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몇 십 년 이전까지만 해도 같은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는 하나의 국가였다는 동질성을 확인하는 것이 교류를 지속시킬 수 있는 최고의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이러한 요소를 확대, 발전시키는 방법이 어떠한 변수에도 쉽게 단절되지 않는 교류통로를 만드는 방법일 수 있다.

그렇다면 통일 후를 성공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와 요르크 쉐봄 전 베를린 내무장관은 동독과 서독의 통일정책 결정은 매우 어렵고 논쟁적이었지만 긴 협의의 과정 끝에 결국은 합의점을 찾았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현재 독일인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해준다는 것을 말하면서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948년 김구, 김규식의 제안에 따라 평양에서 열린 남북협상의 결과는 실패로 끝났지만 오늘날 해방 이후 남북간 협의의 시도를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듯이 우리가 통일이라는 상황에 놓였을 때 북한과 협력하는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하다. 어느 한 요소에 관해 우위에 있다는 점으로 일방적으로 따를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쌍방향적인 활발한 논의를 통한 합의점 도출 과정은 이후 통일된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동아시아에서의 역할을 제시해 주고 더 나아가 인류사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역할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결정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의 성공이나 실패 여부보다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서로간의 논의 하에 결론을 내렸다는 점은 후에 세계사에 하나의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는 것으로 평가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머지않아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하나의 모델을 다른 나라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

독일은 한반도와는 여러 다른 상황에 놓여있지만 분단이라는 우리와 공통된 문제를 먼저 잘 해결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제시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독일의 통일 결과를 한반도의 상황에 맞추어 보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통일국가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적 상황과 지리적 차이점을 잘 고려하여 하나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모습을 창조적이고 독자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비전의 제시만이 한국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요 남아있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한반도비전포럼 2011 비전大강연 참가 소감문

Dialogue with the World's Leaders

주세진

저는 지난 여름 방학 동안에 북방비전트립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국에 선교봉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3박 14일 동안 그 곳에서 탈북 여성과 중국 남성 사이에 태어난 국적이 없는 아이들을 위한 고아원을 다니며 일일 한글학교 선생님이로 봉사했습니다. 2주 동안 다녀왔던 중국에서의 경험들은 저에게 너무나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선은 북한의 국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통일에 있어서의 조선족들과 고려인들의 역할을 경시할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남한에 있는 우리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북한 사람들을 돕고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중국을 다녀오고 나서 이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한반도의 통일이 우리 세대에 이뤄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특성을 가진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중국이 공산당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에서 북한과 비슷한 성향의 국가라고 생각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을 통해 북한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향후 중국으로 교환학생 혹은 어학연수를 가서 그 곳에서 생활하면서 더욱 더 많은 것을 경험하며 배우고 느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최된 '한반도비전포럼 2011'을 통해서도 북한의 현실을 단순히 이해하거나 형식적인 통일 방식을 추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독일의 통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 이후의 한반도에 대한 모습과 비전을 구체화해야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2시쯤 포럼 장소에 일찍 도착해서 가장 앞자리에 앉아 강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포럼에 대한 사전지식이 적었기 때문에 어떤 연사님들이 초청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도 인정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신 이흥구 전 국무총리, 독일 통일 당시의 베를린 내무장관이셨던 요르크 쉐봄 연사님, 그리고 동독의 마지막 총리

이셨던 로타 드메지에르 연사님과 같은 초청 강사들의 대강연을 들을 수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드메지에르 연사님과 쉐봄 연사님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통일 현장 속에서 누구보다도 깊이 관여하고 공헌하셨던 분들이었기에 그분들의 생각을 가장 앞자리에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더욱 크나큰 영광이었습니다.

로타 드메지에르 전 총리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독일의 통일은 정부 간의 합의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체제 안의 동독인의 평화적 혁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만났던 탈북민들을 통해 접한 북한 현 체제의 모습은 너무나도 불안정해 보였으며 김정일의 북한식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고 있었고 북한 주민들의 경제관과 세계관은 변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주도적인 혁명을 통하여 통일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만난 것은 현지 북한 주민들이 아닌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었기 때문에 일부 북한 주민들의 편향된 모습을 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중국에서 바라보았던 북한을 생각하면 북한에도 독일과 같은 혁명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독일에서의 통일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확신을 갖고 독일이 통일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지만 통일은 결국 이루어졌으며 유럽에서 국제 정치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으로서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반도의 통일도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으므로 통일을 위한 준비는 더욱 더 신속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강연을 들으며 품었던 의문들 중에서 좌담회 때 김선옥 이화여자대학교 총장님의 질문하신 내용들이 있었는데, 한국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들에 대한 질문도 저로 하여금 더욱 깊이 고민하게 해서 좋았습니다. 연사님들께서는 통일비용에 대한 논란을 언급하시며 젊은이들의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요르크 쉐봄 장관님께서서는 동독에 있는 청소년들이 서독으로의 수학여행을 통해 분단을 체험하고 서방 국가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흥미로웠습니다. 역사적인 장소에서 공통된 역사를 되돌아보며 경험하게 해주고 공동적인 책임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을 위해 기성세대가 다리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는 이와 유사한 행사들이 성사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에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 북한의 청소년들이 수학여행으로 남한을 찾아올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저도 나름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했었지만 패널 위주로 이루어져, 질문 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강연의 시간은 불과 두 시간 남짓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많은 의문점을 그대로 안은 채 돌아가야 했습니다.

강연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사실은 통일까지 가는 그 과정 자체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자력이 필요한 일이겠지만, 통일 이후를 생각하며 더욱 더 구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형식적인 통일을 넘어선 진정한 통일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더욱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의 첫 걸음은 독일의 통일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제학부 학생으로서 국제정치, 외교, 경제, 국제경영, 국제법 등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학년으로 진학하면서 심도 있게 분야를 정해야 하는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에 있어서 정치, 외교, 경제, 경영, 국제법 등의 분야 중에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분야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제가 일하기에 가장 적합한지 고민됩니다. 비전大강연을 통해 저는 이런 제 고민에 대해서도 더 생각해볼 수 있었는데 연사님들을 통해서 본 독일뿐만 아니라 직접 방문하여 독일을 보고 배운다면 저의 진로를 정하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강연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었던 것처럼 한반도와 독일은 분단의 역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더욱 독일의 통일과정을 살피고 이해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따라서 저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데 독일 방문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독일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면 저의 인생을 통하여 한반도의 진정한 통일을 여는 역사적인 일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은 비단 촛불만이 아니다!

지혜연

| 서론(Introduction) : 설렘 |

통일부 상생기자단으로서 참석한 한반도비전포럼(KVF)은 제게 설렘과 호기심으로 다가왔습니다. 독일 격정의 변혁을 겪었던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와 요르크 쉐봄 전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주 내무장관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정에 없었던 무대 상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상석에 자리하는 순간, 나는 독일을 화합과 통일로 이끌어낸 노장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잔잔한 목소리에서 나는 두 분이 살아온 걱정적인 역사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본론(Body) : 살아있는 역사적 산 증인 두 분의 생생한 이야기! |

처음은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의 연설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통일을 향한 독일의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통일 한국을 지향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로타 전 총리는 주로 통일 독일 국가를 이루기 위해 거친 '행정적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해주었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분리를 상징했던 장벽이 붕괴되면서 그는 갑작스런 변화에 당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까지 몇 번 인민들의 항의와 시위가 있었지만 대부분 정부에서 규제와 강압적 조치로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독 인민들의 강렬한 열망은 결국 장벽을 허물었다고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줬습니다.

국민투표를 통해 새로운 인민회의를 구성했고, 그 정부에서는 독특한 임무를 띠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국영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정부는 행정권한을 발휘하고 가능한 한 유지하려고 했지만, 통일 독일을 마주하게 되면서 동서독이 함께 가지고 있는 주권을 조금씩 양보하는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동독과 서독이 가진 권력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각각 자주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통일을 맞이하면서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평화롭게 합리적으로 통일을 이끈 것은 행정 관료들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시작은 독일 국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평화적으로 이끈 공로 또한 양 정부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께서는 통합하는 과정에서 동서독의 가치가 다른 화폐에 대해서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1:1로 하게 되면 서독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화폐, 사회, 경제적 통합은 향후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도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르크 쉐봄 전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주 내무장관님의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요르크 쉐봄 전 내무장관님께서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군대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당시 가장 큰 목적은 동독의 국가인민군들을 해체하고 최소한의 보안을 위해서 서독 군인들을 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안보적 목적 아래에서 갖춰져 있던 무기, 탄약은 계속 줄여나가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력적으로 동독의 군인이었던 국가인민군들을 해체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국가, 군대, 민족”이라는 모토 아래에서 훈련을 통해 적응할 경우 직업군인으로 머물러 서독의 군대인 연방방위군으로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한정적으로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빠르게 불어온 통일이라는 거대한 바람 앞에서 맥 없이 흔들린 것이 아닌 차분하게 최선의 선택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전까지 통일이라는 과업을 이룬 나라 또한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따라할 수 있는 모델이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통일은 사회 전체 즉 정치, 경제, 문화 모두 혼란스러울 수 있는 시점에서 특히 군사를 통합하고 무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 결론(Conclusion) : 희망이 곧 전략이며 미래다! |

사실 저는 대학교 졸업 후, 북한전문기자 또는 통일연구원으로 일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만약 통일연구원이 된다면 통일 이후,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통일모델을 연구하고자 했습니다.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남북한 통일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타 전 동독 총리님과 요르크 전 내무장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통일 이후에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21C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은 이 사회적 비용을 염려하며 통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분야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과업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범한 가장 큰 오류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통일을 경제적으로만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통일비용을 지금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50년 ~ 100년의 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은 단지 추측만이 가능할 뿐, 예견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통일의 목표는 경제가 아닌 사회적, 민족적 통합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시간이 흘러 이익으로 전환될 분기점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비용을 이익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국민들의 강한 통일을 향한 사명과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중이 염려돼 통일을 비관하기 보다는 통일 이후 한층 더 단단해질 통일 한국의 위상에 대한 희망 말입니다.

희망은 꿈을 갖게 하고, 꿈은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를 만듭니다. 저는 이번 강연을 통해 “희망이 곧 전략이며, 미래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연구원이 된다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했던 목표를 벗어나 현재 청소년들에게 통일의 긍정적 메시지를 심어줄 교육적, 사회적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은 비단 촛불만이 아니며, 온 세상에서 쏘아올린 희망이 분열된 한국을 하나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비전포럼 감상문

차현정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해 점점 둔감해져가고 있으며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 역시 많다. 나 역시 이러한 젊은이들 중 하나에 불과했었기 때문에 통일을 하지 않고도 여유로운 남한에 비해 국제사회의 위협이 되고 미움을 사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좋지 않았다. 하지만 학교에서 최대석 교수님의 북한정치론이란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씩 북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점차 통일을 열망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교수님의 소개로 '한반도비전포럼'이라는 뜻 깊은 강연을 듣게 되었다.

독일 역시 남북한과 비슷하게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에 의한 동독과 서구연합에 의한 서독으로 나뉘어 독립된 정부를 갖고 있었다. 시작에 있어서 남북한과 독일은 다소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독일은 서독의 적극적인 노력과 동독의 의지로 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사실 독일의 통일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했으나 이번 포럼을 통해 어떠한 과정으로 독일이 통일을 이루었고 지금의 독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특히 로타 드메지에르의 강연을 들으면서 독일의 통일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독일의 통일 과정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좌담을 통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해 냈다는 것이다. 동독 정부는 동독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통일을 이룩하기로 결정하고 원탁회의를 통해 서독 정부와 협의하고 통일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현재 북한과 남한은 서로 대화채널 조차 존재하지 않아 오해가 많이 쌓이고 있는 현실에 반해 이들의 이러한 행동들은 정말 놀라웠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통일을 위한 서로의 최적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이 그들을 완전한 통일로 이끌 수 있었고 모두가 수궁 가능한 접점을 찾아내게 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아서도 통일에 있어 양 정부간의 많은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 지 새삼 깨닫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

재 남북한은 대화채널은 커녕 서로 적대적인 위치에 서서 비판하고 압박하기에 바쁘다. 이로 인해서 남북한 간 불필요한 자극과 오해는 쌓여만 가고 점점 서로가 멀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독일의 통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것은 양 정부 간의 많은 대화와 협조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남북한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대화를 하기 위해 서로 협조해야 하고 더 많은 대화채널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독일은 자신들의 통일이 완전하고 확고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국과 관련된 주변나라와도 협의를 하였고 자국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확신을 알릴 수 있었다. 2+4조약을 통해 먼저 독일의 통일을 전제로 한 뒤에 그 세부 사항이나 방법에 대해 나머지 4나라가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역시 현재 북한과 남한의 상황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현재 한반도의 상황을 보면 남한은 남한대로 미국에 의지하고 있고 북한은 북한대로 중국에 의지하고 있어 남북한 스스로의 힘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힘에 의해 서로가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타국에 의해 이끌리는 상황에서는 주체적으로 남북한이 나서서 협의를 통해 통일을 이루는 것이 더욱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 모두 미국, 중국에서 분리되어 주체적인 의사를 내세우고 남한은 미국이 아닌, 북한은 중국이 아닌, 남한과 북한이 함께 어려운 일을 해결해 나가고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독일의 통일에 있어 서독이 굉장히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행동했다는 것이다. 당시 경제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서독이 동독보다 평화롭고 안정적이었지만 소극적이고 다소 배타적이었던 동독에 반해 오히려 서독이 통일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었고 동독을 포섭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타국에서 봤을 때는 더 우세한 나라에서 통일에 앞장서는 것이 당연하게 보일 지도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쉽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굳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통일을 해야 할 필요성을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분단 당시의 세대와 멀어질수록 더욱 커져가기 때문에 현재 남한의 젊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와 당위성이 약해지고 있는 것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더더욱 빠른 시일 내에 남한에서 통일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현재 상황을 보면 통일이란 것이 정말 가능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화의 노력조차 없이 북한을 점점 멀리하고 등한시한다면 우리는 통일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통일은 누가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노력해서 함께 이름으로써 모두가 좀 더 나은 곳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하고

그중에서도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남한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통일에 대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의지를 이끌어내고 북한과 더 많은 대화와 타협을 이뤄나간다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열정적이고 뜨거운 그 순간을 한반도에서 재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한반도비전포럼을 통해 독일의 통일 과정과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이와 관련지어 남북한이 어떠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다소 멀게만 느껴지던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열정을 통해 차근차근히 해결해 나아간다면 충분히 이뤄나갈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던 정말 뜻 깊은 강연이었다. 앞으로 이러한 강연이 더 많아져 더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중요성과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반도의 적기(適期)와 적시(適視)

채재원

통일을 뜻하는 'Unification'은 'Uni' 즉, '하나'라는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로써의 결합을 의미하는 단어의 본 뜻과는 달리 '통일'에 대한 직관적인 인상은 우열이 명백히 갈리는 상황에서 강자에 의한 약자의 흡수라는 의미로 강하게 다가온다. 2차 세계대전 후 4개 승전국에 의해 분단된 독일이 그러했다. 80년 대 말, 자본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서독의 우월성이 점진적으로 입증되자 동독 또한 체제 변화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민주주의 구도를 기반으로 하는 서독 사회에 편승하게 되면서 45년간의 분단체제를 종식시켰다.

사실 관계 확인에 있어서는 비전大강연에서 마주하였던 독일의 통일 과정 또한 크게 다를 것은 없었다. 서독 체제의 우수성을 인지한 동독이 40여 년간 유지해 온 그들만의 정치 체제와 이념을 포기 하고 서독의 사회구조에 편승함으로써 흡수통일을 이룩한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특히, 와중 회자되었던 동독의 인민군을 재교육하고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서독의 막대한 자원이 투자되었다는 사실은 어떠한 면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이 더 요원하게 느껴지리만큼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그러나 연설과 좌담회를 통해 나열된 역사적인 사실 이면에서 이번 자리가 유독 특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동일한 사건과 환경을 해석하는 독일인들의 사고방식이 색달랐기 때문 이었다. 전 동독 총리와 전 베를린 내무 장관이 대변하던 양측의 이야기들은 독일인만의 통일에 대한 관점과 생각들이 강하게 묻어났다는 점에서 쉽게 매료 될 수 있었는데, 두 시간을 통해 내린 나름의 결론은 남북관계를 진척시키는 노력 이상으로 통일을 둘러싼 사실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로다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는 연설을 통해 민주화를 향한 동독 주민들의 적극적 움직임이 통일 독일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표출하였

다. 이는 그들이 불리하다고 느껴 질 수 있었던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독일을 위한 올바른 관점을 취했음을 알게 하는 대목 이다. 1980년대 후반부 국제 정세는 분명 단기간 고도의 경제 궤도에 오른 서독을 향하여 집중되어있었다. 스탈린식 공산주의의 한계가 드러나던 시점에서 동독 체제가 대면하는 위협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 이상으로 상당했을지도 모르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은 전체 독일을 위한 방향에 집중하는 현명한 선택을 함으로써 통일과정을 가속화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성장하는 서독에 대한 적개심을 느끼기 보다는 되려 그들 체제를 민중이 중심되는 성격으로 바꾸어 나갔으며, 평화로운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를 과감하게 받아들였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누려왔던 모든 권력과 이권을 양도해야 했고, 약 반 세기 동안 익숙해져 있던 모든 체제들(경제 구도와 화폐 까지도) 마저 뒤바꿀 수밖에 없었지만 새로운 독일의 필연성을 체감한 동독 주민과 정치인들에게는 사실 상 주요한 문제가 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동독이 서독에 편입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주목하는 반면, 그들은 당시의 정세를 적극적으로 타계할 방법을 모색하면서 내부의 개혁을 통해 통일시기를 가까이 앞당겼다는 면모는 현재 한반도의 상황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만약 당시 동독의 정치 지도자들이 체제 존속의 위협을 느낀 채 오히려 국제 사회와 서독에 등을 돌리는 정책을 취했다면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위기가 뚜렷한 상황에서 변화의 요청을 읽어낼 수 있었던 현명한 시야가 곧 현재의 독일이 있게 했고, 또 어떠한 타의에 의해서가 아닌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결과라는 자부심을 뿌려내리게 하였다.

예측 불허의 상황에서 통일을 맞이한 서독의 관점을 읽어내는 것도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해석하는 시야를 한 층 더 넓혀 주었다. 요르크 쉐봄 전 내무장관이 말하는 군사적인 통합은 독일 통일이 비교적 유연한 정치, 문화 환경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속칭 Hard Power 로 분류되는 무력의 영역까지도 완벽한 통합을 이루어 내었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역사적 사료와 증언이 밝히고 있듯, 당시 서독은 정치 체제, 이념, 경제력 등 국력을 구성하는 상당요소에서 이미 동독을 앞지르고 있었다. 자칫 통일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우리 편이 승리하였다' 라는 우월감에 도취되어 자만하기 쉬운 환경 이었음에도 군사력 통합까지 신속하게 이루어 낼 수 있었던 서독의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연방방위군의 입장에서 동독 측의 국가 인민군(NVA)을 통합하는 과정은 승자가 패자를 포섭하는 수준이 아닌 전 내무장관이 언급했던 문장 그대로 "독일인으로서 독일인에게 오는" 시간이였다. 동독의 국가 인민군이 서독의 연방방위군으로 재편성되어 들어간 사실을 보며 우리는 서독의 군사력이 승리한 Zero-Sum Game

의 방식으로 통일을 해석하였다. 반면, 독일인들은 동일한 사실을 마주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서 공동체를 이루어 낸 순간 이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한다. 누구의 승리가 아닌 합치된 독일을 위해 모든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 군사 재교육에 필요한 자금도, 동독의 낙후된 인프라를 위해 투자하는 비용도 과정 상 대면하는 사실일 뿐, 그들에게 아무런 쟁점이 될 수 없었다. 말투에서부터 주눅이 든다고 증언하는 탈북민이 많을 정도로 위화감이 상당한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관점으로 남북관계를 해석하는지 되짚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좌담회 도중 우연히 때와 시기를 뜻하는 'Chronos' 라는 단어가 짤막하게 언급되었다. 여담처럼 지나간 말이긴 했으나,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가장 명확한 답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에 준비를 할 수는 있어도 정확한 때에 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서독이 분단체제 하에서도 잦은 왕래를 유지했다는 하나, 통일은 그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시기에 갑작스럽게 도래하였다는 말이 새삼 와 닿는다. 우리는 6자회담, 7.4 공동선언, 개성공단 등을 통하여 통일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의 중요성 또한 부인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자리를 기점으로 통일을 위한 준비 과정 이전에 우리의 비전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독일 통일의 사례를 통해 잘 유추해 볼 필요가 있다. 가장 이상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본들, 우리의 시선이 통일된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사실관계에만 치중되어 있을 때, '통일' 이라는 목표는 분명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분단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들과 나아가서는 앞으로 마주하게 될 국제 정세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한다 하더라도 단편적인 사실에 빠지지 않고 통일의 안목에서 모든 상황을 올바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해야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방법론 적인 시각이 아니라, 통일이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대면하는 다양한 상황을 이에 맞춰 해석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셈이다. 이러한 적시(適視)는 당장의 결과로 나타날 수 없을지라도, 한반도의 통일에 유리한 시기가 다가왔을 때 이를 예리하게 포착해내어 그 흐름에 신속하게 편승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번 포럼은 독일 통일의 경험이 직접적으로 녹아있었던 만큼 통일 과정에서의 다양한 방법과 체제들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방식에 못지않게 기억해야 할 요점은 동서독 민중들과 정치 지도 계층이 그들이 마주하는 시기와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는 부분이다. 한반도 또한 반세기가 넘는 오랜 분단시기를 거치며 통일에 대한 다양한 방식을 논의해왔지만 매번 이데올로기, 체제, 입장의 차이에 묶여 상승기류와 하강기류를 오가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었다. 동서독이 '통일 독일' 이라는 전제 하에 그들의

시각과 판단을 유지할 때 통일 과정에서 야기되었던 비용, 체제 개편, 심지어는 군사력 재편성 까지도 모두 서론에 불과했으므로 그들이 설정한 본론, 즉 통일독일에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했다. 한반도의 통일 또한 남북통일을 전제로 하는 '적시'를 갖추게 될 때 어떠한 이해관계도 뛰어넘는 연속성을 가지게 되며 이와 같은 역량은 곧 적기가 왔을 때 큰 어려움과 갈등 없이도 통일을 진척시킬 수 있는 성숙한 자세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독일 통일의 행보를 통해 이끌어낸 한반도 통일 교훈

채재희

강연에 참석하기 전, 내가 과연 이 강연에서 남북한 통일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였다. 최근, 나는 남북한 통일에 대한 관심 증대로 여러 강연과 아카데미에 참석했지만 통일문제는 여전히 문제로만 남을 뿐 정확한 답을 제시해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강연은 독일 통일을 바라봄으로써 남북한 통일에 대해 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되어 많은 기대가 되었다.

우리는 대체로 남북한의 통일문제를 남측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어떻게 하면 남한의 노력을 통해 통일의 준비기회를 줄일 수 있는지, 북한에게 어떠한 도움을 줌으로써 혹은 그들과의 교류를 증대시킴으로써 통일에 다가갈 수 있는지. 모두 우리의 시선에서 바라본 문제들이다.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는 이러한 부분을 지적했다. 독일의 통일을 놓고 사람들은 항상 서쪽 방향으로, 즉 서독을 향해 시선을 두었지, 결코 동쪽을 바라보지 않았다고 하였다. 힘의 논리상 경제적 우위에 놓여있었던 서독 중심의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보았다는 점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우리 역시 이러한 관점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는 독일 통일을 이끈 사람은 서독인들이 아닌 동독인들이었다고 말한다. 물론 그가 전 동독 정권에 몸 담았다는 점에서는 이 같은 주장을 내비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과연 남북한의 통일이 이루어 졌을 때, 혹은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북측을 바라볼 것인가 라는 문제이다. 통일이 결코 한쪽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혹여 그것이 한쪽의 흡수 통일이 될지라도 그 안에는 서로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가 지적한 것처럼 단순히 남측만의 입장에서 통일 과정을 다루어서도 안되며 또한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통일이 한 측만의 노력이 아닌 서로의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일 방향의 시선과 노력은 결코 어떠

한 결과물도 가져올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독일 통일 후 무엇이 가장 만족스러웠냐는 질문에 “통일 후, 나의 고향에 돌아 갈 수 있어 가장 행복했다”라고 요르크 쉐븐 전 베를린 내무장관은 대답했다. 군과 관련하여 독일 통일의 현실적 문제 해결에 힘써야 했던 그에게서 나온 답변은 의외의 것이었다. 항상 이성적으로 관련 문제를 통찰했을 그의 답변은 너무나 감상적이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통일과 독일의 통일 모두 대표적 슬로건은 ‘우리는 한 민족이다’이다. 두 국가간 통일이 이루어 졌을 때 생길 이점을 고려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찌되었든 ‘한 민족’이라는 단어 아래에 뭉칠 것이다. 물론 통일에는 두 국가간의 이해타산이 맞물린다. 가령 독일 통일에 있어서 동독의 경제적 난국으로 인해, 혹은 통일이 되었을 경우 전 국민적 경제적 하향평준화의 예측 때문에 서독인들은 통일을 꺼렸다. 하지만 이들에게 이러한 점은 부차적 문제였다. 이 같은 문제는 동독과 서독간의 연대감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한민족, 연대감. 누군가는 너무나 피상적이기 때문에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동독과 서독, 남한과 북한 이들을 하나로 묶는 연결 고리는 결국은 감성적 측면이 될 것이다. 감성은 이성에 앞선다고 하지 않는가. 갑작스레 다가온 독일의 통일을 완성적 단계로 이끈 근본적 원인은 효과적인 정책 이전에 독일인의 뿌리깊은 연대감이었음을 강연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독일의 통일은 남북한의 통일에 있어서 청사진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들의 경험은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교훈과 성찰을 줄 것이다. 독일의 통일처럼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남북한의 통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언젠가는 한반도에서 통일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기약 없는 기다림이 아닌 통일의 도래를 위한 준비로 통일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이번 한반도비전포럼은 독일 통일의 경험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

발칙한 북한학도 최수지의 발칙한 상상 북한학도, 통일 디자이너를 꿈꾸다

최수지

| 하나, 분단과 통일을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 |

“독일에서는 분단을 겪지 못한 젊은이들이 통일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다. 동독에서는 12학년이 되면 서독으로의 수학여행을 갈 수 있었고, 서독 또한 연방 정부 프로그램 하에 동독으로의 현장체험을 다녀왔다. 분단 베를린을 방문함으로써 옛 세대만이 기억하는 역사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 공유의 교량이 필요하다.” 요르크 쉐봄 강연 中

나는 북한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각종 대북 현장체험을 많이 다녀왔다. 내가 여태까지 현장체험, 역사탐방, 취재차 다녀왔던 곳은 우리 쪽에서는 철원, 파주, 강화도, 백령도에서부터 중국 쪽에서의 압록강, 백두산 등이 있지만 정작 북한 땅은 한번도 밟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하지만 판문점에서 ‘평화의 집’ 내부에 38선을 넘었을 때 그 짜릿함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이른바 ‘선천성분단인식결핍증’을 앓고 있는 요즘 세대가 남북한 분단 상황을 극명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분단과 통일의 가치를 담은, 참신하고 다양한 스토리가 담긴 평화관광상품을 기획하는 것은 나의 목표 중 하나다. 이러한 점에서 강연 중 ‘세대 간의 분단과 통일의 경험 공유’를 강조했던 요르크 쉐봄의 말이 굉장히 인상깊었다.

| 둘, 통일에서 방송과 언론의 힘은 강력하다 |

“동독은 서독의 방송을 들을 수 있었다. 서독의 언론을 통하여 자유에 대한 갈망이 생겼고, 북한 주민들도 용기를 낼 시기가 올 것이다. 자유는 굶주림보다도 강력한 열망이

다.” 로타 드메지에르 강연 中

현재 나는 통일부 대학생기자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로타 드메지에르의 위와 같은 말을 매우 흥미롭게 듣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통일부 블로그에 한달에 5건 가량의 기사를 쓰면서 글의 힘과 언론의 힘을 실감했고, 특히나 최근 떠오르는 SNS의 위력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통일부에서 만든 ‘통일송’을 시작으로 통일을 말이 아니라 가락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에 신선함을 느낀 뒤, 열린북한방송을 통해 ‘라디오남북친구’라는 프로그램에서 북한에 보내는 7분 분량의 라디오 방송을 스스로 직접 기획, 원고 작성, 녹음, 편집까지 해서 만들어 보았다. 그리고 최근에 새로 생긴 통일부 통일방송에도 2번 출연하기도 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느낀 것은 남북한도 독일 처럼 방송과 언론 분야의 교류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03년 KBS ‘전국노래자랑 평양편’이나, 남북합작드라마 <사육신>과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우리가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 가장 많이 배워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독일에 가서 이런 점을 꼭 취재해 보고, 공부해 보고 싶다.

| 셋, 통일에는 상상력이 핵심이다 |

“한국에 북한학자가 있는 것처럼, 독일에도 ‘동독연구’의 형태로 통일을 공부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들은 독일 통일 현장에서 두 눈으로 지켜보며 많은 감명을 받았다. 독일 통일은 예상치 못하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 왔다. 한국 또한 통일 이후에 벌어질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한다면 바람직한 통일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요르크 쉐봄 강연 中

나는 북한학과 함께 ‘문화기획’을 연계전공하고 있다. 북한과 통일문제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이론적이고 테크닉적인 면보다도 기획적인 마인드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제는 정치외교적인 분야의 통일을 연구하는 것 이외에도, 각종 분야와 통일을 접목시킬 줄 아는 ‘통섭형 인재’가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통일문제를 통섭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며 통일에 있어서 마음껏 상상력을 펼쳐보고 있는 중이다.

한 예로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공모전에서 ‘통일을 모자이크하다’라는 아이디어로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이화여대 주최 역사통일평화 토론회에서는 8강까지 진출했으며, 얼마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주최로 열린 프레젠테이션대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스마트폰 기반 어플리케이션 개발 구축’을 기획하여 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과 통일 관련 논의에는 너무도 다양한 스토리텔링의 소재가 존재하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통일을 재미있게 상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독일에서는 이미

통일이 하나의 ‘축제’ 이자 ‘이벤트’가 되었다. 우리는 독일의 모습을 보고 분단이 깊어질수록 사라져가는 이야깃거리를 되살려내고, 미래의 통일로 새롭게 디자인(기획)해야 한다.

| 그래서 나는 통일 디자이너를 꿈꾼다 |

“통일을 하면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개성으로, 신의주로, 그리고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그리고 유럽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홍구(전 국무총리) 강연 中

지금까지 우리에게 대륙에 대한 상상력은 매우 제한되어 왔다. 하지만 여름방학이면 젊은이들이 기차 타고 유럽을 횡단하는 배낭여행을 떠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껏 제한되어 왔던 경계가 상상 그 이상으로 허물어질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상상력을 연습해야 한다. 상상력을 펼쳐서 통일을 디자인해야 한다. 중요한 사실은, 독일의 경험은 지금의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 독일에 간다면 |

1. 독일에서 통일 디자인 마인드와 통일마케팅 전략을 배워오고 싶다.
2. 현재 학교에서 듣고 있는 독일 통일 관련수업에서 배운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3. 기자로서 독일 통일현장 취재기사를 쓰고, 찍어온 사진과 영상을 SNS를 통해 전파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통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싶다.
4. 내년에 통일부 통일교육원 눈높이통일교육 강사로 활동할 때, 그리고 앞으로 내 꿈을 펼치는 데에 있어서 풍부한 소재들, 참신하고 다양한 스토리들을 얻어오고 싶다.

한반도의 통일미래 비전 강연 참가 소감

최지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불렀던 게 언제였을까. 아마 십년도 더 된,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시간이 흘러서도 이 통일이란 당연히 되어야만 하는, 하지만 너무 멀게만 느껴져 그 절실함과 현실감이 많이 떨어지는 추상적인 무언가로 다가왔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통일에 대해서, 그리고 분단이라는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만 이해할 뿐, 통일의 필요성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당장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민족적 과제로 인지하기엔, 우리는 지난 오랜 시간동안 북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에 너무도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 역시 북한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태도를 조금은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이기적이게도 이것이 미칠 여러 가지 문제들 - 사회통합, 경제적 여력, 행정개편, 정치적 충돌, 국제사회의 이해 - 등에 따라 당장 우리 현 세대가 부담해야 할 여러 짐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감당해낼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먼저 하게 되는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오늘 ‘비전대강연’을 듣기 전까지는 더욱 그러하였다.

‘독일’ 하면 가장 무엇이 먼저 떠오를까. 히틀러의 나치 독재 정권, EU소속의 강대국, 바이마르 헌법, 현재 유럽재정위기 확산방지에 힘쓰고 있는 메르켈 총리, 그리고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시작된 동독과 서독의 통일. 내가 자라온 시절에, 독일은 이미 쪽 통일국가로써 존재해 왔기에 독일이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였다는 사실을 크게 의식하지 못해 왔던 게 사실이다. 독일의 통일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베를린 장벽의 붕괴, 서독의 흡수 통일. 그리고 현재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유럽의 강대국으로 성장했다는 것 정도뿐이었다. 하지만 오늘 강연을 듣고 독일 또한 불과 20여년 전, 오래 지나지 않은 시간에 우리와 같은 분단 국가였다는 사실을 독일에서 오신 두 초청강사님의 입을 통해 직접 듣고, 또 보

다 자세한 과정을 전해 들으면서 처음으로, 통일이 당장 우리에게 직면한 어마어마한 시대적 과제라는 생각이 절절하게 들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의 연설 내용이었다. 동독과 서독, 40여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서로 다른 방향으로 치달았던 두 국가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이야기들은, 앞으로 통일을 기대하고, 또 이뤄내야 할 한국에 있어 그 어느 것보다 생생한 실제 선례이자,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개혁, 행정구역의 개편, 화폐통합과 경제 문제 통합, 국민들 사이의 사회통합, 국제사회에서의 주권 확보, 법 질서 제정 등은 두 나라가 함께 만들어 나갈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필수불가결한 사안들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 간의 이견을 맞춰 나가고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마찰, 양보와 화해가 있었을까. 현재 우리나라 상황으로선 상상조차 잘 가지 않는 어마어마한 일들이지만 이는 우리가 통일을 염두에 둬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 의례와 같은 일들이기에 이러한 내용들이 더욱 와 닿았다.

요르크 쉐봄 전 내무장관이 통일과정에서 군대가 가진 그 위치와 역할 등에 관해 이야기 해주실 때에도 평소 군사적 사안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지 못한 나로서는 매우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다. 또 이홍구 전 국무총리께서 독일과 우리나라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 해주시면서 각 국가가 처한 상황의 공통점과 차이점, 독일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바람직한 통일의 방향,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역할 등에 대해 통일을 '나'와 '우리'의 입장에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었다.

통일, 더 이상 우리의 소원에서 머물 일 만은 아니란 것이 오늘에서야 비로소 새삼 느끼게 되었다. 지금 남북한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 미묘한 것이 현실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남북경색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지목된 젊은 청년 김정은은 앞으로 북한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탈북자 관련 소식이 심심치 않게 신문 1면을 장식하는 요즘, 북한 주민들에게 동독 주민들이 직접 민주화혁명에 나선 것과 같은 기대를 걸어도 좋을까. 이런 북한의 변화를 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를 생각하면 통일이란 너무도 아득하고 추상적인 것으로만 느껴지지만, 나는 머지않아 남과 북이 통일 될 수 있으리란 믿음을 갖는다. 그 이유로는 오늘 초청강사님들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모두 담겨 있기도 하다. 가장 먼저, 북한 주민들 또한 자유를 갈망하고 있으리란 믿음이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과, 북한 체제를 분리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여러 공산주의 국가들의 민주화와 개방 등에도 북한이 거의 유일무이하게 현재 독재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립과 단절, 통제 때문이었다. 하

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다. 해외에 나가 여러 다양한 민주시민사회의 모습을 목도한 북한 엘리트들은 더 이상 북한 사회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 국경지역에서 불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와 우리 한류문화를 봐도, 북한 주민들이 조금씩 변화를 인지하고 있음을, 그들 역시 역사적 흐름에 따라 자유의 가치를 스스로 외치게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도와 욕구가 담긴 통일의 필요성이다. 남과 북 서로가 현재는 조금씩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같은 가치를 지향해 나갈 때, 이 시기는 점차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민족이 지닌 자긍심과 무한한 역량, 그리고 곧 하나로써 뭉치게 될 단결력을 믿는다. 우리는 한민족이라 하여 지난 반만년을 외세의 침략에도, 강대국의 압력에도 우리의 영토와 주권, 문화와 정신을 깨끗하게 지켜온 훌륭한 민족이다. 지금의 이러한 분단 상황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천, 수만년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과제는, 곧 머지않아 겪게 될 통일을 대비하여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앞으로 이를 직접 주도하게 될 젊은 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쉼보 전 내무장관이 언급하신 것처럼, 동독은 분단 당시에도 학생들을 수학여행으로 서독을 방문하게 함으로써 역사적인 사실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하고, 책임감과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한다. 이는 자라날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공부이자 경험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나라는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넘어 세대간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 통합의 위협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직접 분단을 경험하고, 통일에 대한 보다 강한 의무감을 가진 기성세대들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교량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면, 어찌면 시간이 더 흘러, 통일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힘든 과업쯤으로 인식 되어버릴지 모른다.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분단 현실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 들은 '비전大강연'을 통해 단지 유럽의 한 강대국으로만 느껴졌던 독일이란 국가가 우리와 역사적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게 신기했다. '어느 순간 보니, 통일이 다가와 있더라'는 독일의 이야기가 어쩔 이토록 몽클하게 느껴질 수 있을까.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 믿는다. 멀지 않은 시간에, 통일은 곧 우리의 '오늘'이 될 것이다. 우리 민족 모두가 이를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태도를 바탕으로 조금씩 노력해 나갈 때, 그 날은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으리라 바라본다.

한반도비전포럼 2011 ‘비전大강연’ 소감문

한건희

후발자의 이점이란 선발자의 여정을 통한 학습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선발자의 실수를 보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며 그들의 장점을 모방하고 따를 수도 있다. 통일을 준비하고 이루어 나가는 우리에게 독일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잘한 점과 시행착오를 검토하여 우리 사회와 비교하며 적용한다면 그것은 통일을 위한 좋은 준비가 될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에서 남한은 통일독일의 서독에 가까운 역할을 할 것이다. 당연히 이제까지는 독일 통일에 있어서 서독입장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연구된 인물들도 콜 총리, 겐서 장관 등 서독의 인사들이 많다. 그러나 남북통일의 상대국은 북한이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 남한만이 아닌 북한도 이해해야 하듯, 독일 통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려 한다면 동독에 관해서도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독의 총리 출신, 군인 출신 인사가 주축이 된 한반도비전포럼 2011의 이번 비전大강연은 통일을 준비하는 남한의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동독과 관련하여 큰 가르침이 되었다.

가장 신선한 것은 전직 동독의 총리와 동독의 군인인 연사에게서 서독 중심의 통일에 대한 패배감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흔히 독일 통일은 동서 냉전의 경쟁에서 서방의 승리이며 동서독간의 경쟁에서 서독의 승리로 상징된다. 그렇다면 연사들은 패배자의 위치에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여유롭고 당당한 태도를 통해 나는 동서의 통일은 서독의 승리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는 동서독 모두의 승리이고 또한 전 유럽의 승리라는 인상을 받았다. 독일의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 동독 출신이라는 사실도 떠올랐다. 통일된 독일에서 동독 출신, 서독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듯이, 통일된 한국에서도 북한, 남한 출신이 아닌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쉐븐 차관의 연설 뒷부분에 이런 말이 나온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말투에서 다른 사람들의 출신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은 동독과 서독의 차

이가 아니며, 어떤 주 동향인끼리의 특징입니다.” 최근에 한 모임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호칭에 대한 의견들을 들은 적이 있다. 그들은 “탈북자”, “새터민” 등의 많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런데 어떤 학자가 “북한이주민”이라는 호칭을 쓰자고 제안 하였다. 그 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을 ‘어디를 탈출한 사람’, ‘어떤 터에 새로 정착을 시도하는 사람’의 특별한 집단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나는 그 학자의 주장과 쉐롬 차관의 말에서 ‘부각 되거나 주목되고 싶지 않은 약자들’의 심정을 읽을 수 있었다. 통일의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잠재하는 자만심, 열등감, 우월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흔히 말하는 ‘사람의 통일’이라고 할까? 아무튼 진정한 통일은 체제나 경제만의 통일이 아니고 문화의 통일이고, 그를 넘어서는 감정에 있어서의 통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동독 출신의 두 연사의 모습을 보며 독일은 그러한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눈에 성과가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마음에 와 닿지도 않는 것을 위해 일하는 것은 참 지루한 일이다. 일에도 공부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통일에 대한 연구는 답답하고 때로는 지루한 연구가 될 수 있다. 연구가 씨먹을 데도 없는 것 같고 어떤 확고한 기준도 없으니 자기만의 논리에 빠지기도 쉬운 것 같다. 많은 통일 연구자들이 공감하는 바 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강연회에서 모든 연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길 “독일의 통일은 예상치 못한 시점에 급하게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이홍구 전 총리의 말에 의하면 통일 직전 까지도 서독 사람들은 남북한이 동서독보다 더 빨리 통일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고 한다. 물론 지금의 남북관계를 보면 이러한 말들이 우리 에게 와 닿지 않는다. 통일은 멀게만 느껴질 뿐이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니 연사들의 말이 “와 닿지 않는 진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1980년대 중반 누군가가 “독일이 금방 통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면 그들의 마음에도 그 말은 와 닿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우리의 반응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독일 통일은 왔다. 그러므로 “통일이 금방이라도 올 수 있다”는 말이 우리에게 와 닿지는 않을지언정 진리일 수 있다. 학자들에게, 운동가들에게,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오고 있다는 믿음! 그것이 설령 오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이 연구와 운동에 활력과 내실을 줄 것이고 그러한 훌륭한 연구와 운동 들은 실제로 통일을 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베를린 장벽은 동독인들에 의해 무너졌다. 로타 드메지에르 총리의 말에 의하면 그 근원에는 동독 기독교사상과 뿌리 깊은 시민사회가 있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에 동독에 원탁회의가 구성되고 선거를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시민사회가 있었기 때문

이다. 우리가 이러한 동독의 시민사회를 무시하고 독일 사례를 따라할 수는 없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시민사회 생성은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북한에는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한다고 해도 힘을 발휘할 역량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 내부를 통제하고 간섭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우리는 북한의 시민사회생성을 위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하고 결과를 내고 시도해야 할 것이다.

학자의 한사람으로서! 진정한 연구를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그 신념을 위해 돈과 명예 건강까지도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는게 학자이다. 쉐본 차관과, 로타 드메지에르 전총리의 연설을 듣고 정리를 하면서 북한학자로서 정리된 것이 있다. ① 북한을 연구하고 연구를 통해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고 와 닿지 않는 통일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② 민감하고 특수한 상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창의성이 필요하다.

새롭게 다짐한다. 진심의 토대 위에 믿음과 창의성을 재료와 기술 삼아 성실히 연구를 하자!

비전大강연 참가 소감문

한아름

비전大강연은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국가였던 독일이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냈는지 듣는 자리였다.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 요르크 쉐봄 전 내무장관, 이흥구 전 국무총리와 이화여자대학교 김선욱 총장의 좌담으로 강연은 진행되었다. 정치외교를 전공하며 북한학을 연계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나에게 독일의 분단과 통일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가까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들뜬 마음을 안고 강연을 듣기 시작했다.

로타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는 동독인의 평화적 혁명이 독일의 통일에 핵심적 역할이었음을 강조하며 '스스로 쟁취한 통일'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했다. 독일인들의 자부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모습이 부러웠고, 장차 통일된 한국 사회에서 남한 사람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도 독일인들과 같이 통일을 이루어낸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점에서 남한이 북한과 교류하며 경제적 차원에서 물질적 지원을 하는 것, 문화적 차원에서 예술 공연을 하는 것과 더불어 북한 사람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다는 의식, 그들이 스스로 자유를 얻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독려하는 방향으로의 통일정책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동독 전 총리는 독일인들 스스로가 통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정부가 어떤 단계를 밟아가며 통일을 준비하고 시작했는지, 그 과정에서 주변국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독일은 5단계 조치를 취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동력 증진, 신연방주의 새 구성, 경제·정치·화폐 통합, 법률 공간 만들기, 2+4조약이 그것이다. 그 중 2+4조약은 동독, 서독과 주변의 4개국에 맺은 조약으로 통일을 이뤄나감에 있어 자결권을 통해 동독과 서독이 스스로 통일을 결정하겠다는 의사가 담겨있다. 주변국은 어떻게 통일을 할 것인가만 결정할 뿐 통일 자체는 독일이 결정하

는 것으로 당사국이 통일과정에 직접참여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독일의 입장과 주변국의 동의로 이루어진 2+4조약은 현재 한반도의 통일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세이다. 현재 남한이 북한과의 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도는 적다. 북한과 대화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와 함께하는 경우가 많거나 그들을 한 단계 거쳐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북한과의 직접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민간차원의 소통의 장 마련과 함께 이미 마련되어있는 소통체계인 6자회담에서 남한의 역할도 생각해볼만 하다. 한반도의 북핵문제를 다루고 있는 6자회담의 행보에 따라 한반도의 분단 상황, 더 나아가 한반도의 통일 문제의 방향과 방법이 영향을 받게 된다. 때문에 6자회담을 2+4조약과 같이 남한과 북한이 지금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며 경색되어있는 남북 소통관계를 적극적인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북핵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더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들이 장차 남북통일의 문제에 있어 남북한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정도를 결정할 것이다.

요르크 쉐른 전 내무장관은 군부 차원에서 동독의 군인과 서독의 군인이 어떻게 하나의 군대로 편제될 수 있었는지 설명해주셨다. 세계대전의 주범으로 불린 독일 통일이 독일군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에 독일 스스로는 물론 주변국의 염려가 컸다. 동서독은 계약에 의해 점차 군을 축소하며 신뢰를 쌓았고, 국가인민군 해체를 위해 모든 직업군인을 해체하기까지 했다. 전 내무장관은 비용이 크더라도 양측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함·연평도 포격으로 남북의 신뢰는 금이 가고 불신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 그로 인해 남북한의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통일된 한반도를 세우기 위해서는 신뢰라는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 독일 전 내무장관의 말씀처럼 남한의 군과 북한의 군이 통일을 준비하며 통일의 범위 내에서 신뢰를 통해, 계약을 통해 충돌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요르크 쉐른 전 내무장관은 “통일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 나 역시 큰 사건에 대한 기억은 그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국민들을 포함해 그 나라 국민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나아가 다른 나라들의 시각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후대에 기억을 이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현재 독일이 어떻게 기억 및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기억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했다. 비전대강연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현재 독일의 상황과 미래 독일의 상황 즉, 독일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하고 싶었지만 시간관계상 질문하지는 못했다. 독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생각이 현재 통일을 위해 한반도가 취해야 할 자세와 한반도의 비전이다. 때문에 독일이 분단과 통일의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며

어떻게 기억하고 공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독일의 통일이라는 교과서를 무조건 따라하는 것은 잘못된 길이라는 것이다. 동독 전 총리는 독일에는 통일에 대한 교과서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교과서를 만들며 통일을 이뤄냈다고 했다. 우리는 평화적인 통일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독일이라는 교과서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엄연히 다른 시대 상황, 다른 지정학적 위치, 그 이외 독일과 다른 요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만 집중해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는 실수를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 중국이 서구의 많은 사상들을 자신의 논리와 길을 만들어가는 데 이용하는 것과 같이, 독일의 경우를 참고하여 한반도의 통일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방향으로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

비전대강연에서는 미래 한반도의 통일과 통일된 한반도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에 관한 이야기도 논의되었다. 분단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족정서, 애국심에 대한 호소는 물론 통일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게 될 새로운 사회, 새로운 한반도에 대한 가능성, 우리가 꿈꾸게 될 더 큰 내일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한민족 사회를 넘어 점차 다문화사회로 바뀌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며 우리 사회는 새로운 모습을 꿈꾸고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α에 대한 매력 요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평창이 분단의 아픔과 과거 한국의 모습을 어필했을 때와 달리 한국의 가능성을 아이콘으로 내세웠을 때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것과 같이 이제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요르크 쉐븐 전 내무장관이 독일 통일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할 때 사용한 만년필을 가져오며 느낀 그 떨림과 설렘. 그것을 남한과 북한 모두가 느낄 때 한반도의 비전은 시작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강연장에 들어갈 때와는 조금 다른 두근거림을 느끼며 비전대강연장을 나섰다.



○
비전大강연 소감문
○

③

독일 통일현장 후기



독일 통일 연수 프로그램 소감문

고병선

갑작스러운 독일 통일처럼 갑작스럽게 연수 소감문이 채택되어서 시험과 독일연수를 선택해야 했던 저는 확정보다는 직접 독일을 가서 독일이 통일과정 속에서 고민한 것을 느끼고 싶어서 과감하게 독일 연수를 선택했습니다.

베를린은 베를린 장벽을 사이에 두고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이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치 속에서 동독 주민들은 서베를린의 자유와 앞선 경제적 능력에 많은 동독체제에 대한 회의감을 가졌고 결국 자유와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동독을 탈출하였습니다.

분단 시절 동서독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었던 운터 덴 린든을 가로질러 베를린 지역을 지나가면서 구 동독 지역의 폐건물을 봤습니다. 구 동독 시절 잿빛 페인트에 획일화된 건물은 베를린의 비오는 날씨와 결합되어 스산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곳에 쓴다는 분홍색 페인트의 가스관이 도로 옆에 있는 모습은 잿빛 건물과 어울리지 않은 어색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날이 발전하는 구동독 지역의 모습은 희망찬 내일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현재 건물들은 서베를린 지역보다 동베를린 지역에 더욱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포츠담 플라츠의 경우, 폐허와 같았던 동독 지역은 연방정부의 계획 아래 신식 건물들이 세워지면서 도시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베를린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베를린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제가 본 베를린은 활기가 넘치는 모습이 많아서 더욱 발전 가능성이 많이 보였습니다.

베를린뿐만 아니라 베를린의 위성도시 겸인 포츠담, 작센 주의 주도 드레스덴, 우리에게 2006년도 월드컵 프랑스전이 열린 곳으로 유명한 라이프치히까지 예전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연수를 다녔습니다.

포츠담의 경우에는 책에서 보던 포츠담 회담이 열렸던 체칠리엔호프궁을 찾아 당시 회

의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66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그 장소는 영원히 회담했을 때로 보존시켜 놓은 것을 봤을 때 저는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분단되는 그 상황에 대해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통일된다면 남북이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4개 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어떻게 설득시켜야 하는가에 대해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독일도 우리와 같은 2+4조약을 체결하면서 통일을 달성했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조약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의 6자회담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통일이 상대국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세일즈”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연하게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연수를 갔다 온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독일에 있었던 시간에 이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습니다. 다가오는 2012년은 동아시아에 중요한 한 해입니다. 각 국의 지도자가 바뀌면서 통일환경 조성에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 질 수도 있고 아니면 통일환경에 불리한 조건이 만들어 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자유베를린 대학 한국학부 페니히 박사님과 함께 한 자리에서도 통일에 있어서 외교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분단이 비극적인 이유는 남북이 전쟁으로 갈려졌다는 데에 있다고 밝힌 페니히 교수님은 전쟁으로 인한 갈등이 심한 것이 문제지만 주변국들의 외교관계는 독일 보다 한반도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페니히 교수님은 분단국가는 외교적으로 종속관계를 유발시키는 이유라고 밝히면서 한반도가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위해 남북의 통일이 이뤄져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과제는 “관계정상화를 통한 남북의 교류”라고 말하신 페니히 교수님의 이야기를 꼼꼼이 되새겨봤습니다. 동서독의 경우에는 군사적 대립이 한국보다 낮은 상황이었고, 민족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지 않았으며, 70년대 초반에 동서독의 서신 교환으로 가족 간의 서신 교류가 지속 되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우호적이었습니다. 관계정상화는 남북한이 서로를 알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데 현재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해 북한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어서 대화가 단절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러웠습니다. 군사적 도발은 평화에 있어서 장애물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통일 이전에 한반도에 평화적 상태가 선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들이 통일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 나갔었는데 독일 통일에서 주도적이었던 동독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올해

11월에 일어 있던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7개 종교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종교계는 가장 비정치성을 띄는 집단으로 현재도 남북 비정치적 문화교류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동독에서는 교회가 지금의 SNS처럼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창구로써 이용되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종교계가 당의 지시를 받아서 유명무실하게 행동하고 있지만 종교계의 교류협력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류 보편적 권리인 자유에 대한 확산 노력은 북한 내부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 종교계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에 대해 널리 전파하여 북한 주민들에게도 인권이라는 개념을 정립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연수 기간 중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도시는 드레스덴입니다. 드레스덴은 아픈 상처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연합군의 공격으로 가장 많은 파괴를 입은 곳으로 동독 시절 복구를 하지 못하고 방치해 놓은 채 통일이 되었습니다. 통일이 된 이후에 EU 기금, 정부 기금, 연방 기금 등을 합쳐서 무너졌던 건물들을 다시 세워서 현재는 과거와 현재가 잘 융합된 도시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문화재 재건사업에 힘쓰고 있는데 제가 간 날도 문화재 복원공사로 인해 시설물에 대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문화재 재건에 노력한 점을 들으면서 우리의 통일과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우선 통일 후에 현재 관리가 소홀한 북한 지역 문화재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현재 역사문화재에 관한 남북한 협력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개성의 만월대 복구사업입니다. 개성의 만월대 복구사업은 5.24 조치 이후 중지 되었다가 지난달에 다시 재개한 사업으로 고려 문화재에 대한 복구사업입니다. 문화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인데 북한은 김일성 가족의 우상화 작업과 경제난으로 인해 문화재에 대한 투자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훼손된 문화재에 대한 청산작업도 우리에게 큰 숙제로 다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독도 훼손된 문화재가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란덴부르크 문 맨 위에 있는 승리의 콰드리카입니다. 승리의 콰드리카는 현재의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에서 존재 했었는데 그 이유는 동독에서 자신들의 방향으로 마차가 보이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해 서독 방향으로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통일 이후 서독은 승리의 콰드리카를 훼손하기 이전상태로 복원시켰습니다.

체제선전을 위해 문화재를 훼손한 것은 분명히 잘못 된 것입니다. 통일 이후 우리는 북한의 선전물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토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엉망이 된 사회주의 국가의 선전물을 반면교사 삼기 위해 남겨야 될 것인가 아니면 철거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면 통일 이후 심각한 논쟁거리

가 될 것입니다. 남남분열이 진행되지 않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토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독 출신 주민들은 현재까지 서독 지역 주민들에 비해 실업률이 2배 가량 높습니다. 또한 몇몇 지역에서는 개발되지 못해 불만이 있기도 합니다. 통일 이후에 개발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연방 내무부에서 강의 들었던 내용도 통일 이후 독일의 경제발전 과정이었는데 통일 이전 유럽의 경제대국이었던 서독이 잠시나마 경제가 위축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통일을 함으로써 분단비용이 폐지되면서 분단비용을 사회재건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발비용은 분단비용처럼 소모비용이 아닌 투자비용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비용 때문에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면 독일의 예를 들어서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전 동독지역에는 탄탄한 중소기업이 많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서 더 발전된 독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경우에는 미래 성장가치 산업을 의료 및 임상 기술을 핵심기술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어떤 산업을 육성할까 평소에 고민이 많았는데 구 동독지역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보면서 북한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했습니다.

일부에서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반대의 의견입니다. 값싼 노동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하는 것이지 하나의 민족이 합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에서부터 북한 주민들을 우리보다 낮은 주민들이라고 생각하면 사회적 통합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쉽게 통합되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한 주민이 동등한 관계에서 시작하는 통일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독일을 전적으로 탐구하여 적용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차이점은 연합국가와 연방국가 차이입니다. 연합국가는 중앙정부의 힘이 강하고 지방정부의 힘이 약한 반면, 연방국가는 중앙정부의 힘이 약하지만 지방정부의 힘이 강합니다. 연방국가인 독일의 예를 한국 정부에 옮기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질문에서 연수단이 교육문제를 이야기 했지만 독일의 경우 주정부가 독자적인 교육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어렵다는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힘을 행사하면 하나로 뭉쳐서 정책 추진을 하는데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통일 이후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독일이 급작스러운 통일 하면서 동독 지역에 대한 개발 로드맵이 없었던 사실을 생각 하면서 우리의 주도로 이뤄지는 통일에 대해서 지금부터 로드맵을 가지고 안정적인 통일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독일을 떠나면서 양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독일 통일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도 통일을 머나먼 미래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장 밀려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전공인 북한학을 잘 적용시켜 통일 시에 독일 연수 했던 것을 생각해 앞으로 통일 분야에서 중추적인 인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통일현장방문연수〉

통일,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

고우리

‘20대 개새끼론’을 들어본 적 있는가? 이는 정치며 사회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은 채 그저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에만 열중하는 젊은 대학생들에 대한 기성세대의 분노를 담고 있는 일종의 욕이다. 부끄럽지만 솔직히 나 역시 ‘희망 없는’ 20대였다. 최저 임금에 대한 교내 환경미화원들의 투쟁을 못 본 척 지나쳤으며, 등록금 시위 또한 나는 등록금 문제를 겪고 있지 않기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나에겐 이번 학기 학점, 교환 학생을 가기 위한 공인 영어시험 점수, 취업을 위한 인턴십만이 중요했다. 통일문제 역시 내 일이 아니기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사실 취업에 필요하지 않기에 즉, 내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에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야 맞는 말일테다.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빼고는 대다수의 일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통일을 실현가능성조차 모호한 막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 나에게 이번 독일 통일 현장 방문 연수는 통일에 관심을 갖게 하였고, 무엇보다 통일을 더 이상 막연하고 모호한 것이 아닌 구체적인 것으로 다가오게 하였다.

연수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후 처음에는 그저 독일에 간다는 사실이 즐거워 마냥 설레기만 했다. 하지만 이번 연수의 목적이 독일을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 독일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과거 동독이었던 도시들을 중심으로 관찰하는 것이라는 게 점차 생각나면서 걱정되기 시작했다.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독일의 통일을 보려니 막막하기도 했다. 이런 막막함을 극복하고자 이것저것 찾아보던 중 우연히 통일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다. 그 다큐멘터리는 북한 주민들의 인터뷰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그 인터뷰들은 나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 주었다. 그 중 나에게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인터뷰는 한 북한 주민이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그는 ‘어떤 방식의 통일을 원하냐?’는 질문에 북한과 남한이 각자의 체제를 유지

한 채 북한이 중국식 사회주의로의 개혁 즉,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한 채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원한다고 답했다. 통일이 북한의 자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로의 통합이라고 의심조차 하지 않던 나에게 그 북한 주민의 답변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통일은 분명 남한과 북한의 결합인데 나는 왜 무의식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어쩔 수 없이 떠맡아야 할 존재로 생각하고 북한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견은 고려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까. 왜 통일된 정부를 새로운 정부가 아닌 남한 정부로 그리고 있었을까. 그렇게 준비는커녕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부정되는 혼란 속에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만 한 채 독일 통일을 접하게 되었다.

독일에서의 첫 날 독일 연방내무부를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무부 관계자의 프레젠테이션 내용의 대부분은 통일의 경제적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아마도 내무부가 통일부와 협력 업무를 진행 중에 있어서 한국 내에서 '통일비용'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 듯 싶었다. 그 내용은 비록 통일로 인해 서독은 동독에 많은 지원을 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서독경제의 발전에도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즉, 통일은 서독과 동독 모두의 공멸이 아닌 공생으로의 길이었는 것이다. 비록 아직도 동독은 서독에 비해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그 만큼의 역할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원보다는 투자로 보는 것이 더 맞아 보였다. 이와 같은 독일의 사례는 아직도 '통일비용' 운운하며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더 멀리 보았을 때 '투자'로서의 통일의 모습을 제시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어 보였다. 우연이었을까.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내무부 관계자분은 우리에게 '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그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북한에 대해 아는 것이 통일에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현재 남북관계와는 달리 독일의 분단 시절, 동독과 서독은 어느 정도의 교류는 지속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독일은 서로에 대해 몰랐던 점이 너무 많아서 빚어지는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그렇다면 현재 교류가 전혀 없는 남북한이 통일을 맞았을 때 얼마나 큰 혼란이 벌어질까. 일부 관계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들은 북한을 김정일 독재로 인해 주민들이 굶주리는 곳 정도로만 인식 할 뿐 더 이상은 알지 못한다.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북한보다 우리와 교류가 많은 미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싶다. 전혀 모르는 상대방과 하나가 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를 통해 볼 때, 남한과 북한의 교류가 증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통일의 기본 전제조건처럼 보인다. 또한 그 교류가 정부 차원의 교류를 넘어서 민간 차원의 교류까지 확대된다면 통일은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현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뒷날엔 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과의 베르너 페니히 교수님의 특강을 듣게 되었는데 그는 독일 통일과 관련된 역사에서부터 통일 당시의 상황,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들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교수님께서서는 통일의 과정을 주로 다루시면서 독일이 통일 후 겪는 문제점까지 짚어주셨고 독일과 한반도의 차이점을 통해 한국식 적용을 강조하셨다. 이와 더불어 교수님께서서는 통일에서의 북한 주민들의 역할을 강조하셨다. 구동독 주민들은 민주주의를 경험한 역사가 있기에 '자유'에 대한 열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 결국은 독일 통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반면 북한 주민들은 일제 강점기 직후 바로 사회주의를 겪음으로써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자유'를 열망하지 않을 수 있기에 독일과 같은 북한 주민들에 의한 통일의 시작은 힘들 수 있어 보인다. 하지만 '자유'라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욕망인 만큼 북한 주민들도 가장 원초적인 먹고 사는 것이 나아지면 분명 자유를 갈망하게 될 것이다. 즉, 자유를 배우지 않아도 겪어보지 않아도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에 북한 주민들 역시 독재의 억압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진정한 자유를 외칠 날은 분명 올 것이라 생각한다.

강의와 더불어 이번 연수에서는 과거 동독에 속했던 드레스덴이나 라이프치히와 같은 도시들을 통해 통일 후 성공적인 발전을 해 나가는 좋은 사례들을 볼 수 있었다. 통일 후 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빠져나가 황폐해진 도시들에 다시 인구를 유인하기 위해 각 주마다 주거지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고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도시들에는 활력이 넘쳤다. 이렇듯 많은 부분에서 구동독의 도시들은 사회주의 시절의 암울함을 지워가고 있었지만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그들은 암울했던 과거를 일부러 지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들 도시 곳곳에서는 실용성만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식 건물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드레스덴에서 보았던 오페라극장으로 쓰이고 있는 건물은 TV에서 보던 북한의 건물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 아직도 그 건물과 건물 외벽에 그려져 있는 '노동자 단결'을 상징하는 그림이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잿빛 건물들은 통일 직후 죄다 다 사라졌을 텐데 독일에서는 나치시절의 건물까지 현재도 사용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암울한 역사는 지우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실수이기에 스스로 반성하려는 태도를 이를 통해 보여주는 것 같았다. 또한 구동독 시절에는 방치되었던 유물이나 유적들이 통일 이후 새 연방주에 의해 복원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거의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복원된 유물들은 각 도시의 관광객 유치에 특특히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도시들은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었다. TV에서 금강산 바위 곳곳에 빨간 글씨로 사회주의를 선동하는 글귀를 새긴 북한의 문화재 관리 현실을 본 적 있다. 그들에게 문화유적은 사회주의 그리고 독재체제를 선동

하는 데에만 이용될 뿐, 그 어떤 의미나 가치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다. 때문에 통일 이후 새로운 국가는 독일의 새로운 연방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방치된 유적지나 훼손된 자연들을 복원하는데 힘써야 한다. 단순히 관광자원의 복원에서 넘어 그 유적들과 자연은 한반도의 역사이며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과거로부터 받은, 미래에 돌려주어야 하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은 다른 독일의 유적 관리였다. 이들 유적들은 과거의 모양으로 새로 지어지기 보다는 기존의 자재를 그대로 이용하고 없어진 부분만을 새로 채워 넣었기 때문에 걸음으로 보기에는 매우 훌륭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시작만을 추구하기보다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부끄러운 역사라도 인정하는 독일인의 역사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듯 보였다.

이번 연수를 통해 독일의 통일과정에 대해 완벽하게 알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연수를 통해 독일의 통일을 보고 든 가장 큰 생각은 내가 통일을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했었다는 것이다. 동독 주민들의 더 나은 삶으로의 희망이 독일의 통일을 이루었다. 즉, 통일은 더 나은 한반도를 위해 함께 살아가자는 것일 뿐인데 통일을 너무 정치적으로만 바라보았기에 내가 손댈 수 없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 같다. 지금까지 나는 통일의 준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사회가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통일은 나 역시 대비할 수 있는, 준비해야 하는 한반도의 미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 차원에서 제도의 통합 역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도 속에서 살을 부딪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제도는, 사람들을 위하지 않는 제도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때문에 통일 이후 북한과 남한 주민들이 명목상 통일 되었으나 서로를 배척하고 함께 살지 못한다면 한반도가 진정한 통일을 이루었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내가 서있는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북한 주민들과 함께하는 삶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통일의 준비 아닐까하는 생각 말이다. 이에 나는 비록 정치적 통일을 준비하는 것에는 거리가 있지만, 통일 후 교육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해 보고 그려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할 통일에 대한 준비인 듯싶다. 내가 서있는 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미리 고민해보고 대처 방안을 생각해 둔다면 통일을 맞이하였을 때 어린 아이들 만큼은 진정으로 하나 된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통일이라는 미래의 새로운 삶에 대해 고민해 본다면 통일은 더 이상 모호하고 막연한 것이 아닌 구체적인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를 통해 우리가 통일의 선배인 독일보다 더 빠르게 완전한 하나의 국가에서 살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작은 꿈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독일 통일 교육 연수를 다녀와서...

김경준

통일부에서는 지난 2011년 11월 18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2011 한반도비전포럼 - 비전대강연>에 참석한 뒤에 소감문을 제출한 대학생들 중에서 우수소감문을 작성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5박 7일의 기간 동안 독일 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5박 7일 동안 베를린, 드레스덴, 라이프치히 등 독일 지역 일대를 답사하는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필자 역시 연수단원으로 선발되어 9명의 단원들과 함께 독일 통일 현장을 탐방하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왔다. 참고로 이번 연수의 목적은 우리처럼 분단을 겪었으나, 결국 통일을 이루어낸 독일을 탐방함으로써 앞으로 한반도의 남북통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 지 그 비전을 수립하는 데에 있었다.

필자를 포함한 대학생 7명과, 통일부 관계자 3명을 합쳐 모두 10명으로 구성된 연수단원들은 12월 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4층 통일부 소회의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일주일 뒤인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집결하여 그곳에서 다 함께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향하였다. 비행하는 시간만 10시간이 걸리는 장거리 비행이었기에 걱정스럽기도 하였는데, 독서와 영화 감상, 수면 등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었다.

독일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후 4시 50분 경(한국 시간 13일, 오전 12시 50분) 비행기는 무사히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간단하게 저녁식사를 한 우리는 다시 오후 6시 55분 발 에어베를린 비행기를 타고 베를린으로 향했다. 베를린 공항에 도착하니 현지 시각으로 오후 8시 5분이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미리 마중 나온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소속 박주용 조교 선생님과 알렉산더 페니히 선생님의 가이드에 따라 숙소인 세미나리스 호텔로 이동했다. 세미나리스 호텔은 베를린 자유대학교 내에 위치한 호텔로, 베를린 자유대학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학과는 달리 대학부지 안에 호텔, 상점, 민가가 드문드문 섞여있고 단과

대학들도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할 만큼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호텔에서 간단하게 저녁식사를 한 뒤에 우리는 여장을 풀었는데, 독일의 겨울은 낮이 매우 짧아서 해도 늦게 뜰 뿐만 아니라, 오후 4시만 되면 이미 저녁이 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을 위해 곧장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독일 연수 2일 차의 날이 밝았다. 이 날은 베를린 일대를 탐방하는 날이었다. 연수단이 첫 번째로 간 곳은 '이스트사이드 갤러리(East Side Gallery)'였다. 이곳은 베를린 장벽이 아직 남아있는 곳으로서, 남아있는 장벽을 거리의 예술가들이 화려한 그림 혹은 낙서를 통해 하나의 예술거리로 만든 곳이다. 유독 연수단원들의 이목을 끈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형제의 키스'였다.

1979년 10월 초, 당시 동독 정권 수립 30주년을 맞아 방문한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에리히 호네커 동독 공산당 서기장이 예상지 못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눴다. 당시 사회주의 국가 정상들은 세 번 포옹하면서 볼 키스를 나누는 '형제의 인사'를 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브레즈네프와 호네커는 너무 반가운 나머지 남자 정상들끼리 입맞춤을 해버렸다. 후에 러시아 화가 드미트리 브루벨이 브레즈네프와 호네커의 입맞춤을 해학적으로 묘사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형제의 키스이다.

우리는 베를린 시내를 이동하며 '티어가르텐(Tiergarten)'을 지나쳤는데, 이곳은 베를린 시내 중앙에 위치한 공원으로 한 가운데에 1864년 프로이센-덴마크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전승기념탑이 우뚝 솟아 있다. 기념탑 위에는 황금 천사상이 위치하고 있는데 밤에 보면 참으로 장관이다.

시간관계상 '홀로코스트기념비(Holocaust Mahnmal)'와 '토포그래피 오브 테러(Topography of Terror)'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참고로 홀로코스트 기념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비참하게 죽어갔던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비석들이고, 토포그래피 오브 테러는 나치의 만행을 전시해놓은 야외 박물관이다. 이처럼 독일은 자신들의 어두운 역사마저 드러내면서까지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고 청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 한반도의 동쪽에 위치한 일본과는 참으로 비교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은 '체크포인트 찰리(checkpoint charlie)'였다. 체크포인트 찰리는 독일 베를린의 베를린 장벽에 있었던 검문소로서 1961년부터 1990년까지 연합군과 외국인, 외교관, 여행객들이 동, 서베를린을 드나들 수 있었던 유일한 관문이었다. 지금도 검문소의 형태는 남아있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우리는 근처 증식당 '태화반전'으로 이동했다. 식사를 마친 우리는 바로 독일 연방내무부로 이동했다. 내무부를 방문하여 우리는 Eberhard Kuhrt 과장의 환대를 받으며, Michael Popp 선생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었다. 그 주요 내용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동독의 경제 상황과, 서독의 동독에 대한 경제 원조, 앞으로의 독일 경제의 전망 등 주로 경제 파트에 관한 것이었다. 통역 없이 오로지 영어로만 진행된 프레젠테이션이었기에 영어 공부 부족함 나로서는 상당히 힘든 시간이었다.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을 지금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약 5천억 유로(한국 돈 500조 원) 가량 쓰였는데, 아직까지 실업률 등은 예전에 비해 높은 상황이기에 앞으로도 꾸준한 경제 발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통일 과정에서의 경제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설명해주는 시간이었다. Popp 선생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많은 연수단원들이 열띤 질문을 하여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통일부 차원의 선물 전달식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나는 미리 준비해 간 '대한민국 안중근' 영문판 책자를 선물로 전달하였다. 안중근 의사는 순국 직전 중국 뤄순 옥중에서 '동양평화론(東洋平和論)'을 주창한 바 있다. 동양평화론은 한국과 중국, 일본 삼국이 공동 연합을 구성한 뒤에 공동 화폐를 이용하고, 평화유지군을 창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을 가장 먼저 실천한 곳이 바로 현재의 국제연합(UN)과, 유럽연합(EU)이다. 유럽연합의 일원인 독일에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알림으로써, 100년 전 한국에 이미 연합제를 주창한 위대한 선각자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연합제를 잘 이해할 독일과 함께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함께 수립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박주용 조교 선생님의 훌륭한 통역 덕분에 안중근 의사와 그가 주창한 동양평화론에 대해서 자세히 전달할 수 있었다. 특히 Kuhrt 과장은 현재 한독통일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기에 동양평화론이라는 이론이 한반도 통일비전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으로 작용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내무부 방문을 마치고 우리는 '박물관섬(Museumsinsel)'으로 이동하였다. 박물관섬은 독일의 각종 박물관, 기념관이 운집해 있는 곳으로서 이곳에 모인 박물관을 다 보는데만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우리는 이곳에서 가장 큰 건물 중 하나인 '페르가몬 박물관(Pergamonmuseum)'에 들렀다. 1930년에 완공된 이곳은 헬레니즘 예술의 꽃인 페르가몬 신전을 비롯하여 고대 그리스와 로마, 이슬람과 서아시아(근동)의 문화재들을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섬을 나온 우리는 '브란덴부르크 문(Brandenburger Tor)'으로 향했다. 이곳

은 독일 베를린의 상징적인 문으로서 우리나라의 승례문 혹은 광화문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곳을 경계로 동, 서베를린이 나누어지기도 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앞에 베를린 장벽이 있었으나 통일 이후 장벽이 붕괴되면서 이곳엔 아무런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브란덴부르크 문을 지나 우리는 세미나리스 호텔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만난 베를린에서 연수중이신 통일부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통일은 반드시 온다. 너희들은 통일의 주역이다. 미래를 대비하라”고 강조하셨다. 이 자리에서 나는 ‘햇볕정책’의 효용성 문제를 거론하며 “남과 북이 가장 평화롭다고 하던 김대중 정권 시절에도 서해교전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결국 이러한 정책이나 정상회담 합의 등은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남북 분단의 현실이다”라며 우리나라 분단의 뼈아픈 현실에 대해 강조하셨다. 독일에서 또 하나의 소중한 인연을 만난 것 같아 매우 뿌듯했으며, 아울러 통일시대의 주역은 우리 젊은이들이라는 생각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독일 연수 3일 차의 날이 밝았다. 이 날은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베르너 페니히 교수님의 특강을 듣는 날이었다. 호텔에서 10분 정도 걷다보면 소박한 건물 하나가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한국학연구소 건물이었다. 입구에 있는 장승과 건물 내에 있는 한국 지도, 도자기, 그림 등을 보고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었다.

깔끔한 인상의 베르너 페니히 교수님은 한국말로 인사를 하며 들어와 독일어로 한국과 다른 독일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과 함께 독일 통일과정과, 한국이 지향해야 할 통일 비전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해주셨다. 특히 경제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통일비용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분단비용부터 걱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따끔한 일침을 하셨다. 통역은 우리의 가이드이기도 한 박주용 조교 선생님이 해주셨다.

강연이 끝나고, 페니히 교수님께도 ‘대한민국인 안중근’ 영문판 책자를 전달해드렸는데, 페니히 교수님은 이미 안중근 의사에 대해 아주 잘 알고 계셨다. 더욱이 동양평화론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셨다. 그분은 통역을 통해 안중근 의사를 일컬어 ‘평화를 위해 테러를 실천한 슬픈 영웅’이라고 하였다. 슬픈 영웅이라는 단어가 공감되면서도 유독 슬프게 들렸다.

점심 식사를 한 뒤, 우리는 곧바로 포츠담으로 이동했다. 포츠담은 동독 지역으로, 포츠담으로 이어지는 ‘글리니크 다리(Glienicker Bruecke)’에서 사진을 몇 장 찍었다. 이 다리는 냉전 시대 때 동, 서독 스파이들의 맞교환이 이루어지던 곳이다. 글리니크 다리를 지나 포츠담으로 진입하면서, 사회주의적 면모가 물씬 풍겼다. 통일이 된지 20여년이 지났건만, 동독 지역들은 여전히 사회주의적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사람들의 모습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빈 건물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이 지역은 집세가 아무리 싸도 사람들이 들어서지 않으려고 해 폐가로 남아있었다. 동독에서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명물은 '트렘'이었다. 트렘은 옛날 우리 전차와 비슷한 개념인데 동독에서만 운행하던 교통수단이라 지금도 동독 지역에서만 운행하고 있었다.

포츠담으로 진입한 우리는 가장 먼저 '상수시 궁전(Palace of Sanssouci)'으로 이동하였다. 이곳은 프로이센의 정복군주이자 계몽군주였던 프리드리히 2세가 머물렀던 궁전이다. 18세기 중세에 지어진 대표적인 로코코 양식의 궁전으로 궁전 밑에는 포도밭이 있는데, 이곳에서 만들어진 포도주가 또한 일품이라고 한다. 참고로 상수시란 말은 '근심 없는'이란 뜻으로, 프랑스어인데 프리드리히는 독일 프로이센의 군주로서, 독일인이 가장 존경해마지 않는 대왕이지만, 그 스스로는 프랑스 문화를 너무나 사랑하여 프랑스 문학, 프랑스어, 프랑스 양식만을 사용했다고 한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상수시 궁전 옆에는 프리드리히 2세의 무덤과 그가 아끼던 개들의 무덤이 있었다. 사람에게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끼던 프리드리히 2세는 그가 아끼던 개들과 함께 묻히길 원했다고 한다. 무덤 양식도 독특했지만, 개 무덤이 옆에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프리드리히 2세 무덤 위에는 항상 감자가 놓여있는데, 이는 프리드리히가 감자를 매우 사랑했기 때문이다. 프리드리히 2세는 감자를 독일에 들여온 최초의 군주로서 '악마의 열매'라며 감자 먹기를 거부하던 백성들에게 구황작물로서 감자를 먹이기 위해 몸소 감자를 먹으며, 궁전 밑에 감자밭을 일구어놓고 백성들이 흠쳐 먹을 수 있도록 경비병들에게 경비를 소홀히 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애민군주였다. 그런 프리드리히를 기리기 위해 방문객들이 항상 감자를 놓는 것이다. 겨울인데다가 비가 와서 우리가 왔을 때는 감자가 별로 없었으나, 평소에는 감자가 산처럼 쌓여있다고 한다.

상수시 궁전을 관람하고 나오는데, 박주용 조교 선생님께서 입구의 유랑 악사에게 "돈을 주며 아리랑이라고 해보라"고 주문하시기에, 열심히 피리를 불고 있는 악사 앞으로 가서 동전 통에 돈을 넣고 "아리랑!"이라고 외치니 악사가 "아~ 아리랑!"하면서 아리랑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머나먼 타국에서 듣는 우리 아리랑의 곡조에 모든 연수단원들이 감동을 받은 듯 했다. 나 역시도 너무 감격스러웠다.

상수시 궁전을 나온 우리는 '체칠리엔호프 궁전(Schloss Cecilienhof)'으로 이동했다. 이곳은 독일의 빌헬름 황태자와 그의 아내 체칠리엔호프가 머물렀던 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무렵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포츠담 회담장으로 사용되었다. 이곳은 소련의 스탈린이 마련한 회담장으로, 각 국 지도자들의 취향에 맞는 집무실이 마련되었고 동등한 입장을 위해 출입 시 서로 다른 입구를 통해 들어왔다고 전해진다. (중국 장제스

의 집무실은 없었다.)

참고로 포츠담 회담을 통해 발표된 선언은 우리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바로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와 한국에 대한 독립이 확정된 선언이기 때문이다. 마냥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은 이곳에서부터 우리 한반도의 분단이 시작될 조짐이 보였으니 비운의 역사 그 현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은 기후가 변화무쌍한 곳이다. 비가 짙짙 내리는데, 날씨가 변화무쌍해 결코 안심할 수 없었다. 우산은 필수인데, 독일인들은 이런 기후에 익숙한지 비가 짙짙 오면 우산을 잘 쓰지 않는다. 우리는 포츠담 회담장을 나와 다시 베를린으로 이동해 쿠담 거리에서 1시간 정도 기념품을 사는 등 쇼핑을 한 뒤에 한식당인 ‘궁전’으로 이동하여 한식으로 저녁을 해결했다. 오랜만에 먹는 한식이라 참으로 맛있게 먹었는데, 김치는 외국인들이 마늘 냄새와 젓갈 냄새를 싫어한다고, 마늘과 젓갈을 일체 쓰지 않아 우리 입맛엔 멍멍하기만 했다. 따라서 김치찌개도 싱겁고 별로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식이었기에 그 어느 날보다 열심히 먹었다.

4일 차의 날이 밝았다. 오늘은 드디어 베를린을 떠나 드레스덴으로 이동하는 날이다. 드레스덴은 동독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베를린에서 남쪽으로 2~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아침 일찍 준비한 우리들은 전용버스를 타고 드레스덴으로 이동했다.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 15분 동안 휴식을 취했는데, 독일에서는 15분 휴식이 의무라고 한다. (버스에 기록이 된다고 했다.)

사회 복지 면에서는 정말 한국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다는 것을 느꼈다. 연수 기간 중 박주용 조교 선생님으로부터 독일의 복지제도는 정말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우리나라보다 세금을 내는 비율이 상당히 높음에도 복지가 잘 되고 있으니, 오히려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이 득표를 하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풍토인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복지나 세금정책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한다는 반증인 것 같아 씁쓸함을 느꼈다.

드레스덴은 베를린이나 포츠담보다도 훨씬 인상 깊은 도시였다. 아무렇게나 찍어도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인 양 멋진 장면이 연출되는 도시가 드레스덴이었다. 드레스덴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본 건물들은 드레스덴 성과 성당이였다.

드레스덴에 있는 옛 건물들의 특징을 보면, 중간 중간 불에 탄 것 같은 흔적이 많았다. 이 모두가 폭격으로 그렇게 된 것이었다. 같은 건물들을 복원하는 독일인들의 태도에서 그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데, 폭격으로 전부 불에 타서 없어지거나 벽돌 몇 개만 남은 것을 옛 그림과 일일이 대조하여 원 위치에 놓고 나머지는 새 벽돌로

때꾸어서 옛 문화유산이라면 벽돌 한 개라도 보존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문화 유산에 대한 애착이 참으로 존경스러웠다.

우리는 드레스덴의 ‘츠빙어 타이크 궁전(Der Zwinger)’을 방문했다. 츠빙어 궁전은 드레스덴의 상징적인 건축물중 하나인데 작센(Saxon) 바로크 양식의 대표적인 건물로 내부에는 미술관, 도자기 박물관, 역사박물관, 동물학 박물관, 수학/물리학 박물관 등이 있었다. 이 궁전은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지어졌다고 한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폭격으로 인해 거의 파괴되었으나, 다행히 궁전 내부에 보관 중이던 유물들은 미리 대피를 해서 안전했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드레스덴은 동독에 속하게 되었는데 동독 정부는 폭격으로 폐허가 된 드레스덴의 대부분의 건물을 밀어버리고자 하였으나, 드레스덴 주민들이 파괴된 건축물의 복원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복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곳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우리는 ‘프라우엔 교회(Frauen Kirche)’로 향했다. 이곳 역시 전쟁 당시 폭격으로 모두 붕괴되었으나, 독일인들의 집념으로 새로 복원한 것이었다. 프라우엔 교회 앞에는 종교개혁의 선구자이자, 개신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마르틴 루터의 동상이 있었다. 루터는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는 95개조 반박문을 써 붙이면서까지 로마 교황청과 투쟁을 벌이다가 교황의 미움을 샀으나, 독일 작센 공의 보호를 받으며 종교개혁을 시도할 수 있었다.

드레스덴 문화유적지 일대를 둘러 본 우리는 도보로 숙소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체크인을 하자마자 곧바로 여장을 풀고 내려와 ‘군사박물관(Militärhistorisches Museum)’으로 향했다. 군사박물관은 1999년 독일건축가상을 수상한 유대인 건축가 다니엘 리베스킨트(Daniel Libeskind)가 설계했다. 전쟁의 참상과 오도된 군사력의 폐해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들이 전시되는데, 건물이 참으로 독특했다. 내부로 들어가면 울퉁불퉁하고 정신없이 꼬여있는 통로로 인해 사람들이 현기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건축가가 일부러 그렇게 지은 것이라고 한다. 유대인 출신이니만큼 나치 독일이 유대인에게 한 만행의 역사를 살펴보는데, 이런 고통의 역사를 편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건축한 것이라고 한다. 건물 하나에도 장인의 정신이 서려있는 뜻 깊은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었다.

군사박물관 본관에는 중세 말기부터 현재까지 독일군의 무기, 장비, 복식, 문서 등이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었다. 이 박물관에서는 1, 2차 세계대전과 냉전시대를 거치며 군사대국에서 무장해제의 과정을 밟아온 독일군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박물관 전시물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전시물은 히틀러를 악마처럼 묘사한 포스터와, 실제 나치 독일

의 장교로서 교수형을 당해 죽은 이의 군복이었다. 어두운 전시관에서 히틀러의 섬뜩한 웃음과 죽은 이의 한이 서린 것 같은 군복을 보고 있자니 소름이 돋았다.

군사박물관을 나온 우리는 식당으로 이동했다. 오랜만에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며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식사를 마친 우리는 독일 전동차인 트렘을 타고 크리스마스 장으로 이동했다. 독일에서는 지금이 우리나라의 명절 시즌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큰 명절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상점들도 일찍 문을 닫는데, 우리가 간 크리스마스 장은 일종의 전통 재래시장으로 5일장 등의 개념을 생각하면 됐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문을 여는 전통 장으로, 이곳에는 정말 많은 상점이 있고 또 많은 독일인들이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따뜻한 와인을 마시며, 즉석 음식을 사먹고, 크리스마스 장식을 위한 쿠키나 케이크, 그릇, 양초, 별 장식을 구입했다. 쇼핑을 마친 우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다.

드디어 공식적인 독일 연수 프로그램이 끝나는 마지막 날의 아침이 밝았다. 오늘은 아침부터 바빴는데, 드레스덴에서 라이프치히로 이동했다가 다시 베를린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오전 7시 40분 경, 우리는 전용버스를 타고 라이프치히로 이동했다. 라이프치히까지는 대략 1~2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다. 라이프치히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현대사포럼'을 방문하였다. 그곳은 독일 현대사 박물관으로, 주로 통일에 대한 역사를 다룬 곳이었다. 내부 사진은 못 찍게 하여 무척 아쉬웠는데, 정말 볼 만한 전시물이 많았다. 또한 흥미로운 일화들도 많았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베를린 장벽 붕괴'에 대한 일화였다. 통일의 발단이 된 베를린 장벽 붕괴는 정말 갑작스럽게, 한 개인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것이었다. 동독의 서기장인 호네커가 서독을 방문하자, "우리들도 여행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외친 동독 시민들에 의해 동독 정부는 조심스레 여행 허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런데 여행 허가에 대한 발표를 맡은 동독 정치국 선전 담당 비서 샤보브스키는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한 채 기자들의 "언제부터 여행이 허가되느냐?"는 말에 "지금, 즉시, 지체 없이"라고 대답하고 말았다. 이를 TV로 지켜본 동독 주민들은 지금 당장 장벽을 넘어갈 수 있는 줄 알고 하나 둘 장벽을 넘어가기 시작했고, 장벽을 지키던 동독 군인들이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어 장벽을 부수고 넘어오기 시작했다. 동독 군인들은 상부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못해 어리둥절하며 그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이것이 통일의 시초가 된 것이다.

이외에 전시물 중에는 초기 베를린 장벽(이 당시에는 쉽게 넘어갈 정도로 제대로 된 장벽이 없었음)을 넘어가는 동독 주민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대부분 탈출에 성

공했으나 26명은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휴전선이 견고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독일의 통일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었다. 북한에 비하면 동독의 주민 통제는 굉장히 느슨한 편이었다. 북한 정권의 지도자들을 신격화하고, 주민들을 세뇌하여 철저히 통제하고자 하는 지금의 북한은 견고한 벽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포럼을 나온 우리는 인근의 식당에 들렀는데, 바로 그곳이 세계적인 대문호 괴테가 자주 들렀다는 식당인 '아우어박스 켈러(auerbachs-keller)' 로, <파우스트>를 쓰는 데 영감을 준 장소라고도 했다. 식당은 지하에 있는데, 입구 근처에는 <파우스트>의 등장인물을 동상으로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토마스 교회(Thomaskirche)' 로 향했다. 이곳은 마르틴 루터가 종신 서원을 했고, 1539년에 성령 강림절 기념 설교를 했었던 유서 깊은 곳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일생을 마칠 때까지 이곳에서 성가대의 지휘를 담당하고, 자신의 유명한 작품들 중 대다수를 이 교회에서의 연주를 위해 작곡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교회 내부에는 바흐의 무덤이 있고, 입구에는 바흐의 동상이 우뚝 서 있었다. 토마스 교회에서 나는 한반도의 완전한 통일을 비는 소원 종이를 작성하여 십자가에 부착하였다.

토마스 교회를 나온 우리는 라이프치히 시청 앞 크리스마스 장이 열리는 광장을 지나 버스를 타고, '니콜라이 교회(St. Nikolaikirche)' 로 이동했다. 니콜라이 교회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근거지로서, 현대에는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평화 혁명의 시발점이 된 곳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방명록에 '토마스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아 한국 땅으로 모셔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짧은 방명록을 남기고, 기도를 올렸다.

니콜라이 교회를 끝으로 우리의 공식적인 연수 일정이 모두 끝났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을 달려 우리는 다시 베를린에 도착하여, 세미나리스 호텔에 여장을 풀고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여 마지막 만찬을 함께 했다. 독일에서의 마지막 밤에 마시는 맥주 맛은 일품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 입구에서 단체사진을 찍었는데, 마침 눈이 내렸다. 독일에 와서 맞은 첫 눈이었다.

드디어 독일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아침에 일어나 독일에서의 마지막 아침식사를 마친 우리는 예정된 집합 시간보다 일찍 모여 통일부 사/주무관님들을 위한 엽서와 박주용 조교 선생님, 알렉산더 선생님을 위한 엽서를 각각 작성하느라 분주하였다.

베를린 테겔공항으로 이동한 우리는 비행기 탑승 준비를 마친 뒤에 마지막 자리에서 박 조교선생님과 알렉산더 선생님을 위해 엽서를 전달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

난 사람'을 불렀다. 박 조교 선생님은 너무나 감동받았는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우리로서는 현지에서 너무나 열심히 진심으로 가이드해주신, 박 조교 선생님, 알렉산더 선생님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울 따름이었다. 비행기 타러 들어가는 순간 까지도 아쉬운 마음에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독일을 떠난 우리는 마침내 18일 오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인천공항에 다시 모인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로 수고했다는 인사를 나눈 뒤 헤어졌다. 그동안 타국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고민했던 소중한 인연들과 헤어질 생각을 하려니 무척 아쉬움이 남았으나,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5박 7일 간의 연수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었고, 정말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선사하였다.

5박 7일 간의 연수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처럼 분단의 역사를 겪었으나, 마침내 통일을 맞이한 독일의 산 현장을 눈과 귀로 접하고, 가슴으로 느끼면서 앞으로 우리가 한반도 통일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볼 수 있었다. 비록 통일 당시 독일의 상황과 현재 한반도의 상황을 같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통일은 언젠가 올 것이며, 갑작스럽게 온다'는 것이다. 독일 역시 갑작스러운 통일로 많은 혼란을 초래하였다. 우리 역시 언젠가 갑작스럽게 찾아올 통일에 대비하여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수립하고, 그를 실천하기 위한 범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 땅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이며 완전한 통일이 오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이다.

통일독일의 맥주향기가 한반도로 전파될 그 날을 기다리며

김유연

2011년 12월 17일 오전 8시 30분경 북한의 2대 권력 세습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우리 독일연수단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도 전, 독일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던 시각이었다. 한국 도착 바로 다음날 정오에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사망 소식을 발표했고, 우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독일에서 4일 동안 독일 통일의 역사적 현장들을 직접 보며 통일이 정말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다가 돌아왔는데, 김정일이 사망했다니! 이보다 더 가슴에 와 닿는 역사수업은 없을 것 같았다. 김정일이 일주일만 빨리 죽었어도 우리의 독일연수는 무산되었을 것이다.

‘한반도비전포럼’ 참가소감문을 낼 때만 해도 이렇게 귀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조차 못했다. 그리고 우수소감문으로 선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도 독일연수기간이 딱 학기말 페이퍼 제출기간이었기 때문에 선뜻 가겠다고 대답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흔치 않은 기회를 잡기로 선택했고, 그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올해 북한학협동과정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한 학기 동안 이봉기 교수님의 ‘독일 통일의 과정과 결과’라는 수업을 들은 나에게 이번 독일연수는 ‘百聞이 不如一見’이라는 격언을 절실히 실감하게 해준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수업 때 독일 통일의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얻었던 생각거리들과 교훈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더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

우리의 여행은 5박 7일이었지만, 한국에서 독일까지의 이동시간과 시차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일정은 4일 동안 진행되었다. 베를린, 포츠담, 드레스덴, 라이프치히 4개 도시를 하루에 하나씩 봐야하는 다소 무리한 일정이었다. 그러나 연수가 끝난 뒤 4개 도시 모두 그렇게 해서라도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째 날은 베를린에서 오전에는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운터텐린덴가, 체크포인트 찰리를 견학하고, 오후에는 독일 연방 내무부를 방문하여 관계자와의 대화를 가진 뒤 티어가

르텐, 브란덴부르크 문 등을 견학했다. 관광버스를 타고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을 왔다 갔다 하니 양쪽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다. 서베를린이었던 지역은 건물들이 각양각색이고 변화가 많았지만, 동베를린이었던 지역은 사회주의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직사각형의 회색빛 건물들이 많았고, 아직 공사 중인 곳이 많았다.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TV타워, 홀로코스트 기념비, 체크포인트 찰리 등을 보며 독일인들은 아픈 과거를 현재의 선물로 바꾸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제일 먼저 들른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는 베를린 장벽이 남아있는 1.3km 구간에 여러 나라에서 온 작가들이 그림을 그려 하나의 갤러리를 만들어놓은 곳이다. 단절과 고통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고 오히려 알록달록한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켜서 현재 변화된 베를린의 평화롭고 다원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역전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그림은 호네커와 브레지네프의 유명한 '죽음의 키스'였다. 구 사회주의권 국가에서는 실제로 남자들끼리도 입을 맞추며 인사했다고 한다. 그들이 영원하길 바랐던 '죽음의 키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는지 풍자하는 다소 역겨운 그림이었다.

운터덴린덴가는 '보리수나무 아랫길'이라는 뜻으로,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와도 같은 베를린 중심가이다. 이 거리 끝에 베를린 시청과 TV타워가 있다. TV타워는 원래 동독에서 서독방송을 동독 시민들이 보지 못하도록 전파를 교란하기 위해서 서독의 방송 송신탑보다 높게 지은 탑이었다. 그러나 서독의 방송 송신탑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동독의 TV타워는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통일 이후에는 서울의 남산타워처럼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통일을 둘러싼 한국과 독일의 상황에서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는 북한 주민들은 외부 정부로부터 차단되어 있지만, 동독 주민들은 서독 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TV타워는 그것을 막아보려 했던 동독 정부의 실패작이었다. 최근 북한에도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을 담은 CD나 USB가 유입되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 정부도 결국 이러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첫째 날 오후에 있었던 연방내무부 방문과 둘째 날 오전에 있었던 베르너 페니히 교수님의 특강은 모두 남북 간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려주었다. 한국 대학생 대표로서 갖게 된 특권이라고 생각하니 책임감을 가지고 두 강연에 임하게 되었다. 연방 내무부에서의 강연 주제는 '독일 통일 21년 동독에 대한 연방내무부의 역할'이었다. 독일 통일 후 정부기관에서 직접 통합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들로부터 연방 정부가 동독에 얼마나 투자했으며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들을 수 있었다. 이제 동독의 생활 수준은 서독의 80%까지 향상되었으며, 2019년에는 동서독 경제규모가 비슷해지도록 투

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통일은 갑자기 일어날 수 있지만, 통합은 확실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질의응답 시간에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산더미 같았지만, 나는 점진적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면 어땠는지와 G2시대에 한국이 통일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질문했다. Mr. Popp은 급진적 통일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고 답했고, Mr. Kuhrt는 한국이 중국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들의 질문이 끝나고 역으로 Mr. Kuhrt가 우리에게 북한 주민들은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 질문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상기시켜 주었다. 독일의 통일은 동독 주민들이 원해서 이루어졌는데, 북한 주민들은 과연 통일을 원할까. 하루빨리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교류협력을 재개하여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값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둘째 날 오전 베를린자유대 내의 한국학연구소에서 있었던 베르너 페니히 교수님의 특강은 새로운 통찰력을 얻도록 해주었다. 독일과 한국이 처한 상황을 비교하면서 독일은 단일국가로 존재했던 시간이 75년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한국은 600년 정도이며, 독일은 강대국이었을 때 항상 이웃나라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 국가' 였지만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 있는 약소국이었다는 점을 먼저 언급했다. 그리고 한국은 독일과 달리 내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잔인하고 극단적인 분단을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통일이 급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17년간 양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런 의미에서 빌리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이 가지는 의의를 설명해주었다. 결론에서는 통일비용을 이야기하려면 분단비용이 얼마나 비싼지도 항상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남북 간 관계정상화가 분단비용 절감과 통일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날 오후에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 라는 뜻의 다리를 건너서 동독 도시였던 포츠담으로 향했다. 서베를린과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폐허로 변해버린 건물이 아직도 많이 눈에 띄었고, 길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었다. 이것은 셋째 날 갔던 드레스덴과 넷째 날 갔던 라이프치히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었지만, 포츠담이 가장 암울했던 것 같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통일 후 젊은 세대가 대거 서독 지역으로 이전해 갔기 때문에 동독지역 도시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졌으며, 미래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다. 이 때문에 구동독지역 연방주들은 젊은 세대를 붙잡아 두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들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통일이 되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에 때문에 왠지 남 얘기 같지가 않았다.

1945년 포츠담회담이 있었던 체칠리엔호프는 견학 내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다. 사실 가이드 해주셨던 분은 주로 건물에 대한 설명밖에 안 해주셨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는 분단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것이 야속하게 다가왔다. 사진 속 스탈린과 트루먼, 처칠은 웃고 있었고, 회담장도 세 정상 각자 집무실에서 회담장으로 같은 시간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열강들의 협상테이블에 올라온 수많은 문제들 중 하나로 결정해버린 한국의 분할점령이 이토록 끔찍하고 길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그들은 과연 생각이나 했을까? 언제나 강자는 약자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릴 수 없는 법이다. 강대국들의 세력다툼으로 일제로부터 해방됨과 동시에 분단되었던 뼈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통일은 반드시 우리 민족의 손으로 자주적으로 성취해 나가야 한다는 결의를 굳히게 한 견학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일이다. 미국도 '21세기는 태평양의 시대'라며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오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민족의 자결권을 확보하려면 서독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도 통일문제에 있어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먼저 주변국들에게 한반도의 통일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임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날은 멀리 드레스덴으로 향해야 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발했다. 드레스덴에서 우리는 츠빙거 타이크 궁전과 프라우엔 교회를 둘러보고, 군사박물관을 관람했다. 드레스덴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무참히 폭격을 당해 온 도시에 건물이 단 두 채밖에 남지 않았던 폐허 도시였다. 그러나 주민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통일 후 연방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으로 지금은 중세 유럽의 모습을 복원한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다. 츠빙거 타이크 궁전과 프라우엔 교회의 벽돌 색깔은 일부는 까맣게 탔고, 일부는 하얀 색이었다. 파괴 후 언젠가 재건할 것을 생각해 주민들이 벽돌 하나하나에 번호를 붙여 보관하고, 후에 옛날 그림을 보며 같은 자리에 한 벽돌이라도 더 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옛 벽돌과 새 벽돌이 섞여 있는 탓이었다. 승레문도 그렇고, 광화문도 그렇고 옛것은 버리고 새것으로만 지어놓은 우리의 문화재를 생각하면 옛것을 보존하려는 독일인들의 정신이 참으로 부럽기만 했다.

헬무트 콜 총리의 「나는 조국의 통일을 원했다」라는 회고록을 읽은 나에게 프라우엔 교회는 특별한 방문지가 아닐 수 없었다. '독일 통일의 과정과 결과' 수업에서 드레스덴 정상회담에 대한 발제를 준비하면서 그때 콜 총리가 프라우엔 교회에서 동독 주민들에게 한 연설을 읽고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 지도자가 연설하게 될 날을 상상하며 눈물을 쏟았기 때문이다. 콜 총리가 연설하던 당시 프라우엔 교회는 벽 하나만 남아있는 황무지였으나, 지금은 마치 베르사유궁전처럼 화려한 바로크 양식의 교회가 세워졌다. 1994년 독일

태생의 미국인 생물학자 귄터 블로벨(Günter Blobel)이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 프라우엔 교회의 본래 모습을 봤던 기억을 되살리며 이 교회의 재건 사업을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2005년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불과 11년 만에 그토록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시킨 독일인들의 열정이 놀라웠고, 폴 총리가 처음으로 통일을 결심하게 된 장소에서 한반도 통일의 미래를 상상해 보았다.

저녁에 방문한 군사박물관은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독일인들의 철저한 반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이 박물관은 본래 1870년 독일-프랑스 전쟁이 끝난 뒤 병기창으로 이용되었다가, 양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포획한 물품을 포함해 약 500년에 걸친 독일 군대의 복식과 무기 등을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하면서 군사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1999년 한 유대인 건축가에 의해 신관이 건립되어 최근 재개관했는데, 이곳은 나치시대 유대인의 고통을 관객들이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지럽고 어둡게 설계했다고 한다. 엘리베이터부터 마치 감옥으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주었으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바닥이 기울어져 멀미가 났다. 홀로코스트 기념비도 기념비 사이를 유대인 수용소의 실제 복도 넓이로 설계해서 관람객들이 그 답답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참여형 관람을 이끌어내는 아이디어가 참 신선하다고 느꼈다. 전쟁의 고통을 보여주는 여러 전시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물은 나치가 패망하고 나서 누군가가 그린 'Nürnberg(They are to blame)'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는 해골 그림이었다. 나치의 경험은 독일인들에게 지우고 싶은 역사이겠지만, 그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 덕분에 지금의 독일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 하층민들을 중심으로 나치 극우파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후에 통일이 되면 사회 부적응자들이 '김일성 극좌파'를 형성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연수 마지막 날 방문한 도시는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여서 상업도시로 발전한 라이프치히였다. 라이프치히는 1989년 동독 시민들 평화혁명의 거점이 된 중요한 도시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현대사포럼 박물관에 갔다가 토마스교회와 니콜라이교회를 방문했다.

현대사포럼 박물관은 2차 세계대전 후부터 1989년 동독의 평화시위가 있기까지의 사건들에 대해 전시해놓은 박물관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동독에서도 1953년 6월 17일 중국의 천안문사태와 같이 시위가 소련군에 의해 무참히 진압된 사건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1961년부터 300만 명이 탈출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다. 베를린 장벽은 처음에는 철조망이었다가 낮은 담이었다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높은 콘크리트 담이 세워졌다고 한다. 동독 슈타지가 고문을 하던 장소, CCTV로 감시하던 곳 등을 보았지만, 동독의 사회통제는 북한보다 훨씬 느슨했었다. 동

독에는 볼프 비어만 같은 시인도 있었고, 평화운동가와 환경운동가, 체제 반항적인 핑키족도 있었다. 심지어 어떤 용감한 형제들은 직접 비행기를 만들어 베를린 장벽을 넘어 서베를린에서 동베를린으로 갔다가 다시 서베를린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동독은 그래도 인간을 존중하는 기독교문화권에 속했고, 민주주의의 경험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전혀 그러한 역사적 경험이 없어서 인권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존중도 찾아보기 힘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하지만 동독 주민들이 권터 샤보브스키의 '역사의 아름다운 선물'로 인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환호하는 영상을 보며 북한 주민들에게도 갑자기 자유가 주어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다.

토마스교회와 니콜라이교회는 독일 통일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을 상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특히 니콜라이교회는 1989년 10월 9일 월요기도회가 평화시위로 발전되어 전 동독지역으로 시민혁명이 퍼져나가게 된 역사적 장소이다. 니콜라이교회의 목사는 촛불을 들었다는 것은 동시에 돌과 몽둥이를 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한다. 그때 당시 교회는 사람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회합할 수 있는 지금의 SNS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페니히 교수님에 따르면 1990년 3월 18일 동독 자유총선 때 당선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였다고 한다. 기민당이 승리했다는 것만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교회의 역할을 알고 있는 독재국가들이 유독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기독교 전도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는 소식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들리는데, 이들에 대한 억압이 완화되어 남북통일과정에서도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렇게 짧았던 4일이 지나가고,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야 했다. 지난 봄,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시작된 시민혁명의 '자스민 향기'가 북한으로 퍼지지 않을까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 독일연수를 다녀오면서 통일독일의 '맥주향기'가 한반도로 퍼지게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다. '맥주향기'라는 말이 다소 어색하기는 하지만, 독일 맥주 맛을 본 사람이라면 이 표현에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 통일독일 21년, 아직도 동서독의 완전한 통합을 이루기에는 과제들이 남아 있지만, 이미 동쪽 주민의 88%, 서독 주민의 82%가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먼 미래를 내다보면 이들의 통일은 분명히 다음 세대의 칭송을 받을 결단이었다. 남북한도 당장 눈앞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통일비용을 걱정하기 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100년, 500년 후까지 영향을 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빨리 함께 준비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12일~18일 통일부 독일 연수 소감문

이돈희

처음으로 서방세계의 땅을 밟게 되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믿음으로 돌아오길 부르짖은 곳, 히틀러와 나치제국의 아픔을 가진 땅, 특별히 분단의 아픔을 경험하고 통일의 기쁨을 먼저 경험한 나라, 그 치열한 역사의 현장에서 독일은 나에게 다가왔다.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면서 처음으로 독일을 간다고 커다란 두근거림은 없었다. 단지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반갑게 느껴졌다. 독일에 다녀오더라도 통일은 더 빠르게 혹은 더 느리게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미 얻을 만한 지식은 강연에서 가져왔고, 이번 연수는 홍보용 이벤트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인지 단지 여타 이벤트 중에 큰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기분 좋음 뿐이었다.

그러한 생각은 나에게 다른 무언가를 다짐해야만 하는 압박감으로 돌아왔다. 정부 차원에서 세금으로 이번 연수를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기회에 아무 것도 얻어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통일부, 아니 더 나아가서는 국민 모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다는 생각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기회를 나에게 허락하셨을지 생각하게 되었다. 통일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얻어올지 모르지만, 최소한으로 나에게 '체크포인트' 혹은 '터닝포인트' 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느끼고 얻어올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처음으로 제대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친해지기 시작했다. 모두에게 친해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기에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특히나 같은 나이였던 경준이와는 더더욱 금방 친해졌다. 서점에서 통일과 전혀 관계성을 찾아볼 수 없는 두 권의 책을 사고, 비행기에 올랐다.

설 틈 없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장난, 조그마한 창문을 통해 보이는 하늘과 하늘 사이와 얼음의 땅 러시아, 이러한 것들은 시험 끝난 직후 피곤했던 나를 기분 좋게 만들었다.

알게 모르게 있었던 남은 과제에 대한 부담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변화’로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잠시 접어두었다. 그러던 가운데 옆에 있었던 같은 연수단의 김유연 누나와 대화할 수 있었다. 통일에 대한 각종 생각들을 나누고, 다른 해외 여행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특히나 북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있었던 북한에 대한 정보, 실상 등을 듣고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대략 비행기에만 12시간을 있다가 프랑크푸르트에 들렀다가 베를린으로 이동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내부에 있는 세미나리시호텔에 짐을 풀고 그곳에서 간단한 저녁식사를 했다. 시차 때문인지 너무 피곤한 상태에 나는 무슨 맛인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감각이 둔해져 있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먹었던 소시지가 매우 짜다는 사실만이 내가 독일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가이드 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은 아데나워 재단과 한나아렌트 전체주의연구소 방문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대신 베를린자유대의 교수님을 초청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쉽게도 두 기관에 대한 방문은 일정 이상의 지위에 올랐을 때 들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거의 비몽사몽으로 밥을 먹고 다시 방으로 올라갔다. 그대로 씻고 침대에 몸을 던졌다. 방은 따로 신경 쓰이는 것이 없을 만큼 쾌적했다. 연수단의 김경준과 같은 방을 쓰게 되었는데, 경준이는 다른 곳에 대한 여행기를 이야기 해주면서 물갈이 문제와 시차적응 문제를 말해 주었다. TV를 돌리다가 아리랑 TV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 중간에 잠이 들어 버렸다.

깨어나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4:30. 시차적응이 문제가 되었다. 직감적으로 이대로 나가면 피곤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씻고 세미나리시 호텔에서 나와 잠깐 독일의 새벽을 감상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여기도 달은 뜨는구나’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다시 들어왔다. 처음으로 완전히 다른 나라에 왔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13일,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를 시작으로 베를린에 있는 각종 독일 통일에 관련된 장소와 연방 내무부를 들리는 계획이 잡혀있는 날이다. 제 정신으로 아침을 먹으면서 독일에서 첫날을 기대했다. 연수단의 고병선 형과 많은 대화를 했는데, 북한학을 전공하면서 배운 이야기, 상생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소시지와 베이컨, 오믈렛, 빵, 과일, 우유와 시리얼, 음료수. 이것 다 먹게 되면 분명 배불러서 활동의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버렸다. 옆에서 비슷한 양을 가져온 연수단의 경준이가 다 먹고 배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며 사뿐히 포크와 스푼을 내려놓았다.

베를린 시내를 지나서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로 가는 중 가이드 분이 독일의 사회 정치 경제 등 전반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 한국과 다르게 복지민주주의를 선택해서 걷고

있는 독일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정민간의 탄탄한 신뢰구조와 세금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국민들의 생각이 이러한 복지정책을 가능하게 만들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슈프리 강을 따라 만들어진 베를린 장벽, 그 중 남아있는 1.3km 구간에 통일 후 독일 정부는 예술가들과 함께 처절한 분단의 아픔과 동독 주민의 피로 만들어진 그곳을 평화를 위한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켰다. 이스트사이드에 그려진 자유를 위한 갈망과 평화의 기원은 인류 모두의 바람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분단국이 아닌 나라에서도 함께 참여했었다.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러시아 화가 드미트리 브루벨이 그린 '형제의 키스'라는 작품은 에리히 호네커 전 동독공산당 서기장과 레오니드 브레즈네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입맞춤 장면을 해학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주여, 이 치명적인 사랑을 이겨내고 살아남게 도와주소서'라는 부제가 달려 있었다.

이곳에 오자 독일 통일 연수를 온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분단의 슬픔을 함께 느끼고 통일의 기쁨을 먼저 얻었던 독일이 통일 후에 얼마나 발전했는지 눈으로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휴전선과 같은 역할을 했던 베를린 장벽을 통해서 한국의 현실을 독일에서 볼 수 있었다. 동독 시민들이 고향과 자유를 갈망하며 이 벽 앞에서 얼마나 울고, 얼마나 도전해 보았는지 상상이 가지 않았다. 저 북쪽의 형제들도 가슴을 치며 휴전선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통일을 향한 발자국이 더욱 깊어졌다.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를 벗어난 후 체크포인트 찰리로 향했다.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을 분단하고 있던 베를린 장벽에는 8개의 국경검문소가 있었는데, 체크포인트 찰리는 그 중 하나로서 미군이 관리하던 검문소였다고 한다. 찰리라는 이름에는 크게 의미가 없으며 4개의 초소 중 3번째 초소로 C로 시작하는 단어를 찰리(Charlie)라고 불렀다고 한다. 한국의 판문점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체크포인트 찰리를 보면서 분단의 아픔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언젠가는 우리도 통일 후에 분단의 역사를 간직한 판문점을 누구나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독일식 중국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고, 연방내무부를 방문했다. 연방내무부에서는 에버하르트 쿠어트(Eberhard Kuhrt) 독일 연방내무부 과장님과 미하엘 팝(Michael Popp) 사무관님께서 맞이해 주었다. 연방 내무부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독일에 온 이유는 여러 강연을 듣고, 한반도의 통일과 연관을 시키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었다. 통일부는 연방내무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독일 연방내무부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음료를 준비해 놓았고, 최대한 편한 분위기에서 강연이 진행되고 질의응답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

그래프를 통해서 실제적인 통일 독일의 경제적 문제점과 발전과정을 보여주었으며, 구 동독 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 역시도 함께 해주셨다. 모든 강연이 끝나고 우리는 독일이 점진적으로 통일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지, 독일 교육 시스템의 통일 후 변화, 북한 사람들이 원하는 통일방식이 무엇인지 등의 질문을 던졌다.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우리는 너무나 경제적인 문제에 놀려 있다.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자본주의의 물결에 젖었지만, 소위 선진국이 말하는 ‘천민자본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나라는 돈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점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생각해 보자, 과연 자녀가 죽을병에 걸렸고 치료가 가능하지만 전 재산을 털어야 한다면, 어떤 부모가 전 재산을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은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격을 이미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다. 북한이라는 잃어버린 형제가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경제적 문제를 들어서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북한을 한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독일은 어떠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지라도 동독을 껴안아야만 했다. 그것이 한 국가로서의 책임이었기 때문이다.

그 후 브란덴부르크 문으로 향했다. 베를린의 상징적인 문으로 이곳을 경계로 동서베를린이 나누어 졌었다. 문 위에 서있는 말을 탄 천사상은 ‘승리의 콰드리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장벽 붕괴 사진을 보면 현재의 모습과 반대방향으로 서독을 향해 말의 머리가 향해있었다. 동독의 정치가들이 자신들을 향해 말의 머리가 온 것을 탐탁지 않고 서독을 향해 동독이 전진한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 분단 이후에 ‘승리의 콰드리가’의 방향을 바꿨었다고 한다. 복원을 하고 겹게 그을린 부분을 지우는 작업을 한 후에 지금의 브란덴부르크 문으로 복원되었다고 한다.

독일 사람들을 동서베를린 한 가운데에 있는 이 문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바로 앞에까지 가서도 서로 만날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을 얼마나 아파했을까? 치열한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는 ‘정전’도 아닌 ‘휴전’의 상태에 놓여 있다. DMZ 내에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문화재는 없지만, 서로 10리 정도 밖에 안 되는 거리에서 무기를 겨누고 서있다. 그 누군가가 실수를 하더라도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 우리는 그런 긴장상태에서 60년간 살아왔다. 긴장상태에 드는 분단비용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통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통일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와야 한다.

베를린에서 독일 연수중인 통일부 과장님을 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과장님께서 통일 관련 사업들의 과정, 비하인드 스토리, 현재 상황 등을 이야기 해 주시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특별히 우리를 통일의 주역세대라고 칭하시면서, 통일 후를 대비할 것을 충고하셨다. 북한은 시장경제체제 국가로 변화하고 있다. 아니 이미 시장경제체제를 비공식적으로 인정해 버린 것 일지도 모른다. 과장님께서 개성공단에서 계셨을 때에 ‘초코파이’를 나누어 주었던 것이 작은 물물교환을 시작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미 중국 위안화와 달러가 통용되고 있다는 소식이 오래전부터 들려오기 시작한다. 북한 정권은 내부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가난과 압제 그리고 풀리기 시작한 세뇌는 북한 내부에 금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 금이 언젠가 폭발할 때에 통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과장님의 좋은 말씀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호텔로 돌아왔다. 그냥 쓰러져서 자버렸다. 시차적응과 함께 엄청난 스케줄을 몸이 버티지 못하는 것 같다.

14일. 깨어보니 새벽 2시, 씻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샤워 후에 다시 잠을 청했다. 6시쯤을 기대하고 다시 누웠지만, 일어나보니 또다시 4시 30분. 어쩔 수 없이 깨어났다. 적당한 아침을 먹고 일정을 시작했다. 8시 30분 베를린 자유대학의 베르너 페니히 교수님의 특강이 있었다. 일부러 30분의 일정을 더 쓰기 위해서 일찍 시작했지만, 오히려 시간이 부족했다.

페니히 교수님은 한국과 독일을 상호 비교해가면서 통일에 대한 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 특별히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한반도의 분단은 매우 잔인하고 극단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하루 빨리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친밀관계 성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다. 특별히 개인적인 질문으로 종교의 역할을 물었다. 통일과정에서 종교, 특히 개신교 교회가 현재의 SMS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지금의 한국 개신교 역시 국가가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미래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페니히 교수님은 직접 통일 독일과정을 겪으셨던 살아있는 증거이다. 교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통일된 한반도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통일과정의 아픔 역시도 함께 그려볼 수 있게 하셨다. 갑작스럽게 통일된 독일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닌, 가장 치열한 전장이었던 한반도를 평화의 상징과 화합의 상징으로 바꿀 수 있는 점진적이고 완벽한 통일방안이 필요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통일 투자자금을 미리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이 죽은 지금 이 죽음이 우리에게 통일을 준비하라는 경고로 적용되었으면 한다.

이후 점심을 먹으며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통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한결같은 통일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 하나는 모두가 일치했다. 이후 포츠담으로 이동하면서 ‘스파이 다리’로 불렸던 글리니케 다리에서 잠깐 내렸다. 이곳에서는 동서독의 스파이나 정치범이 교환되었다. 서독 측에서 정부가 직접 움직이거나 민간단체를 통해서 정치인들을 돈이나 식량 혹은 생필품 등을 주고 석방시킬 때 이 다리를 사용했다고 한다. 남한도 정부에서 직접 움직이기 힘든 현 상황에서는 민간단체를 통해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탈북자 구류 해지, 북한 정치범 석방 등을 서로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는 차원에서 지혜롭게 시행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리니케 다리를 지나서 포츠담으로 이동했다. 포츠담은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은 동독의 도시 중의 하나였다.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고는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주인 없는 집이 을씨년스럽게 남아 있었다. 폭격을 맞은 자국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대부분의 집이 주인이 없어서 아직 팔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이드 분은 말해주셨다.

포츠담에서는 상수시 궁전을 들리게 되었다. 상수시 궁전은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의 여름궁전으로, 대왕의 스케치를 바탕으로 하여 크노벨스도르프가 1745~1747년 건조하였다. 웅장하기보다는 아름다웠으며, ‘근심 없는’이라는 뜻의 ‘상수시(sans, souci.)’라는 이름을 보여주듯이 탁 트여있었다. 그러나 겨울이라서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조각상은 보관을 이유로 덮여 있었고, 아름다워 필 것 같은 포도덩굴은 아직 푸른 잎을 내지 않았다. 프리드리히 대왕의 무덤은 작고 소박했다. 커다란 상수시 궁전이 모두 무덤이라면 모르겠지만, 옆에 작은 돌에 이름이 적여 있는 프리드리히 대왕의 마지막은 위대한 지도자라 뿐만 아니라, 겸소한 인간이었으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황제였음을 말해주었다. 특별히 감자에 대한 일화는 나에게 눈물이 맺히도록 하였다.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국민들이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먼저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정치이지 않을까? 통일에 대한 열기가 식었을 때에,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통일에 대한 열기를 불어 넣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제 통일이 ‘악마의 열매’가 아닌 ‘생명의 열매’임을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프리드리히 대왕의 삶의 터전이자 죽음의 안식처였던 상수시 궁전을 떠나 체칠리엔호프로 향했다. 이곳은 포츠담 회담이 열렸던 곳이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간접적으로 한국의 독립이 재확인되었고, 일본에게 원폭투하를 결정한 회담이다. 이 회담 후 독일은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4개국에 의해서 분할 점령되고, 분단이 시작되었다.

특이한 점은 각국 정상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기 위해서 문에 한꺼번에 들어왔으며, 회담 당시 사용했던 각종 물건은 그대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포츠담 회

담을 기리기 위해서 결정되었으며, 그 비용은 독일이 부담하였다. 건물 앞에 있었던 소련을 상징하는 붉은 별 모양으로 만들어진 꽃 발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역사는 잔인하게도 승자의 편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만들어냈다.

한반도는 분단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승전국이 되었지만,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부딪히는 지형이라는 이유로 분단이 되었다. 힘없는 나라는 역사에 짓밟히고 만다. 60여 년간 이어진 분단의 아픔이 이곳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에 한숨이 나왔다.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타국, 타 민족에 의해서 나누어지고 아픔을 겪었다.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선 우리나라가 세계를 상대로 평화를 외쳐야 할 때이다. 이러한 아픔이 없도록 불가능하겠지만 전쟁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군비 축소와 전쟁 중지, 약소국에 대한 압박을 중지할 것을 이미 겪었던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외침은 언젠간 북한에까지 전달되어 평화로운 통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가장 적절한 시간에 만들어 낼 것이다.

베를린으로 돌아와 베를린 최대의 상점가인 쿠담거리를 돌아다녔다. 쿠담거리는 당시 서베를린 최대의 상점가였다. 동독의 사람들은 이 거리를 가장 가보고 싶어했다고 가이드 분은 말씀하셨다. 돌아보면서 기념품을 사고자 했지만, 베를린 장벽에서 떼어낸 돌조각 하나를 구매하고 돌아왔다.

오랜만에 한식을 먹고 숙소에서 또 쓰러졌다. 내일은 드레스덴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

15일, 드레스덴으로 아침 7시에 출발했다. 드레스덴은 엄청난 폭격을 받은 도시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름답게 복원되어 있어서 '복구의 피렌체'라고 불리기도 한다. 드레스덴에서 내리자마자 중세 도시에 온 것만 같은 아름다운 건물들이 우리 눈에 비쳐졌다. 그림에서 튀어나왔다고 하더라도 믿을 것 같은 드레스덴의 건물들이 모두 복구된 건물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가장 먼저 들린 곳은 츠빙거 타이코 궁전이다. 츠빙거 타이코 궁전은 독일 바로크 건축의 최고 걸작으로 아우구스트 1세 때 건축가 피펠만이 32년에 걸쳐 만들었다. 우리가 갔을 때 역시나 몇몇 부분을 보수하고 있었다. 불에 그슬린 많은 부분이 보였고, 그 부분을 모두 복원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독일인의 집념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목재 문화라서 복원을 못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 절반 정도의 문화재 복원 노력이 있었다면, 불에 탄 많은 문화재도 복원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초록색의 먹을 수 없는 파스타를 몇 번 먹다가 포기하고, 조각케익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드레스덴 전통의 조각케익은 앞서 먹었던 파스타와 비교되면서 너무나 맛있었다. 밥

을 먹은 후 프라우엔 교회를 방문했다.

여성형 명사인 프라우엔이라는 이름처럼 너무 아름다운 건물이었다. 그러나 2차 세계 대전 당시 모두 파괴되었으며, 남은 조각들을 주민들이 복원을 기대하며 번호를 매겨 놓았다고 한다. 94년 프라우엔 교회의 재건을 시작했으며, 05년 재건이 끝나 옛 모습을 되찾았다고 전한다. 특별히 이곳은 헬무트 콜 서독 총리가 정상회담을 위해 이곳에 들렀다가, 시민들의 요구로 연설을 한 장소이다. 콜 총리는 회고록에 통일에 대한 결심을 이곳에서 연설하면서 했다고 남겨놓고 있다. 완전히 무너진 이곳을 독일인들은 복원했다. 북한에 많은 문화재가 일제 강점기에 손실된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재까지도 복원하며 통일 후에 옛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

이후 모텔원 호텔에 체크인을 했다. 경준이가 방을 혼자 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서 병선이 형과 함께 쓰게 되었다. 잠시 집만 풀었다가 다시 군사박물관으로 향했다.

군사박물관은 독일-프랑스 전쟁이 끝난 후 병기창으로 건립되었다. 그 후 500년을 걸친 독일 군대의 복식과 무기 등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면서 박물관으로 사용되었다. 현재 있는 신관은 유대인 건축가 다니엘 리베스킨트(Daniel Libeskind)에 의해 건립되었다. 특이한 점은 동선을 힘들게 하고, 바닥면을 경사지게 만들어서 관람객들에게 유대인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한 특징은 직접적으로 다가와서 관람 내내 다리는 경사진 바닥 위에서 몸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끝난 후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다들 '조금만 쉬었다 가자' 라는 말을 몸으로 표현하였다.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폐해와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었으며, 여러 전쟁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만들었다.

북한 역시도 확실한 독재정치를 하고 있음이 눈에 보인다. 3대째 세습하고 있는 독재의 늪은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과도 같음을 인지한다. 권력과 부, 이제는 너무나 몸에 익은 독재자의 행동들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의 저주어린 눈동자를 대면한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독재는 민중이라는 힘에 밀리게 된다. 북한이 스스로 선택한 독재의 말로, 통일은 독재의 늪으로 끌려들어갔던 민중들을 다시 일으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드레스덴 크리스마스 장을 들렀다. 500회가 넘는 크리스마스 장에서 살만한 것이 몇 개 없었다. 개인적으로 엄청 예쁘다고 생각했었던 독일 곳곳에 걸려있던 별 모양의 등을 사고 돌아왔다. 너무 아름다운 시장이었으나, 가격이 비싼 것이 커다란 흠이었다. 이후 모텔원 호텔에서 병선이 형과 같은 방에서 잠을 청했다.

16일, 7시 30분에 드레스덴을 떠나 라이프치히로 이동했다. 도착해서 가장 먼저 들린 곳은 현대사포럼이다. 이곳에서는 안타깝게도 사진촬영이 허용되지 않았다.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유였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이유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던 공무원들이었다. 당시 동서 지도자간에 정상 회담에서 여행을 허가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동독의 호네커 총리는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일종의 히든 카드로 남겨둔 것이다. 하지만 서독의 각종 언론매체는 그 사실을 공개했고, 서독의 방송을 제한적이거나 시청할 수 있었던 동독의 국민들은 환호하며 거리로 나왔다. 그리고 그대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서독으로 건너갔다.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던 공무원들은 지나가는 국민들을 그대로 놓았고, 상부에서도 그에 대한 대처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혹시나 그 때 천안문사태와 같은 강경진압이 있었다면 독일 통일은 어두웠을 것이다.

현대사포럼은 우리에게 통일이란 그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가까울 수도 있다는 말을 해준다. 당시 동독에서 서독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었듯이, 제한적이거나 남한의 방송 혹은 DVD가 유통되고 있으며, 공산주의를 표방했던 북한은 이미 공산주의를 포기한지 오래다. 이제 문이 열릴 때가 된 것이다.

식사는 일명 괴테식당에서 했다. 괴테의 파우스트의 배경인 아우어바흐 켈러라는 이름의 이 식당(정확히는 술집이던)은 1525년에 문을 열었다고 한다. 파우스트 삽화 안의 술통이 이곳에 있으며, 벽에는 파우스트의 여러 장면들을 그려놓았다.

이후에 토마스교회를 방문했다. 신학생에게 토마스교회는 마르틴 루터와 요한 엑크만의 라이프치히 논쟁을 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음악의 아버지 바흐가 이곳에서 황금기를 지내며 합창지휘자를 했던 장소이다. 계속해서 바흐의 음악이라고 추측되는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고, 아름답고 정갈한 내부는 경건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특히나 십자가에는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무엇을 적었는지 기억에 없다. 아마도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그대로 걸어서 니콜라이 교회로 향했다. 니콜라이 교회는 라이프치히 월요시위가 있었던 곳이다. 80년대 초부터 매년 11월에 평화를 위한 집회가 열렸고, 월요기도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월요기도회에서는 인권침해, 군비확장,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도했으며, 89년 10월 9일 7만여 명이 모인 월요시위로 확대되었다. 무력진압을 명령받았던 군과 경찰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또한 시위대도 쏠발을 들며 평화로운 행진을 계속했다.

1919년 3.1운동 때 33인의 대표 중 16명의 대표가 개신교인이었다. 한국 개신교는 이

제 변화를 꾀해야한다. 다시 깨끗한 모습을 보이며 그 모습으로 더 좋은 사회가 어떠한 사회인지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움직여야 한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세상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돌아오도록 움직여야 한다. 기독교적 믿음의 전파 뿐만 아니라 세계관의 전파 또한 중요한 일이다.

니콜라이 교회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다. 이후 베를린으로 돌아가 독일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돌아왔다.

독일에서 나는 무엇을 얻어 왔는가? 이 질문에 답은 너무나 많다. 그러나 한 가지 가장 큰 것만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통일에 대한 가능성이다. 통일이 그리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될 때 까지 한순간에 이루어졌다. 우리는 언제나 이 한순간을 준비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김정일의 사망은 통일 준비에 더더욱 박차를 가해야만 한다는 말을 해준다.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통일이 올 때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충격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 이미 헌법에는 남한과 북한을 모두 '국민'으로 표현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독일은 나에게 외쳤다.

통일된 한반도를 꿈꾸며....

이은정

‘한반도 비전포럼 참가 소감문’을 써 낸지 얼마 후 내 글이 뽑혔다는 전화를 받고 떨듯이 기뻐다.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런 멋진 기회가 정말로 내게 주어지다니 믿기 어려울 정도였고 너무 감사했다! 그런데 연수시기가 대학원 수업기간이라 먼저 교수님들한테 양해를 얻어야만 했다. 그래서 일일이 교수님들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을 했다.

제일 먼저 호프만 교수님을 만났는데 축하와 함께 기말과제 제출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 했다. 캐나다인인 교수님은 독일의 어느 지역을 가느냐고 묻더니 뜻밖에도 자신의 숨겨진 가족사를 이야기해주셨다. 자신의 아버지가 독일 사람인데 아버지의 가족이 나치주의자들이었다고 했다. 철저한 나치주의자였던 그의 어머니에 의해 나치의 일원이 되도록 교육을 받았고, 그것에 반항하자 나치의 고위급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외삼촌에게 보내져서 청소년 나치캠프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했다. 나치 사상이 너무 싫었던 교수님의 아버지는 결국 종전 후 독일에서 도망쳐 나와 미국으로 망명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하고 결국 캐나다에 정착을 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반도 어머니를 만난 적도 없고 찾지도 않았다고 한다. 교수님의 아픈 가족사를 전해 들으면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현실적으로 다가왔고 이 나라 역시 이념갈등이 낳은 폐해들이 한국의 그것들과 마찬가지로 많겠구나 생각했다. 이 이야기로 인해 독일로 떠나기 전 내 마음이 사뭇 진지해지게 되었다.

12월 12일 월요일, 나를 포함한 10명의 통일교육 연수단은 오랜 비행 끝에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거쳐 베를린에 도착해서 드디어 자유대학 내에 소재한 세미나리스 호텔에 짐을 풀었다. 호텔에서 먹은 늦은 저녁식사가 긴 비행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었다.

다음 날 (12월 13일) 아침, 여독을 풀 새도 없이 뻑뻑한 일정에 따라 움직였다. 베를린 시내를 구경하면서 베를린 자유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이 도시에서만 노벨상 수상자가 무려 6명이나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힘이 학생들이 연구와 학

업에만 몰두 할 수 있도록 잘 갖추어진 복지의 기반에서 나왔다는 것을 들었다. 한국과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었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교육 문제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생각해 보았다. '수능'이라는 대입시험으로 치열한 입시경쟁이 발생하게 되고 자신의 적성과 비전에 따라 선택하기 보다는 취업의 잘 됨의 여부에 따라서 학과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 대학에 들어가서도 순수 학문연구 보다는 취업을 위한 준비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이 현실이다.

반면 독일에는 이러한 입시경쟁이 거의 없는데 이는 복지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어 학생들이 굳이 대학에 가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학과를 고를 때도 대학 졸업 후 보장되는 소득의 여부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적성과 학문적 욕구에 따라 지원을 하기 때문에 특정 학과 몰림 현상이 없다고 한다. 또 대학 입학에는 '불합격'이 없고 '대기 학기제도' (모집 정원 보다 많은 학생이 몰릴 경우 고등학교 성적을 반영해서 성적이 미달되는 학생들에게 한 학기 혹은 두 학기 후에 입학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식의 '재수'라는 개념이 없다. 교육제도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독일의 교육제도가 참 부러웠고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다.

베를린 시내를 통과해서 연수단 일행은 슈프레 강 옆에 있는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로 갔다. 이곳은 수많은 베를린 장벽들 중 일부가 남아 있는 곳인데 세계 각국에서 모인 화가들에 의해 장벽들 위에는 훌륭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대부분의 그림들은 냉전의 종식, 화해, 공존, 평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는데 그 표현의 기발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추운 날씨에도 얼지 않고 유유히 흐르던 슈프레 강과 그 강을 사이로 나뉘어졌던 예전의 동독과 서독 지역을 보며 우리나라를 생각했다. '남, 북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긴 철조망들 위에도 화합과 평화를 담은 예술 작품들이 펼쳐질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되겠지.'

오후에는 베를린 시내에 있는 연방내무부를 방문 했다. 연방내무부 관계자들로부터 독일 통일 후의 경제발전, 고용시장, 동독에 대한 재정지원, 인구의 변화 등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주어진 자료에 의하면 통일 후 대부분 동독 도시의 경제 수준이 크게 성장했음을 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독이 동독에게 퍼주고 동독은 받기만 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통일 후 동독이 서독과 동유럽 사이의 교역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함으로 서독 역시 그에 따른 이득을 얻게 되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통일 직후에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아이를 낳지 않아 동독의 출생률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만,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난 후에는 오히려 동독인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도 잇따라 나타났다는 것이다. 통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사람들이라면 이런 결과들에 대해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날(12월 14일) 오전에는 자유대학교 내에 있는 한국학 연구소를 방문해 베르너 페니히 교수님의 특강을 들었다. 백발의 신사이신 교수님의 독일어 발음이 너무 멋있어서 난생 처음으로 독일어에 매력을 느꼈다. 교수님은 국제관계의 전문가답게 독일의 통일에 관한 과정 뿐 아니라 독일과 한국의 역사와 분단 상황에 대한 비교, 이웃 나라들과의 국제적 관계에 대해서 폭넓고도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셨다.

지금까지 나는 남북한이 유일한 분단 상태인지 알았는데 다른 분단국가들 가령, 아일랜드, 사이판, 사모아 등도 분단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 강의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고, 독일은 2+4 협정을 통해 그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또 독일의 통일은 독일 내부의 통합 뿐 아니라 유럽의 통합과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교수님은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컸다는 것도 언급하셨다. 끝으로 교수님은 '남북 양국의 관계 정상화'가 통일로 가는 첫 걸음임을 거듭 강조 하시며 강의를 마치셨다.

긴 강의 시간만큼 많은 것을 배우게 된 매우 유익한 강의였다. 이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동북아 통합과 평화의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 또한 통일비용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버리고 통일비용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단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즉, 한 민족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면서 발생하는 긴장, 북한 주민들의 억압된 삶과 굶주림, 빼앗긴 자유, 이산가족들의 고통.... 또 분단으로 인해 다른 나라에 의존하게 되면서 자주성을 잃게 되는 국가의 모습... 현재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그 비용이 대체 얼마이겠는가? 남한 사람들이 통일비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디 분단 상황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주목하길 바란다.

점심식사 후 우리 일행은 통일 이전 동독의 한 도시였던 포츠담으로 이동했다. 개인적으로 이 곳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체칠리엔호프 궁전(포츠담 회전장)이다. 이 곳은 독일의 마지막 황태자인 빌헬름과 그의 아내인 황태자비 세실리에가 머물렀던 곳인데 소련이 점령한 후 포츠담 회담 장소로 사용되었다. 궁 앞에 펼쳐진 잔디 위로 소련을 뜻하는 거대한 붉은 별 모양을 나타내도록 식물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양국이 맺은 협정에 의해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독일의 몫이라고 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복도에는 포츠담 회담에 관련된 사진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궁전의 내부가 매우 잘 보존이 되어 있었다. 배의 내부 모습으로 꾸며 놓은 세실리에의 방을 보면서 바다와 배를 좋아했다던 그녀의 취향을 엿 볼 수 있었고, 책으로 가득한 서재에서는

영문학에 심취했던 빌헬름 황태자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 했다. 황태자 부부가 음악회를 즐기기도 했다던 거실은 소련군에 의해 점령이 된 후 포츠담 회담장으로 사용되어졌다.(한 때 이 거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그들을 생각하니 일본에 의해 나라를 빼앗겼던 조선의 마지막 왕이 잠시 떠올랐다.) 이 거실은 세 개의 문으로 통하게 되어 있는데 세 나라의 수장들이 각각 그 문들을 통해서 회담장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이는 한 문으로 차례로 들어오게 될 때 세 나라 중 특정 나라의 힘이 더 세어 보이는 것을 꺼려한 스탈린이 고안해낸 아이디어라고 한다. 거실 한 가운데에는 모스크바에서 공수해 왔다는 커다란 원형 탁자가 놓여져 있고 그 위에는 영국, 미국, 소련 국기가 탁자 가운데에 꼽혀 있었다. 탁자를 중심으로 세 개의 큰 의자가 놓여져 있었는데, 각각의 큰 의자에는 세 나라의 수장들이 앉았고 그 옆에 각각 작은 의자들에는 통역사 및 국방 장관, 자문 위원들이 앉았다.

가이드의 자세한 설명과 현장에 진열된 사진들은 66년 전의 회담을 마치 눈 앞에서 보는 것처럼 느껴지게 했다. 이 곳에서 승전국과 전후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세 나라의 수장들이 모여 17일 동안 13번의 회담을 열었던 것이다. 독일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전쟁 배상금을 어떻게 뽑아 낼 것인가를 의논하기도 했지만 일본과 그의 식민지였던 한국에 대한 처리 문제도 논의 되었던 곳이다. 히틀러 시대의 종식이 이루어지고 독일의 분단이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에 대한 결정, 한국의 독립도 이곳에서 결정되었기에 이 장소가 특별하게 와 닿았다. 독일 뿐 아니라 한국의 냉전도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지구 반대편의 독일이라는 나라의 작은 도시 포츠담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이라는 기쁜 소식이 들려온 것도 잠시, 거기에 참여한 강대국들에 의해 또한 분단도 되었으니 이 장소는 약소국이었던 '조선'의 희비가 교차된 곳인 셈이다.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내 심정이 어땠는지 차마 글로 다 표현 할 수 없을 것 같다. 60년 전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원통함이 이런 심정이었을까?

셋째 날은 (12월 15일) 아침에 베를린을 출발, 약 3시간 이상 남쪽으로 고속도로를 달려 드레스덴으로 이동했다. 드레스덴은 옛 건물들이 많아 역사가 오래된 도시임을 첫 눈에 알 수가 있었다. 처음 도착한 곳이 드레스덴 츠빙어 타이크 궁전이었는데 웅장하고 화려한 유서 깊은 건물이었다. 건물의 벽은 오래되고 화염에 그을려 검게 된 벽돌과 깨끗한 아이보리 색의 벽돌들이 불규칙적으로 섞여 있어 얼룩덜룩 하게 보였다. 이유인즉슨, 2차 대전으로 인해 파손된 건물의 잔해를 버리지 않고 모아서 없어진 부분에만 새 벽돌을 넣어 건물을 올려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한다. 독일인들의 문화재 보존에 대한 열정과 정성을 말해주는 유물 중 하나였고 이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 생각했다.

오후에는 군사박물관을 가게 되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군사박물관에 가는 것을 좋아하

지 않는다. 온갖 무기들과 인간이 저질러 놓은 갖은 잔인한 일들이 나열 된 것을 보는 것은 유쾌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 박물관은 발을 들여 놓기 무섭게 매우 불편하고 속이 메스껍게 느껴졌다. 유태인의 후손인 건축가가 직접 자신들의 아픈 역사에 관람객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벽과 바닥들을 기울게 하고 불안정한 구도가 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했기 때문이었다. 군복, 깃발, 포스터, 총, 대포 등 1, 2차 대전의 군 진열품들과 나치주의에 관련된 많은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악'의 현장을 둘러보고 나오자 마음이 무겁고 힘이 빠졌다.

넷째 날(12월 16일) 일정에 따라 우리 일행은 드레스덴에서 라이프치히로 이동을 해서 현대사포럼 박물관을 관람했다. 박물관 가이드가 설명을 매우 자세히 잘 해주었고 통일 전후 시대의 유물들이 잘 전시 되어있어서 매우 유익한 장소였다. 인상 깊은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한 군인이 군복을 입고 철모를 쓰고 총을 뒤로 맨 채로 동, 서독의 경계를 뛰어 넘는 사진이 그것이었다. 사진의 주인공은 콘타드 슈만이라는 사람으로 당시 19살의 동독 경찰이었다. 그는 동독 정부로부터 충분한 돈을 지급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택해 목숨을 걸고 서독으로 탈출했다. 자유에 대한 인간의 갈망을 잘 표현해준 사진이었다.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TV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의 영상이 반복 상영이 되고 있었다. 한 정치국원의 말실수로 동독의 자유여행 허가 및 그 시기에 대해 내용이 전파를 타고 세상에 전해진 1989년 11월 9일 저녁에 베를린 장벽 주변에서 촬영된 영상이었다. TV나 라디오에서 그 소식을 들은 많은 동독 사람들이 삼삼오오 짝을 이뤄 베를린 장벽을 향해 걸어가고 상부에서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한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처할줄 몰라 찢찢 매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는 바로 그 영상이다. 장벽 위에 올라가서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 망치로 장벽을 부수는 사람들과 그 밤하늘 위를 수놓는 불꽃들, 이 전에는 통행이 금지 되어있던 동, 서독을 연결하는 어느 다리를 건너면서 한 중년의 여성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자유를 찾았다고 믿는 동독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환호하고 기뻐하는 장면들이 담겨있었다. 나는 TV 앞에 서서 그 영상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보고 또 봤다. 훗날 통일이 된 후 남북한의 모습이 오버랩 되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통일 이전 동독 시민들의 생활 모습과 문화가 담긴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유익한 자료들을 관람할 수 있었다. 마지막 부분에 2+4 협약 문서의 사본이 전시 되어있었는데 지난달 비전포럼에서 강연했던 드미지에르 전 독일 총리가 서명 후에 느꼈던 감동을 언급한 바로 그 문서였다. 그 문서 위에 그분의 서명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로웠고 그 날의 감동이 느껴지는 듯했다.

오후에는 라이프치히 시내의 니콜라스 교회를 방문했다. 고전주의 양식의 웅장한 자태

를 뿔내며 서있는 교회의 내부로 들어가니 기둥에서부터 천장까지 닿는 종려나무 장식이 눈에 들어왔다. 역사가 깊은 곳이어서 그럴까 마음 깊은 곳에 고요한 감동을 주는 곳이었다. 이 교회는 페니히 교수님 강연이나 현대사포럼에서 언급되었던 1989년의 동독의 반정부 평화시위가 시작된 곳이기도 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이 교회에서 평화기도회가 열렸는데 88년부터 정치적 색깔을 지니기 시작했고 89년부터 평화시위로 성격이 바뀌고 ‘월요시위’로 불렸다. 이는 월요일 마다 행해졌던 평화기도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시국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할 것 없이 공산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면서 비폭력적인 시위를 했기 때문이다. 이 평화시위가 독일인들에게 가져다 준 정신적인 파급효과는 매우 컸으며, 결국 당의 독재를 무너뜨리기에 이르렀다.

독일 통일과정에서 교회의 역할이 컸다는 점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이 교회라는 공간에서 공산주의 체제하의 힘든 상황과 여러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동독 시민들이 토론을 하고 정보를 교환했고, 목회자들은 성경말씀에 근거해 비폭력적, 평화적으로 대항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곳에서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 운집되어 밖으로 표출이 되었고 결국 그 힘으로 통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의 교회와 북한의 지하교회의 역할에 대해 작은 소망과 기대가 생기게 되었다. 한반도의 교회들이 통일에 대한 염원에 대한 정의적인 실천을 해나가는데 쓰이기를, 북한 사람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한 데 모아 평화적으로 표출 시키고 두 나라가 하나가 되는 일에 귀하게 쓰이기를 바란다.

마지막 날(12월 17일) 아침, 더 머물고 싶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한국으로 돌아오는 여정 길에 올랐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의 내 옆자리에 어떤 중년의 신사가 앉았는데 알고 봤더니 베를린자유대의 저명한 영문학과 교수(Manfred Pfister)였다. 독일의 통일과정을 배우고 한국으로 돌아간다 했더니, 통일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즉, 공산 치하 동독의 대학들 안에는 영문학과가 없었기 때문에 통일 직후 4년 동안 동독을 오가며 많은 대학들 속에 영문학과를 개설하는데 헌신했다는 내용이였다. 동독의 대학에 영문학과 개설이라니...생각도 못했던 부분이다. 우리도 통일이 되면 민간단체와 정부 차원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북한과 나누게 될 것인데, 이를 위해 독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각 분야에서 치밀한 준비가 되어야 하겠다.

꿈같은 5박 7일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니 일상의 분주함과 고단함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말과제를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일주일을 보내고 가족모임에 참석하고 일을 하느라 떠나기 전과 마찬가지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그 와중에 접하게 된 김정일의 사망 소식에 정신이 번쩍 들어 나의 관심은 다시 ‘남북한이 하나 되는 일’과 관련된 것

들에 집중되었다.

독일에서 배운 통일교육이 내게 남겨준 것은 무엇인가? 통일은 막연한 소원의 대상이 아닌 '현실' 임을 보았고,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복지 시스템이 준비 되지 않은 채 맞이하면 사회적, 경제적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것에서 통일의 당위성을 찾지만, 민족주의가 잘못 사용되면 위험하다는 것도 배웠다. 결국 나는 이전에 비해 통일문제가 복잡하고 쉽지가 않다고 인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전 보다 더욱 더 통일을 바라게 되었고, 특히 동독 도시 방문을 통해 북한의 미래 모습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한반도의 분단 상황과 공산주의에 의해 억압받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말할 수 없이 커졌다.

물론 나 혼자 이렇게 애통해 하고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현실은 금방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부지런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후배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통일에 대해 일깨우는 역할을 조금씩이나마 해나가야 하겠다. 또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도 빼놓지 않고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조선인의 후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禮)'가 아닐까 싶다. 오늘도 나는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 꿈을 꾸다.

독일 통일 연수 개인 보고서

전은진

독일에서의 5박 7일 간의 시간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많이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한 통일을 가깝게 느꼈던 시간이었다. 통일 연수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연수 전에는 통일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과연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통일을 위한 준비과정 그 중심에서 있는 기분이다. 연수를 다녀오기 전에는 통일에 대해서 너무나 정보가 없었고, 같은 나라의 국민이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달라 보이는 북한 국민들과 진정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고, 결국엔 어려울까란 생각이 더 크게 들었었다. 하지만 독일에 가서 통일연수에 참가한 이후에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통일을 올 것이고 또한 꼭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고, 그러기 위해서 하루 빨리 북한과 남한이 힘을 합쳐서 통일 후에 더 행복한 하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 그 과정에서 나와 같은 젊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이렇듯 나에게 매우 큰 영향을 준 독일 연수는 크게 2가지 통로로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였다. 첫째는 통일독일의 모습과 관련된 독일 역사 유적지를 보면서, 통일된 현재의 모습을 실제로 보면서 그 과정을 생각해보는 것이었고, 둘째는 통일을 직접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의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독일에서 일정을 시작한 첫날부터 독일 통일의 흔적을 직접 볼 수 있었는데, 그 곳이 바로 '이스트사이드 갤러리'였다. 이 곳은 과거 동독과 서독의 냉전 당시의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베를린 장벽'을 아름답게 꾸며서 하나의 갤러리로 만든 장소였다. 그동안 그림이나 책에서 베를린 장벽의 모습을 본 적은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깐 기분이 이상했다. 현재는 그냥 하나의 벽이자 조형물일

뿐인데 과거에는 이 벽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짠했다. 이 장벽을 넘어서 자신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또 더 많은 자유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하니 참 안타까웠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휴전선이 연상되었다. 우리나라의 휴전선은 물론 단순한 장벽이 아니라 독일에 비해 굉장히 먼 구간이 떨어져 있고, 또한 통일 후에 바로 다닐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지뢰 제거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참 안타까웠다. 하나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져서 서로 오고가지도 못하고 적대적으로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 현실이 속상했다. 하지만 지금 독일이 과거의 장벽을 아름답게 꾸미고 평화를 꿈꾸는 각가지 그림들로 알록달록 아름답게 장벽을 장식해 놓은 만큼 남과 북도 언젠가는 휴전선이 과거의 기억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소망도 생겼다.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를 보고 간 곳이 ‘체크포인트 찰리’였다. 그 곳에는 물론 지금은 진짜 군인이 아닌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일부였지만, 미군의 모습도 보였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검문소의 모습이 보존되어 있었다. 지금은 그 주위가 많은 가게들이 즐비한 상점가이고 전혀 군사적 긴장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과거에는 그곳에서 검문을 받아야만 서독에서 동독으로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지금과 과거의 분위기가 얼마나 달랐을지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거리를 가다보면 바닥에 베를린 장벽이 있었던 장소라는 표시가 있는 곳들이 있었는데, 그걸보니 정말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반으로 갈라져 있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베를린에서 신기했던 것이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분위기의 차이였다. 일단 가장 크게 느껴졌던 차이는 건물의 모습이었는데 동베를린의 건물이 딱딱하고 획일적이고 무채색의 건물인 반면, 서베를린은 좀 더 모습이 다양하고 따뜻한 색감을 가진 건물들이 많았다. 그걸 보면서 만약 우리가 미래에 통일을 한다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운전하고 가면서 창 밖의 풍경도 참 많이 다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외적인 모습이 많이 다른 이면에 더많은 내적인 차이점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씩 서서히 서로의 닮은 점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독일 연수 첫 날의 마지막 방문지는 ‘브란덴부르크 문’이었다. 브란덴부르크 문은 독일에 관한 동영상이나 책을 볼 때 많이 보았던 문이었는데 실제로 보니 참 신기했다. ‘브란덴부르크 문’을 볼 때는 밤이었는데 주위의 조명과 어우러져서 더욱 운치있게 느껴졌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당시 많은 시민들이 이 문을 통과했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벅차 올랐다. 이 문이 동독과 서독이 분단되었을 당시에는 동독의 소유에 있었고, 문 위 쪽에 있는 ‘승리의 콰드리가’가 분단 당시에는 머리를 동독 방향으로 틀고

있었는데, 후에 동독이 서독 쪽으로 머리를 돌려서 좀 더 공격적으로 보이게 했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 설명을 듣고 동독과 서독이 당시 얼마나 적대적인 관계였는지를 느낄 수 있었고, 혹시 북한에도 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보여주기 위해서 문화제 등을 바꾼 사례는 없는지 궁금했다.

다음 날에는 포츠담으로 이동해서 여러 역사적 장소를 둘러보았다. 포츠담 지역은 구 동독 지역이었는데 베를린과는 좀 다른 분위기였다. 일단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빈 집도 많았고, 도시의 분위기도 사회주의 시대의 건물들 때문인지 조금 더 우중충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 모습이 20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나아진 모습이고 최근에 더 나아지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통일 후의 우리는 어떻게 북한 지역을 발전시켜서 사람들이 남과 북에 고루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함을 느꼈다. 포츠담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소는 '포츠담 회담장'이었다. '포츠담 회담'은 어렸을 때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세계질서를 모색하기 위해서 연합국의 수뇌부들이 모여서 했던 회의라는 것을 배웠었는데, 그 회담을 했던 역사적인 장소를 실제로 보고 그 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도 함께 듣게 되어서 참 좋았다. 이 곳에서 독일의 운명도 결정되고 우리나라의 운명 또한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니 조금 씩씩했다. 물론 역사에 가정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 그 당시에 미국, 소련, 영국이 다른 결정을 했다면 우리는 분단되지 않고 계속 하나의 나라로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다. 회담장 내부에서 가장 신기했던 것은 각 국의 대표마다 출입구가 다르고 그 이유가 3명이 모두 동시에 회의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당시 팽팽했던 세 나라간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날인 15일에는 드레스덴 지역을 방문했다. 드레스덴은 구 동독 지역이지만 빠른 발전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손꼽힌다고 해서 기대가 되었다. 역시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생기있게 느껴졌다. 드레스덴의 특이점은 건물들이 대부분 모두 그을렸다는 사실이었다. 즉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엄청나게 많은 폭격으로 대부분의 건물들이 파괴되었는데 이를 재건하면서 모두 새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파편들은 다시 사용하면서 건물이 과거 불에 탄 흔적들을 고스란히 갖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과거를 바라보는 독일인들의 시선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아픈 과거를 숨기고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계속 그 당시를 기억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하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드레스덴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소는 '군사박물관'이었다. 이 곳은 구조 자체가 평평한 것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한 곳도 있고 내부도 약간 미로같이 지어졌는데, 이 또한 독일인들의 전쟁에 대한 아픈 추억들을 보여주

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다. 내부에는 히틀러의 포스터를 포함해서 과거 독일 군대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16일에는 ‘라이프치히’에 갔는데 여기에서는 ‘현대사포럼’을 방문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 곳에서는 직접 독일 통일과정의 동영상과 책, 그림 등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동영상은 동독의 군인이 당시는 장벽까지는 아니었지만 국경 지역을 넘어서 서독으로 들어오는 것과 형제가 동독에 있는 다른 형제를 데려오기 위해 직접 비행기를 만들어서 목숨을 걸고 형제를 데려오는 장면이었다. 여기에서는 직접 통일 당시 분위기와 독일의 현대사를 느낄 수 있었고 통일이 결코 우리와 완전히 동떨어진 일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독일에서 여러 통일과 관련된 역사 유적지를 직접 보는 것도 정말 흥미로웠지만, 통일의 현장에서 이를 경험하신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일도 정말 재밌었다. 먼저 방문했던 곳은 ‘연방내무부’였는데 여기에서는 독일 통일 후 독일이 어떻게 발전해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 물론 통일 후 2~3년은 경제사정도 어렵고 혼란도 많았지만 약 20년이 지난 지금 독일의 모습은 과거에 비해서 더욱 부강해지고 튼튼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아직도 교육 문제나 서독과 동독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꾸준히 노력한다면 점차 동독과 서독의 간격도 더 좁아지고 완전한 하나의 국가가 되는 일도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북한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통일을 원하겠느냐?’는 질문이었다. 이 질문을 듣는 순간 굉장히 놀랐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으나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통일이 누구를 위한 통일이었는가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었고 너무나 큰 문제를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서 부끄러웠다. 통일을 ‘어떻게’ 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통일 한국을 만들것이나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별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이 참 부끄러웠다. 의례적으로 통일을 하면 당연히 지금 남한과 같은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좀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모습을 갖는다고 생각했는데, 강연을 들으면서 동독 사람들은 과거의 사회주의 국가가 모든 것을 가족처럼 해주던 때에서 갑자기 개인적이고 경쟁적인 체제로 들어오다 보니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셨는데 이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었다. 과연 북한 사람들은 어떤 통일 한국을 원하는가? 남한과 북한은 동독과 서독보다 서로 더 먼 국가 체제 속에서 살고 있다. 서독이 사회민주주의로 복지를 중시하며 보다 큰 정부 모습을 하고 있었고 동독은 그나마 주위 동구권 국가들에서 민주화 바람도 들어오고 서독과 교류도 가능했기에 둘 사이의 차이는 남한과 북한에 비해서

크지 않았음에도 지금 동독 주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비해 복지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더 중시하는 남한과 동독보다 훨씬 더 폐쇄적인 좀 더 극단적인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살고있는 북한이 만나다면 어떤 혼란이 발생할까? 과연 북한 주민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경쟁체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또한 이런 자유를 진정 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 같다. 아직까지 대다수의 탈북자의 탈북 이유가 정치적 동기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한 것때문이라는 것을 보면 통일 한국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는 보다 많은 생각이 필요하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북한도 좋아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통일을 진행하는 것은 결코 하나의 국가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많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서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고 이를 조정하면서 통일 한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보면 남한과 북한 사이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낄 수 있다. 서로 간에 대화나 교류가 없으면 서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진정으로 알 수가 없다. 그럼으로 꾸준히 대화하고 상호 교류하면서 남한과 북한 사이의 마음의 거리도 줄이고 현실적인 거리 또한 줄여가야 한다. 만약 이런 과정이 없이 갑자기 어느 날 통일이 된다면 이는 정말 큰 ‘혼란’ 일 것이다. 남한과 북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다르게 살아왔고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지니고 있기에 준비없이 함께 사는 것은 서로에게 상처만을 줄 뿐이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준비’의 중요성과 그리고 ‘우리는 어떤 통일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함을 느꼈다.

두 번째 강연은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베르너 페니히 교수님의 특강이었다. 이 특강에서는 교수님께서 독일의 역사를 짚 말씀해주시면서 얘기해주셔서 굉장히 귀에 쫄쫄 내용이 잘 들어왔다. 이 특강을 들으면서는 독일과 우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었고 ‘통일비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는 그 ‘비용’에 관한 것이다. 통일을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결국은 부정적인 논의로 끝이 난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서 적선을 해서 키워준다는 접근을 했을 때 나오는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즉 남한과 북한이 함께 하나의 국가를 만든다는 동등한 입장에서 나오는 결론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한 북한을 구해준다는 그런 불평등한 입장에서 나오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통일’보다는 남한의 일방적인 ‘병합’에 그친다. ‘통일’을 하면 과연 그 혜택이 북한에게만 오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통일을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통일’을 하면 함께 더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원하고 꿈꾸는 것이다. ‘통일’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통일을 하면 단기간에는 남한에서 굉장히 많은 지출이 필요하고 이는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길게 보면 우리가 지금 분단을 위해 쓰고 있는 엄청난 돈의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장기간으로 보면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통일을 하면 우리는 더 큰 정치력을 국제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다. 지금은 미국의 군인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이것이 한국이 외교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통일을 한다면 미국의 영향력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핵의 공포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핵 없는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좀 더 중립적이면서도 양쪽과 모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아가서는 양쪽을 중재할 수 있는 교량의 역할도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통일=돈'이라고 연결시키는 것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역사적인 면에서도 당연히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갈라진 하나의 나라가 다시 통합을 하는 일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강연을 들으면서 '통일비용' 보다는 '통일 효과'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생각은 '할 수 있다!'이다. 통일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독일의 경우도 물론 그 전에 동독과 서독 사이에 교류의 물꼬가 트고 있었지만 그래도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통일을 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통일에 대해서 지속적인 탄탄한 준비를 해야만 한다. 준비가 하루 늦어질수록 통일 후에 우리가 겪어야 할 혼란이 하루 더 늘어간다는 생각으로 '통일 한국'을 대비해야 한다. 이번 연수에 참여하면서 통일을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분야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느꼈다. 지금 우리의 너무나 일상적인 생활 때 순간이 통일을 한다면 모두 엄청난 차이점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통일 전에 충분히 차이점의 간격을 줄이고 많은 공통점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꾸준하고 진실된 '대화와 협력'이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꼭 필요하다. 5박 7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통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서 즐거웠고,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통일된 하나의 한국에서 남한과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